

2024년도 국정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록

국회사무처

피감사기관 대한체육회|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대한장애인체육회|태권도진흥재단|한국체육산업개발㈜|스포츠윤리센터

일시 2024년10월22일(화)

장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

(10시04분 감사개시)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와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하여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 및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등 관계자 여러분께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국정감사 대상인 6개 기관들은 학교체육·생활체육·전문체육의 활성화, 경륜·경정 투표권사업 등을 통한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 태권도 진흥, 장애인의 스포츠 복지 환경 조성, 체육시설 관리와 스포츠산업 활성화, 체육인의 인권 보호와 공정성 확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육단체의 부적절한 운영 문제, 스포츠계 인권침해와 비위 문제, 스포츠 소외 계층 지원과 체육인 복지 문제, 부족한 공공체육시설의 확대 등 해결해야 할 다양한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국정감사가 각 기관의 정책 및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발전적인 대안을 함께 모색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님을 비롯한 각 기관장들께서는 성실한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 및 서류제출 요구 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는 국회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될 예정이라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기관증인들의 증인 선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출석한 기관증인은 총 열한 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는 국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훼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기관증인들의 선서는 10월 24일로 예정된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종합감사 등에도 유효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께서는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선서, 본인은 국회가 대한민국헌법 제61조, 국회법 제127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체육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홍

사무총장 윤성욱

사무부총장 김종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

전무이사 박용철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진완

사무총장 양충연

태권도진흥재단

이사장 김중현

사무총장 이종갑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신치용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박지영

○**위원장 전재수** 증인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감사 대상 기관들의 업무현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업무보고 자료가 사전에 각 의원실에 전달되었고 감사시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받고 나머지 기관들의 업무보고는 위원님들 노트북 단말기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님 나오셔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존경하는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재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홍입니다.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체육 발전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기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욱 사무총장입니다.

다음은 김종수 사무부총장입니다.

(인사)

다음은 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배포해 드린 보고서를 바탕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8쪽 주요 업무 추진현황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 생활스포츠 참여 확산입니다.

국민의 생애주기 스포츠활동 지원을 위해 유아, 청소년, 성인,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체육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역 기반 스포츠 접근성 개선 등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신나는 주말체육학교, 학교스포츠클럽대회, 학교운동부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추진하고 있으며 생활체육 현장에서 혁신하고 있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소외계층의 스포츠 활동 참여 확대를 위한 사업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13쪽 선진 스포츠 환경 조성입니다.

생활 및 전문스포츠가 연계된 스포츠클럽 육성을 통해서 선진형 체육시스템 기반을 구축·확장하고 있으며 대회 운영시스템을 통합하여 관리체계의 효율화를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체육인 대상 첫 교육·연수시설로 활용될 대한민국 체육인재개발원이 올해 말 건립될 예정이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17쪽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입니다.

지난 1월 아시아 최초 동계청소년올림픽인 2024 강원동계청소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였고 8월 파리올림픽에서는 최소 인원의 선수단으로 종합 순위 8위, 최다 금메달 타이기록을 세우며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스포츠 강국으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의 국제스포츠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올림픽의 수도 스위스 로잔에 국제 스포츠협력사무소를 올해 4월 개소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국제스포츠기구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 그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책임경영으로 국민 신뢰 제고입니다.

대한체육회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체육단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수 인권 존중 및 체육단체의 비리 예방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체육계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선수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선수들이 안전하고 공정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마련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체육계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총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서 말씀해 주시는 사항은 대한체육회 운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나오셔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기관 임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용철 전무이사입니다.

(인사)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은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를 기념하고 국민체육 진흥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1989년 4월 20일에 설립된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입니다.

다음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금년도 우리 공단의 업무현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현황, 2쪽 국민체육진흥기금 운용계획은 유인물로 대신하고 3쪽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3쪽과 4쪽, 기금조성사업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조성은 주로 체육진흥투표권과 경륜·경정사업 수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체육진흥투표권사업은 2024년에 매출 목표를 6조 2957억 원으로 설정했으며 기금 조성 목표는 1조 9348억 원입니다.

체육진흥투표권의 안정적 성장과 상품성 제고를 위해 신규 상품 개발, 발매 대상 리그의 확대, 발매 마감시간을 변경하였으며 주최단체 및 경기단체별 구매환급 제한 대상자 등록 확대, 건전 캠페인 활성화 등을 통해 건전성 제고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5쪽부터 8쪽까지 스포츠진흥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의 기금조성사업을 통해 조성한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그리고 스포츠산업 등 스포츠 전반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기금 지원계획은 총 1조 5212억 원이며 8월 말 기준으로 1조 2928억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 주요 사업별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체육센터,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원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과학적 체력 측정과 운동 처방을 하는 국민체력인증사업,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스포츠활동 인센티브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스포츠 복지 취약계층인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이 스포츠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스포츠강좌 이용권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스포츠 복지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쪽입니다.

올림픽과 스포츠의 가치를 확산하고 체험교육 제공을 위해 진주 스포츠가치센터를 지난 23년 말 건립하였으며 시범운영 단계를 거쳐서 현재 시설을 본격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 육성지원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체육진흥공단은 스포츠산업 용자제도를 통해 민간체육시설, 체육용구 생산업체, 스포츠 서비스 업체를 지원하고 기준 대출금의 이자를 일부 보전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쪽입니다.

융자 지원 이외에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잠재력이 높은 스포츠기업을 발굴하여 사업 고도화와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선도기업 육성사업도 성실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0쪽입니다.

4차 산업 핵심기술의 스포츠 분야 도입 및 적용을 통한 스포츠 발전과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초등학교 및 공공시설 대상 가상현실 스포츠실 보급, 첨단기술 기반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사업, 스포츠기업의 기술사업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11쪽 체육인 복지사업 및 체육지도자·인재 육성사업입니다.

저희 체육공단은 작년 체육인 복지 전담 기관으로 지정된 바가 있으며 체육인의 경기력 향상과 복지를 지원하고 은퇴 이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복지후생금, 보험지원금, 원로체육인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체육지도자 자격관리 및 양성을 통해 국민들이 양질의 교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우수 교육콘텐츠를 제공하고 국제심판 배출 교육을 강화하는 등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2쪽입니다.

역대 가장 성공적인 올림픽으로 평가받는 제24회 서울올림픽대회의 기념사업과 올림픽 공원의 세계적 명소화 노력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림픽 레거시인 올림픽 공원 내 경기장 시설물을 생활체육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고 있으며 다양한 공연 개최를 통해 K-컬처 확산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13쪽입니다.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보존, 연구를 위한 국립스포츠박물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25년 내부 전시공간 조성을 통해 2026년 정식 개관할 예정입니다. 개관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4쪽입니다.

스포츠과학·정책·산업 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스포츠과학 발전, 국가 체육 정책 지원, 스포츠산업 진흥을 뒷받침하고 연구성과 확산과 공유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하 참고자료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체육공단의 모든 임직원들은 국정감사에 성실히 임할 것이며,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조언들을 바탕으로 사업들을 재점검하고 개선하는 등 향후 체육공단 경영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진완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님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현안 중심으로 간략하게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안녕하십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입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첫 국정감사에 참석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저희 기관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충연 사무총장입니다.

(인사)

대한장애인체육회는 2005년 창립 이래 지난 20년간 장애인스포츠 활성화 기반을 조성하여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고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패럴림픽 등 국제스포츠 무대에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배포해 드린 자료를 바탕으로 2024년도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배포해 드린 자료로 대체하고 6쪽부터 주요 업무 추진현황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장애인 생활체육 환경 조성 확대입니다.

생활체육 참여 환경 조성을 위해 초기 참여자를 대상으로 각종 유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전국에 장애인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반다비체육센터 등 지역 인프라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다양한 계층 및 장애유형·생애주기를 고려하여 생활체육교실·클럽·대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으며 초중등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체육교실을 확대하고 학교체육 시설을 개방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체육 인터넷 TV 중계와 체험 프로그램인 드림패럴림픽 운영을 점차 확대하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장애인스포츠 가치를 확산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9쪽 장애인 전문체육 기반 강화입니다.

종목별 리그전을 통해 전문체육 기반 강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있으며 경기 중계와 후원사 확보를 통해 리그전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스포츠 등급분류 체계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등급분류사의 양성을 확대하고 시스템을 체계화하고 있으며, 상임심판제도 운영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인적 기반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10쪽 국가대표 스포츠의과학 훈련 지원입니다.

파리패럴림픽을 대비해 5개 우수 종목의 선수를 대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지원하였으며 그 결과 지원한 5개 종목에서 모두 메달을 획득하는 성과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의 협업과 전문장비를 통해 스포츠과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으며 입촌 선수단을 대상으로 의료서비스와 헬스키퍼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선수 발굴을 위해서는 기초종목 육성을 강화하고 꿈나무·신인선수에 대한 훈련 여건을 개선하고 있습니다.

12쪽 장애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민의 성원과 국회, 정부의 지원으로 지난 파리패럴림픽에서 금메달 6개 등 총 30개의 메달을 획득하여 종합 22위의 순위를 기록하여 당초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관심과 지원에 감사드리며, 오는 12월에 개최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농아인경기대회에서도 우수한 성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국제스포츠 선진국 위상 강화를 위해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협력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활발한 국제스포츠 교류를 통해 2025년 IPC 정기총회의 국내 유치에 성공하였습니다. 내년도 IPC 정기총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대한민국의 위상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3쪽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스포츠 시스템 혁신입니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은퇴선수 취업 지원과 민간기업 장학금 유치 등 장애인체육인 복지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실업팀 지원으로 선수들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고 시도 인권교육 지원과 권역별 인권감수성 향상 캠프, 상담 지원 등을 통해 장애인스포츠 인권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금년부터 2026년까지 3년간 차세대 장애인체육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일반 국민과 장애인 체육인을 위한 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업무현황에 대해 보고드렸습니다. 보고드린 내용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국정감사장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이정우 체육국장, 송윤석 체육협력관이 배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질의에 앞서 조현재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이 서울올림픽레거시포럼 개막식 개최를 사유로 12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이석을 요청하여 위원장과 간사 위원님들 간 협의를 거쳐서 이를 허가하였다는 점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자료 요청……

○위원장 전재수 자료 요청? 예.

○박정하 위원 저희가 국감을 준비하면서부터 체육회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한 게 있는데 이 중에 세 가지 경우는 전혀 자료제출이 안 되고 협조가 안 됩니다.

첫째 하나는 금년 2024년도 파리올림픽 참관단 항공료 개인 납부처리 증빙 자료, 구매한 티켓 이런 것을 제출 요구했는데 개인정보니, 그다음에 12억 원 정도가 들어갔는데 구매한 티켓을 어떻게 배포했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고 자료제출이 없었고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아시안게임 당시 참관단 운영을 위한 찬조·기부금 명단과 현황, 예산집행 내역 및 결산보고 여부 그다음에 관계 자료 일체를 요구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도 아직 자료가 안 오고 있습니다.

2018년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참관단 운영에 쓴 예산집행 내역과 LH와의 공문 수발신 내역 자료 일체를 요구했습니다만 결산보고가 있었는지, 자료가 지금 있는지에 대한 답도 없고 일체 자료가 안 옵니다.

위원장님, 이따 오후 질의까지 자료 요청을 요구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대한체육회장님, 가능하시겠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오늘 오후까지는 좀 불가능합니다, 현재 상황이. 왜냐하면 지금 조사를 하도 여러 군데서 하고 중복적으로 돼서, 인원도 적고, 이게 지금 불가능합니다. 2018년 평창 티켓 이것은 가능할 겁니다, 근간의 자료이기 때문에.

○위원장 전재수 체육회장님, 자료를 지금 제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전에, 꽤 오래 전에 자료제출 요구를 했을 텐데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지금 올림픽 갔다 와서 전국체전을 하고 또 국회, 언론, 총리실, 감사원, 여러 군데서 중복적인 조사라든지 이런 게 있어서 또 날짜도 오래된 거라서 자료가 지금 없는 것도 있습니다. 최대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회장님, 최대한 준비를 하시고 부족한 부분은 박정하 위원님께 따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맞춰서 해 드릴 겁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기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이기현입니다.

다 기억하시겠지만 9월 24일 날 저희 위원회에서 체육회에 관한 그리고 축구협회·배드민턴협회에 대한 현안질의가 있었습니다. 당시 증인으로 참석했던 이임생 대한축구협회 기술총괄이사에 대해서 위증 혐의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임생 이사는 그날 저희 현안질의 자리에서 7월 5일 날 있었던 감독 면담은 홍명보 감독과 본인 들이서 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홍명보 감독도 그 자리에서, 아주 작은 뺨집이었고 칠판 평밖에 되지 않는 곳에서 희미하게 불 켜 놓고 얼굴은 알아볼 수 있는 상태에서—이임생 이사 진술입니다만—그렇게 둘이 면담했다라고 얘기했는데 두 분만 있었던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최영일 협회 부회장의 녹취가 공개됐습니다. 그날 밤 그 작은 뺨집에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사 외에 최영일 협회 부회장이 있었던 것이 확인됐습니다. 최영일 부회장의 진술이 있었고요. 그래서 두 분이 독대했다는 이임생 기술총괄이사의 진술은 위증으로 드러났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허위 증언을 한 이임생 이사를 국회 증감법상 위증의 혐의로 고발해 주실 것을 위원장님께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기현 위원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면 국정감사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위증이라든지 또는 합의된 증인의 불출석 문제 등 종합해서 위원회 차원에서 엄중하게

대처해 나가는 방안을 함께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현진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본 위원이 대한축구협회 감사를 준비하면서 정몽규 회장의 대한축구협회 사유화에 대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재 대한축구협회의 대의원인 36명의 직무현황에 대한 자료를 축구협회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축구협회 측에서 현재 시도 체육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는 36명의 직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고 알지 못한다라는 답변을 해 왔고, 이를 문체부가 알고 있나 문체부로부터 자료를 저희가 확인하기 위해 문체부에 요청했으나 역시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해, 뒤늦게 아주 미진한 4명의 자료만을 확인하는 그런 아주 미진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저희 문화체육관광부든 축구협회든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위원장님께서 오늘 오후 질의가 있기까지 전체 축구협회 대의원들의 개인, 구체적인 회사명 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직무범위 안에 지금 속해 있는지 그 사항들을 모두 기입해서 제출하도록 지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축구협회 관계자들은 지금 배석을 안 하고 있지요?

문체부 체육국장님, 조금 전에 배현진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자료들 대한축구협회에 전달하셔서 오후 국정감사까지 최대한 자료 성실하게 제출해 달라는 말씀을 우선 전달을 하시고요. 가능하겠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전달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김승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수 위원 오늘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했던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이 건강상의 이유로 또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박정하 간사께서 증인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지난 9월 24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현안질의 때 제가 출석 요구를 했었고 그때도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그때와 지금의 사유가 동일합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런데 내용을 보면 전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 당시에 불출석했던 진단서인데, 그 당시에는 9월 2일 날 서혜부 탈장에 따른 수술을 했고 한 10일 정도 가려가 필요하다고,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던 진단서가 9월 19일 날 저희한테 제출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사유로 똑같은 병원에서 다시 진단서를 첨부해 제출했었는데 이미 한참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회복을 위해서 2·3주간의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진단서가 나왔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전에는 10일만 필요하다고 그런 것이 한참 더 지났는데 더 추가적인 안정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술진단서를 발급한 기쁨병원의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가 봤더니 여기가 이 수술의 전문병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선전을 많이 해 놨는데, 수술 환자의 42.6%가 바로 다음 날 출근한다고 자기들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수술하면 월요일 날 출근하는 비율이 무려 70%가 넘고 있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선전이 맞다면 지금 김병철 위원장 같은 경우 이건 완전히 뭐 의료사고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병철 위원장의 상태가 맞다면 이 병원이 진짜 과장광고를 하고 있는 거고 의료사고를 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진단서가 터무니없는 진단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포츠공정위원장 김병철 위원장을 우리가 증인 요청했던 것은 이분이 지금 이기홍 대한체육회장 취임 이후에 특보를 거쳐 가지고 2017년도부터 계속 스포츠공정위원장은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기홍 회장 취임 전에는 연임 승인율이 22.2%에 불과했는데 이분이 스포츠공정위원장을 맡으면서 무려 90% 이상으로 승인율이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의 3선 연임을 승인한 이후에 정몽규 회장 소유의 골프장에서 접대 골프했다는 사실까지 저번에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혹들을 밝히기 위해서 꼭 출석이 필요한 만큼 위원장님께서 우리 증감법 6조에 따른 동행명령권을 발동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병철 증인에 대해서는 사전에 우리 위원회에 불출석사유서가 제출이 됐습니다만 현재 행정실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오후 증인 신문이 이루어지기, 그 시간에 아마 출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불출석하게 될 경우에는,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여야 사이에 합의된 증인에 대해서는 불출석하게 될 경우에 위원회 차원에서 가장 강력하게 엄중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아주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선거규정을 보면 후보자 등록할 때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습니다. 김택규 현 회장이 오늘 오후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을 하는데 증인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좀 파악을 해 보고, 특히 지난번에 저희들이 현안질의할 때 보니까 좀 특별한 말씀들을 자주 하셔서 이분의 기본적인 양력이라도 좀 알아야겠다 싶어서 후보자 등록 때 제출한 서류 일체를 보내 달라고 제가 9월 26일에 했는데 아직까지도 아무런 답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배드민턴협회는 안 계시지만 이정우 체육국장님이 하시든 누가 하시든 간에 출마 당시의 제출 서류 이것이 있어야, 나중에 증인 신문을하거나 질의를 할 때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 기본적인 자료를 안 보내 주고 있습니다. 좀 요청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체육회장님, 체육회에서 배드민턴협회에 전달을 하셔서 민형배 위원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이 없기 때문에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되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7분으로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서에 따라서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한국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님, 숭실사이버대학교 상근교수로 있는 정희영 부회장 아시지요? 잘 아시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정희영 부회장은 자신이 교수로 있는 숭실사이버대학교를 통해 서울시장애인체육회로부터 수의계약 및 일반 용역계약을 체결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자신의 제자 서류 심사위원으로 두 차례나 참석해서 관여했다는 제보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현 사무처장 있지요? 누구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이장호 사무처장이십니다.

○**조계원 위원** 이장호 사무처장은 관용차량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 그리고 직원을 휴일 날, 자신이 휴가를 낸 날 관용차량을 유용할 뿐만 아니라 수행기사로서 하루 종일 대동하고 부려 먹은 그런 의혹도 있거든요. 관련해서 좀 질의드리려고 합니다.

정희영 부회장이 소속된 숭실사이버대학교와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간에 몇 차례에 걸친 용역계약 건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언론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화면에 보시다시피 서울시장애인체육회의 연구용역 발주현황을 보면 3건의 수의계약이 있었고 이 모든 것들이 숭실사이버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주를 하더라고요. 그렇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첫 번째 것은 아예 처음부터 정희영 부회장이 연구책임자까지 맡으셨더라고요. 사실이 맞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언론을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게 올바른 상황인가요 아니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조금……

○**조계원 위원** 바로 잡아야겠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현재 지금 감사원에서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계속해서 올해 1월에 서울시장애인체육회 계약직 직원 채용이 있었는데 이 채용 과정에서도 특혜 의혹이 있었다는 제보입니다. 특혜를 받은 당사자는 정희영 부회장의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자의 합격을 위해서, 처음에 이 제자가 2024년 1월 26일 1차 서류심사에서 탈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2차 모집을 하면서 서류심사 커트라인을 하향 조정을 하더라고요. 서류·면접심사 만점에 100분의 70이었는데 100분의 60으로 낮췄는데 이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지금 보고만 받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 직원이 합격을 했는데 면접 과정에서 정희영 부회장이 참석한 건 알고 있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지금 계속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화면 좀 띄워 주실래요?

계약직으로 합격을 했었는데 다시 이분을 정규직으로 또 면접을, 일반직 9급 정규직으로 다시 합격 처분하는데 이 경우에도 정희영 부회장이 서류심사에 다시 관여를 하더라고요. 이것 명백한 이해충돌 아닙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렇게 해서 결국 특혜 의혹의 대상자는 정규직 채용에서 22명 중에 1등으로

통과를 하게 됩니다. 명백한 채용비리 아니겠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서울시에서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채용비리는 사회적으로 분노와 국민의 공분을 사는 범죄입니다. 특히 청년들에게 크나큰 좌절과 실망감을 안겨 주는 범죄행위입니다. 이 사실 좀 철저히 조사해주시고 사안에 따라서 형사고발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이장호 사무처장의 관용차 사적유용 건을 보면 이분이 9월 2일 날 휴가를 내고 경기도 여주에 있는 솔모로CC라는 곳을 갔더라고요. 휴가 가고 골프장 가는 거야 개인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본인의 휴가 중에 본인이 골프하러 가는데 관용차를 이용했어요. 이 사실을 혹시 들으셨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아니요, 그것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때 당시에 정상 근무해야 될 수행직원까지도 대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수행직원은 새벽 4시 20분부터 오후 5시 20분까지 무려 13시간 동안이나 사무처장의 자택에서 골프장 이동 그다음 다시 골프장에서 사무처장의 자택까지 이동하는 그리고 다시 본인의 사무실까지, 개인의 운전기사 노릇을 한 것입니다. 명백한 문제가 있는 거지요?

화면 한번 띄워 주십시오.

운행일지에도 그 기록이 돼 있더라고요. 솔모로CC 보이시지요, 세 번째 칸에 있는데?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조계원 위원** 사실관계도 분명히 확인이 된 것 같습니다. 맞지요?

자신의 위치와 직위를 이용해서 직원을 마치 머슴 부리듯이 부려 먹고 그렇게 한 사실이 확인되는데 어떻게 조치하실 겁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지금 서울시가 조사를 하고 있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 기관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회장님, 자신의 위치와 직위를 이용해서 불공정한 편법을 사용하거나 사리사욕을 채워서는 안 되겠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조계원 위원** 이 문제 엄정하게 따져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치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스포츠윤리센터 나오셨습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조계원 위원** 이 문제 방금 들으셨지요? 조치하시겠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조계원 위원** 장애인체육회와 공조해 가지고 명확하게 사실 확인하고 조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조치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알겠습니다.

- 조계원 위원** 다음으로 이기홍 체육회장님, 대한테니스협회 주원홍 회장 잘 아시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 조계원 위원** 왜 그렇게 싸우십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싸우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연맹의 채무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연맹의 채무 문제가, 그러니까 2015년에 테니스협회가 육사 코트 리모델링 및 위탁운영사업을 진행했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 조계원 위원** 30면 규모의 대규모 테니스코트장이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 조계원 위원** 그리고 그때 당시 미디어월의 자금이 30억 원 투자되었고 거기에 대해서 운영권을 갖다가 할당하는 문제로 협의가 돼서 진행이 됐는데 당시 주원홍 지금 현 회장 시절에 계약이 돼서 진행이 됐는데 주원홍 회장이 탈락되고 나서 후임 회장에 의해서 이 계약이 무효화 되었고 결국 소송에서 테니스협회가 지게 되었고 테니스협회는 사실상 빚더미에 앓게 되고 그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 문제 때문에 체육회가 7월 9일 날 관리단체 지정을 하게 된 거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 조계원 위원** 그런데 신임 주원홍 회장 체제가 선거를 통해서 당선이 되었고 당시 미디어월은 협회의 잔여 채무 탕감 약속도 이미 공증을 통해서 제출한 것으로 아는데 왜 대한체육회에서는 관리단체 지정을 해제하지 않았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것은 견해가 다릅니다. 지금 채무를 현재라도 완전하게……
- 조계원 위원** 공증을 통해서……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닙니다. 그게……
- 조계원 위원** 공증이 됐고 현 회장의, 미디어월이 공증을 통해서 했고 대한체육회는 다른, 특히 회장님의 사적 관계에서……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닙니다.
- 조계원 위원** 주원홍 회장과의 관계에서 그걸 해제하지 않았느냐, 해제를 풀지 않고 있지 않느냐 그런 의혹이 있는 겁니다.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설명이 좀 깁니다마는 법원에서 이 가처분도 관리단체를 지정한 것이 잘못됐다는 의견이고……
- 조계원 위원** 아니, 10월 15일 날 법원에서 잘못됐다는 가처분 결과 나왔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 조계원 위원** 지금 관리단체 지정 해제한 것 아닙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닙니다. 법원의 판단은 관리단체를 지정하는 절차적 하자를 지목한 것이지 관리단체는 다시 지정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판시를 하셨습니다.
- 조계원 위원** 관리단체 지정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서 인용 처분을 내렸는데……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닙니다. 그 내용이 아닙니다.
- 조계원 위원**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감사장에서 만약에 한 치라도 위증이 발생할 경우에는 책임을 묻게 된다는 것 알고 계시고 정확하게 답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채무부존재확인서를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게 오면 저는 즉시 모든 절차를 중지할 겁니다.

○조계원 위원 대한체육회……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테니스협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하지요, 가맹단체인데?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지금 대한체육회는 문화체육부와 관련해 가지고 독립성과 자율성을 인정해 달라, 그것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가스포츠위원회 만들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왜 문체부와의 관계에서는 그렇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얘기하면서 법적으로 정관상에서 명확하게 규정된 체육회 산하단체에 대한 독립성과 자율성을 무시하는 겁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렇게 안 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것을 해결할 생각은 없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관리단체에 나가 있던 직원도 법원의 판결이 되는 날 그날 다 돌아오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돌아왔고 지금 현재도 테니스연맹에다가 이 문제만 확실하게, 채무부존재확인서만 오면 우리는 바로 정리한다라는 것을 문서로 이미 통보를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채무부존재확인서만 오면 확실하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조계원 위원 그런데 지금 이미 공중을 통해서 말소하겠다는 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닙니다. 그것 저희가 보기에는 좀 부족하다 이런 판단이 있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지금 현 회장이 고문으로 있었던 회사 아닙니까, 미디어월이?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러니까요.

○조계원 위원 그 회사가 공중까지 해서 확약을 했는데 그걸 못 믿겠다고 하면서 관리단체 지정 해제를 못 하겠다 이건 명백하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약속을 한 달 시간을 줬는데도 해결이 안 됐고 그 뒤로 다시 또 일주일 연장을 해 줬는데,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관리단체 지정하는 과정에……

○조계원 위원 아니요, 의도적으로 그렇게 해서 지정 해제를 안 했는데 지금 법적 결과 까지도, 판시·판결까지도 그렇게 나왔는데 아직까지도 고집하실 겁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닙니다. 그 판결문을 한번 보시면 이해를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오늘이라도 채무부존재확인서를 가져오면 오늘 저희는 바로 즉시 모든……

○조계원 위원 부존재확인서는,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채무가 인정이 되면 관리단체 지정이 되고 정식 단체로 다시 복구되면 채무를 해소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그걸 왜 못 믿냐 이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게 선후의 문제인데……

○**조계원 위원** 그것은 주원홍 회장과의 사적인……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닙니다. 위원님,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닙니다. 제가 별도의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부산 수영구 국회의원 정연욱입니다.

스포츠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아마 4000억이 넘는 국고가 체육회에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방만한 운영 자체는 분명한 대의를 위해서 바로잡아야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먼저 이기홍 회장님, 지난 9월 현안질의 때 제가 아마 후원기업에 대해서 규정을 어긴 독점공급권 제공에 대해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후에 확인해 보니까 그때 대한체육회가 문체부의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협조 요청했던 문서에 보면 계약 모범인 국가계약법에서는 후원사 독점공급권에 대한 특례 적용은 어려우나 주무부처 협의를 통해서 추진 여부를 갈음하라고 기재부에서 회신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국가계약법에서는 특례 적용이 어렵다고 명시된 건 아마 회장님도 그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체육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기재부와 어떤 식의 협의를 거쳤나 저희가 확인을 해 보니까 ‘기재부와 공문을 주고받은 건 없다. 다만 기재부 직원과 유선 통화는 했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후원사 우선 협상 공급권은 국가계약법상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 가능하며 해당 여부는 문체부와 협의하라고 했습니다. 국가계약법상 가능한 범위이지 하라고 허용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체육회는 이를 무시했습니다. 특례 적용은 어려우나 주무부처 협의라는 것만 거쳤습니다. 문체부가 잘못 대응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계약 관계를 억지 해석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였던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회의 방만한 운영이 아닌가 싶습니다. 뭔가 자꾸 억지로 밀어붙이는 느낌이 듭니다. 그건 앞으로 이기홍 회장님은……

분명히 이런 국가계약법이나 기재부에서도 어떤 형태의 공식 공문을 보낸 적이 없다고 저희한테 답신이 왔어요. 정정하고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정연욱 위원** 본질의를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가 산하 회원단체 대상으로 2년 내지 3년 주기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정연욱 위원** 그런데 그대로 그 감사가 제대로 되는지, 감사가 제대로 되어야 산하단체에 대한 운영 자체를 제대로 들여다볼 수 있고 바로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정연욱 위원** 먼저 자료 한번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족구협회입니다. 작년도 족구코리아리그 후원 협약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이 표에 여러 업체들이 죽 떠 있습니다. 아마 코리아리그 족구협회 보조금사업을 낙찰받은 업체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게 이 업체들 이름이 있고 뒷부분에 보면 후속조치(20%)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이게 됩니까? 아마 모르실 겁니다. 대한체육회 감사에서 전혀 이런 게 지적이 안 됐습니다.

이 내용은 이겁니다. 후속조치, 후원금을 기부합니다, 이 업체들이. 기부하고 옆에 명시된 분들을 상대로 별도로 기부금을 대납한 겁니다. 가능한 겁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기부금을……

○**정연욱 위원** 기부금을 대신 낸 겁니다. 어떻게 기부금을 대신 내 줍니까? 기부금을 대신 내면 연말정산으로 사실상 환급을 받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게 사실상 페이백 아닙니까?

(자료를 들어 보이며)

한 업체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기는 후원금 1000만 원을 냈습니다. 이 업체가 이렇게 합니다. 강승호 사무처장이지요, 족구협회 사무처장입니다. 여기에 200만 원을 냅니다. 여기에 감춰 놨습니다. 여기 뒷부분에 이 후원기업 이름이 있는데 지워 놨습니다. 저희가 뒤져 보니까 그 기업체가 나옵니다. 이 20%라는 게 사실상 기부금을 대납하겠다는 20%의 개념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기부금을 대납받으면 이 당사자들은 자기는 기부금 생색내고 사실상 연말에 정산받으면서 환급받는 것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회장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것은 좀 부적절한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게 지금 체육회 감사에서, 2년 내지 3년 주기로 하는 체육회 정기감사에서 하나도 포착이 안 된 겁니다, 이게 벼젓이 벌어지고 있는데. 20%라고 대놓고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내라고. 그리고 이게 반영이 되고 집행이 되는 겁니다. 이게 말이 되는 것…… 회장님도 분명히 인정하셨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김주철 전무이사 계시지요? 족구협회라서 잘 모르실 수 있겠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분은 현직 경찰이었습니다. 그런데 겸직신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부산경찰서에서 나중에 주의조치 받았습니다. 이건 아예 기부금 대납도 넘어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현직 경찰입니다. 현직 경찰이 체육회, 족구협회지만 그것도 족구협회 임원으로 벼젓이 행사했습니다. 말이 됩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것은 안 됩니다.

○**정연욱 위원** 현직 경찰이 이렇게 한가하게 돌아다녀서 족구협회 임원 행세를 하고 업무를 할 수 있습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체육회가 감사를 한다고 하는데도 이렇습니다. 저희가 확인한 건 아주 여러 가지, 일부에 불과합니다. 이 몇 가지 문제겠지만 체육회에서, 4000억이 넘는 국고를 지원받는 체육회에서 자율적으로 맡겨 놨던,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방만한 운영, 어찌 보면 위법·탈법까지도 감행된 운영 자체를 자율성으로 맡겨 놓을 겁니까? 말이 됩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런데 위원님, 위원님 말씀하시면……

○**정연욱 위원** 예. 사실상 이렇게 제대로 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래서 체육회에서 이게 전에 회장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던, 개선하시겠다고 했던 낡은 관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체육국장 한번 일어나 보시지요.

체육국장은 물론 산하단체 운영까지는 모르시겠지만 이런 전반적인 감사가 만연해 있다는 여러 가지 증거로 보입니다. 개인적으로 좀 어떻게, 문체부도 어떤 면에서는 이런 감사 부분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지금 우리가 안세영 선수 때문에 배드민턴협회가 이슈가 되면서 이게 확산이 된 건데 이런 게 버젓이 자꾸 벌어지고 있고 만연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전반적인 전수조사부터 다시 감사 계획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일단 저희가 관리 감독을 철저히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다는 말씀드리고요. 지금 말씀하신 족구협회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9월 말에 사무검사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구협회 관련돼서 지금 관련된 제보 등을 통해서 조사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장기적으로는 10억 원 이상 국고가 투입되는 협회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가 지정하는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10월 달에 한 40개 정도 연맹을 신청했고 인사혁신처에서 아마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체육회장님은 나중에 또 추가질의가 있을 테니까 한번 제대로 살펴보시고.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연욱 위원** 체육회 차원에서도 종합적으로 전수조사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저희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정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일산의 이기현 위원입니다.

9월 24일 날 현안질의 때 저희들이 느낀 바가 좀 많았는데요. 제가 또 질의했던 내용들 중에 체육회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좀 봤습니다. 많은 위원들이 그 당시에 축구협회와 배드민턴협회의 현안에 대해서 아주 강도 깊은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그때 안세영 선수의 예를 들면서 안세영 선수가 17살에 진천선수촌에 들어와서 코치들의 빨래까지 하고 청소까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질의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체육회와 그리고 선수촌의 각 성을 촉구한 바가 있습니다. 한 달이 지났는데요, 체육회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일단 지금 지도자들 교육을 하고 그런 나름대로의, 전수조사도 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기현 위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규정 바꾸셨습니까? 관리규정 같은 게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희가 이사회 이제 해야 됩니다.

○**이기현 위원** 아직 규정 바꾸신 것 없네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다가오는 이사회 날에.

○**이기현 위원** 그리고 전수조사하셨다는 것 어떤 전수조사를 어떻게 했는지 결과 나와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선수촌에서 촌장이 지도자들 중심으로 모아서 교육도 하고……

○**이기현 위원** 참관단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올림픽, 파리 가실 때 참관단에 회장님 측근들, 가까우신 분들 많이 데려갔다고 해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고 그 참관단 구성의 적정성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내부 규정 바꿔 보신 적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지금 총리실이라든지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결과들이 나오면 맞춰서 전반적으로……

○**이기현 위원**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관련돼서 위법적 정황들이 여러 가지 드러났습니다. 체육회에서 산하 종목단체의 감독 선임 관련돼서 규정 점검 해 보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전반적으로 이번에 다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 회장님께서는 전국체전 등 핑계를 대실 수 있지만 그렇게 국민들의 질타가 쏟아진 그 현안질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동안 진행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살펴보겠다 그리고 신경 쓰겠다, 그때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건 확실하게 정리를 할 겁니다. 위원님,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이기현 위원** 회장님 임기가 이제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회장님께서 그냥 이렇게 말로만 하시고 끝내실 일이 아니다. 그때 정몽규 회장도 나왔는데 회장님하고 정몽규 회장님하고 거의 싱크로율이 같았던 건 내가 왜 여기서 이렇게 당하고 있지, 난 잘못한 게 없는데 뭐가 문제지 이런 태도셨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두 분 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으셨는데 적어도 체육계 수장으로서 그런 자세로서는 남은 임기를 정확하게 보내실 수도 없고 국민적 질타에 대해서 제대로 한 답변이 아니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테니스협회와 관련돼서는 아까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님의 질의가 있었는데 저는 그냥 몇 가지만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니스협회 관련돼서 여기에 가처분이 인용이 된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체육회에서 변호사비 얼마 썼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희는 변호사비는 별로 안 쓴 것 같은데요?

○**이기현 위원** 별로 안 쓰신 게 아니라 수천만 원 들어갔고요. 법원은 소송비용을 모두 대한체육회가 부담해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또 이것이 가처분 인용된 데 결정적으로 무엇이 인용이 된 근거이냐면 회장님 아시겠지만 이사회 의결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사회 심의 의결이라는 절차를 진행하지 않으셨어요. 법원은 그 지점에 대해서 절차적 하자를 지적한 것이거든요.

저는 상식적으로 대한체육회가 동네 복덕방도 아니고 동네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러한 중대한 의결 절차를 지정하는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이라고 하는 당연히 해야 하는 절차

를 이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법원으로부터 이런 판단을 받아 내는 데 수천만 원의 협회 예산을 또 낭비했어요.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잠깐만요. 위원님, 그 부분은……

○**이기현 위원** 아니, 테니스협회 회장님과 이기홍 회장님과의 개인적 관계 이런 걸 제가 따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대한체육회가 지켜야 될 절차도 밟지 않음으로 인해서 가처분이 인용됐고 그럼으로 인해서 변호사비 수천만 원이 낭비가 됐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짧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이사회를 안 한 게 아니고 이사회를 했습니다. 이사회에서 결의를 했는데, 돈을 채무를 정리한다고 하니까 저희가 기한을 한 달 연장해 준 겁니다. 그리고 다시 또 일주일을 연장해 줬는데 이사회 한, 관리단체 지정한 그 시점에서 지정을 했어야지 연장해 준 것이 이사회 결의가 잘못됐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겁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니까 이사회가 있었는데 이사회 의결은 없었다는 얘기시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의결했습니다.

○**이기현 위원** 의결이 없었는데 법원이 이렇게 판결합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의결했는데 그것을 무효로 본다 이겁니다. 그 절차적 위법성을 지적한 겁니다.

○**이기현 위원** 그렇습니다.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에 또 수천만 원이 날아갔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제가 회장님 뵈면서,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체육계 지도자신데 한 달 동안 뭐 했나 보니까 10월에 있었던 전국체전 끝나고 나서 시도 체육회장님들하고 같이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래서 기자회견하면서 몇 가지 얘기를 하셨는데 IOC의 예를 드셨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IOC에서도 현재 국내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하셨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러면 국민의 질타와 그리고 해당 기관의 감사에 대해서 회장님께서 IOC 위원이라는 자격을 가지고 저는 겁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부처를 겁박하고 국민들을 겁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회장님, IOC 누구하고 저런 내용을 상의하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IOC 회장선거가 3월 중순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곱 분의 후보가 나왔는데 자기들 지지 문제도 있고 하니까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와중에 요즘 FIFA라든지……

○**이기현 위원** IOC, 저번에 정몽규 회장님 FIFA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회장님께서 IOC 얘기할 줄 몰랐어요. 그런데 그 사이에 마이크를 잡고 IOC 얘기를 하셨는데 IOC의 누구로부터 지금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내 상황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제가 그분을 묻는 겁니다. 누구로부터 들으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제가 지금 이름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IOC 위원장……

○**이기현 위원** 직접 통화하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통화하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만나서도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기현 위원** 만나서도 얘기하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이기현 위원** 통역 누가 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제가 합니다.

○**이기현 위원** 직접 하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이기현 위원** 그러면 종감이 내일 모례인데요, 저는 이것과 관련돼서는 회장님께서 국민들을 겹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IOC를 평계 대서 우리 IOC로부터 제명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체육회에 대한 부당한 개입하지 마……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잖아요.

○**이기현 위원** 아니, 여기 지금 써 있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닙니다.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저한테 물어봤다는 얘기지 제가 거기서 그런 얘기 절대 한 적이 없습니다.

○**이기현 위원** 회장님, 노조에서 성명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제가 딱 두 줄만 읽을게요. 참 아픈 대목인데, ‘대한민국 체육의 봄은 올 것인가. 이기홍 회장은 대한체육회 정상화를 위해 결자해지의 자세로 불출마를 선언해라’ 이게 회장님이 운영하고 계신 체육회 노조에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저는 이것으로 제 질의의 내용을 좀 대신하고요.

뒤의 사무총장님 잠깐 일어나세요.

지난번에 파리에서 코리아하우스 운영하셨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 과정에서 하이브에서 제공했다고 하는 응원봉 쓰셨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이기현 위원** 그때 하이브에서는 언론에 5000개를 자기들이 제공했다라고 했습니다, 제공했다. 기증한 것으로 느껴지시지요?

그런데 하이브 보도자료입니다, 기사화도 여러 개 됐고. 그런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3000개만 기증했고, 기부했고 나머지 2000개는 구매하셨어요, 2만 2000원에. 맞지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래서 저는 이 응원봉을 올림픽 열기를 고취시키는 과정에 쓸 줄 알았더니 이걸 사실은 파셨어요, 그것도 두 배 이상이 넘는 가격으로. 2만 2000원에 사셔서 4만 5000원 정도의 가격으로 파셨어요. 왜 그러셨어요?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일부는 단체 응원하는 데 사용하게 했고 일부는 외국 방문객들도 오기 때문에 굿즈 사업의 일환으로 마케팅 차원에서 판매를 한 걸로 알고……

○**이기현 위원** 그러면 수익을 내실 목적이 있으셨던 거예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수익을 낼 목적은 없었고요. 저게 제조단가하고 비교해 보면 단순히 그런데 거기에 운송비라든지 여러 가지 제반비용까지 하면……

○ **이기현 위원** 2000개 중에 몇 개 파셨습니까?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제가 정확한 숫자는 나중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 **이기현 위원** 2000개 중에 몇 개 파셨나면 800여 개 파셨어요. 아주 적게 파셨습니다. 800개가 아니고 708개를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걸 나중에는 무상으로 그냥 뿐입니다, 길에서. 맞지요? 무상 제공하셨지요, 나머지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단체 응원에 활용하시라고……

○ **이기현 위원** 저는 체육회가 돈을 벌려고 한 건지 아니면 올림픽 열기를 고취시키려고 한 건지 아니면 대기업인 하이브의 굿즈 가격을 끌어하기 위해서 그런 행위를 하셨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체육회가 왜 다른 대기업에서 팔고 있는 굿즈를 가져다가 기부받은 것처럼, 실제로는 구매하셔서, 그것도 판매하다 판매 못 하니까 나머지는 뿐 버리고. 그걸 돈 주고 사 간 사람들, 프랑스 국민들은 뭐가 됩니까?

아니, 체육회가 왜 이런 일을 하지요? 저는 체육회가 이런 방만한 운영 자세가 해소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체육회가 앞으로 밀라노동계올림픽도 남아 있는데 어디서 협찬받은 물품에 대해서 이렇게 어줍잖은 상행위를 하거나 그리고 어줍지 않게 물품들을 관리하는 행위 질타 받아야 되고 다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무총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저희가 수익을 목적으로 판매한 바는 없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일부 제조원이나 제반비용 같이 해 가지고 굿즈 판매사업을 좀 한 거고. 일부 무료로 배포해 드린 거는 저희 경기가 있을 때 오신 응원객들에 대해 응원 열기를 좀 도모하고자 하기 위해서 일부는 무료로 배포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진종오 위원** 이기홍 회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기홍 회장님, 사단법인 서담 알고 계시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알지요.

○ **진종오 위원** 2016년도 대한체육회 회장선거를 앞두고 4개월 전에 급조된 곳이지요. 현재 지금 이 자선사업에 대한 운영도 없고, 심지어 19년도 결산서류가 존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상황을 봤을 때, 2020년 결산서류는 불법을 감추기 위해서 의심될 수밖에 없는 두 페이지짜리 간편서식이 제출됐고요. 이것은 투명한 운영이 아니라 불법적인 의혹을 증폭시키고 있다라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그리고 또 2016년·17년도 장학금사업 내역은 있는데 20년이랑 23년에는 장학금 내역보다는 관리비 지출만 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보이시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 **진종오 위원** 그리고 본 의원실에서 서담의 등록 주소를 찾아가 본 결과 서담이라는 곳은 존재하지 않고 대신 보시면 우리미디어 컴퍼니라는 사무실만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있는 연락처 확인한 결과 현재 서담은 사업 진행을 하지 않아서 후원금 또한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이 있고요.

이사장으로 계시지요, 회장님?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진종오 위원** 여기서 등기상 서담 홈페이지의 주소, 서담이 실제로 존재하는 곳 맞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면 서담은 어디에 있는 곳입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위원님 질문하시면 한 번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업을 안 하고 있는데 이 법인은 도대체 언제까지 운영할 계획이십니까? 운영이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장학금도 받을 수 없고……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 그러니까요 이 부분이 제가 좀 얘기가 길기 때문에……

○**진종오 위원** 하셔도 됩니다. 왜 운영을 안 하고 있는지……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왜 안 하는 게 아니고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제가 원래 이 서담을 하기 전에 청소년을 위한 나눔문화재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회장이 되면서 이쪽으로 넘겨 놨는데, 그때 했던 사업은 네 가지입니다, 네 가지.

하나는 청소년들 희귀병 수술해 주는 겁니다. 현대아산병원에서만 수술한 것도 몇백 명을 했습니다. 또 시골에 계신 노인분들 개안 수술, 아주노동자, 1000명 이상 했을 겁니다, 전부 다 보태면. 그리고 청소년, 소년소녀가장 백미 지원, 한 사람이 살면 5kg, 둘이 살면 10kg, 셋이 살면 15kg 이렇게 해서 한 번 주는 게 아니고 매달 19세가 될 때까지, 서울 시내만 100만kg 이상 나눠 줬을 겁니다.

○**진종오 위원** 회장님, 이거는 서면으로 답을 받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잠깐만요,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설명을 드려야 됩니다.

○**진종오 위원** 아닙니다. 지금 제가 본질의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위원장님,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위원님 질문 끝나고……

○**진종오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너무 길어지니까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대한체육회장님, 일단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를 다 하시고 필요하다면 말씀을 해 주시고……

○**진종오 위원** 누가 봐도 이것은 급조, 선거를 위해서 급조했다는 법인으로밖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닙니다.

○**진종오 위원** 회장님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지요. 그런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보면 누군가가 봤을 때는 이것은 난 단지 그냥 회장 출마를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라는 것밖에 안 보여지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한 번만이라도 질문을 해 주셨으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진종오 위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렸으니까요, 나중에 알려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알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회장님, 또 다른 내용이 있습니다.

2001년부터 2003년 사이에, 고석구 한국수자원공사 사장님 아시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알지요.

○ 진종오 위원 그분 친분을 내세워서 71억 원 수수한 혐의 인정하십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안 합니다.

○ 진종오 위원 인정 안 하십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 진종오 위원 1심도 나왔고 2심도 나왔고 3심까지 나온 상황에서 갑자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 선고를 받으셨어요. 그건 알고 계시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당연하지요.

○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인정을 안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은 왜냐? 지금 봤을 때 2007년 12월 26일 날 갑자기 상고 포기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포기 이후 6일 만에 2008년 1월 1일 대통령 특별사면, 노무현 정부 마지막 특별사면을 받아 내셨습니다.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 진종오 위원 누가 봐도 참 드라마틱하지요.

이것 미리 알고 계셨습니까? 갑자기 6일 만에, 상고를 포기하신 이유를……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누가 언지를 해 준 것도 있고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없습니다.

○ 진종오 위원 없습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 진종오 위원 회장님, 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범죄기록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렇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런데 제가 앞서 말한 것 말고 또 추가로 범죄경력 같은 거 있으십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없습니다.

○ 진종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대한체육회장 선거를 할 때 범죄전력 여부, 탈세 여부, 세금체납 여부 등 검증하는 게 제도가 없지요, 자발적 검증이 있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원래 처음에는……

○ 진종오 위원 자발적 검증이 있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자발…… 그 내용을 설명을 들으세요.

무슨 말씀이냐면 형의 실효법에 의해서 그걸 할 수가 없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대한 확인서를 후보자로 등록할 때 쓰게 돼 있었고……

○ 진종오 위원 자발적으로 쓰지 않습니까, 거기에?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러니까요, 저희가 자발적으로 쓰는 거지요.

○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요. 자발적으로 쓴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누가 봐도 공정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희가 내고 그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하면서 이제는

그런 자료들을 다 낼 수 있도록 보완이 됐습니다.

○진종오 위원 보완이 됐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진종오 위원 그것 또한 자료도 한번 주세요, 저한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진종오 위원 회장님,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세금체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전혀 한 바가 없습니다.

○진종오 위원 아니, 하셨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하면 안 되지요.

○진종오 위원 하면 안 되지요.

그러면 회장님, 경제공동체인 부인분……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당연하지요.

○진종오 위원 세금체납 의혹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담 그리고 홍국산업, 우성산업 등 등기부 열람 보면 부인의 소유로 명일동 소재 아파트 주소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이 등기 소유권에 관한 사항 보면 갑구에 기재된 바에 따르면 이천세무소, 강동세무소 등에서 압류가 여섯 차례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는 모릅니다.

○진종오 위원 모르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진종오 위원 2005년 4월, 2005년 9월, 2009년 7월, 10년 3월, 11년 2월, 12년 2월 이렇게 여섯 번의 압류가 있었는데 전혀 모르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다 물어보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모르신다고 했길래…… 왜 갑자기 모르신다고 하신 겁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제가, 지금 2004년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종오 위원 2005년.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러니까 그때는 제가 법원에 구속이 돼서 대법원까지 재판을 받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저한테 부과된 추징금이 100억 이상 이렇게 돼서……

○진종오 위원 알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런 압류는 있었을지는 몰라도 저희 집사람이 세금을 안 냈다든지 이런 건 전혀 없습니다, 현재까지도.

○진종오 위원 그런 것도 아예 모르시는 겁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왜냐하면 대한체육회 회장님이라면 아무래도 연간 5000억 안 되게 사용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내 와이프가 세금체납을 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것을, 또 압류와 해제를 계속 반복하고 있고 현재도 체납된 상황인 건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모릅니다. 저 없습니다. 체납이 없습니다.

○진종오 위원 현재 체납 상태라고 저희가 확인이 되어 있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없습니다.

○ 진종오 위원 없고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금이 체납되면 통장에서 강제 환수됩니다. 저희 집사람 통장에 수십억에서 수백억씩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없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 그러니까 지금 그게 가짜뉴스잖아요.

○ 진종오 위원 가짜뉴스인지 아닌지는, 저희가 조사한 바에는 현재 체납 상태라고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그것은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체납을 할 수가 없습니다. 통장에서 그냥 강제로 환수해 갑니다.

○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린 이유는 저도 체육계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체육회장님을 존경했었고, 도덕적인 문제 때문에 자꾸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회장님, 1989년 우성산업개발, 콘크리트 건설공사 기초재료 만드는 회사 설립하셨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 진종오 위원 이 회사가 98년도부터 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인 미사리 골재 채취·야적장을 12년도까지 운영을 했습니다. 이 우성산업개발은 골재 채취 그리고 서울-춘천고속도로, 제2중부고속도로 건설폐기물 야적으로 돈을 벼셨지요? 여기서 보면 그냥 일반 건설업 회사로 보이고요.

이 회사 2017년 폐업하셨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건 저하고 관계없습니다, 폐업 단계는.

○ 진종오 위원 관계가 없으시다고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 진종오 위원 일단 폐업했다는 걸로 나와 있고요. 환경 문제부터 세금까지 국민한테 피해를 줬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한강을 식수원으로 쓰는 국민께 환경오염을 선사했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하남시민의……

빨리 마치겠습니다.

지속적인 하남시민의 항의를 받다가 우성산업개발이 17년 7월에 해당 지역에 폐골재와 오염물질을 내버린 채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토양검사 등에서 법정 기준치를 두 배 가까이 넘는 불소가 검출이 되었고요. 현재 425억 원에 달하는 토양정비 비용이 발생한 상황인데 우성산업개발하고, 이 무책임한 폐업, 그리고 하남시와 국토부가 법정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폐업 전에 2013년부터 15년까지 토지반환 및 체납임대료 관련 소송에서 우성산업개발이 법원의 화해권고를 받아들이고 하남시에 5억을 내기로 했는데 폐업해서 흐지부지한 상황입니다.

회사가 어려우면 폐업하는 것 맞지요?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우성산업개발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이유가 뭐냐하면 회장님 또 다른 골재업 회사 갖고 계시지요, 흥국산업?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없습니다.

○ 진종오 위원 흥국산업 안 갖고 계십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없습니다.

○ **진종오 위원** 회장님이 안 갖고 계시다고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없습니다.

○ **진종오 위원** 지금……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없습니다.

○ **진종오 위원** 없습니다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 **진종오 위원** 없다고 하시니까 그러면 제가 추후에 또 이따가 오후에 질의 맞춰 바로 하겠습니다.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위원장님 이 부분, 지금 진종오 위원님께서 질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 신상에 관한 문제고, 여기는 또 국정감사장입니다. 제가 책임 있게 설명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설명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릴 테니까……

일단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지금 이기홍 회장의 질의응답을 보니까 이게 국감장에 나온 증인의 태도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제 얘기를 들어 보세요, 설명을 들어 보세요…… 이게 과연 증인의 자세인지, 이 상태로 국정감사가 계속될 수 있는지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증인으로 나온 대한체육회장이 위증을 했는지 거짓말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회에서 따져 봐야 되지만 답변 태도에 대해서는 준엄하게 꾸짖어 주시고 정상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말씀을 좀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전재수** 이기홍 회장님, 박정하 위원님 말씀 잘 명심해서 국정감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그리고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시간을 제가 좀 드릴 테니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우선 아까 저희 재단 문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어린 청소년들한테 백미 지원한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가지 사업을 했었어요. 세 번째는 불우한, 환경이 어려운 친구들 학비를 대 줬습니다, 시골에서 서울로 온 학생들. 그래서 1학년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학비를 전액 댔습니다. 현재까지 졸업한 학생들이 수백 명이 되고 검사, 판사, 사법·행정고시, 물론 국가고시 합격해서 현재 사회에부장판사, 부장검사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들이 50명이 넘습니다. 학비를 전액 다 댔습니다, 졸업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이주해 온 노동자들 일하다 다친 사람들 또 수술해 주고 또 해외의 우리나라 6·25 참전국인 에티오피아에 가서 우물도 파 주고 학교를……

○ **박정하 위원** 아니, 그 정도 안 한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 그러니까 들어 보세요. 그런데 지금 전혀 안 했다고 하니까 하는 겁니다.

○ **박정하 위원** 지금 당신 위인전 읽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위원님, 이 부분은 제가 분명히 설명을 하고 가야 됩니다.

○**진종오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잠깐만요, 그래서……

○**위원장 전재수** 자자, 좀 조용히 해 주시고요. 제가……

○**진종오 위원** 서류에 없는 게 문제지 않습니까, 서류에 없는 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는 지금 시간을 얻어서 말씀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전재수**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체육회장님 가급적이면,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는 것이니까 짧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래서 제가 사회생활, 회사를 그만두면서 학생들한테 이제 너희들도 이만큼 컸으니까 너희들이 앞으로 이런 일들을, 사회에 대한 헌신을 해야 된다 해서 만든 게 서답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보면 다 연결이 돼서 나와요. 재단 문제는 그렇고요.

집사람이 세금 안 냈다는데 세금을 다 냈습니다. 안 낸 일이 없어요. 이게 뭔가 회사의,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재판받고 구속돼서 이런 과정에서 추징금이 한 100억 가까이 나왔었으니까 이것에서 뭐가 압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없다는 말씀을 지금 분명히 말씀드리고.

제가 구속이 됐던 것은 2002년도에 대선자금 수사를 전방위적으로 할 때입니다. 그때 제가 이게 촉발이 돼 가지고 연루가 돼서 구속이 돼서, 그때 형사 소추된 죄목만 한 50개가 될 겁니다. 대법원에 가서 다 무죄받았어요. 최종적으로 받은 게 뭐냐? 부가가치세하고 법인세에 오류가 있다, 그래서 부가가치세는 약 5억 정도를 내고 법인세는 환급받은 겁니다. 그걸로 제가 실형을 받았던 겁니다. 그 이상은 없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복권이 됐고.

또 한 가지…… 세금, 복권, 재단 그리고 하나, 그래서 사업을 하고 나서 제가 구속에서 풀려 나와 가지고 이제 사업 말아야 되겠다, 아주 회의가 너무 커서 회사를 그때 당시에 정리한 겁니다, 저는. 그리고 사업을 안 한 겁니다.

○**위원장 전재수** 체육회장님, 거기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다시 한번 체육회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님들 질의를 끝까지 듣고 답변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문석 위원님 질의……

○**신동욱 위원** 잠깐만, 저도 의사진행……

○**위원장 전재수** 신동욱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뭔가 좀 앞뒤가 바뀌신 것 같아요, 회장님. 진종오 위원은 어쨌든 자료를 가지고 지금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주장을 하시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러니까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신동욱 위원** 아니요, 잠깐 제 말 들어 보세요.

저희는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임오경 위원** 의사진행발언은 위원장님에게 해 주십시오.

○**신동욱 위원** 예.

의혹도 제기할 수 있는 곳입니다, 이곳은. 그런데 오히려 주장을 하시는 회장님의 목소리가

더 크고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는 위원이 오히려 뭔가 거짓주장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위원회를 운영하시면 안 됩니다. 저희가 위증이 있으면 나중에 판단을 해 보는 것이고, 저희 위원들도 잘못된 자료를 가지고 질의를 했다면 그건 뭐 개인 본인의 판단에 따라서 사과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그게 아니라면 저희는 면책특권이라는 게, 그래서 여기는 어떤 의혹이든 제기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인신공격이 아니지 않습니까? 진종오 위원이 가지고 나온 건 어쨌든 서류에 근거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지금 증인이 나는 아니에요라고 얘기하면 그게 아닌 게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고 위원장님께서 증인의 답변 태도에 관한 문제를 지적해 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시시비비는 나중에 다 가려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전재수 체육회장님, 여러 위원님들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유념해서 국정감사에 임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없기 때문에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체육진흥공단의 조현재 이사장님,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동의하셔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동의합니다.

○양문석 위원 고맙습니다.

문화체육부 이정우 국장님, 혹시 장애인차별금지법 잘 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개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위원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 “이 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동의합니다.

○양문석 위원 한 가지만 좀 물어봅시다.

장애인체육과 비장애인체육의 감독이나 코치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왜 비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이나 코치는 305만 원을 받고 장애인 감독이나 코치는 175만 원을 받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양문석 위원 다른 질문 해 볼게요.

국가대표 비장애인 감독이나 코치는 월급제로 받고 장애인 국가대표 감독이나 코치는 수당제로 받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위원님, 장애인체육은 제 소관이 아니라 옆에 있는 송윤석 협력관 소관이어서 제가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예.

똑같은 질문입니다. 대답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송윤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가 비장애인 같으면 월급제로 돼 있고 장애인체육은 지금 현재 수당제로 돼 있어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게 돼 있고요. 장애인체육회랑 저희 문체부가 그런 문제점들을 이미 인지하고 있고 그 부분을 고치기 위해서 지금 예산 당국이랑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협의가 원활치 않아서

아직 현재까지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그 예산 당국이 기재부 이야기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송윤석** 기재부를 비롯해……

○**양문석 위원** 그들이 법 위반하는 거예요? 그들이 법 위반하는 거네?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의 목적을 제가 읽어 드렸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송윤석** 예.

○**양문석 위원** 그러면 그들이 법 위반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송윤석** 어쨌든 저희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양문석 위원** 아니, 그들이 법 위반하는 것 맞잖아요? 정확하게 대답하세요. 안 그러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요.

왜 비장애인들은 월급제로 받고 무려 305만 원을 받을 때 장애인체육 감독·코치는 수당제로 받고 월급으로 합산해 봐야 겨우 최저임금보다 못한 175만 원을 받아요?

앉으세요.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느냐 하면요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는 월급에, 그러면 고용 불안이 계속해서 따를 것 아니에요? 고용 불안이 따르면 장애인체육에 대한 감독이나 코치들이 여기에 감독이나 코치로 오고 싶어하겠어요? 감독, 코치 없이 국가대표팀 운영하고 급하게 구하면 장애인체육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감독, 코치들을 채용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채용 지연, 미채용, 지도경력 없는 분들의 채용, 심지어 훈련 중에 이직을 해 버립니다.

표 한번 보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월급제와 수당제의 차이입니다. 심지어 2년 동안 21개 종목 중 9개 종목이, 반 이상이 연임하는 경우가 없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체육의 지도자들은 업무 범위가 훨씬 더 넓어요. 훈련 지원, 체력 지도, 의무 지원에 선수 생활 보조 및 훈련 전후의 지원이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또 심지어 장애인 선수의 특성상 질병, 신체기능 저하 등 건강 상태를 수시로 살피고 위급상황에도 지속적으로 대응을 해야 됩니다.

다시 일어나 보세요.

월급제, 수당제 중에 누가 먼저 월급제로 고용의 안정성을 가져와야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송윤석** 저희는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장애인, 비장애인 다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위원님, 정확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감독, 코치는 장애인도 현재까지는 월급제로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수당제로 되어 있는 부분은 트레이너 부분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양문석 위원** 일반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너라 하면 기본적으로 감독, 코치를 총칭해서 트레이너라 하고 그다음에 물리, 마사지 이런 영역들도 다 트레이너라 하는데요. 이 전체를 우리는 영어로 트레이너라 하고 우리 말로 감독, 코치라고 해요. 그런 말장난으로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어디가 일차적인지, 훨씬 더 일이 많고 그리고 훨씬 더 디테일하게 케어해야 되는 이러한 장애인 지도자들을 먼저 배려하는 게 맞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송윤석 예, 위원님 생각에,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양문석 위원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송윤석 예.

○양문석 위원 그런데 일도 훨씬 많은데 월급도 반토막이고 고용도 불안하고, 이 부분들을 문화체육부 체육국장 라인에서 계속해서 방치하고 있었던 거예요, 안 그러면 기재부가 위법을 하고 있든지. 이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송윤석 예, 향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오늘 장애인체육회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국가대표 효율적·과학적 훈련 지원. 누가 효율적·과학적으로 지원할 수 있겠습니까?

앞서 표 보셨지요? 미채용, 무경험자, 채용 자연, 2년 연속 있는 사람들이 겨우 40%에 불과하고, 이런 상황을 왜 체육회가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그리고 체육국장이, 문화체육부가, 문화관광부도 아니고 문화체육부라며, 그러면 문화체육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법을 어기고 있느냐 이 이야기를 지적하는 겁니다. 대오각성하셔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송윤석 예.

○양문석 위원 그리고 즉각적으로 시정을 하셔야 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송윤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확인국감에서 봅시다.

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님, 끊임없이 요구했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왜 실현이 안 됐어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그것은 예산 당국에서는 예산의 효율적 운영이라고 그래서 다른 기관, 저희가 더 급하지 않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문화체육부 철학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 수 있는 그리고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없기 때문에, 여윳돈 있으면 지원하고 여윳돈 없으면 지원하지 않는, 그리고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장애인이 일차적이지 않고 저 뒤쪽에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늘 그래 왔던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더 먼저 배려해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늘 사회적 관심은 다른 비장애인 먼저 중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다시 문화체육부요.

이것 상당히 아픈 대목입니다. 늘 그렇게 해 왔다는 거예요. 늘 차별을 해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차별금지법이 여러분들의 손에서 무력화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강하게 질타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국회 가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도, 준비도 안 해 왔다라는 거예요. 심각하지요? 정말 격렬하게 대오각성해야 되는 영역이지요?

심지어 비장애인체육단체는 10명의 정직원을 주는데 장애인체육단체는 3명밖에 안 줘요. 어디가 더 많은 손길이 가는 데입니까? 장애인단체지요? 장애인단체가 훨씬 더 손길이 많이 가는 영역 아니에요? 그런데 비장애인단체는 10명을 주면서 장애인단체는 3명

밖에 안 줘.

첫 번째,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했고 예산의 문제가 아니지요. 조정의 영역이 있었지요. 조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꼼짝을 안 했다는 말이에요. 방금 장애인체육회 정진완 회장께서 말씀하셨듯 늘 그렇게 해 왔어요, 늘 그렇게. 그리고 장애인체육회에서 이야기하면 늘 그렇게 당신들 좀 기다려라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이야기해 왔어요, 늘 그렇게. 이게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것 확인국감 때 대책 마련해 오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송윤석

○양문석 위원 대답을 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송윤석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대책을 마련해 보세요.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게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조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에……

끊임없이 늘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은 고소당합니다, 장애인 차별로. 알겠습니까?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송윤석 예, 예산국회 과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파리올림픽 예산이 도쿄, 리우, 런던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컸어요. 그런데 선수단은 44년 만에 최소 선수단이었다는 말입니다. 왜 그랬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게 코리아하우스 운영 때문에 늘어났습니다.

○**강유정 위원** 코리아하우스가 직전 도쿄올림픽이나 리우올림픽에 비해서 3배나 높은 45억이었는데……

(영상자료를 보면)

이게 대부분 코리아하우스 임차료, 그러니까 공간 빌리는 데, 24일 임차하는 데 25억이
지불됐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억씩 빌리는 돈을 낸 겁니다. 이게 국민 정서에 맞다고 생
각하세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지금 저희도 들어와서 그런 말씀들을 듣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때는 이게……

○강유정 위원 국민 정서에 맞는다고 생각…… 하루에 1억씩 대관료로 지불을 했다라는 겁니다. 맞다고 생각하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과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현지가 위낙.....

○**강유정 위원** 그것 제가 좀 더 따질 겁니다.

24일 임차에 15억 상당의, 처음에는 그렇게 계약했어요. 그건 아시지요? 그랬다가 전기 용량을 증설해야 된다, 인터넷 증설해야 한다면서 또 10억 가량 더 증액된 거예요, 사실. 원래 그 장소가 워낙 변화가라서 비쌌지만 그래도 15억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이후에 들 비용에 대한 계산이 없었나 봐요. 그 이후 비용만 10억 이상 증액이 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좀 따져 봤어요. 그 현지에 있는 분에게, 교민에게 어떤 곳인지 한번 찾아가 달라고도 얘기를 해서 제가 사진을 따로, 취재비까지 지불하면서 했는데 생 도미니크 가라는 곳이었어요. 이게 한국으로 따지면 한남동 공관 부근하고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한적한 곳인 거예요.

그래서 되려 기준 한류 팬들이야 굳이 굳이 찾아오겠지만 새로운 분들을 모시기에는 너무 한적해서, 우리나라 홍대나 성수동같이 젊은 사람들이 막 모이는 곳이 아니라 굉장히 좀 한적한 곳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부지 말씀하셨지만 이게 그렇게까지 24억 원이나 주고 하루에 1억 원씩 빌릴 만한 곳이었는지 적합성 여부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들어가 봤더니 상당히 조촐한 규모이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또 묻고 싶은 건 뭐냐 하면 파리 8구 샹젤리제 근처에 코리아센터 있잖아요, 이미. 모르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강유정 위원** 코리아센터가 있어요. 한국문화원에 있기 때문에.....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문화원, 예.

○**강유정 위원** 예, 코리아센터가 전 세계에 5곳 있는데 여기에 그중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한국문화원 기능을 하는 곳이 전 세계 5곳인데 파리에 있단 말이에요. 19년에 800억 원이나 들여서 이 문화원을 새로 개비해서 지금 관광공사, 콘진원도 같이 쓰고 있어서 여기서 했어도, 파리에서 샹젤리제 개선문 있는 데 7층짜리 건물 쓰고 있거든요. 여기서 써도 됐는데 이것 좀 너무 방만한 운영 아니었을까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이 코리아센터도 논의가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니까요. 논의가 됐는데 45억을 거기에 쓰면서 선수단에게 들어가는 비용, 배보다 배꼽이 좀 더 컸다고도 보이거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런데 아마 공간 활용도 측면에서 여기를 부득이 이렇게 선택을.....

○**강유정 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 활용도도 그다지 대단하지 않아서, 2층에는 콘텐츠진흥원의 아주 원초적인 이미시브 아트(immersive art) 상영관 하나 있었고요 그리고 기자실 있고 이렇더라고요. 제가 다 확인은 했습니다. 대단히 효용이 떨어졌는데 예산 낭비라는 생각이 들고.

무엇보다도 이 코리아하우스 운영을 하는 과정에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나왔어요.

PPT 좀 보여 주세요.

운영대행 용역 입찰 세부 내역을 받아 봤습니다. 그랬더니 여기 공개입찰에 참여한 5개 업체가 사실상 굉장히 유명한 기업들이에요, 제가 알기로도. 이를테면 카카오 계열사

인 에스엠컬처앤�onten츠 광고사업 부문, 현대자동차 계열사 이노션, CJ ENM과 HSAD 같은 굉장히 유수의 대기업들을 제치고 C 업체가 이 입찰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 정량지표 평가에서는 5개 업체 중에 상당히 낮았거든요. BB-, 4.75점을 받았다가 소위 말하는 객관적 점수라기보다는 주관적 점수라고 할 수 있는 정성평가에서 이게 순위가 뒤집혀요. 뒤집혀 가지고 이 업체가 1위를 차지하게 됩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대기업 회사들 그리고 이 분야에 있어서 아주 혁혁한 이력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을 제치고 됐어요. 그런데…….

그다음 PPT 보여 주세요.

대한체육회 계약 체결사업 내역을 보자면 이 회사는 2016년부터 이미 12건이나 계약을 했던 그리고 계약금액이 90억 원이 넘는 회사였습니다. 이게 좀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굉장히 당황스러운데 아마 직원들이, 단가라든지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가 고려가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면 그다음에도 해명을 좀…… 저는 충분히 해명되지 않았고요, 일단은 대한체육회에서 이 회사에 추가 과업으로 새로 계약 더 줘요, 이 일 외에도. 그래서 올해 초에만 보더라도 체육인대회를 개최했는데 최초 사업비가 2억 70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규모가 점점 커져서 9억 2000만 원까지 과업이 변경되거든요. 같은 업체예요. 그런데 코리아하우스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계속 수의계약을 더하면서 점점 액수가 올라가는 형국을 띠게 됩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이 행사는 원래 저희가 소규모로 체육인들끼리만 하기로 했었는데 그때 당시 아마 VIP께서 이 행사에 참석을 하시겠다 이런 연락을 저희가 부처로부터 받아 가지고 사이즈를 키워서 이런 결과가 됐었던 것으로……

○강유정 위원 제 의혹에 대해서 설명은 전혀 안 되는 듯한데……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러니까 규모가 커진 거지요.

○강유정 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이 업체에다가 계속 몰아주고 있느냐고 제가 묻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10억 상당의 급식센터 운영대행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줘요. 처음에는 공개입찰을 해서 이 업체랑 계약을 한 게 맞는데, 제가 말하는 의혹의 핵심은 계속해서 수의계약으로 돈을 더 얹어 주고 얹어 주고 10억 정도 되는 사업도 수의계약으로 체결을 해 준다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건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라는 건데, 이 회사가 코리아하우스 운영하고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방만한, 하루에 1억씩 드는 코리아하우스 운영과 이 회사에 일감 몰 아주기가 전혀 무관한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의혹을 좀 저한테 해결을 해 주셔야 될 듯합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알겠습니다. 제가 소상히 다시 한번 점검을 해서 위원님께 별도의 시간을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승수 위원** 이기홍 회장님, 지금 체육회에 직원 숫자가 현원이 몇 명입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지금 한 275명 정도 됩니다.

○ **김승수 위원** 그렇게 많습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선수촌에 한 100여 명 정도 나가 있고요.

(전재수 위원장, 임오경 간사와 사회교대)

○ **김승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금 올해 현원이 잡혀 있는 숫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정확한 숫자는 지금 요 근래에 또 늘어난 부분이 있고……

○ **김승수 위원** 회장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게 지금 현원이 220명 잡혀 있어요.

그런데 회장님 취임 이후에 체육회 직원이 한 20명씩 갑자기 퇴직했다, 공석이 생겼다
뭐 그런 적 있습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없습니다. 1년에 나가는 숫자만큼 또 들어오기 때문에 그건 거의 비슷합니다.

○ **김승수 위원** 전체 현원의 차이가 거의 없는 게 맞지요, 그렇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 **김승수 위원** 그런데 이 숫자 한번 보십시오. 회장님 취임 이후에 2017년도에 210명이던 현원이 갑자기 2018년도에 190명으로 20명이나 줄었어요. 그러다 또 늘어나서 지금 현재 올해 현원은 220명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현원에 있는 사람한테 지금 하는 게 맞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 **김승수 위원** 그런데 아까 2018년 같은 경우에 현원은 190명인데 임금을 지급한 사람은 212명입니다. 22명은 누구한테 준 겁니까?

가장 기본적인 인건비……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무기계약직이……

○ **김승수 위원** 그건 현원에 인건비 지급된 숫자하고 무기계약직 지급한 것하고 같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지요. 현원 숫자하고 인건비 지급한 것은 이게 맞아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해만 무기계약직 그렇게 많이 쓰고 다른 해는 안 썼다는 겁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무총장한테 좀……

○ **김승수 위원** 보십시오. 그리고 이기홍 회장 취임 이후에……

인건비의 재원을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받은 돈이 있고 거기에 대한 부족분은 자체 수익분에서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대한체육회로부터 정원을 받아 가지고 그에 맞춰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내려 주고 있는데 여기 보이는 빨간 금액이 대한체육회가 제출한 정원에 맞춰서 인건비 명목으로 기금에서 내려 준 돈들입니다. 전체적으로 최근의 경우를 보더라도 물가상승률이나 인건비 상승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 주고 있어요.

그런데 자체 수익을 가지고 인건비에 충당했던 예산들을 보면 이기홍 회장 취임하기 전까지는 한 25억, 26억 거의 일정합니다. 거의 비슷한데 취임 이후에는 들쭉날쭉하는 폭이 굉장히 커집니다. 갑자기 16억으로 줄어들다가 심지어는 23년도에는 자체 수익으로는

10억도 인건비 편성을 안 했어요. 그러면 기존에 국민체육진흥공단 국가 예산으로 받은 돈 중에서 인건비에 쓰여서는 안 될 돈, 사업비로 쓰여야 될 돈을 인건비로 집행을 하고 자체 예산은 엉뚱한 데 쓰여진 겁니다.

여기에도 지금 2023년도 같은 경우에 거의 십몇억 이상을 자체 예산으로 인건비에 보내야 될 돈을 안 썼는데 이 돈들 어디다 쓴 겁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좀 불명확합니다 마는……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 보셨을 때도 이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조그마한 민간기업을 보더라도 자기 인건비가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국가 예산 4000억 이상을 쓰고 직원만 하더라도 200명이 훨씬 넘는 그런 대한체육회 같은 큰 공공기관에서 이런 인건비 통계조차 들쭉날쭉 이상하게 된다는 것 자체는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물을 때마다 답변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10억 이상씩 엉뚱한 데 쓰였으면 어디에 쓰였는지 그 내역을 제출할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역조차 제출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집행을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번에 현안질의 때도 지적을 하고 그랬습니다만 이런 돈이 엉뚱한 데 흘러들어 간 것 아니냐, 국민 혈세를 낭비한 거 아니냐. 특보들, 자문단들, 자문위원도 많이 있고 들렸지 않습니까? 비정규직 보수도 많이 들렸고요.

이렇게 인건비로 쓰여야 될 자체 수익 예산을 엉뚱한 데 쓰고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받은 분배금 800억 중에서 현금, 많은 돈들이 인건비로 들어갔습니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받은 분배금은 당연히 동계올림픽 후속사업에 쓰도록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현물 중에서는 무려 64% 정도를 올림픽과 관계없는 데 썼고, 인건비에 한 36%가 쓰였습니다. 이게 올바른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100%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대한체육회 예산 자료를 받아 보면 사업비와 경상적 경비, 인건비 같은, 여기에 아무런 구분 없이 이쪽에 썼다 저쪽에 썼다, 진짜 구멍가게 예산집행하듯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 예산을 항목 구분 없이 사업비를 인건비로 막 돌리고 이렇게 써도 되는 겁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지금 아마 자체 예산에 대해서는 규정이 따로 있는 걸로 아는데 제가 자세히 내용을 몰라서 답변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자체 예산의 규정 여부를 떠나서 이런 것이 상식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저희도 한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우리가 정부 예산에도 이용·전용이 있습니다마는 특히 목 간을 달리하는

그런 예산을 쓰는 경우에는 다시 국회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고, 전용 같은 경우에도 세 항목 내에서도 보면 아주 불가피한 경우 유사한 세세사업에 이렇게 옮겨 쓸 수 있도록, 그것도 공식적인 결재를 받아서 써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받은 그런 사업 예산을 엉뚱한 인건비, 경상비 경비에 썼다고 지적하니까, 애초에 저희한테 제출했던 자료에는 인건비 항목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싹 또 인건비 부분을 두루뭉술하게 어디를 가지고 이렇게 제출합니다. 자료제출이 이렇게 할 때마다 달라지는 것도 이게 말이 안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건 엄연하게 공문서 위조입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엉터리로 제출하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보면 이렇게 돈이 엉뚱한 데 쓰이다 보니까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경우에는 한 2억~3억씩 충당하던 것들이 갑자기 어느 해에는 무려 몇 배나 더 많은 돈이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적립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해에 굉장히 많은, 그 전해에 퇴직자가 발생해서 거기에 따른 부족분을 충당했다는 건데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정확하게 한번 확인을 하고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렇게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받은 돈 같은 경우에도 써야 될 항목에 안 쓰이고 엉뚱한 데 쓰다 보니까 심지어는 평창동계올림픽훈련센터 같은 예산도 부족하고 다른 경상적 경비도 부족해서 2023년도에는 무려 은행으로부터 30억을 대출을 받습니다. 돈 있을 때는 평평 엉뚱한 데다 탕진을 하고, 그동안에 수익이 특별하게 준 것도 없고 또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받는 예산이 준 것도 없는데 왜 30억을 은행으로부터 빚을 내서 이렇게 또 쓰여야 됩니까. 이렇게 그냥 방만하게 관리를 하는 겁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30억 대출에 대해서는요 평창동계훈련센터에 대한 시설비, 마무리하는 시설비하고 운영비가 일시적으로 부족해서론을 일으켰던 겁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JMPA 분배금, 평창올림픽조직위원회로부터 받은 801억 원 중에 현물만 해도 500억 원이 넘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어떻게 어디다 쓰고 이렇게 차입까지 받느냐 그거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현물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김승수 위원** 조현재 이사장님, 지금 매년 4000억 이상 대한체육회한테 돈이 가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렇게 4000억 이상을 지원만 하고 어떻게 쓰여지고 있는지는 전혀 안 들여다봅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저희 항목별로 체육진흥기금에서 나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산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정산했는데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적을 안 합니까? 이것 지적해야 될 사항 아닌가요? 오히려 직원들은 전혀, 그냥 손 놓고 있답니다.

체육국장님, 문체부에서도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또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후적으로라도 좀 들여다보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지적해서 그때그때 바로잡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 **김승수 위원** 이런 가장 기본적인 경상적 경비, 인건비조차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데 누구 하나 제대로 들여다보고 바로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엉터리 같은 주먹구구식 예산집행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머지 사업비에 대한 지적은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위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4000억의 예산을 썹니다마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정산하는 과정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일일이 다 개별로 승인을 받습니다. 받고 사후에 수시·정기·특별감사 다 받고 다 정산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 **김승수 위원** 승인도 그냥 대충받고 승인을 받았는데도 집행을 안 했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다시 또 지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윤덕 위원**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송윤석 문체부 체육협력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지요.

지난 패럴림픽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 장애인 선수들이 굉장히 감동을 많이 줬어요. 진짜 고마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요. 문체부장관께서 패럴림픽을 응원하면서 ‘외국에서도 우리 이천선수촌을 부러워하고 있다. 견학을 온다’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저는 진짜로 좋은 줄 알았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체육회장님, 이천에 있는 장애인 국가대표선수촌에 의사가 몇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까?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지금 현재 상주 의사는 없고요, 촉탁의로 해서 저희가 양·한방 의사 12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촉탁의사만 있고 상주 의사는 없는 거지요?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 **김윤덕 위원** 단 1명도요?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 **김윤덕 위원** 간호사 두 분하고 물리치료사 네 분만 고생하고 있는 것 맞습니까?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 **김윤덕 위원** 보건복지부에서 공인한 의료시설은 있습니까?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상주 의사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의료기관 허가를 득하지 못했습니다.

○ **김윤덕 위원** 협력관님, 장관께 이러한 사실 보고됐어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송윤석** 알고는 계십니다.

○ **김윤덕 위원** 장관이 알고 있는데 외국에서 부러워한다는 얘기가 나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송윤석**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 부족한 부분들인데요. 팩트만 말씀드리면 저희가 어쨌든 2018년에 의사 협원 티오는 때 높은 상태인데 저희가 인건비 1억 5000 정도가 책정이 돼 있는데 그걸로 저희가 여덟 차례 공모를 했으나 어떤 분도 오시지 않으려고 하셔서 지금 고용계약을 하지는 못한 상태고요. 향후에 저희가 계속 예산을 늘려서 2억이나 2억 5000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면 오실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협력관님, 의사가 없어서 처방과 응급환자 대응이 안 되는 거지요? 또 의료기관으로 등록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전문 진단장비를 구매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 **김윤덕 위원**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신기해요, 선수촌에 의사가 없다는 게.

실제 장애인과 비장애인 비교해 보면 근골격계 질환 발병률이 4.5배가 많답니다, 장애인들이. 그렇지요?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 **김윤덕 위원** 부상 위험도 더 높고. 더군다나 장애인 선수들이 10년 이상 국가대표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질적인 부상 부위도 많지 않겠습니까?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 **김윤덕 위원** 그런데 문제는 의사도 없고 병원도 없고 장비도 없고, 그리고 장관님은 세계에서 우리를 부러워하고 있다고 그리고. 앞뒤 말이 안 맞지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부끄러워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송윤석**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상주하는 의사분을 고용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는 있는데, 더욱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협력관님 그리고 회장님, 우리가 운동을 하는데요 저희 지역구에 축구장이 낡아 가지고 저한테 계속 민원이 옵니다. 그래서 인조잔디를 교체해 줘라 이런 민원들이 많아요. 그렇지요? 그건 노력해야 될 문제지요. 잘 안 돼도 참 답답할 일입니다, 돈이 막 남아도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의사가 없다, 치료할 수가 없다, 전문장비가 없다, 이건 안 되는 겁니다. 장애인 선수촌의 의료인력 그다음에 장비, 이 의과학 시스템을 갖추는 데 뭐가 얼마나 필요한지 정확하게 예산 추계를 해서 저희 마무리 국감 때까지 보고해 주십시오.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협력관 송윤석** 알겠습니다.

○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체육공단 이사장님, 황희찬 선수가 골을 넣고 저렇게 옷을 벗었어요. 스포츠브라 같은 걸 입고 있는데 저게 EPTS라고 하는 최첨단 스포츠 시스템 하는 것 알고 계시지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이게 5년 동안 50억 들여서 4차 산업의 핵심 기술을 활용하는 것으로 지금 개발되고 있지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 예, 지금 국가대표 A팀 것은 저희가 개발한 것이 아니고요 호주 회사 걸 쓰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포항공대에 위탁해 가지고 개발해 가지고, 그렇지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 예, 개발 완료했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래서 지금 개발을 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느냐고 물어본 건데……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 예, 그렇습니다.

○ 김윤덕 위원 정확하게 우리 공단에서는 성능검증 완료 이렇게 돼 있어요. 실태를 파악해 보니까 시스템 출시하는 데 13시간 걸리고 충전하는 데 11시간 걸리고 데이터 파일은 46개 중에서 16개의 데이터만 출시되고 있고, 이게 가능하지 않은 거지요? 이게 선수들의 근육이라든가 이런 상태를 과학적으로 체크해서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되어야 대책이 수립되는 데……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 지금 개발 완료를 했습니다만 업그레이드가 좀 필요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이사장님, 잠깐 그 대목요. 완료가 됐는데, 성능은 쓸 수 있는데 조금 더 업그레이드해야 된다 이겁니까 아니면 쓸 수 없습니까?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 쓸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 김윤덕 위원 쓸 수는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 예.

○ 김윤덕 위원 출시하는 데 13시간 걸리고, 우리가 영화 한 편 보려고 다운받는 데 한 이틀 걸리고 한 번 보고 나면 한 이틀씩 충전시켜야 되고…… 출시되는 데 13시간씩 소요되고 충전하는 데 11시간이고 그런데도 사용 가능하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문제는, 이 EPTS에 대한 성능을 검증하는 것 저희 사무실에 가져오셔 가지고 검증을 한번 같이 해 보실게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리고 문제는 이게 포항공대에서 납품을 완료한 겁니다. 그러면 성능검증 완료예요. 그렇지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 예.

○ 김윤덕 위원 그러면 성능검증이 완료됐다고 한다면 기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거지요. 그렇지요? 만약에 안 되면 이 보고서를 작성한 사람이, 허위보고서입니까 아닙니까?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 지금 그 부분은 포항공대에서 개발을 완료하고 2023년에 성과 공유와 또 현장 점검 방문을 해서, 축구협회에서 개발된 제품과 이런 것들이 다 소유권이 넘어간 상태로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저희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사업이 완료됐습니다만 향후 3년간 이 시스템이 계속 잘 작동되고 있는지 추가로 더 점검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막 13시간씩 출시하고 배터리 뭐 하는 데 그렇게 걸리고…… 진흥공단에서 묵살해 버리면, 뭉개 버리면 밑에서 말도 못 할 거고 그것 공단에 물어보면 ‘예, 되고 있습니다. 업그레이드할 겁니다’ 그리고 있고. 그렇잖아요. 지금 우리가 파악한 것은 그러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면 문제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있다면 문제입니까, 이사장님? 그리고 있다면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문제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겠지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 예, 그렇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러면 확인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문제 있다고 정확하게 결론이 나면 국고 환수해야 됩니까?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그 부분은 한번 챙겨 보겠습니다만 성능검사가 완료가 되었고 현장평가에서 합격제품을 받아서 대한축구협회로 이관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부분의 과업이 애초에 설계된 부분과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는다고 판정이 되면 저희들이 후속조치가 필요한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후속조치 안에 환수되는지 여부……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포함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걸 검증되었다고 확인해 준 직원 정계 문제, 그래야 책임이 분명해지겠지요? 그래야 다시는 이런 일이 안 생길 것 아니에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임오경** 다음은 배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배현진 위원** 문체부의 이정우 체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힘 배현진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존경하는 민주당의 강유정 위원님과 제가 증인 신청을 했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께서 오후에 나오신다면 이정우 국장께 제가 질의할 필요가 없는 내용들 인데요. 제가 지난 9월 24일에 현대산업개발 정몽규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하고 운영하고 있는 대기업에서 대한축구협회에 과도하게 실무에 간섭하고 운영하고 있다, 대한축구협회 사유화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당시 유인촌 장관께서 진행하고 있는 축구협회 감사에 이 내용을 포함하겠다고 하셨는데 기억하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런데 10월 2일 중간감사보고를 보니까 제가 제기했던 실무 분야에 대한 의혹은 전혀 포함이 안 됐어요. 왜 그랬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그때는 일단, 중간발표 때는 감독 선임에 대해서만 집중했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최종발표 때는 포함시키려고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러면 추가감사 내용에는 저희가 제기한 의혹들도 다 같이 감사 내용에 포함되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지금 사실 포함하고 있는데 실제 현대산업개발 관련해서는 조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 **배현진 위원** 오전에 제가 의사진행발언으로도 말씀드렸지만 매년 국비, 그러니까 문체부로부터 3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한축구협회가 11년간 정몽규 회장이 장기재임을 하면서 정몽규의 축구회로 사유화되고 있는 것 아니냐라는 국민적 비난과 그런 의혹이 짙어지고 있고,

실제 제가 지난 9월 24일에 1500여억 원이 들어가는 천안축구센터 건립의 시안이 왔는데 당연히 KFA, 대한축구협회라는 이름이 붙어야 할 그 시안이 왜 현대산업개발 아레나라는 이름으로 왔느냐라고 제가 정몽규 회장에게 물었을 때 본인은 그 문제가 왜 문제인지조차 인지하지 못하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어요.

국장님, 좀 황당하지 않으셨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좀 그랬습니다.

○배현진 위원 문제가 있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문제 있었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런 데요 오늘 제가 아까 의사진행 말씀을 드린 것은요 축구협회 대의원, 그러니까 회장을 선출하는 축구협회 대의원 명단과 그 내용을 저희가 좀 확인하려고 했더니 축구협회에서는 당연히 주지 않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고요. 그러면 문체부가 이것을 파악하고 있느냐라고 해서 그 자료를 달라고 했더니 문체부는 아예 정보가 없었습니다.

축구협회와 현대산업개발이 혹시 유착 의혹이 있느냐라고 제가, 위원들이 의혹을 제기했을 때 문체부에서 전혀 이 부분에 대해서 건드리지조차 못한다라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혹시, 이게 사실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아닙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 감사를 시작할 때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포함돼 있지 않아서 10월 말로 예정된 최종결과 발표에는 포함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별도로 조사를 해서 그 내용을 한번 규명해 보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아니, 대의원 명단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시고, 제가 오늘도 오후까지 달라고 한 것은, 몇 차례에 걸쳐서 대의원에 대한 정보를 달라고 했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국민들과 지금 국회에 있는 문체위원들이 믿고 신뢰하고 문체부에 감사를 의뢰해도 되는 것입니까?

(임오경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러면 오늘 문체부 관련 대표로 계시니 제가 몇 가지에 대한 의혹을 좀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사를 드릴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9월 20일에 축구협회 측에서, 저희가 정보를 요청한 사실에 HDC, 즉 현대산업개발의 도움을 받기는 했으나, 이 부분은 정몽규 회장도 인적·물적 도움을 줬다고 하셨어요. 도움을 받긴 했으나 따로 자문계약을 맺은 적은 없다라는 문서로 저희에게 이렇게 답변을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지금 보이시지요, 국장님?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배현진 위원 그런데 제가 한 가지 문서를 밑에 같이 첨부해 드리겠습니다. 천안축구종합센터 건설사업 관리자문 용역계약서라는 이 문서입니다. 2022년 11월 1일에 체결했고 보시다시피 계약기간은 준공 완료 시까지로 돼 있으며 잡은 사단법인 대한축구협회, 을은 HDC현대산업개발주식회사로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협의 자료제출은 거짓말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 배현진 위원 자문계약을 맺지 않았다라고 했지만 실제 이렇게 두터운 문서로 자문계약을 맺었고 이 자문계약의 내역을 펼쳐 보면요……

다음 자료 보여 주시지요.

갑 회장 정몽규, 사단법인 축구협회 회장 명의로 간인을 했고요. 을 현대산업개발의 대표이사 최익훈 명의로 이렇게 같이 간인을 했습니다.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예.

○ 배현진 위원 그런데 이것 국민들이 보면 정몽규 회장이 자기가 회장인 조직에서 자기 회사에다가 용역 줬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그럴 소지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 배현진 위원 굉장히 부적절하지요?

다음 PPT 한번 띄워 주십시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발주처는 축구협회고 시공사는 동부건설인데 현장에 관리소장이 왜 HDC에서 나가 있느냐’라고 당시 문제를 제기했더니 정몽규 회장께서 현장소장이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관리자문현장소장. 실제 이 문서 내용에도, 이 계약 내용에도 관리자문 용역계약서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관리자문 용역계약, 관리자문현장소장이라는, 마치 건설법상에 동부건설이 현장에 파견한 현장소장보다 상급으로 있는, 현대산업개발이 밝히고 축협이 밝힌 대로 현재 축협이 부족하기 때문에 파견했다고 하는 그 관리자문현장소장이 무엇인가 봤더니요 설계 관리 및 인허가, 공정 및 예산 관리, 인허가 관리, 입찰서류 검토·지원, 건설 공정 및 설계 검토, 기자재, 기술 제반 및 업무 일체, 이 내용 보면 그냥 건설의 전 과정 다 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국장님? 어떻게 보이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 배현진 위원 그렇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예.

○ 배현진 위원 그러면 사실상 정몽규 회장의 그 당시 해명과 달리 현대산업개발은 본인의, 회장의 지시대로 축구협회에 직원을 파견해서, 동부건설이라는 시공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설법을 무시하고 관리소장이라는 상급자를 따로 두어서 1500여억 원의 천안 축구센터 건설을 전부 좌지우지하고 있었던 정황이 있는 거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 배현진 위원 이것 감사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런데 이 파견된 분이, 계약서를 보니까요 현장소장으로서 인건비, 각종 수당, 외부자문료 심지어 주유비 등등 다 받고요. 거기다가 이분을 통해서 현대산업개발은 모든, 하청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건설과 관련한 모든 민감한 정보까지 전부 제공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500여억 원에 관련된 그것만 한 것뿐만이 아니라 축구협회와 관련된 모든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요.

본 위원이 오후에도 이어서 질의를 하겠지만요 저는 정몽규 회장이 분간을 못 하셔서 그때 그렇게 자유롭게 이것은 문제가 없다고 대답을 하셨든 아니면 알면서 현대산업개발을 축구협회에 깊숙하게 이렇게 개입을 해 놓으셨든 간에 현대산업개발 회사 입장에서도

이 사람을 파견해서 이렇게 쓴 것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에서 전혀 일하지 않았음에도 2년 만에 계속해서 고속승진을 시켰다라는 사실 그리고 이런 사실들을 축구협회에서도 전혀 몰랐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 문체부에서 면밀히 감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려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민주당 민형배입니다.

박지영 이사장님, 지금 제가 PPT 한 장 띄울 텐데요 저 신고서가 뭔지 확인 좀 해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저것 혹시 아셔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배드민턴협회 협회장에 대한 횡령·배임 신고서였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민형배 위원 현직 이사 4명이 신고했고요.

신고 내용 정확하게 검토해 보셨습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검토해 봤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신고 취하가 있었는데, 한 83일 뒤에요. 이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현직 이사 4명이 횡령·배임이 의심되는 발언을 들었다 이렇게 사실확인서까지 제출했던 데요.

사실확인서 저렇게 돼 있는데 저 사안의 중대성을 혹시 모르셨나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아닙니다. 당시 스포츠윤리센터는 센터의 규정에 의해 서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민형배 위원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직권조사할 수 있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저 안을 알았는데도 각하를 시키시고 직권조사도 안 했다…… 왜 안 하셨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저희가 우선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각하……

○민형배 위원 아니, 제가 여쭙는 건 직권조사 권한이 있고 저 사안이 중대하다는 걸 아셨을 텐데 왜 안 하셨느냐고요, 그 내부 절차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러더니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면 8월이 돼서 폐이백 논란이 불거졌어요. 알고 계시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민형배 위원 윤리센터가 좀 적극적으로 했으면 이런 일이 안 생기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좀 더 빨리 해결이 되고?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최근 5년간 스포츠윤리센터에 접수된 내용들을 보면 10건 중에 3건이 신고 취하예요. 그리고 각하, 조사 중지까지 포함하면 한 7할이 넘어가요, 한 73% 쯤 돼요. 이렇게 되면 스포츠윤리센터의 역할이 뭐지 이런 의심이 생길 것 같은데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사건율은 계속 증가하고 조사인력이……

○ **민형배 위원** 사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부족한 상황입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인력이 부족하다고 호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그래서 이번에 25년도 예산이 증액된다면……

○ **민형배 위원**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스포츠윤리센터에 중재 기능이 없어요. 맞지요?

○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맞습니다.

○ **민형배 위원** 재심 절차도 없어요.

○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맞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러면 누가 신고를 했다가 그냥 무산되거나 아니면 징계를 하게 되거나, 그런데 중재하고 재심 절차가 없으면 역울한 부분을 호소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스포츠윤리센터 있으나 마나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대책을 좀 챙기셔야겠지요?

○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 **민형배 위원** 그다음에 이게 지금 전국에 5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 대응력이 현저하게 떨어져요. 알고 계시지요?

○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알고 있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런데 신고 건수는 해마다 계속 늘어나요. 그렇지요?

○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 **민형배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문제점들을, 그러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의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셔서—며칠 안 남았습니다—종감 전에 꼭 좀 제출해 주십시오.

○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알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노력하겠습니다.

○ **민형배 위원** 문체부 이정우 국장님, 지금 문체부 감독받는 기관 맞지요, 윤리센터?

○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 **민형배 위원** 그래서 여기서 징계 요구를 문체부장관에게 하게 하고 그 결과를 문체부장관에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징계 요구를 했는데 체육단체에서 결과 보고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가 최근 5년 동안에 44%나 돼요. 왜 그렇습니까? 징계 요구를 했는데 결과 보고가 안 돼요. 왜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행정적인 착오도 좀 있고……

○ **민형배 위원** 행정적인 착오가 있다고 44%가 안 하면 됩니까?

심지어는 윤리센터에서 징계 요구를 했어요. 저거 한번 봐 보세요. 징계 요구를 했는데 체육단체에서 자의적으로 그냥 징계 안 해 버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 그렇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그러니까 저희가 스포츠윤리센터의 징계 요구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수 있는 강제적인 방안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직 그런 것이 좀 부족해서……

○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자꾸 그늘에 있는 것들이, 이렇게 되니까 자꾸 그게 온존하면

서 재생산되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포츠윤리센터가 제 기능을 못 하게 되고.

그런데 또 한 가지 더, 문체부는 이런 단체들, 그러니까 정계 요구를 했는데 안 하고 뭉갠 이런 단체들에게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방법이 있지요, 제대로 이행을 하지 않으면?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민형배 위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저희가 정계를 재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할 수도 있고, 보조금을……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보조금을 연계시킬 수도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연계시킬 수도 있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스포츠센터가 요구했는데 종목단체들이, 체육단체들이 그걸 무시하고 계속 그냥 뭉개고 갈 때 문체부가 그걸 다시 좀 관리를 해 줘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그게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뭐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여러 의원님들께서 윤리센터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법안들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번 정기국회 내에서 그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고……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이것도 종감 전까지 좀 챙겨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방에 꼭 보고해 주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민형배 위원 이기홍 회장님, 저게 보시면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홍보관 조직도거든요.

띄워 보시지요, 조직도.

저기 코리아하우스 구성에 여러 고려 요인이 있었을 텐데 파리라는 문화도시의 특수성이 이런 것도 고려하셨을 것 같아요. 조직도에서 문화도시의 특수성 같은 것을 고려하는, 파리 도시의 특수성 같은 걸 고려하는 역할을 누가 맡았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정확하게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거기 운영총괄 단장이 맡았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오지윤 단장이……

○민형배 위원 오지윤 단장이 맡았겠지요. 22년부터 46억쯤 들어가고 직원 10명이 투입이 됐는데.

저기 봐 보시면 예술감독 해 가지고 물음표 있잖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올림픽 홍보관에 예술감독이 등장했어요. 이 예술감독의 역할이 뭐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전반적인 여러 가지 행사라든지 쇼케이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오지윤 단장은 뭔데요?

자, 예술감독 선임 누가 한 겁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부처에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여기 관리운영 책임은 대한체육회에 있는데 문체부가 했단 말씀이시네요? 체육회에서 요청하셨습니까, 그냥 문체부에서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아마……

○**민형배 위원** 아니, 전문성 문제가 아니라 예술감독을 누가 임명했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보시지요.

코리아하우스 관리주체는 대한체육회가 맞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민형배 위원** 저기 예술감독이 뜬금없이 나타나서 갑자기 공간 계획을 바꿉니다.

한번 봐 보실까요? 공간 사진 한번 죽 봐 보세요.

대한체육회는 원래 저렇게 바꾸려고 했고 한국관광공사는 그다음 안, 저렇게 바꾸려고 했고 콘텐츠진흥원은 아예 저렇게 바꾸자 했는데 예술감독이 들어와서 이렇게 최종안을 만들었어요.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2023년도부터 준비된 것을 올해 3월에 이 예술감독이 나타나서 공간을 다 바꿔요. 그리고 여기에 추가 비용이 2억이 더 들어요.

체육회가 일을 못 한 겁니까, 문체부가 월권을 한 겁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제가……

○**민형배 위원** 잘 모르시겠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민형배 위원** 자초지종을 보고해 주세요, 종합감사 전까지.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민형배 위원** 송윤석 국장님, 왜 체육회가 마음대로 저걸 끼워넣기 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송윤석** 당시에, 그동안 코리아하우스의 기능 중에 한국을 홍보하는 기능이 그닥 크지 않았었는데 이번 올림픽 같은 경우는 저희가 국립오페라단이나 발레단까지 포함해서 15개 민간예술단체들이 같이 참여하게 됐고, 그래서 그 기능들이 많이 확장됐기 때문에 예술적 전문성을 가진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홍보관은 문체부가 마음대로 그냥 해도 돼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송윤석** 마음대로 한 건 아니고요, 그때 체육회랑 협의해서……

○**민형배 위원** 그래요, 그렇다 칩니다.

제가 문체부에서 자료를 하나 받았어요. 예술감독 이분을 임명하는 과정이 이해가 안 돼요. 이것 홍명보 축구감독 임명하고 똑같아요. 제출서류 없어요. 면접도 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월 500만 원씩 자문비를 6개월간 줬는데 회의는 네 번밖에 안 나왔어요.

누가 이거 집어넣은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송윤석** 당시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민형배 위원** 오케이. 그러셨지요? 실무적으로 한 거지요? 장관님하고 관계없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송윤석** 예.

○**민형배 위원** 실무적으로 한 거예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송윤석** 예.

○**민형배 위원** 제가 자료제출을 요구했는데 안 왔어요. 3월부터 있었던……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정례회의, 장관 주재 실국장 회의를 했는데 그 속기록 제출해 주세요. 회의 속기록이요,

이 감독 임명 과정이 들어 있는 회의 속기록.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송윤석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실국장 회의는 속기록을 작성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회의 결과는 있을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협력관 송윤석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주세요.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서울 서초을의 신동욱입니다.

제가 지역구 다니면서 왜 이렇게 체육회에 대한 불신이 깊어졌을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생활스포츠, 지역 단위의 스포츠 활성화에 대한 체육회가 굉장히 많은 것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대한체육회의 손길이 미치는 곳을 거의 제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매년 이렇게 큰돈을 어디에다 쓰는가? 이번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여려 가지 자료를 준비했고 또 다른 위원님들의 얘기를 보니까 대한체육회는 사실 동호회 수준의 회계 관리만도 못한 그 정도의 회계 관리 같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준비해 왔는데 일일이 다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은 일일이 문체부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사후 관리감독도 엄격히 받고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체육국장님 나오셨지요?

제가 하나하나만 봐도 수사를 해야 될 정도로 문제가 있는 예산집행이 지금 적지 않은 것 같은데 문체부에서 다 승인하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그런데 저희가 연초에 승인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승인을 합니다. 예를 들어 진천선수촌 식사 단가 같은 경우 5만 원을 한다, 6만 원을 한다는 걸 단가를 정해 주고……

○신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큰 틀의 회계장부를 가지고 승인하시는 거지 실제 다 하지는 못한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근 몇 년 동안 문제가 되니까 문체부에서 압박을 계속 좀 하신 것은 맞지요, 똑바로 하라고?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기홍 회장님, 작년 12월 달에 총리 주재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 이때 참여 안 하셨고요. 그리고 국가스포츠위원회 설립하겠다 이렇게 하시고 정부와 갈등이 빚어지니까 국회 앞에서 체육인 5만 명 대회 하시겠다고 했다가 이거 못 하셨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신동욱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그리고 올해 1월 16일에 대한민국 체육인대회를 개최하십니다. 이때 1만 3000명을 불렀어요. 갑자기 이렇게 많이 부르신 이유가 뭐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려도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당시 원래

저희는 조그맣게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2024년 유스 동계올림픽을 하게 되고 IOC에서 위원장님이 오시고 하니까 또 국제적으로 확산을 하기 위해서……

○신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좋은데요, 그런데 그 밑에 보시면 사진 3장을 제가 올려놨는데 ‘문체부 패거리 카르텔’, 문체부에 패거리 카르텔이 있습니까? IOC 위원장 오시는데 저런 현수막을 건 것은 왜 그렇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건 단체들이……

○신동욱 위원 문체부 패거리는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것은 누구를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회장님의 모르신다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신동욱 위원 회장님의 IOC 위원장까지 오시는 행사를 주최하면서 저런 현수막, 직원들 동원해서 저런 현수막을 여러 개를 걸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회장이 누군지 전혀 모르셨다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직원들이 아닙니다.

○신동욱 위원 올해 4월 달에 총선이 있었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신동욱 위원 1월 달에 대한 체육인대회 했고요.

다음 화면 좀 보여 주실까요?

대개 대한 체육인대회는 가을 이후에 많이 하는데 대선이 있었던 2017년에 보면 대선 직전 4월 9일 날 하셨고요. 2022년에 보면, 이때도 대선이 있었지요. 이때도 윤석열 후보, 안철수 후보, 여러 분 오셨어요. 1월 달에 합니다. 총선인 올해는 1만 3000명을 동원해서 또 1월 달에 하셨어요. 그리고 총선 과정에서 뭐 하셨지요? 돈도 어마어마하게 썼고요. 총선 과정에서 각 지역구별로 후보자들을 상대로 스포츠위원회 설립에 동의한다는 각서 인가요, 그것 받으셨지요? 몇 명이나 받으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한 백열 분 정도 받았습니다.

○신동욱 위원 백열 분이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신동욱 위원 제가 파악하기로는 백여섯 분 받았네요.

그런데 최근에 IOC를 통해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도 지적하셨습니다만 IOC에서 한국 상황을 매우 들여다보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스포츠는 정치와는 거리를 좀 두셔야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렇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이기홍 회장님의 최근 들어서 문체부와 갈등을 빚으면서 정치활동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시면서 스포츠 정신에 맞지 않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대선이나 총선만 치러지면 꼭 그 직전에 세력 과시하시고 또 총선 과정에서 각 지역구 체육단체 동원해서 회장님이 추진하시는 어떤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서명받으시고. 이게 스포츠가 정치와 거리를 둬야 된다는 그것과 맞습니까? 그리고 정부와 갈등을 빚으니까 IOC에서 한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런 발언 공개적으로 하시는

것, 이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이 다시 한번 성찰을 해 보겠습니다. 다만……

○**신동욱 위원** 아니요, 깊이 성찰해 보지 마시고요.

회장님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단체에 계셨잖아요. 이게 무슨 깊이 성찰하실 문제입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우리 체육계에는 통합이 되고 나서 많은 의견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물론 잘못하는 부분들은 저희가 당연히 고치고 또 죄신을 해야 됩니다, 지속적으로. 그렇지만 일부의 잘못이 전체의 잘못으로 이렇게 비쳐지는 것에 대해서……

○**신동욱 위원** 아니요, 잠깐만요.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저 혼자 이런 문제를 지적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도 회장님과 사적으로 아는 관계인데 이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1년에 5000억 가까운 돈을 내는 겁니다. 체육회에서 돈 버시는 것 하나도 없잖아요.

그리고 회장님 취임 이후에 대한체육회 재정이 어마어마하게 악화가 됐어요. 지금 돈이 엄청나게 전입됐는데, 조금 전에 여러 번 지적하셨지만 작년에 직원 월급 줄 돈이 없어서 30억 차입하셨고요. 그리고 무슨 특보단이다, 이번 올림픽 때 개인적인 친분 있는 분들 여러 분 가서 돈 쓰고 이런 것 보면 과연 대한체육회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곳인가 이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회장님, 기업 오랫동안 운영하셨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신동욱 위원** 회장을 하셨는데 사장이 이렇게 기업 운영하시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 같으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과다한 비용 이런 것들은 저희가 평창에 훈련센터, 장흥에 인재개발원을 만들면서 여기에 소요된 비용들이 자체 예산으로 많이 들어갔고, 최소한의 전문인력들이 필요합니다.

○**신동욱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지적을 하는 문제는 그런 필요한 사업을 하는 예산을 지적드리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과다하게 특보단을 운영하냐, 조금 전 말씀드린 것처럼 1만 3000명씩이나 불러서 체육인대회를 하는 것 이게 적절합니까?

체육국장님, 적절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신동욱 위원**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이것은 길 가는 삼척동자에게 물어봐도 이런 행사 하시면서 십몇억씩 쓰고 지인들 올림픽 데려가면서 또 몇억씩 쓰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과시성 예산에 돈 쓰고 평창올림픽에서 분배받은 수익금으로 직원들 이런저런 곳에 전용해서 마구 쓰시고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는 겁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마구 쓸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대회를……

○**신동욱 위원** 아니, 마구 쓰셨잖아요. 마구 쓸 수가 없는 구조인데 이렇게 마구 쓰셨으면……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위원님, 대회를 그렇게 키우게 한 것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해서 키운 겁니다.

○ **신동욱 위원** 지금 대한 체육인대회, 1만 3000명 불러서 대회하는 걸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요청해서 했다고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요청이 있었습니다.

○ **신동욱 위원** 체육국장님, 맞습니까?

이것 요청했다는 것 입증하지 못하면 위증하시는 겁니다. 요청하셨다면 요청한 서류 제출하세요, 오후까지. 서류 있으실 겁니다.

체육국장님, 요청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제가 부임하기 전이었지만 아마 요청한 게 문서로 온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문체부에서 대한체육회에 1만 명 이상의 대대적인 행사를, 1월 달에 대한 체육인 행사하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 **신동욱 위원** 오늘 오후 감사까지 그것 관련 서류 있는지 문체부에 좀 확인하시고, 또 요청을 문체부에서 하셨다면 그 요청받은 서류가 있으신지 대한체육회에서도 오후까지 꼭 좀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때 대통령님께서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규모를 좀 확산하고 또 동계올림픽을 프로모션 하기 위해서, 그때 동계 유스올림픽이……

○ **신동욱 위원** 아니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참석하시고……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래서 228개 시군구에 고르게 사람들을 배정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 **신동욱 위원** 그런 관련된 행사 계획이 있으시면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현 위원** 충남 공주시부여군 청양군 출신 박수현 위원입니다.

이기홍 대한체육회장님, 안세영 선수가 용기 있게 쏘아 올린 그 작은 공이 작은 날갯짓이 돼서 배드민턴협회를 넘어서 축구협회 그리고 체육계 전반을 한번 돌아보고 좀 바로 잡을 건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고 이런 흐름들이 지금 있는 중이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 **박수현 위원** 그래서 이번에 애말로 제대로 좀 바로 잡아서 우리 체육회가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정말 대한민국 위상에 걸맞는 선진 체육 강국, 진정한 체육 강국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런 계기로 이번에 삼아야 되겠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 **박수현 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볼 때 이번 기회도 그냥 안세영 선수가 쏘아 올린 그 작은 공을 우리가 놓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염려가 상당히 들어서 체육회장님께

당부의 말씀 겸 또 질문을 한번 드려 보기로 합니다.

체육계 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배드민턴 문제에 관해서 제가 한번 질문을 해 볼 텐데, 이것이 배드민턴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전체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으로 확대해서 한번 본 위원의 질문 취지를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세영 선수의 신발 문제 잘 알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수현 위원** 저는 뉴스를 봤는데 안세영 선수에게 신발 자율권을 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런데 배드민턴협회가 발표하기를 ‘10월 15일 개막하는 세계배드민턴연맹 덴마크오픈부터 안세영 선수에 한해 한시적이고 예외적으로 경기화의 자율 선택권을 주기로 후원사와 합의했다’, 저는 이 보도를 보고 경악했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신발을 신을까요? 저는 그런 의구심을 가졌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안세영 선수가 뭐라고 했냐면 ‘나만 특혜를 받는 게 쉽다. 그래서 그대로 신발을 착용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 당연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러자 13일 출국하기 전에 또 조건부 허락을 합니다, 원하는 신발은 신되 로고는 가려야 한다. 아니, 이게 정말 문제의 본질을 바로 보고 있는 것일까요? 어떻게 이런 문제 인식을 가지고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하고자 했던 그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입니까?

배드민턴협회가 제도개선을 약속했습니다. 어떤 제도로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것인가요? 문제의 본질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협회의 이 인식 태도에 대해서 저는……

체육회장님, 체육회장님은 여러 가지 문제로 좀 바쁘시지만 이런 문제는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수현 위원** 그래서 특정 선수에 한정해서 경기화 자율 선택권을 주는 것은 여전히 선수들의 건강과 경기력 향상보다 후원사와의 계약 이행에만 매몰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대로는 제도개선 어렵도 없다 저는 그런 인식을 갖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동안에 배드민턴협회가 안세영 선수 이 질문에 대해서, 문제 제기에 대해서 답했던 내용을 한번 살펴봤어요. 그랬더니 저도 안세영 선수에게 미안한 것이 왜 배드민턴협회의 이런 답변을 내가 그동안 지적하지 못했는가를 반성했습니다.

한번 하나씩 살펴볼까요?

안세영 선수가 이런 걸 이야기했지요. ‘최초 검사에서 오진이 있었다. 그래서 부상 직후의 정밀검진에서 2~4주의 재활 소견이 있었는데 이것을 연말 재검진에서 보니까 당초 판단보다 심각함이 밝혀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배드민턴협회의 답변을 보면 ‘안세영이 방문해 진료받은 병원과 진료·치료기록 등을 파악해 어떤 부분에서 오진으로 고통을 받았는지 확인하겠다’, 안세영 선수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 무엇을 하겠다는 뜻으로 보이지만 가만히 읽어 보면 안세영 선수가 과연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가서 확인해 보겠다는 뜻으로 읽혀요, 지금 읽어 보니까.

그러니까 앞서서 본 위원이 지적했던 안세영 선수에게만 한시적으로 그렇게 경기화를 허용하겠다라고 답변하는 그러한 것을 대책이라고 내놓는 배드민턴협회니까 바로 이러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안세영 선수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조차를 모르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안세영 선수가 ‘협회는 선수 부상을 간과하고 있다. 그래서 협회 내에서 제공되는 재활치료 외에 외부 재활전문가를 통한 치료를 허락해 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배드민턴협회 답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파리에서 대한체육회 의무팀과 파리 시내 한의원 진료를 지원할 수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세영이 요청하는 한의사를 1100만 원 이상의 경비를 들여 협회비로 진료했다. 올림픽에 참가하는 12명의 배드민턴 선수 중 안세영에게는 2월부터 전담 트레이너를 지원해 부상 관리와 회복에 도움을 주고 있다’. 정말 부끄러운 답변 아닙니까? 제가 배드민턴협회의 이런 답변을, 무성의한 답변을 왜 질책하지 못했는지 지금 다시 반성해 본다니까요.

그다음에 세 번째도 제가 한번 볼게요.

한수정 컨디셔닝 트레이너 관련입니다. 안세영 선수가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수현 위원** 그랬더니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진천선수촌 내에서 한 트레이너와 안 선수만 붙어 다니며 타 선수들과 대화하지 않고 배드민턴협회장에게도 인사하지 않았다. 협회는 일각에서 한 트레이너의 가스라이팅 의혹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 분노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어린 선수가 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이라고도 제도개선할 수 있는 의지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또 보겠습니다.

협회의 일방적인 의사결정, 안세영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랑스오픈과 텐마크 오픈 불참 과정에서 충분한 설명과 소통 없이 선수명단에서 제외시켰다. 별다른 설명 없이 우버컵 준결승전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당시 안세영 선수는 스트레스성 장염 증세가 있음에도 출전 의사 밝혔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협회가 뭐라고 답변했느냐면 ‘당시 안세영은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무릎 부상을 당했고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2개 대회를 잇따라 출전했으면 더 큰 문제가 됐을 것이다’라고 안세영 선수가 이야기하는 것과 동문서답을 합니다.

국제대회 참가 나이 제한 규정 관련해서 안세영 선수가 ‘대표팀에서 나간다고 해서 올림픽을 못 뛰는 것은 선수에게 야박하지 않나 싶다’. 비공개 민주당 간담회에서 존경하는 양문석 위원님과 임오경 위원님께서 이 문제를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신 바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협회 측이 뭐라고 했느냐면 ‘규정이 무시되면 선수들의 국가대표팀 이탈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있다. 그런 경우 국가대표 운영에 있어서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거야말로 굉장히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인데 이렇게 답변을 빠져나가고 있어요.

체육회장님, 제가 그 외에도 배드민턴협회의 이러한 안일한 인식이나 문제의 본질을 지적하지 못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체육회장님께 당부드립니다. 이 문제는 대한배드민턴협회 자체에만 맡겨 놓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므로 안세영 선수가 용기 있게 쏘아 올린 이 작은 공, 그의 작은 날

겟짓이 정말 허투루 되지 않도록 대한체육회장님께서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고 이에 대해서 제대로 된 제도개선과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육회장께서 분명히 책임지셔야 된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명심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이번에 정부에서 종합조사 결과 나오면 그걸 토대로 해서 확실하게 모든 시스템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이정우 체육국장 나와 주십시오.

축구협회 종합감사 최종 결과 발표 언제로 보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지금 10월 말로 예정이 되고 있는데요, 조금 늦어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김재원 위원** PPT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지난 17일 포니정재단이 한강 작가에게 혁신상을 시상했지요. 아버지인 고 정세영을 전 회장을 기리기 위해서 정몽규 회장이 이 재단을 만들었고요. 현재 정 회장이 이사장으로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 회장은 현재 도미니카공화국에서 열리는 FIFA U-17 여자 월드컵에 참석한다는 이유로 오늘 국감 증인으로 참석하지 않았는데요. 선택적으로 24일만 참석을 한다고 했습니다. 핫한 한강 작가 옆에 서서 사진은 찍고 싶고 국민들 앞에서 답변하는 국정감사는 어떻게든 피하거나 아니면 안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지금 방송 보고 계시는 국민들께서도 실시간 댓글로 ‘축협련’, ‘런몽규’라며 그럴 줄 알았다라는 반응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24일 참석한다고는 했는데 비행기표는 25일 도착이라는 소문도 무성하게 지금 퍼지고 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또 어떻습니까?

PPT 다음 것 보시지요.

홍 감독 첫 경기인 9월 5일 팔레스타인전, 서울월드컵경기장을 찾은 6만 관중 가운데 다수는 홍 감독과 정몽규 회장한테 야유를 심하게 보냈습니다. 논란이 되자 붉은악마는 ‘지기를 바라는 응원은 없다. 응원의 목소리로 바꿔 달라’ 하며 야유 중단 의사를 밝혔고 그날 이후에 야유는 점차 줄었는데요. 이런 팬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듯 ‘야유가 줄었다, 없어졌다’라는 기자의 질문에 홍 감독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유는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웃음일까요? ‘결과가 나오면 여론은 바뀝니다’라는 그의 말이 떠오릅니다.

국장, 이 말 알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들었습니다.

○**김재원 위원** 즉 3연승이라는 결과에 야유하던 여론은 바뀌었다 또는 이기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렇게 흥 감독을 해석하는 분들이 많은데 국장도 그런 뜻으로 이해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아니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김재원 위원 이기면 모든 게 해결된다는 입장이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아닙니다.

○김재원 위원 아니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예.

○김재원 위원 지난 현안질의에서 감독 선임 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 하자가 있었다라는 사실이 밝혀졌음에도 흥 감독은 축구 성적만 좋다면 아무 문제도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국민을 무시하고 있는 아주 오만한 태도입니다.

때문에 국가대표팀 경기 때마다 국민들이 아주 복합적인 감정을 느끼고 계십니다. 국민께서 응원을 해야 하는데 응원을 하지 못하는, 제대로 응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대표팀의 승리를 순수하게 기뻐할 수 없는 현재 상황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아니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김재원 위원 문체부는 최근 국가대표팀 성적이 정몽규 회장의 4연임 및 대한축구협회 감사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라고 봅니까?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아니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김재원 위원 별개의 사안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별개 사안입니다.

○김재원 위원 문체부 대한축구협회 감사 최종 결과 발표는 국민들께서 매우 기다리시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국민께서 대표팀 경기를 마음 편하게 즐기실 수 있도록 장관에게 정확히 보고해서 신속하고 적법하게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감사로 마무리되기를, 마무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스포츠윤리센터 질의하겠습니다.

박지영 이사장, 문체위가 의결해서 요구한 공식 국정감사 자료는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제출 전에 오류 없는지 사실과 다른 점은 없는지 기관장도 꼼꼼히 보고 결재하는 자료지요?

기관장 안 봅니까?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박지영 봅니다.

○김재원 위원 다른 기관들도 모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PPT 보시지요.

저희가 받은 업무보고 자료 정확히 16페이지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위원 의석에 제출된 스포츠윤리센터 업무보고 자료 보시지요. 센터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자 가장 중요한 실적이 인권침해, 비리 관련 상담, 신고 실적인데요. 어떻게 계산한 건지 모르지만 빨간 부분 보시면 아래 총계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안 보셨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쉽게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입시비리 항목을 보면 상담 건수가 2023년 5건, 2024년 8월까지 7건으로 합이 12건인데 총계는 왜 26건으로 나오는 거지요? 나머지 항목도 모두 이런 식입니다.

의도가 있었던 거라고 보기도 어렵고 허위 자료라고 하기도 민망하지만 분명한 것은 센터 관리자부터 기관장까지 누구도 제대로 읽어 보지도 않고 결재하고 국회에 이렇게 제출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야 센터가 제출한 수치와 업무보고 내용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국정감사 자료예요?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박지영** 죄송합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엄중하게 생각하십시오. 국정감사 수감 태도와 기관장 업무방식에 대해서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사장, 스포츠윤리센터는 2020년 7월 조사팀 A 팀장을 채용하며 제출된 경력증명서 등을 통해서 3년 경력을 인정해서 경력직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같은 해 12월에 A 팀장 인정 경력이 6개월로 줍니다. 연봉도 일부 조정이 됩니다. 이유를 물어보니까 채용 당시에는 급여를 받으면서 상근한 사실을 증빙하는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서류를 제출받지 않았다가 이후 확인 과정에서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런 서류를 왜 먼저 안 받아요?

PPT 보겠습니다.

화면은 A 팀장 채용할 때 당시의 채용공고입니다. 제출서류 허위로 인한 불이익은 본인에게 있다, 허위사실 기재했을 때는 채용이 무효 처리된다 등이 고지가 돼 있지요. 빨간 부분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조사실의 조사팀장은 단 2명밖에 없는 중요한 보직이자 윤리센터 핵심 업무를 수행을 하는 그런 중요한 자리입니다. 채용 당시에 허위 경력이 인정된 것도 이후 허위 경력이 밝혀진 뒤의 조치도 상식적이지가 않습니다.

기관 운영과 관련해서 핵심 실적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 PPT 보시지요.

화면은 업무보고 자료에서 나온 조사 및 사건 처리 현황입니다. 기각, 각하 건수가 너무 많습니다. 취하는 조사관이 권하는 경우도 많다고 들었는데요. 이 세 유형을 합치면 전체의 70%가 넘습니다.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종결한 일이 많으면 센터에 대한 체육인들의 신뢰가 있겠습니까? 신뢰 없지요.

적정한 수준인지 그동안의 처리 결과에 대해서 정밀하게 검토해 봐야 됩니다. 안세영 선수 같은 경우도 안세영 선수가 직접 하진 않았지만 다른 사람이 했는데 기각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이사장, 채용과 사건 처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이달 말까지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박지영** 예, 알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특히 서류 부분은 엄중하게 직접챙겨서 보도록 하세요.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박지영** 설립 초기에 시행됐던 일인데 다시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김재원 위원 이상입니다.

○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박지영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오경 위원 경기도 광명갑 임오경 위원님입니다.

질의에 앞서 이기홍 회장님, 여기는 국감장입니다. 앞서 여당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있어서 태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유념하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필요할 때는 체육인들, 좀 심하게 말하겠습니다. 필요할 때는 정부가 체육인들 이용해 먹고, 지금 얘기를 듣자 하니 과시를 위해서 사람 동원시키라고 지시해놓고……

체육인들이 물건입니까? 이정우 국장님, 체육인들이 상품이에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아닙니다.

○ 임오경 위원 2년 전에는 김건희 여사가 축구 국가대표팀 선수들 보고 싶다고 그래 가지고 장관 배제시키고 대한축구협회 회장 배제시키고, 유럽으로 출국해서 바로 대회에 투입돼야 되는 선수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그 예산은 축구협회에서 대라, 식사비는. 그것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저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그렇게 이슈가 크게 나왔는데 몰라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개략적으로만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그런 건 알고 있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예.

○ 임오경 위원 대통령이 납신다고 하면 인원 동원 누가 시킵니까? 누가 지시합니까? 문체부가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계속해서 국감 10월 7일부터 시작하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영부인이 참석한다고 해서 예산이 배로 늘어나고 또 불출석한다고 했다가 갑작스럽게 또 참석하면서 격려차 갔다, 이 사건으로 10월 7일부터 계속해서 지금 논쟁이 일어나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팩트 체크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이기홍 회장님, 대한민국 체육인대회 문체부에서 동원하라고 지시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참고로 저희가 원래 계획했던 예산보다 한 9억 정도 늘어났기 때문……

○ 임오경 위원 제가 묻는 말에 답변하십시오.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이 예산을 보충해 달라고 문서로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상태입니다.

○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사람 동원, 대통령 오시니까 이것 사이즈를 더 크게 해라라고 지시가 있었습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제가 지금 말씀드려도……

○ 임오경 위원 예.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돈을 더, 비용이 추가 발생됐으니 이것을 고려해서 지급해 주면 좋겠다라는 문서를 장관님한테 보내 놓은 상태입니다.

○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대한체육회가 요청을 한 겁니까, 문체부가 요청을 한 겁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대한체육회가 문화체육관광부에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 임오경 위원 대통령이 오시니까?

대통령이 참석하셨습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못 오셨습니다.

○ 임오경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다시 짚고 넘어가는 것은……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사회수석께서 대신 오셨습니다.

○ 임오경 위원 이 모든 행사가 대통령, 영부인 참석 가능성도 없는데 계속해서 예산이 부풀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한두 건도 아니고 지금 전체 상임위에서 국감장에서 터져 나오는, 예산 낭비가 어떻게 돼 가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그런데 문체부도 지금 끝이 없습니다, 끝이 없어.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위원님, 그건 아까 신동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제가 자료를 확인 중인데 저희가 먼저 대통령 참석하신다고 행사를 크게 하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 임오경 위원 이 자료는 신동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으니까 오후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답변해 주시고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러겠습니다.

○ 임오경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상품이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무 때나 메달리스트들, 선수들, 필요할 시에는 불러들이고 문제가 되면 포용하려고 하지도 않고 남 탓만 하고 있는 지금 이 현장을 보니까 답답해서 한 말입니다, 답답해서.

하나 물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2021년에 스포츠 공약했습니다.

두 분 다 들으세요.

운동하는 국민들에게 국민건강보험료를 환급하겠다, 지금 시행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체육인공제회 통해 은퇴 체육인의 기본생활보장 지원하겠다.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그것은 저희가 11월 달에 발표할 체육인복지종합계획안에……

○ 임오경 위원 공제회라고 말했어요, 제가 말하는 것만 답변하세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공제회 관련된 사업을 짚어 넣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제가 공제회 공청회까지 했습니다.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 법안 폐지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예, 알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이것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한 겁니다.

또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 체육계 사용 확대, 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기금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실내 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되고 있습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내년도 7월 1일부터 헬스장 비롯해 가지고 몇몇 기관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에 관해서 소득공제가 되도록 준비하고는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아직까지도 준비 단계지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법은 개정이 돼서 7월 1일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내년 7월 1일 예정입니다.

○ 임오경 위원 벌써 3년이 지나고 있는데 준비 단계예요. 그것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 체육활동 지원 등 윤석열 대통령이 여섯 가지 했는데 이것 또한 지원되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지금 저희가 전반적으로 스포츠강좌 이용권 같은 경우는 규모가 많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그것은 기존에 해 왔던 거고요. 그것은 기존에 해 왔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워진 게 지금 이행되고 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예를 들어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 장애인용 특화된 반다비체육센터 같은 경우를 새로 설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반다비체육관도 계획된 것만 지금 하고 있지 추가적으로 요청해도 먹히지도 않아요. 지금 반다비체육관이 지자체에서 얼마나 많은 요청이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매칭사업을 해 갖고, 7 대 3으로 매칭사업하라고 해 놓고 지자체에서 70%를 대라고 하면 반다비체육관이 뚝딱하고 떨어집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반다비체육관은 매칭이 아니고 정액 지원으로 40억 지원하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이정우 국장한테 계속 물어볼게요, 일어선 김에.

생활체육 동호인이 지금 인구가 얼마나 돼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몇백만 규모로 굉장히 규모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2016년 통합됐지요, 대한체육회하고 생활체육회가?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예, 통합됐습니다.

○ 임오경 위원 갑자기 대한체육회 조직이 커진 이유가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 아닙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대한체육회랑 통합이 된 것은 이기홍 회장님이 취임하기 전인 2016년 4월 달에 통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기홍 회장님은 2017년 1월 달에 취임하셨습니다.

○ 임오경 위원 이기홍 회장님 언제 취임하셨어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10월 취임했습니다.

○ 임오경 위원 2016년 통합돼서 취임 시작했습니다.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초대회장입니다.

○ 임오경 위원 통합 초대회장님이십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통합은 4월 달에 되었습니다.

○ 임오경 위원 통합 초대회장이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4월 달에 통합이 되었고. 그러면 조직이 커져야 됩니까, 작아져야 됩니까?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커져야 됩니다.

○ **임오경 위원** 그러면 더 이상 말이 필요 없고. 이제는 안착해서 지금부터 실수를 하지 않도록 문체부가 관리감독해 주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해요, 안정세로 접어들기까지는. 그런데 왜 여기까지 나와서 계속 싸움질만 하십니까? 답답해서 말하는 거고요.

그리고 현장에서 가장 필요로 한 게 뭔지 알아요? 생활체육 동호인이 늘어났으면 가장 필요한 게 뭔지 알고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시설 말씀하시는 겁니까?

○ **임오경 위원** 맞아요. 시설 확충입니다. 시설 확충해 주고 있어요? 지방으로 다 이양 사업으로 내려 주고 지방에서 알아서 해라? 이게 지금 말이라고 하고 있어요? 국민을 위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하나라도 지금 해결된 게 있냐고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위원님, 그래도 저희가 체육시설 관련해서 매년 200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 **임오경 위원** 2000억 투입됐고, 제가 말을 듣고 답변을 듣고 있는데 대한체육회가 진짜 문체부 승인 없이 항목을 전환해서 마음대로 그렇게 예산 사용하고 있어요?

이기홍 회장님,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못 합니다.

○ **임오경 위원** 이정우 국장님, 할 수 있어요?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그런데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1월 15일 날 체육 인대회 같은 경우는 12억 원이 전액이 대한체육회 자체 수익으로 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자체 수익 집행 같은 경우는 저희가 수단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JMPA 따라서 600억 정도 현물 내려온 것도 대한체육회에서 지출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자세한 내역을 알 수가 없습니다.

○ **임오경 위원** 이것 비목 승인 안 받고 대한체육회에서 했다라면 이기홍 회장님 직권 남용이고요. 문체부는 정치보복입니다, 제가 볼 때는. 질의를 해야 되는데 진짜 이것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가 하는 행동들을 보게 되면…… 국민에게 부끄러운 줄 아세요, 부끄러운 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제가 지금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도 1년 동안 윤석열 정부 지금 현재 우리가 문체부 중심으로 해서 피감기관들 잘하고 있는지 잘못하고 있는지 칭찬도 해 줘야 되고 잘못된 것 지적도 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뭐 하고 있습니까? 기관장 불러다 놓고 인신공격이나 하고 있고, 어떻게 국감장이 이렇게 변했습니까?

나는 오늘 지금 청문회 자리인 줄 알았습니다. 저는 이기홍 회장을 제가 옹호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들 너무 많은데 준비한 걸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피감기관이면 옹호를 할 줄도 알아야지 그냥……

○ **위원장 전재수** 부족한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전 주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질의 전에 잠깐 자료 요청 가능할까요, 제가 오후 질의와 관련돼 있어서.

○ **위원장 전재수** 예.

○ **박정하 위원** 앞서 존경하는 진종오 위원께서 대한체육회장에게 후보 검증자료 관련

해서 범죄경력 조회에 대해서 답변하시는데……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아니, 체육회에서 답변하실 것 없어요.

조치가 됐다라는 취지로, 당시 규정이 변경되는데 조치가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조치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있었어요. 그 부분하고, 지난 9월 24일 관련해서 진종오 위원이 이 검증이 좀 부실하니까 검증 장치를 좀 더 촘촘히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걸 준비해서 의원실에 보고해 달라라고 하니까 이기홍 회장님께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범죄경력 조회 같은 게 저희 의원들은 선거하려면 다 나가는데 개인이 조회하면 말소된 범죄사실까지도 다 나와요. 그런데 기관이 의뢰해서 조회를 하면 말소된 내용은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말소된 내용이 안 나오게끔 의도적으로 고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진종오 위원님께 제출했다는 자료 일체 그리고 2016년 당시의 이사회 회의록 초록이 와 있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한 모든 이사회 그리고 당시 주변의 이와 관련된 회의록 일체를 오후까지 제출해 줄 것을 요청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회장님, 가능하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최대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대한체육회장님 오랜만에 봐요. 잘 지내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9월 24일이니까 한 달 만에 뵙는 것 같아요. 그렇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어떻게 지내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위원님 찾아뵈려 사무실도 갔었는데 안 계셔 가지고……

○**박정하 위원** 한 번 오셨더라고요, 한 번, 저 없는 시간에.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없는 시간이 아니고 보좌관님께서 그 시간을 정해 줬습니다, 저한테. 그런데 갔는데 위원님이 안 계셨던 겁니다.

○**박정하 위원** 좋아요. 저한테 말씀 주시는 건 안 해도 되는데 제가 이것 여쭙는 것은 9월 24일 날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한 건이 뭔지는 아시지요? 해 보세요, 이렇게 얘기한 건. 당시 녹취 틀었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녹취 틀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뭐 뭐였지요? 또 기억 안 나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것은 9월 24일 전인 9월 23일 회장님께서 강원도체육회 가서 저렇게 영상카메라가 있는 앞에서, 기자들 있는 앞에서 얘기하신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공개적으로?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어디 뒤에서 저녁 식사 하시면서 소주 먹으면서 뒷담화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때 뭐 얘기했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중에서 저와 관련된 것.

뭐라고 했어요? 기억 안 나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강원도에 여러 의원님들이 계시고 또 역할이 크시니 우리 회장님들이 설명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해야 되겠다……

○**박정하 위원** 아니, 그것만? 됐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그날 장관에게 괴물이라고 했던 것, 도지사에게 압박을 가했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 저를 향해서 필이 잘못 꽂혔다, 망조가 들었다라는 발언에 대해서,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신 발언에 대해서, 녹취 틀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제가 어떻게 했느냐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한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언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체육회장님의 입장을 설명해 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찾아오고 말고 이것 중요치 않아요. 그리고 당일 날 사과한 건에 대해서는 제가 뭐 그날, 사과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들었어요.

이것 왜 한 달이 지났는데 안 하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방금 언론 얘기는 제가 그때 놓쳤습니다.

○**박정하 위원** 무슨 말씀이에요? 또 몰라?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닙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박정하 위원** 이것 녹취록에 있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러니까요. 그 자리에서 공개사과를 하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동안……

또 몰라?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또 몰라가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회장님, 왜 그러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 그 자리에서……

○**박정하 위원** 제가 보면……

자, 들어 보세요.

저는 진짜로 무슨 비열이니 비굴이니 이런 자극적인 단어 쓰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자꾸 사람이 비겁해지다 보면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제가 10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회장님 답변 죽 들어 보면 비겁하다는 생각나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왜 또 기억이 안 나요? 당시에 제가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이 취지를, 회장님께서 말씀하시면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취지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을 언론에 설명하고 그 건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어떤 건인지 얘기해 달라고 그랬는데 왜 안 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좋습니다. 그건 뭐……

○**박정하 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하실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관련돼서 언론 많이 아실 테니까 종감 전까지 언론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말씀하시고 공개적으로 이 취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고 당일 날 사과한 것처럼 그 기록을 분명히 언론에 남기시겠어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하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좋아요. 됐어요, 거기까지. 24일까지 언론 보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님 계시지요?

○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 **박정하 위원** 스포츠윤리센터는 문체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그 외 나머지 기관에 대해서 고발이 들어오면 고발이 정리될 때까지 관련 기관에 조사 사실을 통보 안 하지요?

○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그렇습니다.

○ **박정하 위원** 됐어요.

체육회 윤성욱 총장님, 평생 공직에 계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 **박정하 위원** 명예롭게 공직생활을 하신 것 같고.

공직이라는 게 국민들 앞에 부끄럽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 **박정하 위원** 스포츠윤리센터의 대면조사 요청받으신 적 있어요, 없어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몇 번이나?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세 번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 **박정하 위원** 세 번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 **박정하 위원** 세 번이나 요청했는데 안 가셨어요? 왜?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공교롭게도 회의 일정이나 전국체전 일정이랑 겹쳐 있었습니다.

○ **박정하 위원** 회의 일정요? 회의야 조정하면 되잖아요.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대면조사할 때 회의 정도는 양해해 줄 텐데요.

2024년 9월 13일, 9월 26일, 10월 8일 다 나오라고 그랬는데 안 오셨어요. 그렇지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 **박정하 위원** 왜? 스포츠윤리센터가 그냥 만만해서 그러신 거예요? 평생 공직생활을 하신 분이 그래도 돼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9월 13일은 아마 올림픽 관련 행사가 올림픽 현장에서.....

○ **박정하 위원** 그러면 총장님, 종감이 내일 모례니까 빠듯할 수 있어요. 이달 안에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실 의향 있으세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일정을 조율해 보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정해 줄 거예요.

○ **대한체육회사무총장 윤성욱** 예, 알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꼭 가세요. 그리고 나서 그 결과를 저희 방에 보고해 주세요.

체육국장님, 앞서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스포츠윤리센터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것은 이렇게 결정이 되고 가지 않아도 아무 문제도 없이 지나가니까 그

러는데 지금 좀 전에 윤 총장처럼, 이것은 이기홍 체육회장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조사 요구하는데 안 오는 분들에 대해서 과태료 징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최근에 8월 7일 자로 법령이 개정돼서 시행되고 있는데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했을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언제부터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8월 7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데 세 번이나 안 했는데 왜 안 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그것은 윤리센터에서 저희에게 과태료 부과를 요청해야 되는 겁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박지영 이사장님 다시…… 향후 이기홍 회장과 윤 총장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조사 요구할 계획 있으신가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현재는 우선 25일에 심의위원회에 상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의 조사 거부를 했기 때문에 조사관이 일단은 조사 불용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올렸는데 심의위원회에서 대면조사나 서면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결정을 하면 11월 초에 다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때도 안 하면 체육회 과태료 징구 청구를 하실 예정이신가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과태료 청구할 예정입니다.

○박정하 위원 꼭 해 주세요.

○스포츠윤리센타이사장 박지영 예, 알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체육회장님……

제가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공교롭게 날짜가 비슷한데 작년 10월 24일 지금 제 옆에 계시는 존경하는 김승수 위원님께서 당시 테니스협회 회장선거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니까 ‘스포츠윤리센터에서 후보로 나오신 세 분의 회장님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조사가 완결이 돼서 모든 것이 소명될 때까지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하셨어요. 이런 얘기 하셨지요? 맞아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말씀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이 말씀이 사실과 부합하나요, 아닌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때 제가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또……

○박정하 위원 그게 당시에, 제가 여쭙는 것은 후보로 당시에 나왔던 1번 예 모 후보, 2번 관 모 후보, 3번 주 모 후보가 당시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이 돼 있었는지 없었는지만 확인해 주세요. 맞아요, 틀려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확인 아직도 안 돼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때 당시에 거기뿐만 아니라……

○박정하 위원 자, 됐어요. 아직도 모른다 이거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 **박정하 위원** 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님, 당시에 이 세 분에 대한 고발이 들어와 있어요 아니면 다른 분에 대한 고발이 들어와 있어요?

○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당시 세 분에 대한 고발은 없었습니다. 당시……

○ **박정하 위원** 없었지요?

○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전임 회장에 대한 고발만 1건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다른 분에 대한 고발이지요?

○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 **박정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까지 조사 내용상 이기홍 회장이 이렇게 국감에서 얘기한 건이 사실과 다른 거네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조사 상황으로는?

○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 **박정하 위원** 앉으세요, 됐어요.

체육회장님, 사실과 같아요 아니면 조사해 봐야 돼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조사해 봐야 됩니다, 정확한 것은.

○ **박정하 위원** 아직도? 아직도? 분명히 해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위원님, 제가……

○ **박정하 위원** 제가 지난번에 녹취를 틀면서 여쭤볼 때에 대해서는 제가 우리 위원회 명예가 걸려 있어서 위증 고발 안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오늘 답하신 건에 대해서는 제가 꼼꼼히 따져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위증 고발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니다.

당시 이렇게 국감에서 말씀하신 건이 사실이었어요, 거짓이었어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때 국감에서 드렸던 말씀은, 지금 세 사람의 관계가 하나로 엮여져 있습니다, 내용상으로.

○ **박정하 위원** 아니 무슨, 그 말씀 마시고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 그러니까 저희로서는……

○ **박정하 위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만 답변 주세요.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께서 당시에 이 세 분에 대한 고발이 안 들어와 있다, 이건 다른 분들이다. 그런데 회장께서는 이 세 분에 대한 고발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당시 진행 중이던 테니스협회장 선거를 당장 중지시키고 그날로 체육회장 명의로 관련 협회에 선거 중지를 요청합니다. 그래서 받아들여서 선거가 중지됐어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중지했습니다.

○ **박정하 위원** 다시 한번 여쭐게요.

당시에 세 분이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이 돼 있었어요, 없었어요? 사실과 같아요, 달라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취지가 아니고요. 윤리센터에 고발이 돼 있는데 전임 주원홍 회장 그다음 두 번째 회장, 세 번째 회장이 다 이 내용에 연결돼 있습니다. 연결이 돼 있고 당시 감사원에서도 조사를 하고 있었고 또 회장선거를 하는 그 출마 공고문 자체가 우리는 문제가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지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 박정하 위원 마지막 한 번만 확인하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 세 분의 회장님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조사가 완결이 돼서 모든 것이 소명될 때까지 선거할 수 없다, 사실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그것만 ‘예, 아니요’로 답변 주세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지금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 박정하 위원 이건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속기록에 있는 당시에……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제가 한 얘기는……

○ 박정하 위원 아니, 연계돼 있고 말고 회장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걸 제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을 하고 이렇게 말씀하신 건이 맞았는지 틀렸는지를 다시 한번 여쭙는 거예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저도……

○ 박정하 위원 그리고 양심껏 말씀 주시면 그걸 제가 검증해서 위증을 할지 안 할지 얘기하겠다고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확인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이것 좀 전에는 아니라면서요? 또 왜 확인을 해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확인을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제가 다시 읽어 드릴게요.

‘일단은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이 세 분의 회장님들에 대해서 지금 조사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조사가 완결이 돼서 모든 것이 소명이 될 때까지는 선거를 치를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았고 이 조사가 진행됐는지 안 됐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말이 사실이에요, 거짓이에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는 사실대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 박정하 위원 이게 사실대로 얘기했다 그 말씀이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잠깐만요. 제 말씀은 당시에 그 세 사람들이 서로 고소고발을 하고 그런 상황이었어요.

○ 박정하 위원 거기까지 말고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러니까 이게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 박정하 위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하고.

이렇게 말씀 안 하셨다는 거지요? 이게 내가, 당신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당시에는 맞았다 이거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단정적으로, 그 방향으로 얘기를 단정적으로 하시는데 그 단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는 포괄적으로……

○ 박정하 위원 잘 복기하시고,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죽 복기해 보시고 오후 질의 또 여쭐 테니까 그 사이라도 수정할 게 있으면 저한테 말씀 주세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의 주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5시 정각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3시14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일반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에 출석한 일반증인은 김민수 충북축구협회 사무국장님,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님, 김종민 대한킥복싱협회장님, 이민규 대한사격연맹 차장님, 장재근 진천선수촌 촌장님, 홍기용 대한민국축구협회장님, 김택규 대한배드민턴협회장님, 민경국 스포츠 에이전시 대표님, 정창훈 대한수영연맹 회장 등 총 아홉 분으로 우리 위원회가 채택한 증인 중 공선택 전 대한킥복싱협회 사무처장님, 김철웅 요넥스코리아 대표님, 손진영 FC세종 대표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님 등 네 분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습니다.

참고인은 강신준 전 대한킥복싱협회장님, 손중철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님, 오주영 대한세파타크로협회 회장님, 주원홍 아시아테니스연맹 부회장님, 최문철 학원 강사님 등 총 다섯 분이 출석하셨습니다.

일반증인 및 참고인의 명단과 출석 현황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위원회 직원으로 하여금 오늘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했으므로 간단한 본인 확인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 및 참고인께서는 이름을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라고 대답하시고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연욱 위원께서 신청하신 김민수 증인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민수 예.

○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정하 위원께서 신청하신 김병철 증인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병철 예.

○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종오 위원께서 신청하신 김종민 증인 나오셨습니까?

○ 증인 김종민 예.

○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종오 위원께서 신청하신 이민규 증인 나오셨습니까?

○ 증인 이민규 예.

○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연욱 위원께서 신청하신 장재근 증인 나오셨습니까?

○ 증인 장재근 예.

○ 위원장 전재수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연욱 위원께서 신청하신 홍기용 증인 나오셨습니까?

○ 증인 홍기용 예.

○위원장 전재수 앓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연옥 위원께서 신청하신 김택규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김택규 예.

○위원장 전재수 앓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정연옥 위원께서 신청하신 민경국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민경국 예.

○위원장 전재수 앓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승수 위원께서 신청하신 정창훈 증인 나오셨습니까?

○증인 정창훈 예.

○위원장 전재수 앓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진종오 위원께서 신청하신 강신준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강신준 예.

○위원장 전재수 앓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정하 위원께서 신청하신 손증철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손증철 예.

○위원장 전재수 앓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정하 위원께서 신청하신 오주영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오주영 예.

○위원장 전재수 앓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박정하 위원께서 신청하신 주원홍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주원홍 예.

○위원장 전재수 앓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재원 위원께서 신청하신 최문철 참고인 나오셨습니까?

○참고인 최문철 예.

○위원장 전재수 앓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의 출결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은 증인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를 받는 이유는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습니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때 또는 국회의 권위를 해손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증인 선서는 일괄하여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을 대표하여 김민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해서 위원장에게 직접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인들께서는 선서가 필요 없기 때문에 자리에 앓아 계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김민수 증인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증인 김민수** “선서, 본인은 국회가 실시하는 2024년도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증언을 함께 있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와 같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0월 22일

증인 김민수

증인 김병철

증인 김종민

증인 이민규

증인 장재근

증인 홍기용

증인 김택규

증인 민경국

증인 정창훈

○ **위원장 전재수**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 및 참고인 신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과 참고인의 출석을 요구하신 위원님들의 신문을 모두 마친 후 그 밖에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5분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입니까?

○ **진종오 위원** 예, 의사진행발언입니다.

○ **위원장 전재수** 예.

○ **진종오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오전에 이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기홍 회장이 본 위원의 지적을 회피하면서 논점을 약간 흐렸습니다. 저는 자료를 바탕으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서담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명백하고요 또 장학금 외 항목들의 목적이 불명확하고요. 기부금 명세서 및 결산서류상에도 운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부인이 경제공동체임을 인정하셨고 또 체납한 적이 없다라는 답변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납세담보 근저당 설정이 2018년과 2021년에 두 번 있으며, 심지어 2021년의 경우 9000만 원 가량 채권최고액으로 잡힌 납세담보 근저당 설정이 아직까지 해제가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 위원은 국가에서 제공하는 서류를 증거로 질의를 했는데 세금체납에 대한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해당 세무서 등에서 세금을 납부했다라고 별도로 준비해서 의원실에 제출하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우성산업개발과 흥국산업에 본인이 경영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2005년과 2006년 판결문에 의하면 명확히 이 회장이 운영하는 회사라고 되어 있고 또 이 회장의 변호인도 인정한 부분입니다.

이 이사진 구성을 보면 회장의 부인, 친형, 친동생이 대표로 있고 또 감사, 사내이사 등 등기로 되어 있으며 동생은 현재까지도 흥국산업 이사입니다. 우성산업개발 경리부장

이 모 씨 그리고 우성산업개발 미사리 골재생산현장 관리과장 김 모 씨는 아직도 흥국산업 이사입니다. 위 두 회사에 이 회장이 실질적인 영향이 있다라는 것만 봐도, 인간관계를 봐도 이렇게 되어 있고.

위원장님께서 이기홍 회장의 약간 불성실한 답변에 대해서 책임감 있고 명확한 답변해 주실 것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기홍 회장님, 아까 진종오 위원님 질의 때 죽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뿐만이 아니고 조금 전에 다시 한번 언급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제출하실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더 이상의 논란이 없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리고 자료로 안 되는 부분은 진종오 위원님께 직접 또 설명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박정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위원장님, 오전에 제가 대한체육회 관련해서 자료를 세 가지를 요구를 했고 이후 질의에 앞서 진종오 위원 질의와 관련해서 또 한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제출이 안 되고 있거든요.

2018년부터 2건이고, 2024년도 것은 앞서 이기홍 위원장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면 과거가 아닌데 자료를 전혀 한 줄도 제출을 아직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서 의원실에 제출을 위원장님께서 요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 증인 신문 끝나고 위원님들 질의 들어가기 전까지는 되겠지요, 회장님?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질의 전까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자료들이 너무 여러 군데 산재되고 아래 가지고,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제출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최대한 빨리해서 제출을 해 주시고 제출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박정하 위원님께 별도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이 없기 때문에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정연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숙 위원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님, 시간이 좀 부족하니까 제가 일괄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지금 배드민턴협회가 현안질의 때부터 말씀하시는 죽 일련의 기본 요지는 규정이 이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취지로만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규정은 어디까지나 협회 자율적으로 협회 스스로가 만든 거지요? 어떻습니까?

배드민턴협회장님, 간단히 답변을 하세요.

○증인 김택규 외부의 규정이나…… 그런 건 외부의 규정이고요, 협회 규정은 협회가

만든 겁니다.

○정연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나이 제한에 대한 규정이나 대표팀 동반 트레이너 수의 부족이나 국제 대회 개인 후원용품 사용이 불가한 점, 모든 여러 가지들이 10년 전부터 계속 제기돼 왔던 문제들이고 또 이건 그동안 자체 규정상 어쩔 수 없었던 논리로 계속 말씀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2014년도에 이용대 선수를 비롯한 6명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있지요. 그래서 아마 국제대회 출전에 관련된 나이 제한 규정 관련해 소송도 있었고, 지금 안세영 선수도 똑같은 문제입니다. 동반 트레이너 문제 이건 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오전에도 좀 질의가 있었지만 개인 후원물품 사용 관련해서 한시적으로, 딱 안세영 선수에게만 하겠다는 제한적 한시적 예외적 자율권이라는 부분 이것을 안세영 선수가 받을 거라고 봤습니까? 어떻게 생각했습니다?

○증인 김택규 다른 선수들의 의견을 들어 보는 시간이 필요해서 덴마크오픈을 나가는 안세영 선수에 한해서만 후원사하고 협의한 겁니다.

○정연욱 위원 규정을 바꾸는 문제가 과연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고 해서…… 그동안 각종 말씀하시는 과정에서 규정에 대한 문제점도 솔직히 토로하셨고 개선 의지를, 이걸로 봐서도 과연 뭐를 개선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게 규정인데 규정은 스스로 지금 협회장님 중심으로 해서 만든 것이라고 말씀도 하셨고. 과연 이런 식의 고질적인 문제들이 전혀…… 10년 전부터 계속 그대로 쌓여 왔던 거 아닙니까?

○증인 김택규 예.

○정연욱 위원 그러면 민경국 증인, 협회장 발언은 계속 옆에서 들으셨겠지만 이 고질적인 문제라는 게 하루이틀 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수차 제기됐고.

그리고 지금 안세영 선수에게만 이렇게 제한한다는 것도 누가 봐도 코미디 아닙니까? 어떻게 보셨습니까?

○증인 민경국 제가 봤을 때도 현재 안세영 선수만 그런 규정의 혜택을 준다는 것은, 개인 혼자 움직이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위화감을 조성 한다든지, 안세영 선수를 어떻게 보면 좀 고립될 수 있게 하는 그런 한시적인 규정 해제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게 10년 전부터 계속 쌓여 왔던 누적된 문제가, 왜 고질적으로 이게 개선되지 않고 누적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민경국 일단 정연욱 위원님께서 고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는 2012년부터 배드민턴 선수들과 함께 일해 온, 배드민턴계에 몸을 담고 있는 종사자로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배드민턴 종목 안에서 제가 직접 경험하고 부딪혀 왔던 것을 말씀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밖에서 보시기에 대한배드민턴협회 운영이 지금 시대에 좀 맞지 않다고 다들 느끼시고 계실 텐데요. 사실 저도 마찬가지고 많은 대부분의 배드민턴 관계자분들께서도 그렇게 느끼시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대한배드민턴협회는 고 김학석 회장님의 엄격한 리더십 안에서 설립 초기부

터 우리가 다 아는 이효정 선수라든지 이용대·고성현 선수 같은 이런 황금 복식 세대, 황금 세대가 활약한 시기까지 어떻게 보면 배드민턴 불모지에서 배드민턴 강국으로 거듭나게 발전시켜 왔는데요. 고인과 함께 협회를 이끌어 오셨던 분들의 그런 노고와 희생에 대해서 선수들도 마찬가지고 저희 같은 배드민턴 종사자들도 충분히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그 공을 부정하지는 않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질적인 이 문제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고인과 함께 일하셨던 분들께서 지금까지도 권력을 쥐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대는 빠르게 변화했는데요 그분들은 그 자리에 그대로 계시기 때문에, 그것이 본질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지금 이 부분 중에서 안세영 선수가 아니었으면 이런 문제가 이렇게 불거지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큰 것 아닙니까?

○증인 민경국 제가 10년 전에 선수들과 목소리를 냈을 때도 이렇게 안세영 선수만큼 파급력이 크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사실 성적을 낸 선수가 없었다고 생각해서인데요. 안세영 선수처럼 이렇게 금메달을 따고 미디어와 팬들의 관심을 집중 받았을 때 말을 해야 이런 식으로 좀, 어떻게 보면 이런 계기로 선수들도 그렇고 국회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줄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정연욱 위원 마지막으로 그러면 앞으로 이런 관련된 규정들이 과연 협회 차원의 규정으로만 모든 걸 재단하고 나간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증인 민경국 일단 제가 배드민턴 국내 선수들뿐만 아니라 해외 선수들하고도 교류를 하고 해외 단체들과도 교류를 하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의 경우들도 이런 문제들이 사실 있었습니다. 이런 선수들의 개인 후원 문제라든지 개인 자격으로 국제대회 출전하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있었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는 규정으로 개인 선수들이 국제 오픈대회에 참가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중국 빼고는 다들, 국가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개인 후원을 어느 정도 허용하고 대표팀에서 시합을 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다른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 같은 배드민턴 강국들에서는 협회를 후원해 주는 후원사의 유니폼을 착용하고 또 협회를 후원하는 기업의 광고를 부착하고 선수들이 자기 본인이 쓰고 싶은 라켓과 신발 같은 이런 중요한 용품들을 사용하면서 그런 식으로 절충을 해서 대표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이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민주국가에서는 이런 규정으로 개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난 10년 전에 법원에서 판단을 받았을 때도 개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는 규정은 부당하다 이렇게 해서 선수들이 승소를 했고 국제대회에 개인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연욱 위원 말씀 고맙습니다. 이게 아마 자체 규정이라는 틀에 얹매여서 국제적 규정이나 눈높이에 부합되지 않았던 현실을 지적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홍기용 족구협회 회장님, 잠깐 나와 주시지요.

아마 오전에 이기홍 체육회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했고.

(영상자료를 보며)

2023년도 족구 코리아리그 업체 중 일부가 족구협회 관련된 업무를 낙찰받았는데 20%라는 임원들을 대처하는 문제를 놓고 다, 후원금을 대납한 흔적이 있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흥기용 그런 사실 없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 자료는 후원금의 20%와 별도로 기부금액이, 후원금의 20%가 기부금으로 사실상 대납된 것이다, 저희가 아까 데이터를 보여 드렸습니다.

○증인 흥기용 잠깐 말씀드려도 됩니까?

○정연욱 위원 예, 말씀하세요.

○증인 흥기용 저 20%라는 것은 저희가 족구 일등가 한우만찬배 코리아리그 대회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저희 족구협회가 굉장히 재정적으로 열악한 단체이다 보니까 어디서 후원받을 데가 그렇게, 큰 기업에서 후원을 받지 못하니까 저희가 그 부분에 있어서 후원업체를 받아 오시는 분들에게는 그 후원받아 온 금액의 20%를 커미션식으로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공개적으로 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저분들이 후원업체를 유치해 가지고 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돌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가져간 것이 아니라 다시 협회에 귀속을 했습니다. 대신에 저 부분에 있어서 이름이 나와 있는 것은 이분들께서 이렇게 열심히 뛰어서 후원업체를 모집해 왔다라는 차원에서만 공표를 합니다.

○정연욱 위원 알겠습니다. 기부금이라는 게, 결국은 다 기부금 형태로 받으셨다는 건데 결국 사실상 그것은 인센티브라는 말씀 하시는 거지요?

○증인 흥기용 예.

○정연욱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로 조이킥스포츠의 이광재 대표와 상당히 친분이 깊은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동반 출국도 자주 하셨던데?

○증인 흥기용 예, 친분이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어떤 인연입니까?

○증인 흥기용 한 10년 전부터 족구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정연욱 위원 10년 전부터요?

자료를 한번 보시면 2022년 12월에 족구협회가 하위 단체들에게 조이킥스포츠를 포함한 특정 업체의 물품을 사용하라고 발표했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회장님과 친분 관계에 있는 업체의 물품, 특정 물품을 사용하라고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다……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히 한번 하시지요, 설명.

○증인 흥기용 제가 잘 안 보여서 그러는데요, 2023년도면……

○정연욱 위원 2022년 12월이었다고 그랬습니다.

○증인 흥기용 2022년 12월에 그렇게 한 게 생각이 나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연욱 위원 공문이 안 보이십니까, 지금 저렇게 떠 있는데요?

○증인 흥기용 그러면 조금 앞에 가서 봐도 되겠습니까?

○정연욱 위원 공문이 다 떠 있습니다. 저것 좀 보시고…… 다 되는 거지요.

날짜가 찍혀 있는 겁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는 거예요?

○증인 흥기용 아니요, 제가 안 보여서 뭐라고 답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앞으로 나오셔서 보십시오, 모니터를.

○증인 흥기용 예.

○정연욱 위원 그때 협회장 아니셨어요?

○증인 흥기용 예, 맞습니다. 저희가 조이킥하고 대한민국족구협회하고의 계약기간은 2021년부터 2022년까지였었고요. 그리고 2023년부터 2024년까지는 스타하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정연욱 위원 22년 아닙니까?

○증인 흥기용 ……

○정연욱 위원 알겠습니다. 내용은 맞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고.

김민수 증인, 여기 지금 흥 회장님 말씀하신 부분 증인이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증인 김민수 먼저 아까 기부금 20%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정관 24조의2에 회장을 비롯한 비상근임원은 보수를 받을 수가 없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의 기부금을 대납한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들이 업체를 모셔 왔다고 하더라도 그 20%를 받고 본인 이름으로 기부를 했다는 것은 세금 혜택을 받은 부분도 문제가 좀 의심이 됩니다.

○정연욱 위원 연말정산에 어차피 사실상 환급 대상이 되는 거지요?

○증인 김민수 예.

그리고 후원업체 중 다수의, 협회로부터 저희가 입찰을 받아서 하는데요.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입찰 시에는 협회 임원이 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석부회장이 평가위원장으로 직을 맡고 또한 다수 지방자치 위원분도 평가위원회의 위원으로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이것 특정 물품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증인 김민수 저희가 공인구 관련해서도 2021년, 2022년 17개 시도 자체적으로 계약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23년에는 대한민국족구협회에서 일괄 계약하는 걸로 결정이 났는데요. 이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7개 시도 대의원 회장님들께서 같이 임시총회를 열었지만 사실상 성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사회를 통해서 스타스포츠를 후원업체로 선정을 하였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에 2024년 3월 6개의 시도에서 공인구 가처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부당하다, 한 업체만 선정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당하다는 소송을 냈고요. 정확한 날짜는 9월 며칠인데 이번 9월 달에 승소가 돼서 지금 현재는 각 시도에서 쓰고 싶은 공인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연욱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배드민턴협회도 그렇고 족구협회도 그렇고 아마 이게 전체적으로, 대한체육회 산하의 하위 단체입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규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오히려 이런 편법과 위법한 걸 막아 주는 방패로 사용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앞으로도 이 특별한 규정의 방패에 안주해 버리면 모든 것이 용인된다는 식으로 간다는 것은, 지금 스포츠 역량이라는 게 갈수록 국제 수준은 높아 가는 추세에서 과연 이게 올바른 것인지, 이렇게 가야 될 것인지 근본적인 성찰이 필요할 때고 이런 부분은 더욱더 투명하게 알려져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철저한 자기 쇄신과 반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김종민 증인과 강신준 참고인에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김종민 증인은 이쪽 왼쪽으로 나와 주시고요. 강신준 참고인은 그냥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김종민 증인, 증인 출석요구 언제 받으셨습니까?

○증인 김종민 한 일주일 된 것 같습니다.

○진종오 위원 일주일 정도 됐어요?

질의에 앞서서 오늘 이 자리에서 위증하게 되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위증 등의 죄)에 따라서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증인 김종민 예.

○진종오 위원 본 위원 질의에 사실만을 답변하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김종민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김종민 증인, 대한바이애슬론 부회장과 회장을 역임하다가 아무런 인연도 없는 대한킥복싱협회 회장 지원을 왜 했습니까?

○증인 김종민 지원을 한 건 아니고요. 자료를 아마 바이애슬론연맹에서 제출한 것 같은데요, 저는 바이애슬론연맹을 끝으로……

○진종오 위원 킥복싱협회 회장 지원한 이유가 뭐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인 김종민 그러니까 바이애슬론연맹을 끝으로 저는 체육회에서 더 이상 종목단체 회장을 안한다고 말을 해 왔었고요. 그런 와중에 킥복싱협회에서 전 사무처장이 계속 저에게 찾아와서, 저희 바이애슬론연맹 사무실까지 찾아오고……

○진종오 위원 킥복싱협회 전 사무처장이요?

○증인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오늘 선택된 공선택 씨가 찾아왔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자료제출한 걸로 아는데……

○진종오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신준 참고인, 이와 관련해서 아는 사실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참고인 강신준 김종민 회장이 그 당시에 공선택 처장님을 찾아와서……

○진종오 위원 찾아가서?

○참고인 강신준 예, 찾아와서……

○진종오 위원 그러면 사무실에 찾아온 게 아니네요, 바로?

○참고인 강신준 예, 찾아가서 이기홍 회장하고 말을 다 했다, 이기홍 회장의 선거를 도와주고 자기는 킥복싱협회 회장으로 오기로 했다라고 말하면서 이미 선거 두 달 전부터 사무처에 나가서 회장의 지위를 행사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업무 지시를 했다고요?

○참고인 강신준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김종민 증인, 회장으로 취임하기 전에 킥복싱협회 회장 관련해서 논의한 적 있습니까?

○증인 김종민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한킥복싱협회 회장은 1차, 2차 때 후보가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요.

○진종오 위원 전혀 없다고요? 답만 하십시오.

○증인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아마 대한바이애슬론연맹……

○진종오 위원 답만 하시면 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증인, 이기홍 회장 후보 시절 만난 적 있습니까?

○증인 김종민 예, 만난 적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만난 적 있으세요?

○증인 김종민 예.

○진종오 위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선거운동 했습니까?

○증인 김종민 선거운동을 하지는 않고요 그냥 지지만 했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선거운동 안 했다고요?

○증인 김종민 예.

○진종오 위원 자료 화면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김종민 증인의 문자 내용입니다. ‘오늘 저와 주변 스포츠인을 이 회장님께서 부르셔 저녁에 티타임을 길게 가셨습니다. 장영달 의원은 그만두셨고 후일을 미팅했습니다. 혼희와 제가 함께 전국을 움직일 것 같습니다—혼희는 누구라고 굳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아실 것 같고—킥복싱 발전 필요한 건 당분간 주위 모두 함께 할 겁니다’ 이게 선거운동 한 게 아닙니까?

○증인 김종민 예, 이건 제가 지원해서 그냥 한 겁니다.

○진종오 위원 쭉 내용 보시면 ‘기호 3번 이기홍에게 묻는다-김우승 편’, ‘이따 톡 드릴 게요. 6분이지요?’하면서 미팅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종민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제가 지지해서 한 거였습니다.

○진종오 위원 미팅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라고 얘기했잖아요?

○증인 김종민 누구랑 말씀이십니까?

○진종오 위원 회의에 들어가는 미팅 한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인 김종민 저는 회의실에 들어가 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진종오 위원 없습니까?

○증인 김종민 예.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은 이기홍 회장이 당선되면 혹시 회장 자리 같은 것 약속받은 것 있습니까?

○증인 김종민 아니요, 없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없어요?

○증인 김종민 예.

○진종오 위원 그러면 김종민 증인은 아무런 관련도 없는데 왜 취임도 하기 전에 협회에

가서 일을 하고 이런 걸 했습니까?

○증인 김종민 협회에 가서 일을 한 적은 없습니다.

○진종오 위원 일한 적이 없다고요?

○증인 김종민 예, 없습니다.

○진종오 위원 또 질문 갈 겁니다.

10월 9일 대한킥복싱협회 회장직에서 사임한 이유가 뭡니까?

○증인 김종민 지금 말씀이십니까?

○진종오 위원 예, 이번 달 10월 9일.

○증인 김종민 원래 사임은 계속 하려고 했었습니다, 계속 하려고 했었고요.

○진종오 위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증인 김종민 저희 킥복싱협회가 원래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지방 시도협회가 선거를 하지 않으면 중앙이 선거가 안 되기 때문에 지방에서 저희 반대하는 불성실한 협회들이 선거를 하지 않아서 제가 사임을 하게 되면, 회장이 사임하고 45일 안에 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킥복싱 발전을 위해서 그랬습니다.

○진종오 위원 킥복싱 발전을 위해서요? 다시 출마하려고 하신 건 아니고요?

○증인 김종민 예, 아닙니다.

○진종오 위원 아니면 대한체육회 선거운동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증인 김종민 아닙니다.

○진종오 위원 아닙니까?

○증인 김종민 예.

○진종오 위원 그러면 지금 아무런 선거운동 하지 않는다고요?

○증인 김종민 아니요, 그것은…… 그때 때문에 제가 그만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진종오 위원 그때 때문에 그만둔 게 아니라 선거운동 안 하는 거를 물어보는 겁니다. 안 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증인 김종민 지금 아직 선거철이 아니기 때문에……

○진종오 위원 선거철이 아니어서?

○증인 김종민 예.

○진종오 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제가 또다시 자료 화면, 녹취록 한번 들려 드리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잘 안 들리겠지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주변인에게 유승민이 대한체육회장 출마를 확정했고 유승민이 당선되면 증인은 부회장이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이고요. 이 육성본인 맞습니까?

○증인 김종민 맞습니다. 이것은 지난 5월 달에요, 5월인가 6월……

○진종오 위원 ‘맞습니다, 아닙니다’로만 답해 주십시오.

○증인 김종민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강신준 참고인, 이 내용에 대해서 추가설명 있습니까?

○참고인 강신준 그때 저뿐만 아니라 저희 직원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회유하려고 자

기가 유승민 회장 선거를 도와주고, 유승민이가 회장이 되고 자기가 부회장이 된다, 그러니까 자기 말을 잘 따라라. 그리고 이번에 이기홍, 이런 말씀을 드려서 안 되겠지만 늙은 이는 이제 안 나간다, 안 나가기로 했으니까 유승민이가 될 거다, 그리고 나는 부회장이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김종민 증인, 제가 듣기로 평소에 이기홍 회장과의 인맥을 자랑하고 그리고 국회의원 누구랑 친하다는 얘기도 하고 다니고 법적으로 누구든 죽일 수 있다…… 협직 판사, 검사, 경찰…… 과시하고 다닌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증인 김종민 그런 게 아니고 장신준……

○진종오 위원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 김종민 아니요, 제가 아까도 녹음한 것도 말씀드렸……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인정하나 안 하나 그 얘기만 하면 됩니다.

○증인 김종민 제가 억지로 그렇게 하고 다니지는 않습니다.

○진종오 위원 억지로 하고 다니지 않는다고요?

○증인 김종민 예.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 자료 화면 좀 띠우겠습니다.

과거 유승민 전 IOC 선수위원이 대한킥복싱협회 내부 갈등이 정리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IOC에 증인을 대한킥복싱협회 회장이라고 서한을 보낸 적이 있어요. 아십니까?

○증인 김종민 예,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증인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었습니까?

○증인 김종민 이건 그때 제가……

○진종오 위원 서한을 보냈는데 느낌이 어땠습니까? 좋았습니까, 나빴습니까?

○증인 김종민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는 IOC 위원으로서만 보낸 게 아니라 한국대한체육회에서 보내서 다 같이 보냈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도 보냈고 유승민 IOC 위원도 보냈고, 이기홍 회장님도 IOC 위원이기 때문에 그런 보낸 자료가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고마웠습니까, 안 고마웠습니까? 왜 킥복싱협회 회장이 아직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그 얘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증인 김종민 이것은 킥복싱 회장이 안 됐을 때가 아니고요, 제가 회장이 되고 나서입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유승민하고는 지금 어떤 관계입니까?

○증인 김종민 그냥 지인입니다. 알고……

○진종오 위원 그냥 지인, 가까운 지인이 아니고 그냥 지인?

○증인 김종민 가까운 지인입니다.

○진종오 위원 가까운 지인이오?

○증인 김종민 예.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많이 부족한데 좀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 김종민 증인, 당시 협회 직원인 김보연 씨 언제부터 알고 있었습니까?
- 증인 김종민 선거 접수하려 갈 때 알았습니다.
- 진종오 위원 선거 접수가 언제였지요?
- 증인 김종민 아마 1월 중순 같습니다. 2021년 1월 중순 같습니다.
- 진종오 위원 2001년 1월 중순? 그런데 왜 12월부터 업무 지시를 했습니까?
- 증인 김종민 지시를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제가 한……
- 진종오 위원 강신준 참고인 아까 얘기했던 건 12월 아닙니까?
- 증인 김종민 만약 증인으로 나오신다면 아마 이게 진짜인지 한번……
- 참고인 강신준 2020년 11월부터 회장 지위에 있으면서 업무를 지휘했습니다.
- 증인 김종민 그 당시에 강신준 참고인은 있지도 않았습니다.
-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 증인은 2021년 1월 칙복싱협회 회장으로 당선될 때 1월 27일 선관위 회의에 참석해서 면접 등 절차 진행했습니까?
- 증인 김종민 면접이오?
- 진종오 위원 예, 면접 등의 절차를 진행했냐는 겁니다.
- 증인 김종민 저희가 29일 날까지 접수 마감이어 가지고요, 29일 제가 접수를 하고 단독 후보여 가지고 단독 후보는 그 당시 대한체육회상 선거·투표 없이 진행되기로 돼 있었습니다.
- 진종오 위원 회장 당선되었다고 누구로부터 연락받았습니까, 혹시?
- 증인 김종민 그 당시 사무처장인 공선택한테 받았습니다.
- 진종오 위원 공선택한테 받았다고요?
- 증인 김종민 예.
- 진종오 위원 그리고 김보연 씨가 당시 선관위 회의 자료를 위조한 것 알고 계십니까?
- 증인 김종민 예, 알고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사전에 모의한 적 없고요? 그냥 김보연 씨 혼자 한 거지요?
- 증인 김종민 위원님,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 진종오 위원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일단.
- 증인 김종민 그것은 공선…… 저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 진종오 위원 김보연 씨가 왜 회의록을 위조했을까요?
- 증인 김종민 그것은 공선택 사무처장이 시켜서 했고요, 저희는……
- 진종오 위원 공선택이 시켰다고요?
- 증인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러면 그 회의 자료가 위조된 사실을 인지하고 증인은 어떤 행동을 취했습니까?
- 증인 김종민 인지한 게 아닙니다.
- 진종오 위원 인지를 안 했어요? 위조가 됐는데 인지 안 했다고요?
- 증인 김종민 아니요, 그 당시에 인지한 게 아니고요. 회장이 당선이 되고요 활동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한체육회 비리센터로 제보가 들어와서, 칙복싱협회에 비리가 있다고 해서 그 비리를 조사하는 과정 중에 사무처장이 인감도장을 가지고 도망을 갔고요.

○**진종오 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뜻을 잘 모르겠어요? 인지를 하고 증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느냐는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불법이 발견되었고 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됐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종민** 김보연 대리에 대한 위임……

○**진종오 위원** 김보연이 확정 판결이 됐지요, 그렇지요?

○**증인 김종민** 예.

○**진종오 위원** 그랬으면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회장이 데리고 있던 직원이 그런 사문서 위조를 했는데 그러면 회장이 책임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책임을 지고……

○**증인 김종민** 제가 있을 때 한 일이 아니고요 제가 들어가기 전의 일입니다.

○**진종오 위원** 들어가기 전의 일이라고요?

○**증인 김종민** 예, 맞습니다. 그것 정확히 보시면, 재판 자료 다 있습니다. 법원 자료가 네 가지나 있습니다. 제가 의원실에 보냈습니다.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이건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가시지요.

다음 이기홍 회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회장님, 후보 시절 김종민 증인 만난 사실 있으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다 알지요, 사람들�이야 다 알지요.

○**진종오 위원** 몇 번 만나…… 혹시 만났다라는 걸 인정하시는 거지요? 몇 번 정도 만나셨습니까, 혹시?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건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체육인들은 다 아니까……

○**진종오 위원** 다 알고 있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진종오 위원** 회장님께서는 그러면 김종민과 강신준의 법적 소송도 알고 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건 몰랐습니다.

○**진종오 위원** 모르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진종오 위원** 그러면 자료 한번 띄워 주시겠어요.

22년 3월 8일 공문, 선거관리위원회 회의록이 위조되었다는 적절치 않은 회장선거 절차에 대해서 수사기관 등의 조사 결과 및 재판부에서 인준 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회원총목단체 규정 제22조 9항에 따라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공문을 대한체육회에서 발송했습니다.

검찰의 약식명령, 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등과 정식 재판에서 확정 판결을 받은 사실 알고 계시는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이것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잘 모르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진종오 위원** 다음 자료 한번 띄워 주세요.

검찰의 약식명령이 21년 12월 30일에 결정되어서 체육회에 22년 1월 17일에 보고가

됐고 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은 22년 3월 20일에 결정되어서 4월 12일에 체육회에 보고가 됐습니다. 정식 재판도 22년 8월 17일에 피의자 김보연 씨에 대해 벌금 200만 원이 확정 판결되었는데 공문대로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처리를 왜 안 했습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이것은 저희가 이것에 관여할 사안이 아니었을 겁니다. 벌금 가지고 회장을 된다 안 된다 이걸 저희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마 없었을 겁니다.

○**진종오 위원** 다음 자료 한번 다시 띄울게요.

강신준과 대한체육회 소송 관련해서 김종민 증인의 선거 과정에서 불법성을 따져서 인준 무효 여부를 판결한 것이 아니라 강신준이 대한체육회로부터 인준을 받지 못해 소송 당사자로 부적격하다고 판단해서 각하 결정한 판결입니다, 소송을 이겼다고 해서 김종민 증인 선거 과정의 불법성이 해소된 게 아니고. 이 판결로 김종민을 대한킥복싱협회 회장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체육회 논리가 성립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인식을 못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안들이 하도 여러 가지라서.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자료 또 하나 있는데 더 충격적인 게 있습니다.

당시 대한체육회 직원이 이 사실을 알고도 그냥 묻고 가자는 식으로 했습니다. 당시 담당자 지금 안 계시고요. 관련해서 협회 직원에게 개인적으로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실익이 없다고 말하면서 그냥 묻고 가자는 식으로 했습니다.

녹취록 한번 들어 보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회장님, 실익이 없으면 그냥 덮고 가는 겁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때 당시 규정이 어땠는지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회장님 본인의 선거를 도와준 김종민에 대해서 일단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선거 부정도 있고……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진종오 위원** 또 인준 취소도 하지 않았고.

이렇게 봤을 때 공직자로서 체육인을 대표할 수 있다는 생각이 혹시 드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이게 저는 전혀, 지금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진종오 위원** 처음 듣는 것입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진종오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기홍 회장님께 다시 질문드리겠습니다. 10월 18일 대한체육회노조에서 3선 연임 반대성명 하신 것 알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반대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것은 다양한 생각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뭐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 진종오 위원 다양한 생각이오?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 진종오 위원 지금 반대하는 이유를 보면 독단적인 업무도 있고 개인의 영달만을 생각, 민주주의 소통 구조가 사라졌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대한체육회 내부에서 이렇게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선거도 100일 남았고 마땅한 후보가 있나라는 생각도 하고 계시지요? 그런 말도 들리고 있고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 진종오 위원 ‘야권에서 이종걸, 장영달, 안민석, 이시종이 단일화해서 준비 중이다’ 이런 얘기도 하신 적 있으시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는 잘 모릅니다.

○ 진종오 위원 잘 모르십니까?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도 외부에서 듣고 있는 중입니다.

○ 진종오 위원 외부에서 들으셨어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 진종오 위원 제가 그러면 외부에서 이런 얘기를 들었네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분들이 판단하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추가질문 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정하 위원 김병철 위원장님 와 계시지요?

○ 증인 김병철 예.

○ 박정하 위원 몸이 많이 불편하세요?

○ 증인 김병철 많이 좋아졌습니다.

○ 박정하 위원 좋아졌어요?

○ 증인 김병철 예.

○ 박정하 위원 불출석사유서 냈는데 갑자기 어떻게 나오셨어요?

○ 증인 김병철 그래도 힘들지만 나와서……

○ 박정하 위원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요 가급적 축약해서 말씀 주세요.

○ 증인 김병철 힘들지만 그래도 나왔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 박정하 위원 앞서 오전에 김승수 위원님께서 진단서 보여 주셨는데 9월 달 진단서는 한 열흘이면 가료가 끝난다고 했는데 왜 10월 달, 최근 엊그저께 진단서는 또 2~3주가 필요하다고 그러지요? 그 사이에 몸 관리 잘 못하셨어요?

○ 증인 김병철 9월 초에 제가 수술하고 그다음에 바로 국회의 질의,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부터 상당히 잠을 못 자고 계속 힘들어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치료하는데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시간이 걸렸습니다.

○ 박정하 위원 치료하는데 위원장님께 저희 국회가 불편하게 해 드렸네요.

○ 증인 김병철 아닙니다.

- 박정하 위원 그 전에, 대한체육회에 오시기 전에 스포츠공정위원장 언제부터 임기가 시작됐지요?
- 증인 김병철 2019년 5월로 알고 있습니다.
- 박정하 위원 2019년 5월?
- 증인 김병철 예.
- 박정하 위원 그 전에는 어떤 일 하셨어요?
- 증인 김병철 그 전에는 어디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체육회 내에서 말씀하십니까?
- 박정하 위원 아니아니요, 일상적으로 사회생활을 어디서 하셨어요?
- 증인 김병철 사회생활을……
- 박정하 위원 최종 체육회에 오시기 전에 하셨던 일은?
- 증인 김병철 체육회에 저는……
- 박정하 위원 오시기 전에.
- 증인 김병철 체육회에는 무보수로 저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 박정하 위원 아니, 체육회 오시기 전에.
- 증인 김병철 제가 스포츠공정위원장 오기 전에 그때는 제가 법무법인 세종에 있었고 또 계속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 박정하 위원 세종 계시기 전에는?
- 증인 김병철 세종 있기 전에는 3년 동안, 공직 그만두고……
- 박정하 위원 공직이면 어디 계셨어요?
- 증인 김병철 제가 감사원에 근무했습니다.
- 박정하 위원 감사원 계셨고?
- 증인 김병철 예.
- 박정하 위원 그다음에 감사원 계시고 난 다음에 3년 동안은?
- 증인 김병철 3년 동안 취업제한기간이어서……
- 박정하 위원 강연하셨어요?
- 증인 김병철 학교에 주로 있었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리고 법무법인 계시고 그다음에 체육회 오셨어요?
- 증인 김병철 그렇습니다.
- 박정하 위원 체육회 오셔서 공정위원장 되시기 전에는 뭐 하셨어요?
- 증인 김병철 공정위 하기 전에는……
- 박정하 위원 특보?
- 증인 김병철 제가 특별보좌역이라는 직책을 2017년부터 18년까지 2년간 했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때 특보 하셨고.
- 이기홍 회장님하고는 언제 처음 만나셨어요?
- 증인 김병철 저 잘 기억 안 납니다. 하여튼 오래전에 돼 가지고……
- 박정하 위원 오래전에? 그러면 언제, 오래전이면 감사원 계실 때?
- 증인 김병철 그러니까 옛날, 그때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 박정하 위원 처음에 언제 만나셨는지?
- 증인 김병철 예.

- 박정하 위원 그러면 사회 생활 하시면서 죽 감사원 계셨을 것 아니에요?
- 증인 김병철 아닙니다.
- 박정하 위원 그 전에는?
- 증인 김병철 또 밖에 나가 가지고 여러 군데 근무도 하고 그랬습니다, 또 파견도 나가고 그랬기 때문에.
- 박정하 위원 공직 생활 하셨어요, 아니면 딴 생활 하셨어요?
- 증인 김병철 공직 생활 했습니다.
- 박정하 위원 공직 생활 했는데 감사원 원래 계셨던 건 아니고?
- 증인 김병철 아니, 공직 생활을 했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공직 생활 어디서 주로 하셨어요?
- 증인 김병철 감사원에서 주로 했습니다.
- 박정하 위원 그런데 감사원 계시는데 어디 뭐 파견을 갔다 왔다고…… 결국에는 감사원 계실 때잖아요?
- 증인 김병철 그렇습니다.
- 박정하 위원 어렵게 말씀 주시지 말고요.
- 그러니까 감사원 계시면서 이기홍 회장님하고 인연을 맺었는데 그게 언제인지는 모르겠다, 그렇지요?
- 증인 김병철 예.
- 박정하 위원 감사원에 계셨는데 최근에 특보 논란이니 이런 저런 것에 대해서 기사는 다 보셨지요?
- 증인 김병철 예.
- 박정하 위원 기사, 우리 문체위에서 위원님들 지적하신 사항들은 다 보셨지요?
- 증인 김병철 예, 봤습니다.
- 박정하 위원 최근 의혹에 대해서 김병철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원 계셨던 걸 기준으로 보면 이게 정당하다, 아니면 의혹이 있다?
- 증인 김병철 최근이라는 게 제가 최근인 것에 대해서……
- 박정하 위원 아니, 다른 분들 다, 여러 분들요.
- 증인 김병철 다른 분들에 대해서요?
- 박정하 위원 예.
- 증인 김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말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 하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박정하 위원 해 보세요, 전혀 그렇게 생각지 않는다고.
- 증인 김병철 저는 최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 박정하 위원 최근이라고 생각하시지 않으니까, 제가 그다음에는 사실은 ‘스포츠공정 위원장으로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습니까?’ 여쭤보려고 했는데 할 말이 없네요. 그렇지요?
- 증인 김병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 박정하 위원 김병철 위원장님은 최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주 객관적으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우려와 비판에 대해서 말씀해 봐 주세요, 다시 한번 분명하게. 측근이 아니라 모른다 말씀하셔도 좋아요. 말씀해 보세요.

○**증인 김병철** 어떤 부분을 말씀……

○**박정하 위원** 지금 얘기가 나온 측근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각 회장단들, 축구협회장도 그렇고 대한체육회장도 그렇고 정관을 바꿔서 연임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이것 결국에는 김병철 위원장님 계신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증인 김병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 개인 이야기는 말할 수 있어도 제가 스포츠공정 위원장으로서의……

○**박정하 위원** 개인 이야기 하셔도 돼요. 개인 이야기 한번 해 보세요.

○**증인 김병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들이 많이, 공직에 계신 분들이 이쪽으로 들어와 가지고 자문을 하니 하는 문제가 있는데 체육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단기간 내에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저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충분히 연임규정을 바꿀 수 있다? 늘릴 수 있다?

○**증인 김병철** 아니, 그건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제가 뭐 여쭙는지 아시잖아요. 스포츠공정위원장으로서는 말 못 해도 개인적으로는 축구협회장 4연임, 대한체육회장 3연임 하는 정관을 개정하는 게 옳다 그르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병철** 그것은 옳다 그르다로 답변을 드리기……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는 그것은 지방체육의 정책적 판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지방체육이 무너지고 있다라는 이 절박한 부분을 우리 체육회의 실무자들이 와서 설명을, 정책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우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 논란이 정말 많았습니다.

○**박정하 위원** 줄여 말씀 주세요. 지금까지 주신 말씀은 제가 드렸던 질문하고는 좀 동떨어진 것 같아서 제가 요약을 못 하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개인적으로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이다 아니다 그렇게 말씀 주시면 돼요. 개인적으로 말씀 주실 수 있다고 했잖아요?

○**증인 김병철** 정관 개정 문제에 대해서요?

○**박정하 위원** 예.

○**증인 김병철** 정관 개정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저는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충분히 할 수 있다?

○**증인 김병철** 그렇게 할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예,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김병철 위원장님 관련해서는 뒤에 김승수 위원님께서 충분히 더 여쭈실 테니까 제가 여기까지 시간을 아끼겠습니다.

됐습니다.

아시아테니스연맹 주원홍 부회장님 계신가요?

○참고인 주원홍 예.

○박정하 위원 얼른얼른 여쭐게요. 간단히 말씀 주세요.

테니스협회가 관리단체로 7월 19일 지정이 돼요. 그리고 10월 15일 법원으로부터 가처분소송을 받아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지적이 돼요.

○참고인 주원홍 효력정지 가처분이 인용됐습니다.

○박정하 위원 인용이 됐지요? 그런데 이게 하다 보니까 중간에 어설프게 재판부 가 있는 사이에 10월 8일 날 이사회를 열어서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요. 이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참고인 주원홍 저희 변호인단하고 체육회 변호인단이 변론서를 제출하는데 각자 시간을 두고 제출합니다. 저희가 두 번째 변론서를 제출할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관리단체 지정은 정관을 위배한 거라고 절차적 하자를 문제 삼았더니 그 절차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도 임시 이사회를 열어서 의결을 한 것 같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문제가 되니까 그것을 재판부도 속이고 대충 넘기려고 그렇게 했다라는 말씀이신 거지요?

○참고인 주원홍 예, 그렇게 하고 아마 판결이 빨리 나오는 바람에 그래서 이게 인용이 된 거고요. 그 인용이 되자마자 대한체육회에서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는데 수신도 대한테니스협회 관리위원회 회장이었고요, 이미 효력정지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제목이 관리단체 해제통보입니다. 그래서 해제통보라는 것은 해제를 하겠다는 건데 해제 역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됩니다, 정관상에. 그러니까 지정할 때도 이사회 의결을 안 거쳐 가지고 나중에 갑자기 또 이사회 의결을 하셨는데 해제통보를 하시려면 이사회를 해서 해제를 해 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처음에 약속한 대로 채무면제를 하면…… 저희가 관리단체 지정을 하지 않으면 채무면제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그 내용 중에 저희보고 채무부존재확인서를 내라, 이사회 하기 전에 그 얘기는 먼저 그러면 채무를 면제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공문을 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지정 해제의 효력이 있는지 체육회의 직원한테 물어봤답니다, 사무처에서. 그랬더니 효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효력이라는 것은 이게 절차상으로 의결을 거쳐야 되는 건데 이렇게 구두로 효력이 있다고 하니까 저희가 믿을 수가 없고, 그래서 저는 사실 이 문제는 이사회가 의결을 좀 해서 해제를 해 주시면 저희가 바로 채무를 면제받고 그런 다음에 정상적으로 협회를 운영할 생각입니다.

○박정하 위원 일단은 제가 지금 부회장님께 듣기로는 채무부존재 관련까지는 안 가더라도 대한민국 최고의 대한체육회가 어디 구멍가게만도 못하게 운영돼 왔다는 얘기 같아요. 그렇지요? 이사회 승인도 없이 막……

○참고인 주원홍 예, 그러니까 한번 위임받아서 한 절차를 잘못됐다고 판결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해제도 또 그렇게 보내왔기 때문에 저는 이해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이게 진짜 해제인지 아니면, 사실 제목에는 제가 굳이 얘기한다면 관리단체 지정 효력정지의 건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효력이, 원안이 무효가 되기 전까지는 효력을 정지한다고 이렇게 공문을 보내고 그다음에 대한체육회가 어떻게 할 건지, 스탠스를 어떻게 하실

건지를 저희들한테 알려 주시면…… 그래서 이걸 해제를 시킬 건지 아니면 무효확인소송을 계속 해야 되는지 이것을 저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공문이 이렇게 오는 바람에 저희도 혼란스럽고, 그래서 저희도 채권자한테 채무를 면제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박정하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병철 위원장님, 좀 전까지 제가 테니스연맹 부회장님하고 얘기 주고받고 한 건에 대해서, 감사원 오래 계셨고 체육회 공정거래위원장 하시는데 직접 업무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도 개인적으로 볼 때는 어떤 판단이라고 생각하세요?

○증인 김병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안의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개인적으로나 제 위원장 자격으로나 그런 판단 근거는 못 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렇게 들으셨는데 잘 모르겠다?

○증인 김병철 예, 잘 모르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요는 법원이 가치분을 인용할 정도로 절차가 문제가 있다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그동안 오랫동안 사회경험 하시고 감사원 계셨는데도 판단이 어려우신 거예요?

○증인 김병철 예,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박정하 위원 마치겠습니다.

세팍타크로 오주영 회장님 와 계시지요?

○참고인 오주영 예.

○박정하 위원 체육회 보면 대의원총회라는 게 있는데 대의원총회가 어떻게 구성이 돼요?

○참고인 오주영 대의원총회는 64개의 회원종목단체 회장을 그리고 17개 시도 체육회장들 그리고 IOC 선수위원들 이렇게 해서 구성이 되는데요. 대의원총회 구성이 실질적으로 그런데 회의장에 못 올 시에는 위임, 대리인 규정이 있어서 부회장들이 참석하고 이렇게 해서 대의원총회가 구성돼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체육회 내의 굉장히 권위 있고 그래도 제일 큰 총회 비슷한 거네요? 그렇지요?

○참고인 오주영 예.

○박정하 위원 작년 4월 20일에 대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워크숍이 있었는데 거기 왜 안 가셨어요?

○참고인 오주영 지난 2023년 2월 28일 날이 발단인데요.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12개 회원종목단체장들하고 대한민국, 현재 대한체육회에서 이기홍 회장님께서 독단적으로 운영하고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회장들끼리 친목도 교류도 하고 정보도 교류를 할 겸 식사 자리가 있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일종의 반란 내지는 쿠데타를 하셨네요?

○참고인 오주영 그런 의도로서 했던 건 아닌데 대한체육회에서는 이것을 나중에 진상조사라는 차원으로 해서 왜 모였는지 이런 과정들을 전부 다 하나하나 종목들의 부회장이나 사무처장들을 불러서 진상조사를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그날 있었던 대의원총회에서 식사를 했던 대의원들이 그때 당시에 정관 개정하는 것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는 것

들에 대해서 몇몇 회장님들이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반대의사를 표시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거기에서 밥을 먹은 처음의 회장들 12명에 대해서는 골프 워크숍의 공문을 보내지 않았고요.

○박정하 위원 아예 초청을 안 했고?

○참고인 오주영 예, 그랬다가 나중에……

○박정하 위원 망조가 든 세력들이니까 그랬겠지.

○참고인 오주영 그랬다가 제가 나중에 그것을 알고 식사를 모신 회장들한테 너무 죄송해서 제가 대한체육회에 직접 전화를 해서 이것은 부당하다 그런 의견들을 드렸는데 최종적으로는 대의원총회에서 정관 개정하는 데 반대를 했던 4개의 종목에는 공문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 중에 제가 대한체육회, 그때 당시 체육진흥본부에다가 대한체육회의 정회원단체들은 대한체육회에서 주최, 주관하는 사업에 정당하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그때 당시의 대한체육회 본부장은 이게 이기홍 회장님의 개인 행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대한체육회의 사업비가 들어가지도 않는 사업이니까 저희들이 초청 안 받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특별하게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참석을 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렇게 되셨구나.

대의원총회라는 게 좀 전에 말씀 주신 것처럼 중요한 의결기구고 거기서 이런저런 것들이 많이 의결이 되니까 아마 반대하시는 분들은 뺀 것 같아요.

그런데 주로, 대의원총회 몇 번 참석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참고인 오주영 예.

○박정하 위원 가면 의결이 어떤 식으로 진행돼요?

○참고인 오주영 지금까지 대의원총회가 한 여덟 번 정도 열렸는데요. 그런데 대의원총회가 있을 때 실질적으로는, 총회라는 의미 자체가 아까 말씀 많이 해 주시는 것처럼 동네 계모임만도 못합니다. 실질적으로 모든 정관 개정 의결들에 있어서 반대 의견이 개진됨에도 불구하고 박수 의결로 항상 이루어지고요. 딱 두 차례만 표결 비슷한 행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 하계U대회의 조직위원 자리, 하계U대회 신청 지역 선정할 때 기표를 한 번 했고요. 그리고 한 번은 시도 체육회장 임기 연장한다고…… 정관 개정에 대한 의결요건 변경을 할 때 거수투표한 적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모든 정관들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개진돼도 박수 의결로 대의원총회를 이끌어갔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전혀 의견이 전달되지 않는 상황이었구나.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정관 관련해서 문체부가 가끔 대한체육회의 정관 개정 허용을 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이런 건에 대해서, 문체부하고 부딪히는 건에 대해서 혹시 대의원총회에서 이기홍 회장이 뭐라고 대의원께 말씀하셨는지 기억나는 부분이 있나요?

○참고인 오주영 예.

○박정하 위원 말씀 주세요.

○참고인 오주영 이기홍 회장님의 모습은 흔히들 얘기하는 체육대통령 그 이상의 모습이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정관 개정에 있어서 너무나도 많은 정관 개정과 문체부의 불허가

반복됐기 때문에 지금 저조차도 도대체 어떤 정관이 승인돼 있고 어떤 것은 반대가 돼 있는지 모를 정도로 정관 제·개정들이 계속 반복해서 이루어졌는데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한 번은 정관 제·개정에 대해서 문체부가 불허를 하는 입장에서 문체부를 카르텔로 지칭하며 문체부 직원들을 끝까지 찾아내서 그 사람들을 징계하겠다 그리고 문체부에 카르텔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정관들을 하는 것들을 다 막고 있다, 이런 발언들뿐만이 아니라 국가스포츠정책위원회를 한 번 국가에서 만든 적이 있는데 그때는 대한체육회 원로회의에서 추천했던 인사들이 배제됐습니다. 그 배제가 되고 나니까 그때는 굉장히 격렬하게 지난 시절에 있었던 국정농단, 대통령 탄핵까지 언급하면서 이런 일들 체육인들의 말을 무시하면 현재의 대통령도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그런 발언들도 두 차례나 하시고요. 굉장히 그 안에서의 모습은 체육대통령 그 이상의 모습을 보여 왔습니다.

○박정하 위원 엄청난 말씀들을 하셨네, 대통령까지 언급하면서?

○참고인 오주영 예.

○박정하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대구 북구을의 국민의힘 김승수입니다.

정창훈 수영연맹 회장님, 앞의 발언대로 나와요.

지난 20년에 대한수영연맹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기존의 수영연맹이 각종 비위행위, 자정능력 상실 등으로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다’ 이렇게 하면서 ‘투명한 행정 또 소통을 통해서 연맹을 바로세우겠다’ 이렇게 공약을 하셨는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까?

○증인 정창훈 예,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본인이 바로 채용비리 의혹으로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정창훈 예.

○김승수 위원 지금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증인 정창훈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죄가 없는데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받고 있습니까? 억울합니까?

○증인 정창훈 그것은 2001년도에 채용 관련 대한체육회 감사에서 지적을 받아서 임원 2명하고 직원 5명이 중징계를 받았습니다. 그 이유로 그것 때문에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 3명에 대해서는, 10개월짜리 계약직 2명하고 사무처장에 대해서거든요. 그 부분은 지금 검찰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21년 국정감사 때 김예지 위원이 지적을 했었고, 그때 직원 2명 채용 과정에서 당초 인사위원회에서는 5배수 해서 10명만 면접하도록 돼 있었는데 갑자기 그걸 바꿔서 19명을 면접받도록 했고 실제 합격자를 보면 15위, 17위가 합격을 합니다, 점수에서. 그런데 또 문제가 되는 것은 그중에 1명이 경기도수영연맹의 이사로 있던 사람의 자제라는 거지요.

그런데 그 당시에 채용을 총괄했던 전무가 누구입니까? 지금 대한수영연맹에서 보직을 맡고 있지요?

○증인 정창훈 예, 사무처장입니다.

○김승수 위원 사무처장이지요?

○증인 정창훈 예.

○김승수 위원 그 전무도 경기도수영연맹에서 같이 일을 했었지요?

○증인 정창훈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런 개인적인 인척 관계 때문에 채용에 있어 가지고 특혜를 줬다 이렇게 해서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정창훈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그때 인사권을 총괄했던 지금 현재 대한수영연맹의 사무처장이 이렇게 직원 채용에 있어서 굉장히 부당한 행위를 하고 나서 바로 또 사무처장에 공모를 해 가지고 본인이 채용됐지요?

○증인 정창훈 예, 아무나 누구든지 그 조건에 맞으면.....

○김승수 위원 그런데 사무처장에 채용되는 여러 가지 규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다.....

○증인 정창훈 그 규정에 맞게 채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분이 전무 할 때 다 만들어 놓고 와서, 그 채용 규정을 본인이 만들어 놓고 나서 거기에 따라서 채용하도록 하게.....

○증인 정창훈 그건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그래서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증인 정창훈 아닙니다. 수사를 받는 건 감사에 지적이 됐기 때문에 지금 수사를 받고 있고요. 사무처장은 그 조건에 맞으면 누구나 와서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게 아니고 시험을 치는 사람이 시험문제를 다 내놓고 나서 거기에 시험을 응시해서 채용이 됐다는 겁니다.

○증인 정창훈 그건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그 과정에 정 회장께서 똑같이 경기도수영연맹에서 같이 근무를 했기 때문에 방조 내지 아니면 같이 협조를 했다는 그런 의혹 때문에 지금 수사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증인 정창훈 그건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지금 수영연맹의 여러 가지 이권이나 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정창훈 회장을 뒤에 두고 김승훈 사무처장이 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증인 정창훈 그건 이야기일 뿐이지 않습니까?

○김승수 위원 이번에 파리올림픽 계영 800m, 당초 선수 선발대회 때 1, 2, 3등은 당연히 그렇게 선발이 되고 계영 주자는 4번 주자가 선정이 되는데 갑자기 6번 주자가 들어옵니다. 왜 갑자기 6번 주자가 들어오게 됐습니까?

○증인 정창훈 그 부분은 경기력향상위원회에다가 국가대표 감독이 요청을 해서 5번과 6번이 같이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요청을 해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4번 선수를 밀어내고 끼어든 6번 선수가 보면 여러 가지 또 혜택을 입습니다. 애초에 104회 전국체전 접영에서 심판의 실격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구제가 되지요? 그래 가지고 결선에 가지요? 104회 전남 전국체육대회 말이에요.

○증인 정창훈 예, 그건 이 질의 때문에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때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사람이 아까 얘기했던 김승훈 사무처장이라는 겁니다.

○증인 정창훈 그건 그럴 수가 없습니다. 심판은 심판 고유의 권한이 있기 때문에 저희 사무처나 회장단에서 아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이건 IOC나 대한체육회에서도 인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심판에 관해서는 대한수영연맹에서 어떠한 권한도 할 수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이번 올림픽 선수 선발전에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 2, 3, 4위까지 선발해 놓고 나서 뒤에 기준 선발됐던 4위 선수는 성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고 탈락했던, 앞서 한 번 구제를 받았던 그 선수는 기록이 향상된다는 이유로 그렇게 선발된 거 아닙니까?

○증인 정창훈 그 부분은 김우민 선수하고 황선우 선수가 과도하게 시합을 많이 뛰기 때문에, 그래서 이정훈 감독이 신청을 해서 그걸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한 번 잘 나온 기록을 가지고 선수를 바꿔치기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 잘 나왔습니까?

○증인 정창훈 결승전은 간 걸로 알고 있고요. 자기 기록들은 잘 못 나왔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끼워 넣은 선수가, 그때 우리 대표단 중에서도 가장 빨리했던 선수의 기록은 1분 44초인데 그 선수는 1분 49초, 무려 5초나 늦은 기록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우리 선수단의 성적에 악영향을 끼친 거고요.

○증인 정창훈 그건 잘못된 거고요.

○김승수 위원 기록이 있는데 왜 잘못됐다고 그래요?

○증인 정창훈 4번 영자는 1분 44초를 나와 본 적이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김우민 선수가 1분 44초 나왔다고 나와 있어요.

○증인 정창훈 예, 맞습니다.

○김승수 위원 국회까지 나와서 계속 그렇게 허위로 말씀하실 겁니까?

○증인 정창훈 허위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김승수 위원 아니, 기록이 있는데 왜 허위 보고를 합니까?

○증인 정창훈 4번 영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마지막 4번 영자 김영현 선수는 그 기록이 나 본 적이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지금 내가 4번 영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올림픽 때 우리 4명의 선수단 기록 중에서 가장 빨랐던 선수가 1분 44초인데 그렇게 6등 선수를 올려서 보낸 선수는 1분 49초, 무려 5초나 늦은 기록으로 들어왔고 그것 때문에 전체 계주 성적이 떨어진 거 아니냐 그거지요.

○증인 정창훈 저희가 6명의 선수가 가면 예선하고 결승을 뛰어야 되는데 그중에 1명이라도 시합을 안 뛰면 실격으로 해서 몰수패가 됩니다. 그래서 그 6명 선수가 모두 출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선에 4명, 결승에 4명이 그래서 뛰게 된 겁니다.

○김승수 위원 아니, 누가 그것 뛰게 된 걸 모릅니까? 그런데 왜 6번 선수를 앞으로 빼

서 결승에 넣느냐는 거지요.

○**증인 정창훈** 그건 저희 연맹에서 한 게 아니고요, 그 당시 감독하고 가르치던 코치 두 분이서 얘기를 해서 순번을 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연맹에서는 코치나 감독 한테 이래라저래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저희 고유권한이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지금 정 회장하고 수영연맹 임원들이 후원을 했다고 합니다. 정 회장도 작년에 1억 또 5000, 5000 이렇게 후원을 했다고 그렇게 돼 있지요?

○**증인 정창훈** 예.

○**김승수 위원** 개인 사재로 한 겁니까?

○**증인 정창훈** 예.

○**김승수 위원** 그것 증명할 수 있습니까?

○**증인 정창훈** 예.

○**김승수 위원** 그러면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정창훈** 예, 알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들어가세요.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님, 스포츠공정위원장은 가장 공정해야 될 그런 자리지요?

○**증인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특히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하고는 오해 살 만한 일을 안 하는 것이 맞지요?

○**증인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데 정몽규 축구협회장 3선 연임 승인해 주고 그다음 해 2021년 초에 정몽규 회장의 골프장에 가서 골프는 왜 쳤습니까? 그게 적절한 행위입니까?

○**증인 김병철** 그때 대한체육회 임원들의 단합대회라고 생각을 하고 갔습니다. 거기에 갔더니 그렇게 있어서…… 그런데 저하고 그분하고 사전에 같이 이야기한 적도 없고 그쪽에서 연락이 온 것도 아니고, 체육행사가 있다고 해서 나가서 봤더니 그렇게 돼서…… 여러 사람들 중 한 명에 그분이 있었습니다.

○**김승수 위원** 체육회 행사가 있다고 누구한테 연락받았습니까?

○**증인 김병철** 저한테 문자로 왔습니다.

○**김승수 위원** 누구하고 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문자로 와서 그냥 덜렁 골프 치러 갑니까, 그 멀리까지?

○**증인 김병철** 아닙니다. 체육회 임원진들 모임이 있다고 해서 나갔습니다.

○**김승수 위원** 여기까지 와서 그렇게 뻔뻔하게 위증하실 겁니까?

○**증인 김병철** 그건 아닙니다.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분하고, 제가 그분을 알아서 전화하고 또 전에 무슨 카톡하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연임 심사하는 데 있어서 위원장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리고 김병철 위원장이 공정위원장 되면서 연임 심사가 거의 100%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22.2%인데 왜 그렇습니까? 갑자기 임원들의 비위나 이런 것들이 없고 굉장히 성적들을 좋게 내고 있습니까?

○**증인 김병철**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이후를 지금 비교하셔서 그러는데 2016년도는

대한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둘이 합해져서 그때 연임 심사가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로 여러 가지 절차나 또 그리고 서류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많은 혼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접수되고 난 다음에 반려가 많이 되고 또 내지는 재심사가 들어오고 그래서 거기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제가 2019년도부터 스포츠공정위를 맡았습니다마는 과거를 보니까 2017년도하고 18년도부터, 17년도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 가면서 여러 가지, 정말 소위원회에서 제대로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하고 거기에서 한 것을 본위원회에 보고를 하는 것으로 그야말로 공정하게 하려고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래서 재선 이상이, 3선 연임이 예외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웬만하면 해 주라는 겁니까?

○**증인 김병철** 바로 그것입니다. 예외적으로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야말로 과정상 객관적인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공정하게 평가를 해서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심의 의결하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에 맞게……

○**김승수 위원** 예외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해 주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히려 불인정한 게 예외 중의 예외입니다. 거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앞에 계시는 이기홍 회장님 3선 연임 문제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3선 연임 신청……

조금만……

3선 연임 신청을 하면 똑같이 스포츠공정위에서 심사해야 될 것 아닙니까?

○**증인 김병철**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현재 지금 김병철 위원장이 앞서도 다 지적했듯이 이기홍 회장, 대한체육회장 밑에서 특보도 했고 이번에 또 공정위원장 임명한 것도 이기홍 회장 아닙니까?

○**증인 김병철** 그것은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스포츠공정위원장은 정관에 총회가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회가 선임을 해야 되지 회장이 임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스포츠공정위원회는 회장으로부터 독립돼서 정말 자율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위원들은 모두 그런 심정으로, 그야말로 그런 각오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지 회장으로부터 영향받지 않습니다. 지시 받고 있지 않습니다.

○**김승수 위원** 위원장님, 스포츠공정위원회 구성이 작년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한체육회장이 위원 선임 권한을 위임받은 것 아닙니까, 지금?

○**증인 김병철** 위임받았다 하더라도……

○**김승수 위원** 그리고 지금 그렇게 변명 안 하셔도 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눈 가지고 아옹 하지 마십시오.

○**증인 김병철** 그것 변명 아닙니다.

○**김승수 위원** 보십시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기홍 회장의 여러 가지 혜택을 입어 가지고 특보도 했고 지금 스포츠공정위원장 임명이 됐는데 이기홍 회장이 3선 연임을 위해서 신청을 했을 경우에 이해관계가 전혀 없이 심사를 한다, 누가 그렇게 믿겠습니까?

○**증인 김병철** 아직 회장님께서 3선을 나가겠다고 선언도 안 했고, 선언을 한다면 저는

정관과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서 그것을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할 겁니다.

○**김승수 위원** 규정, 정관 거기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할 게 아니고 이것은 명백한 이해충돌이기 때문에 만약에 3선 연임에 출마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직에서 물러나야 됩니다.

○**증인 김병철** 11조에 그런 기타 공정을 기하지 못할 사항이 있다면 거기에서 회피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 회피 제도에 의해서 저는 그것을 적용을 해야 될 때 생각을 해보고 적절하게 처신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일반 종목별 임원 같으면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체육회장의 연임을 심사하는 그런 자리라 그러면 회피를 한다 하더라도 위원장으로 있는 그 자체가 위원들한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증인 김병철** 저희 위원들은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저희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하고 최문철 참고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참고인은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이사장, 공단이 체육진흥투표권, 즉 스포츠토토 발행사업자시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토토 판매, 환급금 교부, 운영 관리 등의 업무는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에서 하고 수탁사업자 관리감독의무는 발행사업자인 체육진흥공단에 있습니다. 맞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이사장, 스포츠토토는 회차당 얼마씩 구매할 수가 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회차당 10만 원입니다.

○**김재원 위원** 오프라인이 10만 원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에는 베팅맨(betman) 사이트에서 5만 원 한도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10만 원 넘는 구매는 막고 있는 거지요? 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서 판매 차단을 하거나 아니면 암행 모니터링을 해서 판매점을 적발한다고 합니다.

37살의 한 가장이 지난 6월에 32살의 어린 아내와 7개월 된 아들을 두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유품에서 다량의 스포츠토토가 발견이 됐습니다.

참고인에게 여쭙겠습니다.

참고인, 고인과 어떤 사이십니까?

○**참고인 최문철** 저의 아들입니다.

○**김재원 위원**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서 이 자리까지 나와 주셔서 감사를 올리겠습니다.

고인이 스포츠토토 하는 것을 유가족께서는 전혀 모르셨었나요?

○**참고인 최문철** 한 1년 전쯤에 우리 며느리가 알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합법적이고 대한민국 정부에서 하는 거니까, 소량으로 하고, 큰 문제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 **김재원 위원** 액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 **참고인 최문철** 예.

○ **김재원 위원** 혹시 불법 스포츠토토를 하신 게 아닙니까?

○ **참고인 최문철** 절대 아닙니다.

○ **김재원 위원** 정부가 발행한 합법적인 스포츠토토다?

○ **참고인 최문철** 예.

○ **김재원 위원** 고인 사망에 스포츠토토 관련 사실을 어떻게 알게 되셨습니까?

○ **참고인 최문철** 사망 후에 유품으로 휴대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보니까 카톡 내용에 스포츠토토를 한 흔적이 있었고 제가 차량을 청소하다 보니까 다량의 스포츠토토 투표권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 **김재원 위원** PPT 화면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유품인 스포츠토토 사진을 찍어 놓으신 것입니다. 가장 좌측이 130회차 스포츠토토 투표권인데요. 고인은 지난해 11월 7일 저녁 6시 30분에서 10분 사이에 A 판매점에서 60만 원어치 판매권을 구매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판매점에서 구매한 131회차 28만 원, 140회차 총 60만 원어치 판매권을 구매한 것을 이 사진으로 알 수 있습니다.

이사장, 화면의 스포츠토토가 공단 투표권 맞습니까? 10만 원의 구매한도가 전혀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모니터링 등 공단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을 했다고 보시는 건지요? 답변해 주십시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저희가 전자발매통제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이렇게 할 때 경보하고 발매를 차단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는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 **김재원 위원** 다음 화면 보시지요.

화면이 공단의 모니터링 방식을 적어 놓은 것입니다. 구매한도를 넘는 구매 시도가 있다면 최소 1분 동안, 기준을 넘는 금액의 구매를 시도하면 판매점의 구매 권한을 이사장의 말처럼 일정 시간 차단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모니터링 결과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공단은 암행감사를 실시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다시 말해서 1분마다 구매를 하면 모니터링에 걸리지 않고 부정행위로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암행감사도 실시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구멍이 술술 뚫려 있는 그런 감시 제도입니다.

다음 화면 또 보시지요. 더 큰 문제도 있습니다.

화면 보시면 ‘100 주세요’, ‘보내 드렸습니다’, ‘20장입니다’, ‘100 송금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카톡 보이시지요? 또 토토 사진을 찍어서 보냅니다. ‘2.5배 맞췄다’라고 하니까 ‘입금할게요’라고 답을 합니다.

참고인, 화면 내용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 **참고인 최문철** 예, 제 아들이 스포츠토토 판매점주하고 비대면으로 구매한 내용입니다. 베트맨 사이트에서 먼저 배당을 보고 제 아들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면 점주가 저렇게 구매했다고 하고 입금을 받는 그러한 체계로 계속 했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구매 금액이 얼마 정도인가요?

○ **참고인 최문철** 2개인데요. 하나는 3년 동안 한 1억 8000여만 원 했고, 그런데 최근 1년 동안 1억 4000만 원 정도를 그 구매점하고 거래를 했고요. 다른 하나는 4400만 원 정도를 구매한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고인이 1회에 평균적으로 거래한 금액은 A 판매점 같은 경우에 약 35만 원, B 판매점 약 27만 원으로 10만 원이 넘습니다. 심지어 많게는 한 번에 200만 원까지 입금을 했지요.

A 판매점의 경우 현재 사기죄로 고발이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 **참고인 최문철** 예, 그 A 판매점은 실제로 우리 아들이 입금을 하면 입금을 했을 때 발권하지 않고 바로 배당률만 보여 주고 마치 발권을 한 것처럼 속여서 우리 아이에게 돈을 전부 편취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사기죄로 고발했고요. 지금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참고인은 A 판매점이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 **참고인 최문철** 이용한 거지요. 정부가 스포츠토토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용했고요.

더 큰 문제는 이것은 스포츠토토코리아의 직원들이 저한테 위로하러 왔었어요,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이 화면을 보여 주니까, 카카오톡을 보여 주니까 바로 ‘이것은 발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내역을 알아봐 주겠습니다’ 하고 먼저 조사를 해 준겁니다. 저는 그분께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도 드리고 싶고요.

더 큰 문제는 실제로 발권을 한 사진을 보여 주는 데도 있대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몇 분 내로 바로 취소하고 그 돈을 판매점주가 편취하는 사례도 여러 차례 적발이 됐다고 그렇게 들었습니다.

○ **김재원 위원** 이런 사기 행태를 판매사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알려 주셨다는 말이지요, 직원이 오셔서?

○ **참고인 최문철** 예.

○ **김재원 위원** 그렇습니다.

회차당 이런 비정상 거래 행태가 있다는 사실 이사장, 알고 있었습니까?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저희들은 사실 투표권 수탁사업자인 스포츠토토코리아가, 판매점을 직접 관리하는 책임은 수탁사업자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탁사업자에 대한 연간 정기적인 감사를 통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 경우를 왕왕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판매점에 대한 직접 관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간접적으로 듣고 있습니다.

○ **김재원 위원** 공단이 지난해만 해도 대면 판매 규정 위반으로 18건 적발을 했고 구매한도 초과 판매 위반은 210건을 적발했습니다. 그런데 불법행위 감시방안이 참으로 실효성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면 재검토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2014년에 감사원은 매출 상위 50개 판매점의 자료를 분석해서 총 6490회에 걸쳐서 총 209억 원 정도가 구매한도 초과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공단이 왜 적발을 못 합니까? 자료도 있고 분석하고자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제대로 감시하고 운영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없었다고 볼 수밖에는 없겠습니다. 애초에

10만 원만 구매하도록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졌더라면 고인이 사망하는 그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전자카드제가 됐든 아니면 주민등록번호가 됐든 구매자 기준으로 한 회차에 10만 원 이상 살 수 없도록 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하십시오. 공단은 문체부와 협의해서 종감 때까지 계획 세워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포츠토토는 스포츠 발전을 위해서 국민체육기금을 조성하는 동시에 이용자한테는 재미로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하자는 데 있는데요. 건전한 여가생활이 되도록 구매한도를 제한하려는 것인데 구매 제한이 무력화되면 토토는 그냥 도박이 되는 것입니다. 공공기관이 건전한 여가문화를 조성해야지 도박장 주인이 되셔서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선택을 하시는지 그렇게 지켜보겠습니다.

참고인, 오늘 용기를 내서 나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처음에는 얼굴도 드러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 아버지로서 용기를 내셔서 얼굴까지 드러내고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해 주십시오.

○참고인 최문철 아마 누군가 지금 이 장면을 보면 저희 아들을 비난할 수도 있고 저를 비난도 할 겁니다. 아들이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아버지로서, 부모로서 자식의 일탈을 제대로 보지 못한 불찰도 큽니다.

아이의 유서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엄마 아빠, 이런 선택을 하게 돼서 정말 억울합니다’. 자신의 행위를 가족이 알게 될까 봐 계속 두려웠다고 그래요, 무섭고 부끄럽다.

저는 우리 아이가 무엇이 억울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억울함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스포츠토토에 대한 자체 조사를 시작했고요. 여기 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는 20대 중후반에 정부의 합법적인 사이트인 베트맨을 통해서 처음 소액으로 베팅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서 판매점에서 구매를 시작했고요. 작년 어느 순간부터 무절제에 빠졌습니다. 1년 만에 우리 아이가 변했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강한 의지로 오로지 매출을 올리는 데 최상의 목표를 두었습니다. 국가가 공인한 절대 유일의 합법적인 사이트, 이외의 것들은 모두 불법이다라고 홍보에만 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판매점의 부정행위를 조장했고 우리 아들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그 아이가 최상의 선함을 지니지 않았다면 범죄의 길로 먼저 들어섰을 겁니다.

왜 일반 시민과 달리 판매점의 주인에게는 무제한의 환급이 가능하게 했을까, 비대면 구매와 10만 원 한도가 넘는 구매를 신고하는 것은 왜 복잡할까. 정말 복잡합니다. 몇 시간씩 허비해야 되고요, 내 정보 고스란히 다 까야 되고 내 계좌 다 까야 됩니다. 그런데 포상금은 고작 3만 원짜리입니다. 3만 원 상품권이라고 합니다. 누가 신고를 할까요? 신고하지 말라고 조장하는 거지요.

판매점을 역시, 판매점주 역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처벌이 없습니다. 사이트 이용이 구매와 환급이 오히려 더 쉬운데도 왜 판매점의 매출액이 사이트보다 열 배 가까이 많을까요. 정부는 알면서 방치한 것을 넘어어서 이를 조장을 했다는 데 책임을 져야 할 겁니다.

존경하는 전재수 위원장님 그리고 여야 각 위원님들,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판매점에

서 부정행위를 하고 있을 겁니다. 애초 스포츠토토의 취지를 살려서 국민들이 건전한 즐거움을 누리게 할 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궁금하시면 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 저한테 나중에 연락을 해 주십시오. 제가 아주 간단한 방법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는요 멋진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매우 선량합니다. 우리 아이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우리 사회에 더 이상 이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위원님들께서 제도와 법을 재정비해 주실 것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원 위원 이사장, 공단은 문체부와 협의해서 종감 때까지 계획 세워서 꼭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쉽지 않았을 텐데 최문철 참고인님, 이렇게 용기를 내서 저희 위원회에 출석을 해 주시고 또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회를 대표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님, 조금 전에 최문철 참고인께서 하신 말씀 잘 좀 챙겨서, 이것이 개인의 일탈이 아니고 스포츠토토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피해 사례들 이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구조적으로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철저하게 좀 챙겨서,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지 마시고 이런 문제를 구조적으로 원천 봉쇄할 수 있는 그런 고민과 정책 대안들을 좀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수익성보다는 건전화에 더욱더 역점을 두고 관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렇습니다, 꼭 그렇게 좀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최문철 참고인께서 아까 문의를 해 주시면, 안타까운 사연으로 유명을 달리하신 아드님 이 일을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셨다니까 직접 직원을 보내시든지 해서 최문철 참고인이 그동안 고민해 왔던 대안들 그것도 한번 들어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참고인과 잘 상의해서 좋은 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상으로 중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신 위원님들의 신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은 중인 및 참고인 신청을 하지 않았지만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희망하시는 위원님들 질의 순서인데요, 순서에 따라서 양문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장재근 촌장님, 안세영 선수가 다시 세계 랭킹 1위로 복귀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장재근 예.

○양문석 위원 안세영 선수의 인성을 평가하면 좋다 1, 나쁘다 2, 그저 그렇다 3. 1, 2, 3 중에 어떤 걸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증인 장재근 인성이오?

○양문석 위원 예.

○증인 장재근 좋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 1번?

○증인 장재근 예.

○양문석 위원 안세영 선수가 촌장님한테 인사 안 하고 외면하고 한 적이 있습니까?

○증인 장재근 언제요?

○양문석 위원 선수촌 안에서.

○증인 장재근 선수촌 안에서요?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그렇게 안 했는데 제가 선수촌장이 되면서 전 선수들에게 인사하자 이런 캠페인을 해서 잘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애아 주십시오.

배트민턴협회장, 지난번 민주당 비공개회의 때 오셔 가지고 ‘세계적인 스타여서 그런지 모르지만 안세영 선수는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선수촌장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고 심지어 협회장인 나에게도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증인 김택규 예.

○양문석 위원 그런데 선수촌장께서는 인사한다는데요?

○증인 김택규 제가 느끼기에는 저한테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한수정 트레이너하고……

○양문석 위원 중국 이야기하셨어요?

○증인 김택규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그때……

○양문석 위원 그때 그러면 선수촌장은 왜 끼워 넣었어요? 선수촌장한테도 인사를 안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증인 김택규 제가 선수촌에 가서 촌장한테 들은 얘기는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들은 것 같습니다.

○양문석 위원 다시 장재근 촌장님, 저런 이야기가 나올 만한 상황이에요?

○증인 장재근 처음에 제가 선수촌장으로 임명됐을 때는 많은 선수들이 인사를, 우리나라가 좀 쑥스러워서 인사를 잘 안 하는 경우가 좀 많았습니다. 그중에 안세영 선수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오해가 있었고 또 선수들 간에, 종목 간에 서로 인사를 안 해서 어느 종목이 들어와 있는지, 어떤 선수가 들어와 있는지 잘 몰라서 제가 캠페인을 해서 인사를 합시다 하면서 좋아진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워서 서로 간에 인사를 좀 안 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양문석 위원 고맙습니다.

이런 앞뒤 설명 없이 ‘선수촌장한테도 인사를 안 하고 심지어 나한테도 인사를 안 한다’ 하면서 지난번 올림픽 직후에 안세영 선수가 제기했던 한국배드민턴협회뿐만 아니라 한국 체육계 전반에 울렸던 그 경종을 인성 나쁜 잘난 스포츠 스타로 매도했어요.

○증인 김택규 제가요?

○양문석 위원 그거잖아요. 선수촌장한테도 안 하고……

○증인 김택규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아니, 제가 그대로 읽어 드렸잖아요. ‘세계적인 스타여서 그런지 안세영

선수는 인사를 안 합니다. 선수촌장에도 선배들에게도 인사를 안 합니다. 심지어 협회장인 나에게도 인사를 안 합니다'……

○증인 김택규 인사를 하고 안 하는 것하고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저 혼자 들었나요?

○증인 김택규 아니요, 제가 한 말이……

○양문석 위원 보세요. 저 혼자 그날 협회장이 이야기하시는 이야기를 들은 것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안세영 선수한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선수촌에서 촌장이든 선배든 협회장한테 인사하지 않습니까’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안세영 선수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제가 못 봐서 인사를 안 할 수는 있어도 제가 보고 협회장님이든 선생님이든 선배들께 인사하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증인 김택규 그러면 저만 그렇게 느끼나 보지요.

○양문석 위원 협회장, 말장난해요?

○증인 김택규 아니지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그 사람은 인사 안 합니라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양문석 위원 그날 전체적으로 안세영에 대한 협회의 무성의하고 독단적인 행태에 대해서 계속해서 비판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협회장이 안세영 인성에 대해서 사실상 지적하고 저격하면서 인사하지 않는 안세영, 촌장에게도 인사하지 않는 안세영, 선배들한테도 인사하지 않는 안세영, 심지어 협회장에게도 인사하지 않는 안세영으로 저격했잖아요. 그런데 뭐요? 다시 말해 봐요.

○증인 김택규 이번에 덴마크에 가서도 선배들이나 코치진한테 인사 안 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와요? ‘안세영 복귀무대 준우승, 세계 1위 탈환 이뤘지만 대표팀 지도자 코칭 못 받아, 외신도 지적’ 그리고 ‘코칭스태프와 안세영 관계 미묘한 기류’ 이런 보도들이 줄줄이 쏟아 나오게 해서 행복해? 좋아요?

○증인 김택규 그런 뜻은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 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최소한 선수를 관리하고 그 선수가 가장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협회장이 자신 소속의 선수를, 그것도 세계적인 스타, 성적 내고 성과 내는 스타를 인격적으로 저격하고 왕따시키고 그리고 잘한다 그런 소리 들어서, 그래서 기분이 좋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처했어요?

○증인 김택규 제가 무엇을 왕따시켰습니까?

○양문석 위원 우리한테 와서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안세영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인사도 안 하는 건방지고……

○증인 김택규 인사 안 하는 것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양문석 위원 앉으세요.

말을 섞어야 될 사람이 있고 섞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적어도 배드민턴협회장은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제가 참 더러운 놈이 될 것 같습니다.

김병철 위원장, 아까 김승수 위원 질문 중에 골프, 그냥 모르고 잤다?

○증인 김병철 예.

○양문석 위원 그런데 문자가 와서 갔다?

○증인 김병철 체육회에서 문자가 와서 우리……

○양문석 위원 정확하게 체육회의 누가 문자를 보냈어요?

○증인 김병철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체육회에서 가끔 체육회 단합대회 행사가 있다고 연락이 오면……

○양문석 위원 누가 문자를 보냈냐고요? 지금 보면 되잖아요, 핸드폰?

○증인 김병철 4년 전 얘기입니다.

○양문석 위원 4년 전 핸드폰 지금 봐도 다 보여요.

○증인 김병철 4년 전 일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누가 했는지를 모릅니다.

○양문석 위원 오락가락하지 마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정관 개정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처음에는 ‘위원장이 위원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게 처음에 이야기해 놨다가 좀 이따가 또 질문을 하니까 ‘제가 어떻게 할 것인지 심도 있게 생각할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증인 김병철 제 스스로를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 어떤 태도를 취할 것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나입니다.

○양문석 위원 한 조직의 장이……

○증인 김병철 예, 저는……

○양문석 위원 좋아요, 거기까지 좋아요.

지방체육의 정책적 위기だ라고 이야기하면서 박정하 위원이 그렇게 묻습니다. ‘이기홍 회장과 정몽규 회장 3연임, 4연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정관 고칠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했더니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정관 개정할 수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증인 김병철 예.

○양문석 위원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 체육회장을 잘 모르겠어, 그런데요 축구협회 회장에 대해서 한번 물어봅시다. 지방체육의 위기고 정책적 판단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증인 김병철 지방의 종목단체에서 회장과 임원을 선출하는데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인재를 구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다, 그래서 연임 횟수 제한을 철폐하자는, 체육회에서 와서 그 정관을 개정해 달라는, 심의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 도대체 어떤 지방체육회에서…… 지방체육회 회장, 시도 체육회 회장 다 대부분 경선이에요. 그리고 축구협회장 상당히 치열하고 각축을 벌여요. 이게 지금 지방체육의 위기라고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정관 개정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 근거가 지방체육의 위기라고 이야기했는데 하필이면 가장 격렬한 시도 체육회 회장과 가장 격렬한 축구협회 회장선거에 사람이 없어서 지방체육의 위기를 맞는다고요? 회장 출마할 사람이 없어서 지방체육이 위기를 맞는다고요?

○증인 김병철 그 부분이 아니고요.

○양문석 위원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방금. 앞에서도 그렇게 대답했고 분명히 박정하 위원이 이기홍……

○증인 김병철 대한체육회 기획부에서……

○양문석 위원 잠깐만 들어 보세요.

‘이기홍, 정몽규, 4선과 3선에 대해서 정관 개정 가능합니까?’라고 이야기했더니 그렇게 대답했었잖아요?

○증인 김병철 아니, 저희 스포츠공정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서 지방체육의 위기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증인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면서 지방체육의 위기라고 이야기했고 정책적 판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증인 김병철 그렇습니다. 대한체육회 기획부에서……

○양문석 위원 그러면 잘못된 것 아니에요?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잘못된 걸로. 지방체육의 위기가 체육회장 할 사람이 없어서, 축구협회 회장 할 사람이 없어서 지방체육의 위기라면서요?

○증인 김병철 위원님, 제 말씀 좀 들어 주십시오.

○양문석 위원 아니,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증인 김병철 그러니까 제 말씀 좀 들어 주시면……

○양문석 위원 딴소리하지 마시고요.

○증인 김병철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양문석 위원 왜 이야기를 해 놓고 거짓말을 해요?

○증인 김병철 그것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 기획부에서 저희한테 와서 ‘이렇게 정관을 개정해 주십시오. 개정하는데 검토해 주십시오’, 와서 설명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양문석 위원 보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요.

○증인 김병철 그 설명을 하는 내용이 그렇다는 얘기지 제가 정책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보도 없습니다.

○양문석 위원 잠깐만요.

위증하면 법적 조치 당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셨냐면요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정관 개정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직접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그대로 그 발언을 썼고요.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면 ‘지방체육의 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되고’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박정하 위원이 ‘4선과 3선 연임의 정관 개정을 그러면 하겠다라는 겁니까, 안 하겠다라는 겁니까’의 취지로 물었을 때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정관 개정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제가 질문하기를 ‘지방체육의 위기가 뭡니까?’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지방체육의 위기는 회장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체육회 회장, 시도 체육회 회장은 치열한 경선이 안 붙는 데가 거의 없고, 심지어 축구협회 같은 인기종목의 회장도 격렬한 선거전을 치르는 데가 상당히 많고 할 사람은 정말 수두룩 빼빼하다라는 게 제가 취재한 바의 내용이면 이미 위원장의 논리는 깨진 거예요. 지방행정의 위기고 정책적 판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필이면 4연임을 도전하는 정몽규와 관련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정관 개정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논리가 다 깨진 거잖아요.

그러면 논리가 깨졌으면 잘못했습니다 또는 제 소신입니다 또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해서 밀고 나갈 겁니다 해야 되는데 뭐가 제가 오해했다고 또 저한테 뒤집어씌워요? 제가 오해한 것 뭐예요? 이야기해 보세요. 제가 뭐 오해했어요?

말 뱉어 놓으면 다 기록이 되고요. 말 뱉어 놓으면 다 녹취가 되고요. 그 뱉어 냈던 근거가 깨졌으면 ‘잘못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또는 ‘제 생각이나 제 소신입니다. 당신의 논거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증인 김병철** 아니, 위원님……

○**양문석 위원** 그런데 여기 와 가지고 전 국민들이 쳐다보고 있는, 현재 방송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이 직접 이야기했던 지방체육의 위기와 정책적 판단에 대한 논거가 깨쳤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지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증인 김병철**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요……

○**양문석 위원** 변명하지 마시고요. 그 이야기……

○**증인 김병철** 대한체육회 기획부에서 이것을……

○**양문석 위원** 보세요, 그런 이야기……

○**증인 김병철** 이 정관을 개정하려면……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문석 위원** 보세요, 아까 그런……

○**증인 김병철** 개정하려면 저희한테 와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설명 내용이 그렇다는 내용입니다.

○**양문석 위원** 위원장님, 아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는 일절 없었어요.

○**증인 김병철**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박정하 위원님께서 물어봤기 때문에 제 개인 의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양문석 위원** 보세요, 지금 개인을 불렀나요? 위원장을 불렀어요.

○**증인 김병철** 아니, 제가 위원장직에……

○**양문석 위원** 그리고 본인이 직접 이야기를 했는데 왜 자꾸 거짓말을 해요!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지역체육의 위기라면서요, 정책적 판단이라면서요? 왜 자꾸 큰소리를 자르게 해요, 점잖게 품위 있게 우아하게 하고 싶은데!

당신 같은 사람이 자꾸 나와서 거짓말하고, 논거가 깨지면 거기에 대해서 반성을 하지 않고 또 거짓말하고 다른 말 끌어들여 가지고 말 질질 끌고! 그러니까 내가 목소리가 커지는 거예요.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정말 못된 사람이에요. 못된 사람이에요.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고.

위원장님.....

○증인 김병철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발언권을 좀 주신다면.

○위원장 전재수 예.

○증인 김병철 저희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무슨 정관을 바꾸는 것을 처음 시도하고 하는 데가 아닙니다. 정관에 대해서는 대한체육회에서, 기획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희한테 와서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 정관을 바꾸겠습니다라고 와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설명 내용에 지방체육회, 특히 시군구회가 어려움이 있다, 거의 98%가 단독 후보다, 그리고 종목단체의 경우에는 거의 70%, 80%가 단독 후보라고 저희한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들끼리 정말 그게 사실인가를 우리한테 이해할 수 있는 자료를 갖고 와서 설명해 달라 하고 그 설명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가지 케이스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했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위원장님.....

○증인 김병철 그래서.....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정관 통과를 시키면서 두 번에 걸쳐서 심의를 했습니다. 통과를 하면서 여러 단서조항을 달고 싶었지만 저희 위원회라는 데는 법제에 대해서만 생각하지 정책적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사회에 가서 논의를 해 봐라 하고, 가서 논의를 하는 걸로 하고 총회에 가서 이기홍 회장님은 제외하는 걸로 하고 문체부에 상신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필요한 부분은 양문석 위원님께 위원장님께서 기회가 되시면 추가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증인 김병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앉으셔도 됩니다.

다음은 김윤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덕 위원 전주시갑 김윤덕 위원입니다.

배드민턴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황제회장님을 이렇게 세워 가지고 굉장히 죄송합니다. 민망하네요, 제가 볼 때.

인사 안하고 다니면 싸가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배웠어요, 인사 안하고 다니면 싸가지가 없다고.

○증인 김택규 제가 언제 싸가지 없다고 했습니까?

○김윤덕 위원 싸가지가 없는 놈은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증인 김택규 아니, 제가 언제 싸가지 없다고 했냐고요?

○김윤덕 위원 제가 언제 회장님이 싸가지가 없다고 했어요?

○증인 김택규 위원님이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김윤덕 위원 싸가지가 없는 건..... 여보세요, 내 말 잘 듣고 얘기해요. 인사 안하면 싸가지가 없다고 하는 건 제 말이고요. 싸가지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사 안하면. 싸가지 없는 사람은 인격적으로 문제 있는 것 아니에요? 맞아요, 틀려요?

○증인 김택규 저는 무엇을 물어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 질문에 답을 할 때 인사 안 하는 것하고 인격적

문제는 다르다고 말했잖아요?

○증인 김택규 제 생각입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그 생각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증인 김택규 그러니까요, 제 생각이라고요.

○김윤덕 위원 황제회장님은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 보여서, 인사 안 하고 다니면 싸가지가 없고 싸가지가 없으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인사 잘하고 다니세요.

○증인 김택규 예.

○김윤덕 위원 남들한테 인사 안 한다고 말하지 말고, 은근하게.

○증인 김택규 예, 알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예', 그렇게 대답한 거지요?

○증인 김택규 알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예', 한 번 더 '예' 해 보세요, '예'.

○증인 김택규 예.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김윤덕 위원 다음부터는 정중하게 '예' 그렇게 하세요.

○위원장 전재수 배드민턴회장님.

○증인 김택규 예.

○김윤덕 위원 '예' 하면 인격적 모독,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증인 김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윤덕 위원님 잠시만요.

배드민턴회장님, 국정감사장의 증인이십니다.

○증인 김택규 증인으로서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기분이 언짢은 질문이나 그렇다 하더라도 조금 전에 보여 주신 그런 자세와 태도는 국정감사장에 어울리지 않는 자세와 태도입니다.

○증인 김택규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유념해서 남아 있는 국정감사에서 조금 더 절제된 자세와 태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스포츠 스타가 인사를 안 한다라는 말은 굉장히 인격적 공격입니다. 인격적인 문제와 상관없다고 말할 게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을 변명하고 합리화하는 이유로 쓰지 말라고요.

회장님께 묻겠습니다.

협회 상임심판이 몇 명입니까?

○증인 김택규 5명입니다.

○김윤덕 위원 국제심판은?

○증인 김택규 국제심판은 정확한 인원수는 모르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회장이 국제심판 인원이 몇 명인지도 몰라요? 후원금 받는 액수는 정확히 알고 계시지요?

프랑스 배드민턴협회가 지난 1월에 파리올림픽 테스트를 겸해서 프랑스오픈에 한국 심판 한 분 초청을 보냈는데 협회에서 거절했지요? 거절했습니까?

○증인 김택규 예.

○김윤덕 위원 왜 했어요?

○증인 김택규 그 상임심판제도를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김윤덕 위원 왜 거절했냐고요?

○증인 김택규 그것을 말씀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심판제도가 2018년부터 배드민턴협회에 새로 생겨난 상임심판인데요. 상임심판이 5년간 그냥 죽 이어져 내려옵니다. 그리고 상임심판 내규에 보면 공개채용의 원칙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내려가 보면 재계약을 하라는 그런 문항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나 상급기관에서는 4명을 재계약합니다. 그러면 공개채용을 1명 하는데 그 1명이 탈락을 하면 본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왜 점수가 낮아서 이 사람한테 지냐?’ 이렇게 민원을 냅니다. 스포츠윤리센터나 민원 내는 데는 다 냅니다, 신문고를 통해서도 하고. 그 민원을 가지고 1년을 끄는데요.

그 상임심판들이 외국의 대회에 가서 이름을 걸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심판위원회에 심판이 한 80명이 있습니다. 그 심판들도 외국 대회에 심판을 보러 나가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프랑스올림픽은 약간의 예외는 됐지만 다른 대회에 보면 그 심판들의 이름을 다 정해서 오니까 우리 협회에 있는 심판들은 거기 갈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는 본인들끼리 어느 정도, 이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짜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심판 파견을 안 한 거고요.

○김윤덕 위원 이것 보세요.

○증인 김택규 심판을 파견하게 되면 우리가 비행기표나 이런 걸 다 대 줍니다.

○김윤덕 위원 잠깐만요, 답변 중단하세요. 답변 중단하시라고요.

짜고 들어온다고요?

○증인 김택규 예.

○김윤덕 위원 지금 여기 감사장에서 프랑스오픈대회 심판 초청하는데……

○증인 김택규 그러니까 프랑스오픈이나 대만오픈이나 전영오픈이나 다 똑같습니다, 대회는.

○김윤덕 위원 이것 보세요. 이유 불문하고 국제대회에서 어떤 심판을 요구하면 주는 게 관례고, 예를 들면 짜고 들어온다는 말을 근거도 없이 어떻게 발언합니까?

○증인 김택규 심판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기명으로 2명을 요청하면 우리가 보내는 걸로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전부 다 상임심판입니다.

○김윤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오픈에서 사람을 지명해서 보낸 것 아닙니까?

○증인 김택규 지명해서 보냈지요.

○김윤덕 위원 지명해서 보낸 걸 짜고 보냈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증인 김택규 프랑스오픈이나 대만오픈이나 전영오픈이나 이런 오픈대회에서 심판 이름을 알아 가지고 한국에 요청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심판을 무기명으로 2명이든 3명이든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협회에서 심판을 정해서 내보냅니다.

○김윤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오픈에서 이름을 정해서 왔어요, 안 정해서 왔어요?

○증인 김택규 정해서 왔습니다.

○김윤덕 위원 정해서 왔다면서요?

○증인 김택규 정해서 오니까 그게 짜고 오는 거지요.

○김윤덕 위원 아니, 정해서 오면 짜고 오는 거고……

○증인 김택규 제가 심판인데 ‘나를 불러 줘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김윤덕 위원 ‘나를 불러 줘라’ 하면, 프랑스오픈에서는 그냥 바보들만 모여 있습니까?

○증인 김택규 아니지요, 그렇게 옵니다.

○김윤덕 위원 아니, 그렇게 온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증인 김택규 그러니까 말이 안 되게 오기 때문에 우리 협회에서는……

○김윤덕 위원 그러면 말이 안 되게 왔으면 안 보내 버리는 거고, 올림픽도 안 보내지 그랬어요? 프랑스오픈에 안 보낸 거고 올림픽에는 보냈고. 올림픽에 보낼 때 프랑스오픈에 가지 못했기 때문에 제대로 준비를 못 해서 별로 좋지 않은 경기에만 심판 보고 온 것 아닙니까?

○증인 김택규 그것은 BWF에서 심판 배정하는 거지 저희 협회에서 하는 것 아닙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요. 회장님, 짜고 한 거라면 프랑스오픈도 안 보내고 올림픽도 안 보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어떻게 국제경기대회 심판을 짜고 보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지금?

○증인 김택규 그래서 제가 그 표현이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윤덕 위원 기가 막히네, 진짜.

회장님, 황제회장님으로 누리는 것 잘 알겠는데 회장님한테 뭘 찍혀 가지고 그랬는가 모르겠는데요……

○증인 김택규 아니, 심판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고.

○김윤덕 위원 프랑스오픈에서, 공식기구에서 보낸 심판은 한국에서 보내야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인 김택규 그건 BWF에서 신청하는 것과 오픈대회에서 신청하는 것이 다릅니다.

○김윤덕 위원 아니, 그러니까 프랑스오픈에서, 어쨌든 공식기구에서 보낸 것 아닙니까? 다른긴 뭐가 달라요?

○증인 김택규 위원님께 제가 보내 드리겠는데요, 10개 대회에 어떻게 심판 요청이 들어왔는지 그 자료를 제가 보내 드리겠습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국제대회에서 짜고 한 게 아닙니다라고 하는 근거를 가지지 못하면 제가 회장님 말을 반박하지 못하게 생겼잖아요, 지금?

○증인 김택규 아닙니다, 그건.

○김윤덕 위원 체육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덕 위원 그러니까 짜고, 심판이 부탁하면 프랑스오픈에서 ‘그래, 너 보내 줄게’ 하

고 딱 보내 주는 겁니까?

○증인 김택규 그게 아니고……

○김윤덕 위원 그 말을 제가 사실로 받아들여야 돼요?

○증인 김택규 그 뜻이 아니고요. 상임심판이 우리가 5명이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오픈대회에 요청이 들어오는 심판이 그 5명 이외에는 들어오질 않습니다. 저희 심판이 국제심판을 비롯해서 80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심판들이 국제대회에 나갈 수 있도록 협회가 도와줘야 되는데 상임심판제도가 생긴 이후로 상임심판들만 외국 국제대회에 심판을 보려 갑니다.

○김윤덕 위원 이야, 정말 기가…… 나 국정감사 지금 9년째 하고 있는데 기가 막히네요, 진짜.

그러면 앞으로 상임심판 보내려고, 국제대회에서 요구가 오면 안 보내 버리고 그다음에 80명 중에서 던지기 해 가지고 운 좋은 사람 보내는 겁니까? 아니면 회장님 마음대로, 역시 황제회장님이니까 찍힌 놈은 안 되고 그러는 겁니까?

○증인 김택규 그런 뜻이 아닙니다.

○김윤덕 위원 체육회장님, 국제대회 심판 요청하는 문제에 대해서 각 부문 단체에서만 회장이 결정하도록 돼 있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김윤덕 위원 정관은 바꿀 수 없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조만간 내부 규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침으로.

○김윤덕 위원 지금 프랑스배드민턴협회가 파리올림픽 테스트를 겸해서 프랑스오픈에 한국 심판 누구를 보내 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안 보냈어요. 거절했어요. 심판위원장이 징계받아서 부위원장이 해명하기를 심판위원회에서는 파견 승인을 했는데 협회에서 파견 불가 결정을 해서 못 보냈다, 회장님이 컷 했다는 겁니다. 이것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마무리 국감 때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김윤덕 위원 진흥공단 이사장님, 체육요원들 병역특례 제도 잘 아시고 계시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김윤덕 위원 병역을 면제받는 대신에 544시간 사회봉사를 이행해야 되는데 지금 이 위반자가 저희가 조사한 것만 해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현황 알고 계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알고 있습니다.

○김윤덕 위원 야구, 지난 항저우아시안게임에서 금메달을 따서 19명이 병역 혜택을 받았는데 뒷말이 많이 있고, 그렇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김윤덕 위원 그리고 프로야구 선수들, 원 모 선수, 김 모 선수 2명이 규정을 어겨 가지고 현재 징계 예정입니다. 맞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그렇습니다.

○김윤덕 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3개월 동안 겨우 24시간 정도만 봉사를 하면 되는데 봉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확인해 보니, 병역특례요원 관리 인력과 예산 이게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저희 팀에 인원이 사실 많지 않습니다.

○ 김윤덕 위원 이것 예산, 인력 어느 정도 돼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지금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 한두 명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저희가 조사한 바로요 0.3명 이렇게 돼 있네요. 어떤 팀원이 관리하고 있는가 보지요, 그렇지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그래서 한 팀에 1명이 다른 일을 하면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윤덕 위원 예산은 0원입니다.

이사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지금 체육요원이 야구, 축구 해서 19명, 13명이 늘어나는 바람에…… 사실 그동안에 많지 않았습니다. 많지 않았는데 지금 45명으로 십여 배 이렇게 굉장히 늘어나서, 사실 종전에 인원이 적을 때는 1명이 이렇게 관리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관리 인력을 좀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현재 병역 문제는 국민적으로 굉장히 예민한 사항이라는 걸 아시지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 김윤덕 위원 군대 문제가 사실 대통령선거에도 영향을 준 문제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관리하는 문제는 국민 감정상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시지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동의합니다.

○ 김윤덕 위원 그러다 보니까 스포츠 스타 선수들이 이걸 개겨요, 그리고 인기도 있으니까 상당하게 많이 해태하는 문제가 심각해져서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면 국민적 감정도 상당히 안 좋아질뿐더러 이 병역특례 제도가 혼들릴 위험성이 있다. 그래서 스포츠에 공이 있고 스포츠를 통해서 나라를 빛낸 우리 선수들이 일정한 혜택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이 시스템에 대한 관리가 분명하게 잘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맞지요?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그렇습니다.

○ 김윤덕 위원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현재 사전 교육, 사후 교육,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마무리 국감 때 보고 부탁드립니다.

○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김윤덕 위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예,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오경 위원 지금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과정에 있어서 김택규 증인이 상임심판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상임심판은 종목단체의 사업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대한체육회의 지원사업으로서

평가 및 심사는 체육진흥공단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대회, 올림픽 등은 국제자격증을 보유한 자, 아시아대회는 아시아 심판자격증을 보유한 자 또한 오픈대회는 그 나라에서 초청을 할 때, 상임심판 중심으로 요청을 했을 때는 협회 차원에서 앞으로 협회에게 요청을 해라라고 해서 저희가 답변서를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5명의 상임심판이 있다고 했는데 제가 아는 걸로는 작년에 김택규 증인이 5명을 해임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임심판은 진짜 종목단체의 국제경쟁력을 살리기 위해서 대한체육회에서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장님의 권한으로 해임시킨 상황입니다. 이것을 다시 한번 물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김택규 증인, 지금 바로 답변하지 마시고요. 좀 앉으셔서 차분하게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증인 김택규 제가 그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지금 하실 수 있겠습니까?

○증인 김택규 예, 할 수 있습니다.

상임심판제도는 대한체육회 사업은 맞습니다. 대신 165일을 배드민턴협회에 있는 심판 활동을 해야 됩니다. 대신……

○임오경 위원 다른 건 말씀하지 마시고 해임시켰어요, 안 했어요?

○증인 김택규 해임시킨 게 아니고요……

○임오경 위원 해임시켰어요, 안 시켰어요?

○증인 김택규 해임 안 시켰습니다.

○임오경 위원 5명 해임시키셨잖아요.

○증인 김택규 안 시켰습니다, 안 시켰고요.

상임심판제도를 아예 대한체육회로 이관을 해 가시든지 아니면 협회에 권한을 주시든지 하면 그것에 맞춰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 협회한테 위임을 준 사업입니다. 상임심판은, 상임심판의 보수는 11개월 동안 대한체육회에서 주지만 대한배드민턴협회의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활동하는 비용이, 165일을 활동해야 되고요.

○위원장 전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이기홍 회장님, 이 내용을 바깥에 체육회 직원들 계시잖아요,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 유인물로 한 장씩 좀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수 이 정도로……

유인물을 배포해 드릴 겁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요, 이것은 위증입니다. 지금 대한체육회에 해임 자료가 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다시 한번 대한체육회의 이기홍 회장한테……

○위원장 전재수 아니, 그러니까.

○임오경 위원 맡아서 자료 바로 보내 주십시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위원장 전재수 그것 간단한 문제이니까, 그 유인물을 우리 위원님들 책상 위에 한 부씩 좀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주원홍 테니스협회…… 지금 현재 회장님이십니까, 아니십니까?

○**참고인 주원홍** 회장당선인이고요. 아직 인준을 못 받아 가지고 당선인 신분입니다.

○**조계원 위원** 6월 23일 날 당선됐는데 아직까지 인준이 안 되신 겁니까?

○**참고인 주원홍**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적인 문제가 계속 있었고요. 또 체육회에 인준 요청을 지난번에 두 번인가 했는데 계속 특별한 이유 없이 지금 인준을 못 받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테니스협회 쪽의 이형택 감독 등을 비롯한 모든 협회 관계자들이 인준을 희망하고 있지요?

○**참고인 주원홍**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대한체육회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서 또 다른 말로는 무조건부 채무면제확인서 이게 없으면 인준을 해 줄 수 없다…… 그러면 그 전에 이와 관련된 서류를 제출한 거 없습니까, 공증된 서류?

○**참고인 주원홍** 저희 채무를 면제해 주는 조건 중에…… 워낙 이기홍 회장께서 공·사석에서 ‘테니스협회는 무조건 관리단체 만들겠다. 또 대법관 출신, 검사장 출신을 보내서 관리위원회를 꾸려서 하겠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하셔서 전 테니스 집행부에서 저희 채권자인 미디어월에게 관리단체를 만들지 않는 조건으로 채무 면제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가 그렇게 했고.

대국민 기자회견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채권자인 민간기업에게 공증을 해 와라, 이사회 회의록을 해 와라…… 그래서 다 해서 줬습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불였다는 이유로 관리단체를 지정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소송을 한 것이지요. 그래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원인무효소송을 이제 진행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갑자기 해제 통보를 받아서 이 해제가 진짜 해제를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해제를 통보하시려면 이사회 의결을 해야 되는데 그 의결을 안 하고 보낸 거기 때문에 이게 합법적이지 않아서 저희가 어떤 스텐스를 취해야 될지 지금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회장 인준만 하면 현재 상태에서 관리단체 해제는 자동으로 되는 겁니까, 아니면 관리단체 해제도 협회 측에서 해야 됩니까?

○**참고인 주원홍**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줘야지요.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 주면 저희 채권자는 무조건, 지금 50억 가까이 되는 채무인데요 그걸 면제해……

○**조계원 위원** 46억이지요?

○**참고인 주원홍** 아니요, 이자가 또 그 사이에 늘었습니다. 한 달에 5000만 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 달에 선거했으면 46억이었는데 12개월 지나는 사이에 또 6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완전 면제된 상황은 아니지만 면제를 약속했기 때문에, 법원 판단이 그렇게 공증까지 해서 면제하겠다는 것은 면제라고 봐야 된다라고 해서 이번에 저희 손을 들어 준 거거든요. 그래서 절차상 하자 문제도 있지만 면제를 하겠다는 공증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볼 때 면제로 볼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대한체육회의 관리단체 지정 효력을 정지한다는 판결을 내렸고요.

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계속되지 않고, 체육회가 이사회에서 해제를 의결해 주시면

제가 곧바로 이 면제를 확인시킬 거고요.

그 판결 내용 중에 만약 저희가 이 채무를 면제 안 하면 언제든지 체육회는 이사회를 해서 관리단체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면제를 안 하면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이렇게 지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전 국민이 시청하고 있는 국감장에서 말씀하신 내용이고 이 정도라면 충분하게 인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장님, 회장 인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조치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알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은 배드민턴회장님, 천하의 안세영 선수가 이번에 덴마크오픈에서 준우승을 했지요?

○증인 김택규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안세영 선수 성적을 보니까 2 대 0으로 왕즈이 선수에게 완패를 당했더라고요. 그리고 점수 차도 많이 났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신발 신었지요?

○증인 김택규 올 2월 달에 안세영 선수가 민원을 제기한 게 있었는데요……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어떤 신발 신었느냐고요. 빨리빨리 얘기하세요.

○증인 김택규 신발 요넥스 신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왜 그랬을까요? 요넥스는 신발 전문업체가 아니잖아요?

○증인 김택규 그런데 한시적으로 안세영 선수 부분에 있어서만 원하는 신발을 신으라고 했는데……

○조계원 위원 아니, 그렇게 말을 하면 다른 선수들한테 피해가 갈 게 뻔한데 안세영 선수가 본인만의 특혜를 받는 것으로, 신발을 신을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게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택규 후원사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좀 늦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그렇게 후원사하고 협의하는 회장이 어디 있습니까? 경기력에 직결되는 신발 문제를, 그전에도 문제가 돼 가지고 전 국민적 공분을 샀으면서 그렇게 어처구니없는 협의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증인 김택규 그런데 협의를 해서, 안세영 선수 한해서만 했고요. 나머지 선수는 의견을 물어보는 중이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 안세영 선수가 이번에 다시 국제대회 복귀전에서 결국 요넥스 신발을 신었지요?

○증인 김택규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경기력에 또다시 저하가 있었고, 결국 세계 1위 선수가 준우승으로 멈추고 말았습니다. 잘못됐지요? 경기력에 직결되는 용품에 대해서는 선수가 선택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상식 아닙니까?

○증인 김택규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지요?

○증인 김택규 예.

○조계원 위원 다음으로 후원사 후원금 국가대표 선수단 배분 문제를 좀 물어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아니구나……

후원사가 협회에 지급하는 후원금에 대해서 조항을 삭제한 게 언제입니까?

○증인 김택규 삭제한 거요?

○조계원 위원 예.

○증인 김택규 2021년 6월입니다.

○조계원 위원 왜 삭제하셨습니까?

○증인 김택규 빅터사하고 후원 계약이 361만 불로 되어 있었는데요. 빅터사가 2018년도에 후원을 해지하면서 요넥스하고 그 계약이 180만 불로 줄었습니다. 줄면서 협회 운영이나 이런 차원에서 부득이하게 삭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후원 금액이 줄고 그것도 아쉬운 판에 국가 후원금마저도 줄이겠다는 게 그게 말이 되는 겁니까, 지금? 국가대표 선수단에게는 이와 관련해서 전혀 통보도 안 했지요?

○증인 김택규 예.

○조계원 위원 아니, 그러면 이번에는 후원금이 어떻게 됐습니까?

○증인 김택규 이번의 후원금은 275만 불입니다.

○조계원 위원 이번에 안세영 선수나 선수단들 후원금이 협회 차원에서 지원된 게 있느냐고요, 후원사나.

○증인 김택규 텐마크 대회 나가는 거요?

○조계원 위원 아니요, 올림픽 관련해서.

○증인 김택규 아직, 지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정리해서 이사회를 하려고 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본인이, 협회장님이 주도해서 이사회에서 규정을 삭제하신 겁니까?

○증인 김택규 전체적으로 임원들의 의견이 일치돼서, 반대 의견이 하나도 안 나온 상태였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사회의 임원도 숫자 10명을 늘리신 게 회장님이 주도해서 늘리셨습니까?

○증인 김택규 대한체육회의 규정에서 10명을 중원하라는 정관 개정이 있었습니다. 그 때 이사들이 임원들을 더 요청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그래서 10명을 중원한 것입니다.

○조계원 위원 대회 후원사 지정할 때 후원사 지정하는 임원이 있으면 10%의 인센티브를 주기로 한 것도 회장님이십니까?

○증인 김택규 아닙니다. 그 이전 규정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 이전 규정이라고요?

○증인 김택규 예.

○조계원 위원 그것 확신하십니까?

○증인 김택규 예.

○조계원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화면 좀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전무님이나 등등 해 가지고 3억 원짜리 후원하는 업체 유치하면 3000만 원 지불하고, 내역을 보시면 죽 나와 있는데 한번 보시지요. 동승통상에 김 전무님, 위에도 또 김 전무님이 있는데 이 전무님이 그러면 얼마를 가져갔습니까, 인센티브로? 동일한 전무님이십니까?

○증인 김택규 800만 원을 제외한 6000만 원의 50%입니다.

○조계원 위원 6000만 원의 50%, 얼마를 받아 갔다는 거지요?

○증인 김택규 3000만 원입니다. 세금 제외하고 한 2000……

○조계원 위원 3000만 원 받아 갔다 이거지요?

○증인 김택규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지금 배드민턴협회 임원 중에 공식적으로 후원금을 낸 임원들이 있습니까?

○증인 김택규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회장님은 얼마나 내셨습니까?

○증인 김택규 저도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회장님은 낸 걸로 나오는데, 2500만 원인가?

○증인 김택규 그게 아까 후원……

○조계원 위원 회장님이 낸 게 아니지요?

○증인 김택규 예, 그 돈입니다.

○조계원 위원 인센티브로 받은 것을 가지고……

○증인 김택규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왜 그전에는 후원금을 낸 걸로 나왔지요?

○증인 김택규 그게 그 돈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게 그거라니요? 그전의 내역은 그래도 회장님은 후원금을 낸 걸로 해 놨는데 그것조차도 아닌데, 후원금을 낸 게 아닌데도 낸 걸로 해 놨어요.

○증인 김택규 아닙니다,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낸 게 없지요?

○증인 김택규 예.

○조계원 위원 어느…… 배드민턴협회장입니까, 생활체육협회 회장입니까, 국가대표 앤리트협회 회장님입니까?

○증인 김택규 전체적인 회장입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그냥 국가대표 경기력 저하를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회장님으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증인 김택규 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국가대표를 위해서 한 일이 뭡니까?

○증인 김택규 1년에 국가대표 쪽으로 기금과 자체 비용으로 해서 한 30억 이상이 들어갑니다.

○조계원 위원 기금과 자체?

○증인 김택규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증인 김택규 그 자체를 생활체육이라든가 다른 종목에, 다른 쪽에 지출을 안 하고 전부 국가대표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보기에는…… 셔틀콕, 정부보조금으로 용품 구매했지요?

○증인 김택규 예.

○조계원 위원 26억 원 정도 3년 동안의 구입 계약을 했더라고요?

○증인 김택규 예.

○조계원 위원 그중에 페이백을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증인 김택규 페이백이 아니고요. 후원을 받았는데……

○조계원 위원 서면계약으로 하셨다면서요. 페이백 서면계약을 하셨다면서요?

○증인 김택규 그것은 후원물품 계약서입니다.

○조계원 위원 그 후원물품은 어떻게 썼습니까?

○증인 김택규 생활체육 사업입니다, 그 사업 자체가. 리그 사업인데요, 승강제리그하고 I-리그라고 두 가지 사업인데……

○조계원 위원 그러면 생활체육을 다 고르게, 공정하게 분배를 했습니까?

○증인 김택규 참여한 시도 위주로 또 많은 리그 수를 채운 시도 위주로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확인한 화면 한번……

‘추적60분’ 화면 부탁합니다.

보면 후원물품에 대해서 충남에만 5200만 원 상당의 후원물품을 지급하고 경남은 27만 원인가요? 20만 7000원……

(「2만 7000원」 하는 위원 있음)

○증인 김택규 그런데 이 도표는 위원님, 좀 잘못된 거고요. 경남에 수건 3장이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수건 3장이 간 것은……

○조계원 위원 협회에서 지원한 건 맞지요?

○증인 김택규 제가 그것 수건 3장 잠깐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조계원 위원 예.

○증인 김택규 그 수건 3장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물품을 지원한 것은 2022년도의 사업을 가지고 후원물을 지급했고요. 수건 3장을 준 것은 2023년도 사업에 경상남도에…… 3위 시상품이 수건입니다. 수건이 100장 지원됐는데 경상남도에서 수건 3장이 누락이 됐습니다. 누락된 부분을 경상남도협회에서 요넥스한테 수건 3장이 덜 왔다 그러니까 요넥스에서는 그 수건 3장을 다 줬다, 그래서 저희 후원물품 있는 데서 수건 3장을 더 준 겁니다. 지원한 건 아닙니다, 그건.

○조계원 위원 정말 국민들이 지금 회장님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참으로 답답합니다.

○증인 김택규 사실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조계원 위원 그러면 국가대표 선수 선발 방식과도 관련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복식 선수들 선발할 때 30%의 평가위원회 평가 점수가 반영이 되게 되어 있어요. 이런 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

○**증인 김택규** 예전에 정경은 선수가 국가대표 선발전을 뛴 적이 있어요. 2021년도 국가대표 선수가 되는 건데 그때는 정성평가 50, 경기력평가 50으로 해서 정경은 선수가 9승 5패를 했는데 7승 5패 한 선수한테 져서 민원이 제기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계원 위원** 그 뒤에 정성평가 10%로 낮췄잖아요?

○**증인 김택규** 10%로 제가 낮췄습니다, 그것은.

○**조계원 위원** 그런데 왜 다시 30%로 복귀했어요?

○**증인 김택규** 경기력향상위원회에서 30%로 다시 늘어난 부분은 복식이나 이런 선발전 뛰는 선수들이 조기에 탈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0경기가 남았을 때 체육인을……

○**조계원 위원** 그만하시고요.

양궁 선수는 어떻게 선발하시지요? 철저히 경기력 위주로 선발하지요? 배드민턴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일본, 덴마크, 프랑스 등등 모두 다가 경기력으로 선발을 해요. 그런데 배드민턴만 복식에서 추첨으로 파트너와 상대팀을 정하는 방식을 쓰고 있어요. 왜 그렇지요?

○**증인 김택규** 보통 복식을 뛰는 선수들이……

○**조계원 위원** 팀을 자기 선수들끼리 최적의, 자기하고 합이 맞는 선수로 해서 경기력을 테스트하면 되는 거지 뭘 그걸 이 선수 붙여 보고 저 선수 붙여서 복잡하게 선수를 선발합니까?

○**증인 김택규** 그런……

○**조계원 위원** 미리 같이 훈련한 선수들로 해야지 최적의 경기력이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증인 김택규** 국가대표 선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은 선수들이 복식을 뛰는 경우에 복식 선수가 30명일 경우에는 1번하고 30번하고 치고 2번하고 29번하고 치고 그런 식의 로테이션을 합니다.

○**조계원 위원** 서로 수없이 교차해서 경기만 해 가지고 단순한 경기력 테스트가 되느냐 이거지요. 같이 훈련을 하고 합을 맞춘 선수들끼리 경기를 해서 그 선수들 간에 경쟁을 해야지 제대로 나오는 거지요.

상식적인 것 아닙니까?

○**증인 김택규**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위원님, 예를 들어서 대기업에 있는 선수들은 좋은 선수들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그쪽에는 실력이 조금……

○**조계원 위원** 아니, 실력이 좋은 선수를 선발하자고 하는 것이 목표 아니에요, 경기력이 좋은 선수를? 지금 거기서 갑자기 지방이 왜 나옵니까? 좋은 선수를 골라야지요.

○**증인 김택규** 그러니까 선발전에 뛸 수 있는 선수들을 선발해서 거기에서 몇 명을 또 선발하는 겁니다.

○**조계원 위원** 선수 선발 방식은 분명히 교체가 필요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대안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택규**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선수 연봉과 계약기간 시정하겠다, 연봉 상한선 철폐해야겠지요?

○증인 김택규 실업연맹 규정인데요. 지금 어느 정도 안은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조계원 위원 그런데 상한선을 철폐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금액 높여서 또 상한선을 설정하겠다는 겁니까?

○증인 김택규 그것은 지금 여론수렴에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아니, 이건 상식적인 것 아니에요? 선수들의 최저연봉을 보장하는 거면 모를까 왜 실력이 좋은 선수들까지 연봉 상한제 테두리 안에 가둬 놔서 실력 발휘를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드냐 이거예요. 동기부여를 가로막습니까?

○증인 김택규 전체적인 실업팀의 유지를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실업팀의 유지를 위해서는 최저 상한제가 필요하고, 선수들이 그걸로 최대한 생계나 이걸 영위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게 필요하지 왜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예요? 그게 말이 됩니까?

○증인 김택규 예전에 좋은 선수는 연봉을 많이 받을 수 있고요, 그렇지 않은 선수는 계약금조차도 많이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정말로 말을 하면 할수록 제가 답답해서 미치겠는데요, 정말 정말 답답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선수 연봉에 지금 광고 수익이 포함되는 겁니까, 기준에?

○증인 김택규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광고 수익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겠지요? 선수 개인의 성취에 의한 것마저 제한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지요.

그리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배드민턴협회장은 생활체육협회장이 아닙니다. 국가대표, 엘리트 선수도 함께 조화롭게 균형 있게 발전하고 서로 상호 상승, 시너지를 내서 국민의 건강과 국가 배드민턴의 실력 배양을 같이 꾀해야 되지 왜 그걸 상대적으로 취급하고 엘리트 선수 출신의 협회 임원들은 배제하고, 그런 식으로 협회를 운영하면 도대체 어떻게 되겠습니까?

○증인 김택규 그렇게 운영 않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배드민턴협회장님이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위원장님이 좀 지적해 줘야 되겠는데요.

방금도 연봉 상한제에 대해서…… 지난번에 더불어민주당 문체위원 비공개 회의 때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선수 출신들의 협회 임원들이 가로막고 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저는 바꾸고 싶다’ 이 취지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방금 ‘실업팀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정말 저분한테는 제가 아무리 말싸움을 하고 토론을 해도 이길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어떤 비판을 해도 저분은 끄떡을 안 하는 무쇠 팔, 무쇠 주먹 로보트 태권V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짓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지적이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연봉 상한제에 대해서도 분명히 ‘선수 출신 협회 임원들 때문

에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나는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가 조계원 위원에게는 '실업팀 유지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방금 이야기했는데 만약에 여기에서 박수현 위원이 물어보면 또 말을 바꿀 가능성이 있습니다. 선수 출신 협회 임원들 때문에 제가 솔직히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계속 바꾸니까……

○위원장 전재수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5분 전에 이야기한 것도 바꾸는데 제가 저분하고 어떻게 토론을 이기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저분하고 토론을 시키지 마세요, 질의도 시키지 마시고. 저분한테는 이길 자신이 없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제가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김택규 회장님 잠시만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연봉 상한제가 엘리트 출신 선수들의 방해 때문에 연봉 상한제를 계속 폐지를 못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실업팀을 유지하기 위해서 연봉 상한제가 필요한 겁니까? 정확하게……

○증인 김택규 저는 양문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제가 그렇게 말을 했는지……

○위원장 전재수 아니아니, 그러니까 조금 전에 제가 질문드린 이 부분만, 연봉 상한제와 관련해서 정확한 입장을 말씀을 하십시오.

○증인 김택규 연봉 상한이라는 자체는 이 규정은 협회 규정이 아니고 실업연맹 규정입니다. 실업연맹에서 실업팀을 가지고 연봉 상한이나 하한이나 7% 인상이나 이런 부분을 정해 놓은 겁니다. 이 부분이 협회에서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 말씀대로 연봉 상한을 다 폐지해라 한다고 했을 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지난번에 민주당 위원님들 만났을 때 엘리트 출신 선수들 방해 때문에 못 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증인 김택규 이 규정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고요. 다른 무슨 규정을 바꿀 때 그런 부분을…… 지금 우리 협회 이사회를 하면 제가 다 집니다, 안이 나왔을 때.

○조계원 위원 이보세요, 그때도 분명히 엘리트 출신의 임원 탓을 했어요.

○위원장 전재수 자……

○증인 김택규 아닙니다. 저는 연봉 가지고 말씀드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조계원 위원 왜 거짓말을 하세요, 자꾸.

○위원장 전재수 김택규 회장님, 김택규 회장님 정리합시다.

말씀을 자꾸 들으니까 저도 좀 헛갈리는데, 지금 잠시 감사를 중단을 할 겁니다. 한 10분 쉬는 사이에 문서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 책상 위에 올려놔 주시고……

꼭 하셔야 되겠습니까? 잠시 쉬었다가 합시다.

○양문석 위원 딱 1분 안에……

○위원장 전재수 그럴까요, 양문석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30초만 하십시오.

○양문석 위원 그 당시 실업연맹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를 했고요. 사실상 실업연맹이 연봉 상한제를 만들었는데 실업연맹의 대부분들이 엘리트 출신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심지어 삼성생명 길영아 감독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기함을 하고 가셨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알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또 아니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위원장 전재수 알겠습니다. 그래서……

○양문석 위원 예측이 가능하신 분이에요.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래서 10분 쉬는 시간에 서류로, 문서로 해 가지고 연봉 상한제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정리를 해서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김택규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중요한 얘기니까 받아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예.

○민형배 위원 제가 오늘 요넥스코리아의 대표를 증인으로 요청했는데 불출석 상태거든요. 김택규 회장이 문체부 보조금으로 셔틀콕을 사고 30% 페이백받은 것을 마음대로 유용해서 횡령·배임 가능성은 지금 감사에서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페이백을 받은 것을 유용한 것도 문제지만 받은 그 자체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게 있습니다. ‘나는 후원 물품이라고 해서 요넥스 쪽에서 준다고 그래서 받았지 내가 요구한 게 아니다’, 요넥스 쪽에서 들어 보니까 ‘우리가 준 게 아니고 요구해서 줬다. 우리가 주겠다고 한 게 아니라 요구해서 줬다’. 또 요넥스 본사가 있는 일본은 배드민턴 선수들의 신발 선택권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강제규정으로 묶어 놨다가 이상하게 지금 풀려다가 말려다가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지금 더더욱 문제가 이 후원 계약 관계가 나라장터에서 공개입찰로 이루어진 게 아니고 수의계약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대체 어떻게 이런 부조리가 생기는 거야라는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요넥스 쪽이 와야 되는데 지금은 출장 중이라고 그래서 못 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쉬는 시간에 그것도 좀 정리해서 좀 달라고 하십시오. 먼저 요청한 건지 그쪽에서 주겠다고 한 것인지, 이것을 반드시 확인해야 제가 다음 질의를 이어 갈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김택규 회장님 들으셨지요?

○증인 김택규 예.

○위원장 전재수 이 부분도 간단하게 서류로 정리를 해서 위원장인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17시 5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중지)

(17시54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배드민턴협회는 아직 자료가 저한테 도착을 안 해서 자료가 오는 대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서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김택규 증인님, 질문이 아니라 그냥 들으셔도 돼요.

인사를 하지 않았다라는 자신의 부분적 오해를 마치 안세영 선수의 일반적 품행인 것

처럼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의 선입견과 편견이 마치 사실인 것마냥 말해서 여기 있는 모든 위원들과 일반 대중들이 같이 인지오류로 빠지게 만들었는데 이 부분은 안세영 선수에 대한 환산 불가능한 이미지 훼손을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를 협회장이라는 권력을 가진, 유일한 권력을 가진 협회장이 이런 편견의 오류를 이렇게 공공의 자리에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위계에 의한 갑질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럴 개연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사과하십시오. 진실 하지 말고 사과만 하시면 됩니다.

○증인 김택규 예, 사과드리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앉으십시오.

김병철 위원장님, 감사원 생활도 오래 하셨다고 하니까요 제가 좀 여쭤볼게요.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그러니까 대한축구협회라든가 이런 사업 및 회계 업무를 조사·감사하는 권한 있습니까?

○증인 김병철 저희는 없습니다.

○강유정 위원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 있습니다.

○증인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회 물어보는……

○강유정 위원 제가 대한체육회라고 물었습니다. 똑바로 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증인 김병철 예.

○강유정 위원 잘못이 있으면 징계처분이나 시정요구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 기관이에요. 그런 기관이라면 이 정도면 대한체육회와 그리고 대한축구협회는 매우 직무 관련성이 높은 거지요? 감사원 경험을 살려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오’로만 대답하시면 됩니다.

○증인 김병철 글쎄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말씀드릴지……

○강유정 위원 아니요, 이 정도면 직무 관련성이 상당한 거지요, 일반적인 상식 수준에서도.

그때 같이 골프 치셨다고 했어요, 오크밸리에서. 아까 대답하셨잖아요?

○증인 김병철 예.

○강유정 위원 얼마 내셨어요? 숙박하셨나요?

○증인 김병철 아닙니다. 안 냈습니다.

○강유정 위원 숙박은 안 하셨고, 골프 치셨고.

○증인 김병철 예.

○강유정 위원 식사는 하셨고.

비용 얼마 내셨습니까?

○증인 김병철 글쎄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강유정 위원 본인이 비용을 얼마 내셨냐고 묻습니다. 비용 계산하셨습니까?

○증인 김병철 비용 계산 못 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모르겠습니까?

○증인 김병철 못 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못 했습니다는 뭘까요? 안 했습니다와 못 했습니다의 차이는 뭘까요?

○**증인 김병철** 그날 행사였기 때문에, 대한체육회 행사여서 나오라고 그래서 갔었기 때문에……

○**강유정 위원** 그러니까 본인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았군요, 그렇지요?

○**증인 김병철** 예.

○**강유정 위원** 비용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체육회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크밸리에서 골프 친 적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답하셨어요. ‘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8명이 아니라 더 많았습니다’라는 대답을 해 주셨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또 기자회견에서 이 문제를 먼저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골프장 구경하고 워크숍도 하고 식사 자리도 마련해 주셨다. 2~3회 나눠서 워크숍처럼 시도 간담회도 하고 밥 먹고 시간 되는 사람들 숙박도 하고 운동도 하고 자유롭게 했다’라고 10월 17일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셨는데, 다시 물어볼게요. 몇 명이 숙박을 했고 숙박료, 골프 요금, 식사 비용 누가 계산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몇 명이 있었는지는 지금 정확하게 숫자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골프는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정몽규 회장님께서 초청을 해서 친 거고요.

○**강유정 위원** 어렵게 말씀하지 말고요, 비용을 누가 계산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안 냈습니다.

○**강유정 위원** 아무도 안 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안 냄고 워크숍 하는 비용은 저희가 체육회에서 했고요.

○**강유정 위원** 워크숍 비용 냈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워크숍 하는……

○**강유정 위원** 1박 2일 숙박했는데 그러면 숙박비용은 안 내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냈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러면 그 비용 계산 내역을 저한테 보내 주셔야 돼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알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징계처분이나 시정 조치할 수 있는 주체세요, 대한체육회가. 그런데 만약에 숙박이나 골프, 식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대접을 받았다면 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겁니다. 위배되는 거고, 지금 공직이신 거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제출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숙박도 하셨다고 했고.

대한체육회 임직원, 다시 말씀드릴게요,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입니다. 거기에 만약에 임직원이 있었다면 회장님뿐만 아니라 그분들 모두 다 청탁금지법상에 공직자 등의 그런 직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위법할 수 있어요, 대가성 여부.

그러면 다시 물을게요.

이번에 대한축구협회 4연임에 대해서도 의무가 있으신 거예요, 대한체육회에서, 회장님 이 의무가 있으신 거고. 3선을 한 직후에 숙식과 골프를 제공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김영란법 위반으로 보지는 않으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는 그런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강유정 위원** 왜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왜냐하면 순수하게……

○**강유정 위원** 직무 관련성이 이렇게 있는데?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것은 사후의 일이고 저희는 왜냐하면 그것하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초청을 받았기 때문에, 호의로.

○**강유정 위원** 아니요, 그 관계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인식을 못 했습니다.

○**강유정 위원** 사후의 일이 아니라 대한체육회는 감사 업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하위 단체잖아요. 협회 역시도 받으면 안 된다니까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알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그런데 그 생각을 못 하셨다라고 하면, 일단 저한테 서류는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행사 목적이나 참석 대상, 공개 여부, 행사 운영에 대한 내부 결재 전부 다 저한테 주셔야 되고 가액도 어땠는지, 정상적인 비용 처리를 거쳤는지도 주셔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공식적인 행사라고 했을 때 그때했던 모든 식순이라든가 프로토콜 같은 것들 전부 저한테 다 일체 서류로 주셔야 되고 그렇지 않다면 국민권익위에 제가 해당 사항을 신고할까요 고민 중입니다. 서류를 좀 보내 주시면 확인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민형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배드민턴협회에서 자료를 저에게 보내 주셨는데, 그러니까 김택규 회장님 확인만 할게요.

실업선수 연봉 관련해 가지고 1차 설문조사, 2차 설문조사를 하셨고, 그렇지요?

○**증인 김택규** 예.

○**위원장 전재수** 그리고 지금 결론은 나왔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1차 설문조사에서 전체 이백마흔세 분 중에서 121명이 실업선수 연봉 관련해 가지고 규정을 보완하고 개정해야 된다, 83명은 규정을 폐지해야 된다, 서른아홉 분은 미응답이고.

이 1차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2차 설문조사를 했는데 일곱 가지 문항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첫 번째 계약금, 연봉 책정 시 대졸·고졸 구분 폐지하고 신인 첫 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고 신인 첫 계약금 상한을 1억으로 하되 신인 첫해 연봉 상한을 7000으로 하고 신인 연봉 인상률 조항 폐지, 특례 선수 첫해 계약금 상한 폐지, 특례 선수 첫해 연봉 상한 폐지, 이 방향으로 간다는 이야기지요?

○**증인 김택규** 예.

○**위원장 전재수**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요넥스 후원 관련해 가지고는 저에게 온 게 부속합의서 하나 온 겁니다. 그런데 민형배 위원 말씀은 뭐냐 하면, 요넥스에서 먼저 협회에 제안을 한 건지 아니면 회장님께서 요넥스에 먼저 제안을 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안 왔습니다. 부속합의서만 저한테……

○**증인 김택규** 부속합의서 내용에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대외

행사 및 기타 사업, 홍보 등 BKA는 동승통상에 우선참여권을 준다' 해 가지고 그 자체가 서로 합의가 된 겁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누가 먼저랄 것 없이 부속합의에 의해서 그렇게 한 거다?

○증인 김택규 예.

○위원장 전재수 마침 이제 민형배 위원님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순서를 좀 헷갈렸는데요.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저녁 늦은 시간에 고생 많으십니다.

장재근 선수촌장님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딱 한 달 전입니다. 9월 24일 날 저희 이 자리에서 현안질의가 있었고요. 그때 안세영 선수의 문제를 계기로 해서 선수촌 내의 선수들에게 진행되는 각종 갑질, 빨래라든가 청소라든가 그리고 개인적 심부름 관련돼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인권침해 사례 관련돼서 점검을 해 달라고 저희 위원들이 간절하게 체육회장님과 선수촌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 뒤에 선수촌장님께서 어떤 조치를 취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증인 장재근 그 질의에 대해서 답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안세영 선수로 인해서 촉발된 빨래라든지 심부름, 사실은 제가 촌장으로서 제 빨래는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좀 사실은 간과했습니다. 당연히 안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들이 조사를 해 보니까, 전수조사를 9월 12일 날 실시를 했거든요. 지금까지 했는데 전국체전이고 그래서 많이는 답을 안 했습니다. 한 140명 정도 답을 했는데 그중에 한 6건 정도가 빨래, 심부름 이런 것이 있었더라고요. 저희는 그것하고 상관없이 9월 23일 날, 이것은 지침입니다, 개정이 아니고. 그래서 선수촌장 명으로 지침을 내려서 앞으로 선후배 간에 빨래라든지 심부름 이런 것을 했을 시 그 선수를 퇴촌시키는 건 물론이고 그 종목 전체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라고 해서 그 공문을 9월 26일 날 각 종목에다가 발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입촌 교육을 직접 합니다. 선수들이 들어오면 입촌 교육을 해서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도……

○이기현 위원 짧게 해 주십시오.

○증인 장재근 예. 그때도 제가 직접 심부름이나 이런 걸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게끔 했으면 좋겠다라고 경고성 멘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공문 보내시고 선수촌 입촌 선수들에게 교육하시고 두 가지 하셨다는 얘기예요?

○증인 장재근 예.

○이기현 위원 그 한 달 사이에?

○증인 장재근 예, 다 했습니다. 지금 좀 쉬었는데요, 11월부터……

○이기현 위원 제가 아침 질의에 체육회장님께 똑같은 질의를 했을 때 체육회장님께서 뭐라고 하셨냐 하면 지도자 교육하고 그다음에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하고 그다음에 제도 개선 관련돼서는 지금도 준비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체육회장님 조금 헷갈리셨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운영지침 개정 알림이라고 그래

서 공문을 내려보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24일 날 현안질의였는데 올림픽 갔다 오셔서 시끄러울 때인, 저희가 현안질의한다고 하니까 그 전날 공문을 보내셨어요, 저희가 알 수 없었는데. 그 전날 공문을 보냈는데 공문에 보면 이런 것이 포함돼 있습니다. ‘서약서 내에 빨래, 청소, 개인적 심부름 등 강화훈련 참가자 간 용인될 수 있는 부탁의 수준을 넘는 사적 용무 지시 금지조항 신설’ 이렇게 해서 딱 하나 공문을 보냈어요. 이걸 각 종목 단체와 그리고 협회에 보내셨겠지요?

○**증인 장재근** 예.

○**이기현 위원** 그래서 이거 하나 하셨고요. 그다음에 전수조사하셨어요. 그래서 그 전수조사한 결과 제가 받았는데, 참담합니다. 선수촌의 전체 대상이 한 1500 정도 되는데 이 선수들 중에 설문에 응답한 분들은 몇 명이냐 하면 144명이에요. 이 중의 10%가 청소, 빨래 그리고 심부름 강요 이 세 가지에 본인들이 경험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하신 분들은 약 22명 정도 되네요, 전체적으로 보면. 빨래, 청소, 심부름 강요. 심부름 강요가 10명이었고 청소 6명, 빨래 강요 6명. 전체 1500명 중에 144명이 이 설문조사에 응했어요. 제가 조직에서 일해 보면 이런 겁니다. 설문지 죽 뿐려요, 할 놈 하고 말 놈 말아. 이게 전수조사입니까, 10%도 응답하지 않은 조사가? 이런 조사를 가지고……

제가 걱정했던 바가 그겁니다.

한 달 전에 존경하는 촌장님께, 스포츠 스타시고 어렸을 때 저희들의 우상이셨던 분에게 제가 후배들에게는 이런 아픔, 우리 체육계가 갖고 있는 고질적인 봉건적 잔재 그리고 기본적인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막아 달라, 정말로 간절하게, 저도 부탁했고 여기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촌장님과 그리고 체육회장님께 부탁을 드렸는데 하신 게 뭐냐 하면 세 장짜리 공문 하나 보낸 것, 그것도 서약서 내에 그런 조항을 명기해라 그것 하나.

그다음에 지도자 교육하셨는데 지금 두 분이 말이 달라요. 촌장님은 선수촌 들어오는 입촌 선수들 교육했다고 하시고 체육회장님은 지도자들 교육했다고 했는데 지도자 교육을 안 하신 겁니다.

○**증인 장재근** 지도자는요, 지도자는 동시에 같이 합니다. 같이 하는 거고요. 이건 지침이기……

○**이기현 위원** 선수 교육……

○**증인 장재근** 죄송합니다. 지침이기 때문에, 규정이 아니어서 회장님이 잠깐 실수를 하셨는데요. 이건 지침이기 때문에 제 명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진행을 하고, 이것 철두철미하게 꼭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문지 돌려서 10%도 안 되는 응답률 가지고 그중의 10% 정도만 이런 경험이 있으니, 우리 선수들 전체적으로 보면 6명, 6명, 10명…… 아까 6명 얘기하셨는데 지금 촌장님 그렇게 발언하시면 국민들의 눈과 귀를 촌장님께서 가리시는 거예요. 있는 구악이 있는데 구악을 가리려고 아주, 1500명 중에 6명 정도만 그런 경험이 있는 것인 양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증인 장재근** 전수조사가 아직 안 끝났기 때문에 끝나는 대로 다시 또 확인……

○**이기현 위원** 아까 전수조사했다고 하셨잖아요?

○**증인 장재근** 전수조사를 9월 12일부터 시작을 해서 아직 선수들이 응답을 안 하고

있어서, 왜냐하면 선수들이 지금 전부 다 올림픽 끝나고 전국체전 끝나고 해서 많이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독려해서 다 전수조사 끝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책 임지고 제 선수총장 명을 갖고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날 안세영 선수의 문제가 빨래, 청소 그다음에 잔심부름 이런 것이었어요. 저는 설마 이것만 할지 몰랐어요. 설문지 안에도 항목을 딱 그것만 넣고 공문도 그렇게 만들었어요. 저는 기본적으로 아직도 구타 등 불법행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런 인권침해적, 기본권 침해사항들이 있다고 하면 전수조사를 하려면 항목도 더 늘어났어야지요. 왕따는 없었는지 구타는 없었는지 실정법 위반행위는 없었는지, 전수조사를 하려면 기본적인 인권침해 관련된 내용들을 다 넣고 전수조사하셨어야지요. 지금 안세영 선수 때 문제 됐던 청소, 빨래, 심부름 이 세 가지만 넣고 설문지를 만드신 거예요. 저는 선수총도 대단히 안이했다, 정말로 안이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증인 장재근** 제가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기현 위원** 다시 한번만 체육회장님과 선수총장님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어리지만 대한민국의 스포츠 스타로 키워 나가는, 아주 존경하는 선수들이에요. 그 어린 선수들이 마음의 상처 받고 기성세대들에 대해서 정말로 적개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들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분들이 엘리트 스포츠 선수지만 나중에 지도자도 되고 이 사회의 지도적 인사로 자라납니다. 그분들에게 더 이상 상처 줘서는 안 된다는 말씀 체육회장님과 그리고 선수총장님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간곡하게 드립니다.

○**증인 장재근**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배드민턴협회장님, 제가 딱 한마디만 좀 물겠습니다.

한 달 전에 있었던 제 질의가, 본인은 페이백이 아니고 후원물품이라고 주장하신 물품 중에 얼마만큼이 그러면 각 지회·지부에 돌아갔는지 물었을 때 회장님께서 ‘그것은 기여도, 참여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배분합니다’라고 대답하셨지요?

○**증인 김택규** 예.

○**이기현 위원** 그래서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충남에 왜 33% 이상이 갔습니까, 1억 5000 중에 5000만 원 이상이?’ 그리고 ‘태안에, 왜 작은 한 군에 4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한꺼번에 갔습니까?’ 그랬더니 환수조치 중이시고 조사 중이다 이렇게 얘기하셨지요?

○**증인 김택규** 예.

○**이기현 위원** 그런데 존경하옵는 조계원 위원께서 오늘 똑같은 질문했는데 똑같이 대답하셨어요, ‘그건 기준에 따라서 참여도, 기여도에 따라서 나눴다’. 조계원 위원님께서 다시 표 띄우니까 또 그 얘기를 다시 하셨어요.

회장님에게 저희들이 답답한 건 이겁니다. 적어도 제가 한 달 전에 질문했을 때 회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부조리가 발견됐기 때문에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라고 실토했으면 오늘 조계원 위원님이 물으셨을 때는 저희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하려고 했었는데 실제 조사해 보니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조치 중이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야지요.

그런데 회장님께서 어떻게 대답하셨느냐 하면 저한테 대답하셨던 첫 질문의 대답 똑같이 하신 겁니다, ‘기여도, 참여도에 따라서 배분했다’. 그래서 경북은 2만 7000원이 된 거고 충청도는 5000만 원이 넘는 금액이 갔다 이렇게 대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한 군에, 배정하신 분께서 4000만 원이라는 큰 금액을 가져가셔서 조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증인 김택규 예.

○이기현 위원 환수조치 하고 계시다고 그랬지요?

○증인 김택규 예.

○이기현 위원 환수는 됐습니까?

○증인 김택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뭘 환수를 이렇게 오래 합니까? 한 달이 넘었어요.

회장님께 저희들이 답답한 게 이런 거예요. 한 달이 지나서 똑같은 질문에 똑같이 대답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리고 그날 얘기하셨잖아요, ‘한 지역에 4000만 원이 봉땅 가서 문제가 됐다. 그래서 법적 조치 취하고 있고 환수하고 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나서 또 위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 똑같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질의하니까 ‘그랬습니다’ 인정하시는 거예요.

회장님,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회장님께 답답한 겁니다.

○증인 김택규 죄송합니다.

○이기현 위원 회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지난번에 있었던 질의에 그렇게 대답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후속조치를 이행하고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셔야지요.

○증인 김택규 죄송합니다.

○이기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위원장님, 질의 시작하기 전에 조금 전에 자료라고 줬는데 저희들한테 이미 제출한 부속합의서를 그대로 줬거든요?

○위원장 전재수 예, 그래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어쩔 수 없이 이정우 체육국장께……

○위원장 전재수 제가 말씀은 안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이게 좀, 행정 역량이 조금 부족해 보이고 그래서 제가 김택규 회장님한테 물어본 것 아닙니까.

○민형배 위원 김택규 회장님한테는 안 될 것 같고요. 문체부 쪽의 체육국장께 이걸 좀 확인을 해서 꼭 종감 전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문체부 체육국장님 나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위원장 전재수 요넥스하고 배드민턴협회 사이의 후원물품과 관련해서 지금 부속합의서만 이렇게 제출했는데, 그 부속합의에 따라서 진행이 된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대한배드민턴협회가 요넥스에 먼저 요청을 했는지 또는 요넥스가 배드민턴협회에 먼저 제안을 한 건지 이 부분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종합국정감사 전까지 문체부에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지금부터 김택규 회장님…… 정말 오늘 참담했는데요, 더는 회장을 하시면 안 되는 이유를 여섯 가지 정도 정리를 해 볼 테니까 그래도 자신 있으면 계속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빨리 물러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선수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이 없는 분이세요. 아니, 어떻게 안세영 선수가 인사를 안 하는 선수, 스타라고 건방지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모욕적인 발언을 이 자리에서 하실 수 있는지 진짜 놀라서 깜무러칠 정도고요.

그다음에 조금 전에 사과라고 하셨는데 그것 사과 아니예요. 그 정도…… ‘사과드립니다’ 그게 무슨 사과입니까, 내용이 하나도 없는데?

특히, 혹시 안세영 선수가 ‘안세영의 생각주머니’라고 13쪽짜리 써 놓은 거 다 보셨나요? 안 보셨지요?

거기 보면요 안세영 선수는 이렇게 말해요. 먼저 감사부터 드립니다, 그리고 동료 선수들에게 칭찬합니다, 그리고 혹시 오만하거나 특별대우를 받으려 하는 걸로 보일까 봐 염려합니다, 자신의 이런 문제 제기가 사리사욕으로 여겨질까 봐 엄청 조심합니다. 그런 선수에 대해서 협회장이라는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다시 사과하세요.

○증인 김택규 죄송합니다.

○민형배 위원 사과 제대로 하세요. 안세영 선수한테도 하고 국민들께도 하세요.

○증인 김택규 사려 깊지 못한 언행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 또 국민들께 심려 끼쳐 드려서 죄송합니다. 사과드리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안세영 선수께도 하세요.

○증인 김택규 안세영 선수께도 사과드립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진심으로 전달을 꼭 하세요, 공개적으로 다 돼 있는데서.

○증인 김택규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장재근 촌장님, 지금 안세영 선수가 제기했던 그 문제가 커져서 여기까지 왔는데 보고문화는 사라졌습니까?

○증인 장재근 예?

○민형배 위원 보고문화 사라졌어요?

○증인 장재근 보고문화요?

○민형배 위원 예. 집합문화는 사라졌습니까?

○증인 장재근 선수들끼리요?

○민형배 위원 규정이나 포상금이나 무슨 스태프진이나 이런 문제는 협회에서 하는 걸로 하고, 선수들끼리.

○증인 장재근 선수들끼리 선·후배상 집합하고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것 지금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촌장으로 있는 한 그것은 용납 안 할 겁니다.

○민형배 위원 이쯤 되면 종합계획을 딱 마련해 가지고 지금쯤은 실행이 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증인 장재근 전국체전 갔다 오고…… 어쨌든 저희가 이번 11월 달부터 선수들이 다시 또 집합을 하는데요, 그때는 모든 게 다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두 번째, 국제대회에 대한 편견과 오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국제대회 주최 쪽에서 상임심판 추천 요청을 했더니 그쪽하고 짜고 하니까 안 보냈다, 이게 대한민국의 협회장이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선수를 국제대회에 출전시킬 때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본이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셋째, 조직 관리가 전혀 안 되는 분이세요.

회장님, 이 사건이 벌어진 이후로 이사회 한 번도 안 여셨지요? 이사회 하면 내가 진다 그래서 안 여신 거지요?

○**증인 김택규** 아니,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형배 위원** 회장을 왜 하십니까? 협회가 난리가 났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사회를 안 하세요? 아까 그러셨잖아요, 내가 이사회 열면 지니까 못 한다고?

○**증인 김택규** 안전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이사회가 안전을 다루지 뭐 다른 걸 다릅니까, 침묵합니까?

안세영 선수 쪽하고 대화 한 번도 안 해 보셨지요?

○**증인 김택규** 예.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조직 관리가 되겠습니까, 협회 조직 관리가?

그런데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 이사들은 정계하려고 대의원총회 소집하라고 그러셨지요?

○**증인 김택규** 제가 소집한 것은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대의원들 시켰잖아요?

○**증인 김택규** 대의원들의 요청으로 협회에 연락한 거지 저한테 연락한 건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국회에서 증언했다고 이사를 해임시키려고 시도를 하는 게 협회장이 해야 될 일입니까?

○**증인 김택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자격이 없으시고요.

네 번째, 대표팀 선수 관리에 몹시 무능하고 생활체육 동호인들 뒷받침에 아주 불공정해서 회장 자격이 없으세요.

다른 말 더 말씀드리지 않을게요, 다 알고 계실 테니까.

부조리한 후원물품 관리만 잠깐 보겠습니다. 저 표 한번 봐 보세요.

조계원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여러 분이 말씀하셨는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게 그냥 회장님 마음대로예요, 회장님 마음대로.

표 좀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래서 저 표에 보면 다 나와 있어요, 수치로. 그런데 무슨 실적이니 대회 개최니 이런 거 갖고 했다고 하지 마세요. 거짓말이에요. 위증입니다.

다섯 번째, 제일 큰 문제는 부조리예요. 자기 인센티브로 받은 걸 자기 후원금으로 내는 게 회장이 할 일입니까? 회장 자격이 있어요?

페이백 불법이고 위법이다라고 보는데, 입니까 아닙니까? 불법입니까 아닙니까?

○**증인 김택규** 페이백의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까지 쓰셨는데요?

○**증인 김택규** 저는……

○민형배 위원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정우 국장님, 감사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감사 전에요, 우선……

앉으십시오, 회장님.

우리가 지금 여기서 쓰는 페이백은 위법입니까, 아닙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보조금법 위반입니다.

○민형배 위원 또 어느 법 위반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아니요, 보조금법 관련해서 일단 위반이 됩니다.

○민형배 위원 위반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후원물품 관련한 법률도 또 위반이고.

그러면 감사해 보시니까 협회가 이 보조금법 위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제 판단으로는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감사결과로 법을 위반한 걸로 보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민형배 위원 알겠습니다.

김택규 회장님, 위반이라는 데요? 그 자체로도 위반이지만 그것을 불공정하게 배분하는 것도 위반이에요. 왜냐하면 후원물품은 공적으로 들어온 건데 그것을 사적으로 이용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도 위반이고 부조리예요.

박지영 센터 이사장님,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각하를 시킬 게 아니라……

1분만 더 주십시오.

무슨 과정이 있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직권조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당시에는 규정에 의해서 각하했는데 직권조사 적절성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도 나가서 조사하고 계시지요, 사실은?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지금 배드민턴협회에서의 일들을, 협회의 전반적인 감사를 문체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조사관 3명이 나가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조사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이정우 국장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민형배 위원 김택규 회장님, 그냥 앉아서 대답해 주세요.

위법이고 부조리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왜 자꾸 본인만 아니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지금 대한체육회의 배드민턴협회장께서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계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김병철 위원장님,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이런 경우에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까?

○증인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선수나 지도자, 심판에 문제가 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 대한체육회 소관이라면 할 수 있지만 종목단체나, 종목단체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습니다. 또 시도 체육회에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소관별로 그걸 다룰 수가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문제 제기가 되면 그때 다룰 수 있는 거지요, 재심 과정으로?

○**증인 김병철**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기홍 회장님, 지금 이런 배드민턴협회장을 어떤 견제나 조치를 할 수 있는 방안이 대한체육회에는 없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없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민형배 위원** 그러면 왜 대한체육회는 산하 협회를, 종목단체를 두고 있습니까, 아무런 것도 할 수 없는데?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민형배 위원** 말씀해 주세요. 축구협회도 배드민턴협회도 회장님이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는 말씀이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이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 방안을 좀 고민을 하셔 가지고 국감 마무리하기 전에 주시면 좋겠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이번 일을 계기로 한번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마지막으로요 김택규 회장님, 제가 보기에는 공공단체장으로서 적합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물러나라는 요구가 안팎에서 많은데?

○**증인 김택규** 심사숙고해 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어떻게 하신다고요?

○**증인 김택규** 신중하게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제가 드린 말씀 중에 반박하실 게 있습니까?

○**증인 김택규** 없습니다.

○**민형배 위원** 조현재 이사장님, 지금 저희가 안세영 선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한편에서는 기념체육관이라도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 건립사업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자자체나 선수들이나 아니면 동호인들 사이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체육진흥공단에서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과정에?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저희가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육시설 유형이 몇 개가 있었습니다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시설은 국민체육센터 그 유형 한 가지만 남고 나머지 종목별 체육관 이런 것들은 지방이양 또는 균특 사업으로 이양이 된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게 30억 정액 지원하는 거 있지요, 종합체육관으로서?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것은 어디선가 시도가 되고 그러면 지원을 하실 수 있겠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김병철 위원님, 힘드시지요? 답답하시지요?

○증인 김병철 예.

○신동욱 위원 전혀 대화가 안 되시는 것 같아서 매우 답답해하시는 것 같은데, 몸도 불편하신데 계속 지금 대화가 걸립니다. 저희가 오늘 몸도 불편하신 우리 위원장님을 직접 뵙고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혹시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마지막으로 짧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는데 결론은, 우리 위원장님은 감사원에도 계셨고 로펌에도 계셨으니까 공정하다는 게 뭔지 잘 아시는 분이시잖아요?

○증인 김병철 예.

○신동욱 위원 그 자리에 계시면 안 됩니다.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답이 자꾸 걸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고도의 공정성을 담보해야 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자리는 회장님의 특보 출신이 가시면 애당초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는. 그 자리에 앉아서 내가 잘할 수 있다, 나는 공정하다…… 안 됩니다. 국민들이 그것 어떻게 믿겠습니까? 정말로 한 줌 부끄러움 없이 공정하게 하셔도 큰 구설수에 휘말립니다.

위원장님, 다른 대화가 뭐가 필요합니까? 그 자리에 가서 안 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직접 뵙고 이렇게 절규하는 겁니다, 호소하는 겁니다, 국민들을 대신해. 제가 무슨 말씀하시는지 잘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만 앉아 주시지요.

김택규 회장님, 지난번에 제가 요넥스하고 계약 과정 문제를 몇 가지 여쭤봤습니다.

2018년에 빅터하고 계약이 해지되고 2019년, 2023년 계약을 했는데 지금 이런 문제가 생긴 많은 이유 중, 그러니까 선수들에게 각종 불리한 조건들을 계약서에 담기게 하면서 얻은 게 뭐냐라고 제가 질문했더니 회장님의 ‘당초 190만 불이었던 것을 290만 불로 올렸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290만 불로 올린 2023년도의 계약은 수의계약이었지요?

○증인 김택규 예.

○신동욱 위원 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경쟁사가 없었습니까? 대답 잘하십시오.

○증인 김택규 있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왜 수의계약을 하셨습니까?

○증인 김택규 예전에 해 왔던 관행과 예전의 수의계약했던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 배드민턴협회의 이런 대규모, 단 하나짜리 계약이잖아요, 4년 동안. 3년입니까, 쓰는?

○증인 김택규 4년입니다.

○신동욱 위원 4년 하는 이게 수의계약이 관행입니까?

○증인 김택규 예전에 빅터사하고 할 때도 수의계약을 했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좋습니다.

화면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2019년도에 190만 불이었는데 2023년에 290만 불, 그런데 그 전에 빅터하고는 2017년도에 360만 불 계약이었습니다. 그 당시 회의록을 보면 적어도 300만 불 이상은 돼야지 협회가 꾸려질 수 있다…… 그런데 어쨌든 계약이 해지되면서 180만 불에서 275만 불로 회복된 겁니다.

저게 우리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까지 포기해 가면서, 갖은 악조건을 다 집어넣어서 저런 계약을 한 이유를 저희는 납득하기 어려워요. 더구나……

○증인 김택규 삼백……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2022년도 겨울 빅터사에서 보낸 공문, 빅터사가 2023년 계약을 앞두고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빅터는 대한배드민턴 국가대표 후원 재계약에 참가하려 많은 준비를 하는 과정에 2022년 11월 16일, 12월 29일 두 차례에 걸쳐 후원사 입찰 의지에 관한 공문을 보내며 입찰공고 발표를 기다리고 있다’ 이런 공문을 보냅니다. 그런데 답이 없어요.

2022년 10월 달에 이사회 있었지요?

○증인 김택규 잘 모르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때 나온 게 그 유명한 열두 팀 골프하시겠다는 발언입니다. 2022년 12월에 요넥스에서 모든 비용을 부담할 테니까 골프 한번 하자고 공개적으로 이사회에서 제의한 게 이사회 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그게 바로 빅터사가 우리도 입찰에 참가시켜 달라고 저렇게 여러 차례 공문을 보낸 그 시점입니다. 그리고 나서 어찌 된 일인지 그다음에 바로 수의계약해 버려요, 290만 불. 빅터사는 2017년에 이미 360만 불을 냈습니다.

회장님, 이것 배임입니다.

○증인 김택규 제가, 위원님……

○신동욱 위원 잠깐만요, 제가 기회 드릴게요.

이것 배임입니다. 조금 전에 용품 함부로 사용하신 것 횡령입니다. 지금 사태의 심각성을 전혀 모르고 계세요. 모든 게 다 남아 있는데……

요넥스하고 이렇게 유착해 가지고 우리 선수들 신발도 제대로 못 신게 만들고, 그런 불리한 조건을 함부로 수의계약하시고 용품 받아서 마음대로 나눠 주시고, 지금 심각합니다, 상황이. 회장님이 지금 이렇게 순진하게, 순박하게 저희들 테리고 노시려고 하면 안 돼요. 국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대답해 보십시오.

○증인 김택규 빅터사하고 361만 불로 할 때는요 우리 협회에 국제대회가 2개가 있습니다. 코리아오픈과 코리아마스터즈가 있는데요, 그 361만 불 안에는…… 115만 불에 2개 대회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275만 불에는 그 비용이, 115만 불이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리고 빅터사 쪽에서 2018년도에 계약 위반으로 해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합니다. 361만 불 중에 1년 6개월인가 2년 치만 들어왔고요. 나머지 2년은 후원사가 없어 가지고……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우리 배드민턴협회의 귀책사유도 있었고 빅터의 귀책사유도 있었기 때문에 그것 잘잘못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2022년 겨울에 빅터가 배드민턴협회에

보낸 공문을 보면 2009년부터 270만 불, 2013년부터 330만 불, 2017년부터 360만 불, 12년간 3회에 걸쳐 후원 계약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라는 걸 적시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360만 불보다 더 많은 후원금을 지불할 생각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 다 무시하고, 빅터가 2009년부터 2017년까지 12년간 후원 계약을 했는데 왜 갑자기 요넥스만 수의계약의 대상이 되어야 됩니까?

○**증인 김택규** 전체적인, 제 의견보다는 임원들의 의견이 더 반영됐었습니다.

○**신동욱 위원** 여기서 임원들의 의견으로 빠져나가시면 어떡합니까?

○**증인 김택규** 빠져나가는 건 아닙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면 임원들은 왜 갑자기 요넥스가 좋다고 그럽니까?

○**증인 김택규** 빅터사하고 후원 계약이 파기되면서 자본이 한 25억 잠식됐다고 하더라고요.

○**신동욱 위원** 돈을 저렇게 많이 받았는데요?

○**증인 김택규** 예.

○**신동욱 위원** 빅터사가 보낸 마지막 공문 읽어 드리겠습니다. ‘입찰공고 발표를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한배드민턴협회에서는 공문에 대한 답변은 주지 않고 요넥스와 직접 수의계약한다는 소문은 무성하여 대한체육회 산하단체 국가대표 후원업체 선정 규정에 대해서 질의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명쾌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조건에 대해서 무시하고 수의계약을 하시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하려고 그러십니까?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임원들 누가 요넥스하고 하자고 그러던가요? 이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 요넥스하고 골프 모임을 가지려고 한 것은 왜 하려고하신 거예요?

○**증인 김택규** 글쎄요, 그 의미는 잘 모르겠고요. 제가 중간에 골프를 취소시켰습니다.

○**신동욱 위원** 회의록에 보면요 아무 문제 없다라고 계속 회장님의 권유를 하세요, 임원들한테.

○**증인 김택규** 그렇게 했다가 그……

○**신동욱 위원** 그런데 아마도 임원들이 이건 너무 부적절하지 않냐—그건 제 추측입니다—그래서 취소가 됐겠지요. 그렇게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증인 김택규** 저하고 요넥스 대표하고 직접 담판을 지어서 취소시켰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래서 오늘 요넥스 대표가 나오시면 이 계약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오늘 안 나오셨잖아요. 떳떳하면 왜 안 나옵니까? 나와서, 잘못한 게 없는데……

체육국장님, 이런 것 조사 안 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하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지금까지 조사하신 바로는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협회뿐만 아니라 국가에, 우리 선수들에게 엄청나게 손해를 끼친 겁니다, 이 잘못된 계약으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답변 좀 주세요.

앉으시고요, 회장님.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제가 안세영 선수 조사 관련해서 요넥스 대표를 한번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23년도, 24년도 페이백, 후원 계약에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부속합의서 없이 먼저 협회 측에서 요청을 했다라고 제가 진술을 들었고요. 24년도는 아까 제출하신 서류처럼 부속합의서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수의계약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 좀 확인할 게 있어서 곧 발표될 최종 결과 발표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동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협회로 들어오는 돈 깎고 나머지 부분 물품 받아서 회장님 마음대로 쓰신 거예요. 이게 제 결론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질의에 앞서 확인할 게 있어서 의사진행발언 하나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예.

○임오경 위원 오늘 이 자리에 증인과 한 사람은 참고인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이 다 전 킥복싱협회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 자리에서 도대체 전 회장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좀 하고 나서 제가 질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회장의 경우 마지막 절차는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아서 회장으로 임명되게 되어 있는데 그런데 오늘 참고인과 증인 두 사람이 나와 있는데 두 사람 다 전 회장이라고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걸 좀 확인 한번 해 주세요.

○위원장 전재수 예, 제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종민 증인, 현 킥복싱협회장입니까, 전입니까?

○증인 김종민 지난주에 저희가……

○위원장 전재수 아니아니, 최종적으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은 분이 회장이라고 했을 때 지금 오늘 현 대한킥복싱협회장으로 증인 나오신 거지요?

○증인 김종민 예, 대한체육회에 인준되어 있는 회장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현, 현 회장이시지요?

○증인 김종민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됐습니다.

그리고 강신준 참고인, 대한체육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된 것을 회장이라고 했을 때 지금 전 회장입니까, 현 회장입니까?

○참고인 강신준 저는 지난 2021년 5월 28일 선거를 통해서 회장으로 당선된 사람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선거를 통해서?

○참고인 강신준 예, 선거를 통해서……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대한체육회 승인은 받았습니까?

○참고인 강신준 제가 대한체육회의 승인은 받지 못했고요. 저희 정관 19조에 의해서 선거를 통해서 당선된 당선 회장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체육회장님, 대한체육회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회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저분은 지금 회장이라고 주장을 하시는데 대한체육회 입장에서는

최종 승인된 분이 아니기 때문에 회장이 아니네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희가 최종 승인했던 것은 김종민 회장입니다.

○**참고인 강신준**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위원장 전재수** 그러면 강신준 회장님은 지금 저희들 자료에는,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명단에는 전 대한킥복싱협회장으로 참고인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진종오 위원께서도 전 대한킥복싱협회장으로 해서 참고인으로 채택을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대한체육회의 최종 승인을 얻지 않았지만 직접선거를 통해서 선출된 현 회장이라는 주장이신 거지요?

○**참고인 강신준** 아니요, 전 회장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전 회장?

○**참고인 강신준** 예, 등기사항전부증명을 보시면 임기가 나와 있고요. 회장 기한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올해 4월 13일 날 회장이 김종민 회장으로 바뀝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런 차원에서 전 회장으로……

○**참고인 강신준** 예, 참고로 김종민 회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은 오히려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다. 선거를 조작했고요. 선거를 위조해서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그 행위까지 모두 사문서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을 확정받았고요.

○**위원장 전재수** 상당히 복잡하네요.

○**참고인 강신준** 복잡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러니까 김종민 회장님은 선출되지 않았는데 대한체육회에서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회장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강신준 회장님은 선출되었지만 최종적으로 대한체육회 승인을 받지 않았으니 또 회장이 아니라고 반대편에서는 주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네요?

○**참고인 강신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위원장 전재수**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내용까지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임오경 위원님, 답변이 제대로 됐습니까?

○**임오경 위원** 제대로 안 됐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직접 한번 질의를 하십시오.

○**임오경 위원** 그리고 오늘의 모든 증인, 이것 관련돼서는 공선택 증인이 어제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해 가지고 불출석하면서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국감 상임위 차원에서 좀 고발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증인 불출석 문제의 고발과 관련해서는 국정감사가 끝이 나고 난 뒤에 여야 협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상임위 차원에서 결정하겠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임오경 위원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지금부터 말하는 게 사실인지 잘 좀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20년 김종민 바이애슬론 회장 사무실에 공선택이라는 분이 찾아와서 회장을 역임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킥복싱연맹 회장으로 김종민 회장은 공식 절차를 밟아

서 대한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2021년 1월 회장 취임을 했습니다.

김종민 회장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맞습니까?

○증인 김종민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아는 바로는 공선택이라는 칙복싱협회 사무처장은 김종민 회장이 사업으로 러시아에 있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바지사장으로 김종민 회장을 앉혔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김종민 회장은 러시아로 출국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협회에서 업무를 보게 된 거지요?

○증인 김종민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서 협회의 횡령 및 유용을 했던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증인 김종민 제보가 들어와서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저희보고 조사를 하라고 왔었다가 윤리센터에서 조사를 해 갔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그 사실을 알고 조사에 착수했고 해임을 시켰는데 갑자기 공선택이라는 사무처장이 협회에 몰래 들어가서 도장을 훔쳐서 나갔습니다. 맞아요?

○증인 김종민 예, 맞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그 도장을 가지고 또 한 분의 회장을 섭외해서 옵니다. 맞습니까?

○증인 김종민 예, 전에 공선택 씨가 저희보고 회장을 하라고 했을 때 저는 두 번 거절을 했고 세 번째에서 제가 수락을 해서 단독 후보로서 됐었는데요. 되고 나서 비리가 들어오니 직무정지를 시켰더니 공선택 씨가 밤에 도장을 가지고 훔쳐 가서 인감 가지고 다른 사람 등기로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기홍 회장님, 작년에도 제가 이 국감장에서 단증을 발급해 주고 경찰채용 부정까지 악용되는 불법 단증 매매 실태를 지적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임오경 위원 화면 한번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김종민 증인,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게 진행된 겁니까?

○증인 김종민 저것은 저번에 MBN 뉴스에 나와 가지고, 저 사건 때문에 한 분은 자살하시고 그러셨는데 저것은 강신준 전, 지금 참고인이 저기 녹음에 나오는 겁니다. 불법 단증 하다가 걸린 겁니다.

○임오경 위원 김종민 회장은 1월에 취임하고 강신준 회장은 5월에 취임하고요?

○증인 김종민 예, 저는 1월에 취임해서 그대로 일을 하고 있었고요. 강신준 참고인은 저희 대의원들의 승인을 받지 않고 본인이 혼자 대의원을 만들어서 서류를 조작해서 협회에 취임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다음은 강신준 참고인에게 질의할게요.

다음 나오는 PT 하나 띄워 주세요.

이 행위는 아직도 근절되지 않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줘 보세요.

○참고인 강신준 저것은 어떤 단증인지 자세히 봐야 되겠지만 저희 대한킥복싱협회에는 특별승단심사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킥복싱이라는 것이 필요한 운동이고 다른 데서

운동하셨다 오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특히나 관장님들에 한해서 저희 승단심사규정에 의해서 엄격하게 특별승단심사라는 제도를 뒤서 만약에 승단을, 특별승단을 한다고 하면 그 자격의 요건에 맞는 사람이 승단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요. 그것을 정치적으로 이용을 해서 공격을 한 거고요. 그래서 작년 국정감사 때 그렇게 틀었던 그 관장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지금 이것은, 제가 제보를 받은 것은 지금도 사칭을 해서 발급받은 단증의 문제점입니다.

김종민 증인 답변해 보세요.

○**증인 김종민** 저기 강신준 참고인 쪽에서 거의 한 4000장 넘게 나갔었는데요, 단증 판매를 하였고. 그 와중에 지금 저희가 피해를 보는 게 한국체육대학교에, 강신준 참고인이 그 대회를 한 대회중 그게 학생들이 한국체육대학교를 들어갈 줄 알고 다 대회를 뛰었고요. 그런데 한국체육대학교에서는 이 대회는 인정하지 못한다고 해서 전부 다 학생들이 낙오가 되었고 그리고 또한 단증으로 강원경찰청이랑 경남경찰청의 된 경찰들이 단증이 가짜여 가지고 다시 떨어지는 사례가 지금 2건이 발생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정우 국장님, 이기홍 회장님, 두 분에게 질의할게요.

지금 이 두 사람의 말씀 잘 듣고 계시지요? 이게 지금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여기 계신 우리 위원님들도, 저도 지금 놀라고 있습니다.

인준을 받아서…… 회장은 모르고 있고, 강신준 회장은 이것 사칭해서 하고 있는데 또 여기 회장 명의로 나가고 있고, 지금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정우 국장님 알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죄송스럽게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기홍 회장님 알고 계셨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잘 몰랐습니다.

○**임오경 위원** 또 있습니다.

다음 PT 띄워 주세요.

킥복싱협회는 전 집행부가 협회 운영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김종민 증인 이것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증인 김종민** 저것은 제가 들어오기 전 견데 오늘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공선택이 그것을 받아서 사용한 금액입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 공선택이라는 사무처장이 재직하면서 승단심사비 12억, 지도자 강습비 4억, 17억 원에 달하는 수입이 발생했지요?

○**증인 김종민** 예.

○**임오경 위원** 개인적으로 사용한 거지요?

○**증인 김종민** 예.

○**임오경 위원** 이것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킥복싱협회에서 직원 개인 차량 렌탈비용으로 1억 5000만 원의 협회 비용을 사적으로 사용했어요. 여기에는 보니까 벤츠도…… 있을 수 없는 일이네요. 제네시스 등 고급차량에 필요했습니다. 이것 누가 타고 다녔습니까?

○**증인 김종민** 공선택의 가족들이 타고, 아버지가 한 대 타고 다니시고 그다음에 공선

택이 타고 다니고 와이프가 타고 다니고 그런, 가족들이 타고 다녔습니다.

○**임오경 위원** 뿐만 아니라 대학등록금을 비롯 각종 생활비, 주유비, 과태료, 심지어는 애견숍 비용 또한 협회 운영비로 충당했다고 저희에게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증인 김종민** 저희가 카드 사용내역을 확인하니 그런 사항들이 많았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에 대해서 수사 의뢰를 했습니까?

○**증인 김종민** 예, 저희도 지금 이것을 파악해 가지고…… 이번에 강신준 씨가 범인 가져갔을 때 3년 동안 내역도 지금 상당히 돈이 많고 강신준 씨 또한 차 한 대를 또 빼 가지고 그 전체적인 것을 지금 같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다음 PT 한번 띄워 줘 보세요.

전 집행부의 공문서 위조행위에 대해서 수사 의뢰 등 대응하고 있지요?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증인 김종민** 저것은 강신준 씨가 회장 됐다는 서류인데요. 거기에 도장은 다 본인들이 찍고, 실제 우측에 있는 카톡은 그 본인이 ‘나는 도장을 찍은 적이 없는데 왜 도장이 저기 찍혀 있지’라고 저희 직원한테 카톡을 보낸 겁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 지금 경찰서에 의뢰가 된 거지요?

○**증인 김종민** 지금 저희가 수사 의뢰 다 같이 넣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김종민 증인은 칵복싱협회에다가 얼마나 기부하셨습니까?

○**증인 김종민** 원래 매년 하는데 제가 서류가 없어 가지고, 첫 번째 연도에 제가 제 명의로 1억 5000 기부하고 제 차명으로 8000만 원 정도 기부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기홍 회장님, 이정우 국장님, 이것 심각한 사안입니다. 지금 종목단체에 두 사람의 회장이 있습니다. 한쪽은 진짜고 한쪽은 가짜입니다. 이것 정확하게 진상규명하셔서 종감 때까지 일단 이기홍 회장님과 이정우 국장님이 간단하게라도 저희 위원님들에게 이 궁금증을 좀 해소시켜 주길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임오경 위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김택규 증인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빅터코리아하고 요넥스코리아 PT 바로 띄워 주세요.

회장님, 빅터코리아 조건보다 안 좋은, 배드민턴협회에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들이 있습니다. 10회 이상 선수단을 파견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요넥스는 15회 이상 국제대회에 파견을 해야 돼요. 그렇지요?

○**증인 김택규** 예.

○**임오경 위원** 그리고 1년에 빅터는 63억 원을 후원을 하고 요넥스는 37억입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택규** 361만 불 중에 115만 불은 빼야 됩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충 저희가 계산을 했을 때, 빅터가 훨씬 더 많지요?

○**증인 김택규** 현재는 요넥스가 많습니다. 180만 불일 때는 빅터가 많았습니다.

○**임오경 위원** 빅터 계약에는 1년에 361만 불, 48억. 코리아오픈대회와 코리아마스터즈대회 스폰서 후원금으로 15억이 더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요넥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증인 김택규 그 것은 115만 불은 협회 후원금은 아닙니다.

○임오경 위원 김홍빈 전무님 나오셨지요?

(○김홍빈 방청석에서 — 예.)

일어나 보세요.

훨씬 불리한 후원 내용임에도 이권까지 줘 가면서 계약을 한 이유가 무엇인지, 빅터에서도 과거 이권사업 페이백을 받으면서 후원 계약을 했습니까? 이것 설명 한번 해 보세요.

(○김홍빈 방청석에서 — 그런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저희는 그런 일을 상상도 못 할 일이고, 이권 개입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순수하게 후원만 했습니다.)

순수하게 후원만 했습니까?

(○김홍빈 방청석에서 — 예.)

그러면 이때 협회 경쟁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을 맺었을 때 후원사 선정 입찰 계약을 준비하던 빅터는 후원 계약 효력정지 가처분소송을 했었지요. 이것 소송을 전 이유는 뭐니까?

(○김홍빈 방청석에서 — 수의계약을 요넥스랑 협회가 진행하고 난 다음에, 저희가 그 전에 아까도 저기 자료 나왔듯이 몇 번이고 경쟁입찰에 응찰하겠다고 공문을 보냈는데 묵묵부답이었는데 결국은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 뒤로 저희가 대한체육회, 문화체육관광부 그리고 체육윤리센터 전부 다 집어넣어서 다 답을 받았는데 도저히 저희 손을 들어 주는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마지막에는 법에다 고소한 겁니다. 가처분 효력 신청을 한 겁니다.)

PT 하나만 더 띄워 줘 보세요.

이건 선수들이 광고 모델이 되었는데 요넥스 같은 경우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무상으로 최대 14일 홍보용 출연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최소 5명의 선수가 참여해야 한다’, 이것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빅터는 ‘상업 홍보를 위해 빅터의 요청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회장님, 어떤 게 맞아요?

○증인 김택규 이 수의계약 이전에 180만 불일 때……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것 PT 보여 드렸잖아요.

선수가 광고 모델입니까? 광고 모델이에요? 14일간 홍보 출연해야 되고 15회 이상의 오픈대회를 나가야 되고.

○증인 김택규 오픈대회 15회 나가는 것은 각 선수들의 대회를 전부 합쳐서입니다.

○임오경 위원 14일간 광고 찍고 15회에 걸쳐서 오픈대회에 나가고……

○증인 김택규 그런데 강제성은 없다고 들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또 아시안게임 있고, 올림픽 해에는 선수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빅터와 요넥스의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인 수의계약을 했잖아요.

김홍빈 전무님, 당시 입찰 계획을 준비했던 빅터코리아의 후원 조건은 어땠습니까? 직접 말 한번 해 줘 보세요.

(○김홍빈 방청석에서 — 저희는 일단 선수들이 경기력 향상에 최선을 다할 수 있게끔 물심양면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준비만 한 상태에서 후원 제안을 한 거였고요. 그런 디테일한 것까지는 저희는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김택규 증인이 배드민턴협회 경쟁입찰 희망업체의 조건을 들어 보지도 않고 굳이 요넥스코리아의 손을 들어 준 이유가 제가 판단할 때는요, 첫 번째로 연간 42억 원씩 예산 지원을 받아서 8억 원 이상의 용품을 구입하는 배드민턴 승강제리그 및 유청소년 클럽리그에서 후원사 물품을 구입해 주고 그 대가로 30%의 페이백을 받기 위해서라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경쟁업체로부터 페이백을 할 수가 없어서 후원 계약이 더 커도 회장이 손댈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증인 김택규 그렇지는 않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것 매우 심각한 배임 및 유용에 해당되는 거예요, 회장님.

그리고 앞서 안세영 선수가 인사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어른으로서, 회장으로서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선수가 인사를 안 하면 불러다가, 지도자한테라도 말을 해서 인사 좀 하고 예의를 좀 지키게 해라…… 그렇게 해서도 안세영 선수가 인사를 안 했다라면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리고 또 하나, 안세영 선수한테만 신발 바꿔 신으라고 하면 나머지 선수는 뭐니까?

○증인 김택규 최종적인 결정이 안 된 내용이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38명의 선수가 있는데 안세영 선수 한 명만 신발 바꿔 신으라면 안세영 선수가 얼싸 좋다 하고 바꿔 신습니까? 심리적 부담이 더 큰 것 아닐까요? 바꾸려면 전체적으로 바꿔야지 안세영 선수 하나만 신발 바꿔 신어도 된다, 선호하는 것 신어라? 이게 회장님이 하실 행동인가요?

○증인 김택규 전체적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9월 24일 날 회의 끝나고 안세영 선수 만났습니까?

○증인 김택규 안 만났습니다.

○임오경 위원 회장님, 자격 없으십니다. 하루라도 그 자리에서, 저 이런 말 쉽게 하지 않습니다. 선출직으로 어렵게 그 자리에 올라가셨는데, 저 이렇게 쉽게 말하는 것 아니지만 내려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배드민턴 선수, 배드민턴 발전을 위해서 회장님은 그 자리에서 내려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오늘 증인으로 참석하신 홍기용 회장님께 제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홍기용 회장님, 홍기용 회장님은 족구 1년 예산 어떻게 되나요?

○증인 홍기용 제가 맡기 전에는 1년에 5억이었고요, 지금 현재 임기 4년 차에 50억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어떻게 이것을 이렇게 예산을 증액시킨 건가요, 불린 건가요?

○증인 홍기용 후원업체를 과거에는 스타스포츠라는 용품회사하고 1년에 용품 5000, 현금 5000 이렇게 해서 1년에 1억이 전부 다였습니다. 하지만 제가 들어와서 광고후원업체들을, 공식후원업체들을 모집하면서 예산이 그다음 해에 조금 늘어났고요, 첫 해에. 그리고 그다음 해에 또 지속적인 그런 활동을 통해서 대회 때마다 후원사들을 많이 유치하고 해서 연간 사용액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가 승강제리그를 하면서 대한체육회, 정부에서 문체부에서 지원받는 그런 금액이 있다 보니까 1년 예산이 총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임오경 위원** 정부의 지원은 연 얼마나 받나요?

○**증인 흥기용** 20억~22억 그 정도 성향에서 쓰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회장은 후원비를 얼마나 내고 계시나요?

○**증인 흥기용** 누가요?

○**임오경 위원** 회장님은?

○**증인 흥기용** 저는 연회비 공식적으로 1년에 3000만 원 내고요. 그리고 비공식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또 몇백만 원씩 이렇게 따로따로 내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기홍 회장님과 이정우 국장님께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비인기 종목이 5억에서 시작해서 50억의 자본금을 확보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회장이 능력이 있는 건가요, 능력이 없는 건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운영을, 활동을 활발하게 하셨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임오경 위원** 이정우 국장님 말씀 한번 해 줘 보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동의합니다.

○**임오경 위원** 그만큼 스포츠계는 정부에서 지원이 많지 않아요. 83개 종목을 전체를 하려고, 지원을 해 주려고 하면 대한민국 예산 다 갖다 지원을 해 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장의 능력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후원 유지를 하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특히 비인기 종목들은 더 그렇습니다. TV에 노출 한 번 안 되고 있는 비인기 종목들을 진짜 밑에서부터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후원받아서 이렇게 족구협회를 성장시켜 놨는데…….

저희가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자리를 비롯해서, 오늘 질문을 들으면서 한번 찾아봤어요. 잘한 건 저희가 칭찬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문체부도, 대한체육회도 이 부분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분 앉아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김택규 회장님, 상임심판 대한체육회에서 지원받아서 올해 3월부터 계약 안 하셨지요?

○**증인 김택규** 예.

○**임오경 위원** 그러면 자동 해임된 것 맞지요?

○**증인 김택규** 그렇지요. 지금 현재는 활동을 안 하니까 없는 거지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 자동 해임된 것 맞지요? 자동 해임시킨 거잖아요, 계약을 안 하셨으니까. 아까 위증을 하신 거네요?

○**증인 김택규** 아니, 제도상의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지원을 받았으면, 계약을 안 했으면 그것 불용돼…… 반납해야 되지요?

○**증인 김택규** 돈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임오경 위원** 대한체육회에서 안 받았습니까?

○**증인 김택규** 예.

○**임오경 위원** 그것 빨리 대한체육회에다가 요청하셔서 상임심판 없애십시오. 그래야지 다른 종목들이 혜택을 봅니다.

그리고 자동 해임시킨 겁니다. 해임시킨 것 맞지요?

○증인 김택규 해임이 아니라 신청을 안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신청을 안 해서 해임된 것 맞지요?

○증인 김택규 글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저 의사진행발언……

○위원장 전재수 예.

○배현진 위원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증인·참고인 신문을, 가셔야 되기 때문에 제한적인 것 때문에 위원장님과 양당 간사님께서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충분한 질의를 하게끔 배려하신바 취지를 충분히 알고 저희 위원들이 또 모두 동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증인·참고인을 제가 요청하지 않은 날은 주로 추가질의를 하지 않는 편에 속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증인·참고인 질의가 길어지는 날 같으면 미리 신청하지 않고 질문하지 않는 보충질의자들은 좀 간사님들께서 먼저 질의하게 하는 운영의 묘를 발휘해주시면 어떨까……

○위원장 전재수 좋습니다.

○배현진 위원 왜냐하면 보충질의시간이 너무 뒤로 가니까 저희도 좀 맥락이 끊기고요. 그러면 서로 쫓기지 않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좋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증인·참고인 질의가 두 분 남았습니다. 진종오 위원님하고 양문석 위원님께서 나중에 써야 될 추가질의 3분까지, 증인분들 또 참고인분들 힘들게 나오셨기 때문에 추가질의시간까지 쓰시겠다고 해서 이 두 분 위원님들 신문을 끝내고 보충질의,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오래 기다리셨는데 앞으로는 제가 그렇게 좀 운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대한사격연맹의 이민규 차장님 좀……

이민규 차장님, 23년도 우리 사격선수들 43명은 항저우아시안게임, 창원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는데도 불구하고 포상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입니까?

○증인 이민규 9월 5일 날 지급이 됐고요.

○진종오 위원 9월 5일 지급을 했다고요?

○증인 이민규 예, 항저우아시안게임 포상금 지급됐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면 미지급된 것은 현재 없는 겁니까?

○증인 이민규 파리올림픽 미지급이 됐고요. 약간 누락분이 있어 가지고 추가지급 1500만 원 정도 지급 준비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파리올림픽은 아직 안 된 것 맞고요?

○증인 이민규 예, 파리올림픽 안 돼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또 하나 질문 있습니다.

셀프 성과급이라고 해서요, 연맹 직원이 23년도 국제대회 개최에 따른 성과급을 이용해 사무처장을 비롯하여 9명에게 32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사실 알고 계십니까?

○증인 이민규 예,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성과급 지급 과정에 있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누가 주도했는지 또

내부의 반발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증인 이민규** 이 부분은 저희가 이사회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요. 우선 직원…… 조사가 들어왔었습니다. 이사회와 대의원총회 거기서 이 문제를 여러 번 삼았고요. 그래서 인사기금위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이 내용은 당시 임원과 사무처 내부에서 결정을 해서, 관례라고는 하는데요 전의 성과에 의해서 성과급이 나갔던 부분을 지급했던 부분이지만 2024년도는 연도가 넘어가 가지고 예산 승인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급했다 그 문제점이 지적되었고요.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증인 이민규** 예.

○**진종오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파리올림픽 관련해서 사격인의 밤 행사 때 지급하겠다고 한 일정은 확정된 겁니까, 미지급 관련해셔요?

○**증인 이민규** 확정 안 됐습니다.

○**진종오 위원** 확정이 아직 안 됐고요?

○**증인 이민규** 예.

○**진종오 위원** 그리고 확정이 안 된 상황에서 전 신명주 회장이 올해 취임할 때 후원금 3억을 내지 않았지요? 3억을……

○**증인 이민규** 현재 파리 다녀온 금액과 파리올림픽 격려행사, 취임식 그렇게 내서 1억 정도 냈습니다.

○**진종오 위원** 1억 정도 냈고, 그러면 아직 다 안 낸 상황이네요? 그러면 신 회장이 후원금 납부를 할 수 있는 조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까?

○**증인 이민규** 현재는 안 되어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현재 안 돼 있고.

그려면 혹시 현재 소통은 하고 있습니까?

○**증인 이민규** 예, 소통은 하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누가 소통을 하고 있습니까?

○**증인 이민규** 현재 실무부회장……

○**진종오 위원** 실무부회장요?

○**증인 이민규** 예.

○**진종오 위원** 그러면 납부할 것 같습니까, 분위기가?

○**증인 이민규** 이 부분도 지난 이사회 때 지속적인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병원 사정에 의해서 담보는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종오 위원** 담보는 되지 않고.

본인의 건물을 매각해서라도 낸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낼 수 있는 상황이 되겠네요?

○**증인 이민규** 우선은 지속적으로 계속 요청을 할 사항입니다.

○**진종오 위원** 연맹 차원에서 약간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인사채용 비리가 또 있습니다. 사무처 직원하고 연맹 임원 사이에 친인척 관계 있습니까?

○**증인 이민규** 예,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누군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 증인 이민규 전 사무처장입니다.
- 진종오 위원 이용재 처장하고 또 누구입니까?
- 증인 이민규 현 부회장입니다.
- 진종오 위원 현 부회장, 이름 얘기할 수 있습니까?
- 증인 이민규 신동욱 부회장입니다.
- 진종오 위원 신동욱 부회장과 이용재 처장.
연맹 규정에 보면 채용 관련해서 친인척 관계가 됩니까, 안 됩니까?
- 증인 이민규 정관 49조에 의해서 안 됩니다.
- 진종오 위원 안 되지요? 안 되는 상황인데도 채용이 된 거지요?
- 증인 이민규 예, 당시 채용 시에는 그 부분이 인지가 안 돼 있었고요. 그래서 이번 10월 4일 이사회에서 그 의혹이 제기됐고 조사결과 내용이 확인돼서요 해당 전 사무처장은 합격취소 또 그 당시 담당 책임자하고 직원한테는 징계 의결 이렇게 한 의결사항이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친인척 관계에 있는 실무부회장 그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증인 이민규 그 부분은 아직 다루지 않았습니다.
- 진종오 위원 아직 확정이 안 됐고요?
조치를 취해서 본 위원한테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증인 이민규 예, 알겠습니다.
- 진종오 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김종민 증인 앞으로 좀 나와 주시겠어요? 김종민 증인.
(영상자료를 보며)
- 자료 보시면 증인이 대한바이애슬론연맹 임원으로 있을 때 4명의 귀화선수와 전문가, 전담 팀에게 지급될 금액 일부 중 본인이 9회 6000여만 원, 증인 여동생 270여만 원, 부친 1400여만 원, 군청 바이애슬론 감독 3500여만 원, 증인 회사 직원에게 1800여만 원 그리고 증인 친구에게 2200여만 원, 총 1억 8000여만 원을 입금시켰다고 감사원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사실 인정하십니까?
- 증인 김종민 예, 감사원 감사에서 송파경찰서로 넘겨서요 송파경찰서에서 모든 증거를 확인하고……
- 진종오 위원 인정하시냐고 물어본 겁니다.
- 증인 김종민 어떤 걸 인정한다는 겁니까?
- 진종오 위원 이 사실에 대해서, 감사원 감사에 대해서 이 사실을 인정하시냐고.
- 증인 김종민 감사를 받았는데요. 그때 감사를 받을 때는요 제가 그것을 횡령해서 받은 게 아니라 귀화선수들이, 그러니까 제가 잘못한 것은 귀화선수들이 한국에 있는데 러시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러시아 돈으로 바꿔 주는 과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모든……
- 진종오 위원 러시아 돈으로 바꿔 줬다?
- 증인 김종민 예, 그 모든 것 증거자료 다 냈습니다. 경찰서에 다 있습니다.
- 진종오 위원 그러면 이게 잘못된 겁니까, 잘못한 게 아닌 겁니까?

○증인 김종민 잘못한 게 아닙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왜 본인 측근에게 돈을 이체했습니까?

○증인 김종민 제 측근이 아니고요. 저만 있는 게 아니고요 보면 감독들도 있고 그러는 데요.

○진종오 위원 감독도 있고 부친도 있고 가족도 있고. 이것을 왜……

○증인 김종민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러시아에서 사업을 했었는데요 러시아에서 귀화한 선수들은 러시아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환전한 것을, 그 당시에 환전한 통장 내역을 송파경찰서에 다 제출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결국은 무혐의 받으셨지요?

○증인 김종민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무혐의 받았는데 잘못된 건 없다 이거지요?

○증인 김종민 제가 잘못했다고 하면 환전을 그냥 해 준 부분……

○진종오 위원 그런데 문체부에서 14년, 15년 보조금 교부가 취소되고 4300여만 원 환수했습니다. 그렇지요?

○증인 김종민 그건 제 사건이 아닙니다. 제가 있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는 제가 바이 애슬론연맹에 있지 않았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때 없었다고요?

○증인 김종민 예, 맞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러면 왜 환수를 했지요, 이것을?

○증인 김종민 그건 제 사건이 아닙니다.

○진종오 위원 사건이 아니라고요?

○증인 김종민 예.

○진종오 위원 경찰서에 직접 문의해 보니까 의심 정황은 가는데 선수들이 러시아로 돌아가서 제대로 수사를 못 했다라는 증거불충분 얘기가 나왔습니다.

○증인 김종민 지금 한국에 살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한국에 있다고요?

○증인 김종민 예.

○진종오 위원 그러면 조사가 제대로 아직 다 안 이뤄진 거네요?

○증인 김종민 아니요, 다 이뤄지고, 선수까지 다 조사가 이뤄지고 증거자료 다 제출했고 그리고 무혐의가 나온 겁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장신준 참고인, 이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내용 좀 있으면 말씀해 주시겠어요?

○참고인 강신준 먼저 회장 관련돼 가지고는요 대법원에서 발급하는 등기사항전부증명을 보시면 거기에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난 2021년 회장선거를 통해서 회장으로 취임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김종민 씨가 이기홍 씨의 선거를 도와서 그 보은으로 대한직복싱협회에 오기로 했고요. 그래서 저를 인준을 안 해 줬습니다.

○진종오 위원 인준 안 해 줬지요?

○참고인 강신준 예.

○진종오 위원 그런데 이기홍 회장께서는 IF(International Federation)에다가 인준 서류를 보냈지요?

○참고인 강신준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유승민 위원도 같이 서한을 보냈고?

○참고인 강신준 예, 그렇습니다.

○진종오 위원 김종민 중인, 유승민 전 IOC 선수위원이 서한을 보낼 때 요청한 겁니까, 유승민이 자발적으로 보낸 겁니까?

○증인 김종민 제가 요청했는데 위원님 잠깐 1분만 저한테 시간을 주시면, 지금 뭔가 착각이 있는데 뭐냐면요, 강신준은 선거를 21년에 나온 게 아니고요 제가 대한체육회 선거 일정에, 대한체육회 선거는 다 똑같습니다. 20년 12월부터 21년 1월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제가 나갔고요…… 그때 제가 나간 게 아니라 저는 안 나간다고 했는데 킥복싱협회에서 계속 나와 달라고 했고요. 저는 킥복싱이랑 관계가 없었고 당선이 됐는데 비리가 되자 도장을 갖고 도망가서 강신준의 이름으로 등기를 한 겁니다.

○진종오 위원 누가 도장을 훔쳐 잤다고요? 공선택이?

○증인 김종민 공선택요. 아까 중인 신청한 공선택이 가져갔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오늘 중인으로 참석하게 된 이유, 강신준 참고인이 오게 된 이유가, 이기홍 회장님에게도 궁금한 게 있는데 정식적으로 선거를 통해서 대한킥복싱협회 회장이 됐는데 인준을 안 해 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증인 김종민 그 서류를 제가 의원님 실에 보내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기홍 회장님에게 지금 여줬습니다.

○증인 김종민 왜냐하면 그게 선거가……

○진종오 위원 이기홍 회장님에게 여줬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왜냐하면 그 전에 정식으로 절차를 거쳐서 회장이 됐다고……

○진종오 위원 강신준이 당선됐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아니요, 여기.

○진종오 위원 김종민……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여기가 먼저 승인 신청이 온 겁니다.

○진종오 위원 승인 신청이 먼저 왔다? 그러면 강신준은 왜 회장선거를 한 겁니까? 회장선거를 해서 먼저 회장이 된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희가 알기로는 공식적인 선거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종오 위원 공식적인 선거가 없었다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증인 김종민 대의원도 부르지 않았고 아무것도 없이……

○진종오 위원 좀 조용히 계세요.

강신준 참고인 말씀해 보세요. 공식적인 게 없었어요?

○참고인 강신준 공식적인 선거가 있어서 제가 회장이 됐고요. 선거인명부, 선거인명단 이런 걸 다 절차에 따라서 선거를 진행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아니, 누구 말이 진실인지 모르겠네요.

○증인 김종민 제가 지금 바로 법원 자료, 승소한 것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인 강신준 지금 말씀하시는 선거는 다 위조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조돼서 그 위조된 확정판결문까지 있습니다.

○증인 김종민 지금 사무처에서 바로 재판 승소한 걸 다 보내 드릴 수 있습니다.

○참고인 강신준 거기에 있는 서명들, 선거관리위원회 서명들을 다 모용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이기홍 회장님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문을 발송하셨잖아요. 인준을 취소할 수 있다라는 공문을 발송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안 된 것도 약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문제가 있는데 인준을 취소할 수 있는 것은, 왜 공문을 발송했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라는 것이 저는 좀 의혹적인 부분이고. 또한 아까 녹취록 틀었던 것처럼 실익이 없어서 그냥 인준을 취소…… 그냥 넘어가자, 묻고 가자라는 얘기가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실무선에서 어떤 판단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제가 들어가서 살펴보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이것 살펴보시고 종감 때까지 꼭 말씀 주시고요.

그리고 강신준…… 솔직히 참고인으로 참석했고 김종민 증인도 참석했지만 여러 가지 의혹이 계속 남아 있는 상황에서 강신준 참고인이 저한테 제보한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 짧게 설명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참고인 강신준 제가 지난 2021년 5월 28일 선거를 통해서 회장이 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요. 그래서 등기까지 완료됐고요. 그런데 제가 취임하자마자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기홍 회장의 선거를 도와주면서 그 보은으로 김종민 회장이 오기로 했고, 그 과정에서 인준을 안 해 준 겁니다. 고의로 안 해 주면서…… 저희 협회 처음에는 직원 두 달 치 월급이 나갔었습니다. 그 뒤로는 e나라도움, 그러니까 재정기획부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전혀 받지 못했고 그러면서 굉장히 힘들어졌습니다. 그래도 저를 따르는 관장님들이 있었고 저희 제자들, 저랑 같이 땀 흘려 운동했던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0월 달에 국정감사에서 저 임오경 위원이 킥복싱관장이라는 아까 전 그 관장의 녹취록을 텁니다. 그런데 그 녹취록의 내용은……

○진종오 위원 그 자살한 관장 말하는 겁니까?

○참고인 강신준 예, 그 녹취록은 모두 조작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승단심사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승단심사규정대로 한 겁니다. 그런데 그 승단심사가 잘못됐고 무슨 돈을 벌려고 한다 그런 식으로 매도해서 그 관장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너무 힘들다. 죽고 싶다. 힘들다. 살려 달라’, ‘참자. 같이 가자. 우리 갈 수 있다. 우리 운동 같이 했으니까 팬찮다’…… 그런데 올해 2월 달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저는 꿈에 나와서 정말 너무 힘들고, 이걸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힘들어서……

○진종오 위원 꿈 얘기는 빼시고요.

○참고인 강신준 제가 김종민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제발, 저를 괴롭히는 건 팬찮습니다. 저는 민형사소송 20건이 넘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당해야 될 것은 제가 다 감내하겠습니다. 하지만 저희 주변 사람들, 제 동료, 제 후배, 제 동료들은 건드리지 말라고…… 제가 사임하겠다고, 제가 사임하고 모든 일을 다 도와주겠다고, 당신 하는 일을 다 도와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제가 애원했습니다. 그래서 사임하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전혀 절차에 따르지 않고 등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일을 도와주면서 물어봤습니다, 도대체 이거 어떻게 한 거냐고, 왜 그렇게 조작한 거냐고, 이 판결문은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니까 김종민이 하는 얘기가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수원지방법원에 판사 아는 사람 있고 그 친구가 얼마든지 다 해 줄 수 있고, 임오경 의원이 말만 하면 죄 없는 사람 죄 뒤집어 씌워 가지고 합법적으로 감방 보내는 건 일도 아니랍니다’, 그런 얘기를 해요, 껄껄껄 웃으면서.

○**임오경 위원** 지금……

○**위원장 전재수** 자, 자……

○**참고인 강신준** 그래서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법치주의에서……

○**진종오 위원** 이게 만약 위증이면 위증죄 되는 거 아시지요?

○**참고인 강신준** 저별받겠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았거나 그런 얘기가 허위사실이라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유승민이 나오는데 자기가 부회장이라고 얘기한 거 이런 것들이 다 허위라면 제가 제 이름을 걸고, 제 모든 것을 걸고……

○**위원장 전재수** 참고인, 정리해 주십시오.

○**진종오 위원** 통화 내역을 아까 충분히 들었고, 자료를 참고했고요.

마지막으로 이기홍 회장님, 종감 때까지 명명백백히 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알겠습니다.

○**증인 김종민** 위원님, 혹시 죄송한데 잠깐만 발언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전재수** 잠시만요.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강신준 참고인이 지금 저를 모독하는 행위부터 해서 위증까지 하고 있습니다. 작년 국감에서……

○**참고인 강신준** 모두 사실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강신준 참고인……

○**임오경 위원** 이보세요.

○**참고인 강신준** 모두 사실입니다.

○**임오경 위원** 이보세요!

○**위원장 전재수** 강신준 참고인, 앉아 주세요.

○**참고인 강신준** 말씀하세요.

○**위원장 전재수** 강신준 참고인!

○**임오경 위원** 국감장에서 국회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질의를 했던 것은 단증 발급해 주고 경찰 채용 부정까지 악용되는 불법 단증 매매실태 제보가 들어와서 그 녹음파일을 틀었습니다. 그 녹음파일이 누구인지 김종민 회장에게 한 번만 물어봐 주십시오. 일단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리고 또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자, 이 부분은……

강신준 참고인은 오늘 증인 신분이 아닙니다, 참고인 신분이고. 강신준 참고인께서 하실 말씀이 많다 하더라도 국정감사장에서 국정감사 위원이 국정감사를 하는데 개인적 판단에 따라서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굉장히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경솔한 발언입니다. 그런 발언은 유의해 주시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김종민 증인 하실 말씀 있습니까?

○증인 김종민 예.

○위원장 전재수 짧게 해 주시지요.

○증인 김종민 예,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솔직히 저희 대한체육회에서 현 회장님의 칙복성 회장으로 가라 그런다고 해서 갈 수 있는 단체는 아닙니다. 그런 단체는 아니고요.

○진종오 위원 단체가 아닌데 서면으로 IF에 보냈지 않습니까, 인준하는 것?

○증인 김종민 그러니까 위원님, 그게 지금 뭐가 잘못됐냐면 순서가 틀렸습니다. 다 됐고 그 뒤에 보낸 겁니다. 저기서 계속 자기가 기라고 해서 보내 가지고 그런 거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강신준이 3년 동안 저희……

○진종오 위원 그러니까 그런 순서가 잘못된 것 회장님이 다 밝히실 수 있으시지요?

○증인 김종민 예, 그 서류 다 보내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것은 날짜가 있을 겁니다.

○증인 김종민 다 있습니다. 그리고 강신준이 3년 동안 쓴 카드내역도 몇억이 있습니다. 그것도 개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제가 그것부터, 차 렌털한 것…… 그다음에 단증을 아까 임오경 위원님께서 질문 주셨는데 MBN 뉴스에 나온 사람이 강신준입니다. 모자이크 나온 사람이 본인이고요. 본인이 단증을 170매 팔다 걸렸습니다, 기자한테 팔다가요. 그랬기 때문에 그 자료 모든 것을 제가 의원님 실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이 자리는 두 분이어서, 제가 옆에서 보니까 두 분이 여러 가지 송사도 지금 별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을 통해서 확인이 되면 되는 것이고요.

○증인 김종민 예, 재판은 다 끝났습니다. 전부 다 저희가 승소를 다 하고, 저기는 지금 져 가지고 서류를 가져온 겁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수 혹시 진종오 위원님 더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진종오 위원 아니요,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임오경 위원님.

○임오경 위원 저는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야 됩니까? 지금 강신준 참고인……

○위원장 전재수 의사진행발언으로 해서 기록을 남겨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강신준이라는 참고인으로 나와서 해서는 안 될 말을 했습니다. 반드시 이 자리를 비롯해서 저는 사과뿐만이 아니라 참고인이지만 경찰에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정확하게 인지를 할 수 있게 해 주고요.

그리고 칙복성협회에서 2명의 회장이 지금 본인이 진짜다…… 대한체육회 가맹단체에 등록되어 있는 정회원이나 준회원은 대한체육회의 인준을 받지 못하면 회장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이게 규정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회장이라고 하니 저도 이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던 거고, 이 궁금증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작년에 질의를 했던 것은 강신준이라는 참고인의 육성을 가지고, 본인이 한 말

인데 지금 이 육성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해서 자살까지 시도했다? 그리고 제 이름을 거론했습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명예훼손 플러스 허위 위증까지 해서 검찰 고발까지 해 주시고 이 자리를 비롯해서 사과 요청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전재수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준 참고인 잠시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마이크 있습니다?

○참고인 강신준 예,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요, 잘 들어 보십시오.

위원장인 제가 듣기에도, 작년 국정감사에서 임오경 위원께서 그게 있었고 그리고 그 것 때문에 관장이라는 그분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저도 듣기에 따라서는 그렇게 들립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논리적으로 비약일 수도 있고 또 임오경 위원 입장에서는 돌이킬 수 없는 명예훼손 또는 허위 사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신준 참고인께서 마음을 좀 가라앉히시고 차분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고 만약에 그렇게 들릴 만한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신다면 이 자리에서 사과를 해 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인 강신준 먼저 존경하는 임오경 위원께서 곤혹해서 들으실 부분이 있다고 그러면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김종민 씨가 임오경 의원 얘기하면서 한 사실은 모두 사실입니다. 그리고 작년 국정감사 때 그 놀춰놓은 제 목소리가 아니고요 체육관장의 목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관장이 계속 저한테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좀만 참자……

그 관장은, 체육관은 관장 단증으로 연명하는 체육관입니다. 뭐 이런 표현을 써서는 안 되지만 그 체육관은 단증을 하지 않으면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일반적으로 우리 체육관 운동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2월 달에……

○위원장 전재수 강신준 참고인, 됐습니다. 거기까지 합시다.

제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오경 위원 관련된 발언은 임오경 위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것이 아니고 김종민 중인으로부터 우리 참고인께서 들은 이야기지요?

○참고인 강신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래서 임오경 위원이 직접 그렇게 했다라는 것으로 오해해서 들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과하신 거 맞지요?

○참고인 강신준 예, 맞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됐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민 중인도 들어가셔도 됩니다.

○임오경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전재수 제가 정리를 했지 않습니까?

○임오경 위원 아니요, 마지막 1분만 주십시오.

○위원장 전재수 예, 마지막으로 의사진행발언하십시오.

○임오경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두 사람의 회장이 자기가 진짜 회장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을 종감 때까지 이기홍 회장님 그리고 이정우 국장님, 이것 진실 밝혀서 종감 때 국감

시작하기 전에 오해 소지 다 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불법으로 비위행위를 하고 있는 칙복성협회, 누가 진짜고 누가 잘못된 건지 지금 송파경찰서에서 조사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 두 사람의, 어느 한쪽은 분명히 거짓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다음 종감 때 분명히, 국감 시작 전에 우리 위원님들 앞에서 공식적으로 이것을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국장님, 아시겠어요? 시간 이틀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저는 참을 수 없는 모욕까지 다 당했습니다. 반드시 이 두 사람의 정확한 사실을 가지고 팩트를 듣고 와서 설명해 주세요. 오늘 분명히 이 두 사람은 잘못된 상황입니다. 누가 봐도 여기는 지금 코미디 한 프로를 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국감 여기 자리를 나가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이틀간 참을 테니 이틀 후에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서, 반드시 한 사람은 위증죄로 분명히 고발될 겁니다.

○위원장 전재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증인·참고인에 대한 마지막 질의 순서입니다.

양문석 위원님 마찬가지로 3분 추가질의시간을 증인·참고인 질의시간으로 할애해서 쓴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대한체육회장님, 정말 여러 가지 얕히고설친 수많은 이슈들이 체육회를 감싸고 있네요. 그렇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양문석 위원 그럴 때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대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쾌도난마처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현재 테니스 동호인들이나 그다음에 테니스 선수들이 상당히 힘겨워하고 있는 건 잘 알고 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양문석 위원 관리단체 지정 문제하고 테니스협회장 승인 문제가 현실적으로 법원 판결 이후에 또다시 회장단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여러 가지 현안들 중에 쾌도난마처럼 해결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이후에 문제가 있었으면 풀고 그리고 잘못된 거 있었으면 바로잡고 그리고 어떤 때는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도 있기 때문에 쾌도난마처럼 관리단체 지정 해제하고 그다음에 회장 인준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으면 어떨까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속히 판단해서 결정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조속히 판단보다 이것은 어쨌든 회장단의 손에 들어갔으니까, 내일하고 모레가 우리가 확인감사입니다. 그래서 저는 내일 중에 대국적인 체육회의 입장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 주시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내일 중으로는 좀 부족하고요, 저희 관계자들이 있으니까 또 절차가 있으니까. 하여튼 최대한 빨리 조속하게 결론을 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이틀 뒤의 국감에서, 국감 이전에 좀 대국적인 판단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회장님.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최대한 빨리하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그리고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 제가 이렇게 한번 질문을 해 볼까요. 오늘 김택규 배드민턴회장 이야기 많이 들으셨지요?

○**증인 김병철** 예.

○**양문석 위원** 김택규 배드민턴협회장이 4연임을 하려고 정관 개정을 요청하면 지방체육의 위기에 따른 정책적 판단 때문에 정관 개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증인 김병철** 저희들이 지방체육이라고 하면 시도도 포함되겠지만 시군구의 실태를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제가 지금 축구협회나 대한체육회 문제를 이야기한 게 아니고 지방의 시군구에서, 시군구의 종목단체 또 시도에도 종목단체가 있습니다. 그 종목단체의 인기 없는 걸 이야기한 겁니다.

○**양문석 위원** 김병철 위원장님, 녹취록이 남아 있고 영상이 남아 있어요. 박정하 위원이 그렇게 질문을 하지요? 그랬었을 때 그렇게 대답을 했었지요?

○**증인 김병철** 예, 제 개인적인 의견을 이야기하라고 해서 저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위원장으로서가 아니라 개인으로서 이야기한 겁니다.

○**양문석 위원**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다시 제가.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연임 정관 개정에 대해 지방체육의 위기에 따른 정책적 판단이기 때문에 정관 개정을 할 수 있다, 여전히 이 입장 유지하십니까?

○**증인 김병철** 정몽규 회장 4연임을 말씀하십니까?

○**양문석 위원** 예.

○**증인 김병철** 그건 정관 개정사항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정관에는 정몽규 회장님에 대한 것이…… 이것은 포함돼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돼 있지, 정몽규 회장님 부분에 대해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양문석 위원** 제가 계속해서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아까 분명히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정관 개정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국회에 와 가지고 김병철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장이 말장난하시는 건지 희롱하시는 건지 그게 헷갈릴 지경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렸지요. 지방행정의 위기가 뭐냐고 물어봤었을 때 아까 방금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렇지요? 그리고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정관 개정을 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 놓고, 제가 축구협회든 인기 종목에 대해서와 비인기 종목에 대해서 구분 없이 그렇게 대답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시군구 체육회 회장이나 축구협회 시군구 회장은 정말 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 넘친다, 그래서 지방행정의 위기에 따른 정책적 판단에 따라 정관 개정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는 잘못된 거다라고 지적을 했지요? 지적을 했는데……

다시 한 번 더 질문하겠습니다, 땐 이야기 하지 마시고.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연임 정관 개정에 대해 지방체육의 위기에 따른 정책적 판단 때문에 정관 개정을 할 수 있다, 입장 유지하십니까?

○**증인 김병철**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양문석 위원** 어떻게 이 내용을 무슨 뜻인지 몰라요, 아까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증인 김병철**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정관 개정은, 지금 우리 대한체육회에서 정관을 개정하겠다 하면 대한체육회 정관을……

○**양문석 위원** 김병철 위원장님.

○**증인 김병철** 예.

○**양문석 위원** 참고인이 아니고 증인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정상적인 토론을 요청하는데 불과 1시간 전에 이야기했던 그 발언에 대해서 오리발을 내밀고 또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 이야기하고 그렇게 베티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나요? 고소 대상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정몽규 축구협회장의 4연임 정관 개정에 대해 지방체육의 위기에 따른 정책적 판단 때문에 정관 개정할 수 있다 이 입장 그대로 유지하십니까, 아니면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렵니까?

○**증인 김병철** 제가 이해를 해야 사과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그렇습니다. 지방체육의 현장에 문제가 있으니 그것을 정관 개정하겠다고 대한체육회 기획부에서 제안을 해 와서 그것에 대해서, 우리 스포츠공정위원회는 법제를 검토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그쪽, 거기 기획부에서 지방에 문제가 많다고 그걸 하겠다고 해서 우리 위원들끼리 논의를 한 그 내용 중에서 제 개인의 의견을 해 달라 그래서 저는 제 개인의 의견을 제시한 겁니다. 저희 위원님들이 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양문석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견을 제시했지요, 정관 개정할 수 있다고요?

○**증인 김병철** 아니, 그 정관은 그것은 정책적 사안이기 때문에 저희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그걸 논의를 해서 이사회 총회에 상정을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된다, 저는 그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양문석 위원** 말장난하지 마시라고요. 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증인 김병철** 제 뜻은 그거였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양문석 위원** 제 뜻은 그거였고, 내 말은……

○**증인 김병철**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에 대해서……

○**양문석 위원** 김병철 위원장!

○**증인 김병철** 예.

○**양문석 위원** 본인이 직접 한 이야기예요,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

○**증인 김병철** 그렇습니다. 정책적 판단에 의해서, 제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하라고 해서 제가 이야기한 겁니다.

○**양문석 위원** 그 대상이 뭐였어요, 그 대상이?

○**증인 김병철** 정관입니다. 연임 횟수 제한 정관입니다.

○**양문석 위원** 보세요. 4연임, 3연임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해서 그렇게 정책적 판단에 따라서 정관을 개정할 수 있다고 대답해 놓고 그리고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네가 잘못

이해했어' 지금 그 이야기지요? 그 이야기잖아, 그렇지요? 맞지요?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문석 위원 어디서 거짓말을 해요?

○증인 김병철 저는 거짓말 안 했습니다.

○양문석 위원 녹취록 보고 다시 이야기합시다. 반드시 고소해 드릴게요.

.....
○위원장 전재수 양문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사실은 오늘 증인·참고인에 대한 신문을 이렇게 많은 위원님들께서 하시고 또 위원장인 제 입장에서는 증인·참고인들께서 어려운 걸음을 해 주셨는데 신청을하신 분들이 충분히 질의응답을 하실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배현진 위원님하고 박수현 위원님 보충질의시간이 한참 뒤로 밀렸습니다. 위원장으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배현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현진 위원 위원장님,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정우 국장님, 오늘 참 만나 뵙기가 힘드네요. 종일 고생이 많으시고요.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 잘 챙겨서……

마이크 챙겨 주십시오.

제가 축구협회에 지금 파견 가 있는 현대산업개발의 임직원이 동부건설이라는 천안축구센터의 시공사가 둬야 할 현장소장의 상급자처럼 관리자문현장소장이라는 이름으로 공사 자재까지 다 관리하는 실질 모든 건설 관리 역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월급은 현대산업개발에서 여전히 받고 있고 많은 수당은 축협에서 받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렸던 것 기억하시지요? 한참 돼서……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배현진 위원 그러면서 제가 그 사이에, 이게 지금 올해…… 2022년이지요 1월부터인가요, 우리가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에 많은, 제가 문예위에서도 질의를 드렸고 영진위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자기가 속한 조직의 사업을 본인 조직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추징하고 도로 회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항조차 정면으로 그것을 위반하는 사안으로 보여요.

그래서 아마 제가 지금 조금 더 질의를 드리겠지만 이 강 모 씨, 관리자문현장소장으로 현대산업개발에서 정몽규 회장이 갑과 을의 관계로 파견한 이 관계가 현행법에 정면으로 위반하는지 우리 국민권익위에 종감 때까지 확인해서 저희에게 보고하셔야 될 겁니다. 챙겨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배현진 위원 정몽규 회장의 측근 인사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강 씨는 현장소장으로 보냈는데요. 진정한 오른팔이 한 분 더 있어요. 제가 24일에 정몽규 회장과 함께 증인으로 출석시킬 분인데 김 모 씨가 대한축구협회에서 중요 요직을 정몽규 회장의 취임과 함께 11년간 함께하고 계세요. 2011년 정몽규 회장의 한국프로축구연맹 시절부터 실상 13년간 축구계에서 정몽규 회장과 함께하고 있는 진정한 파트너인데요. 이분이 지금 역시 현대산업개발의 파견직으로 축구협회에서 자문 명목으로 일을 하고 있으신데요.

PPT 한번 볼까요?

(영상자료를 보면)

경영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자문계약서, 아마 정몽규 회장께서 축구협회 지원을 위해 보냈다는 임직원의 경영지원업무 수행을 위한, 이런 제목을 붙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보수 조항이 있지요. 이분께 나가는 게 자문료, 교통비, 업무추진비, 통신비 그리고 건강검진, 하계휴가비, 귀향비, 특별격려금 등 협회 동일 직급 또는 직책을 수행하는 직원에 준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른쪽을 보시면 기본급여를 현대산업개발에서 꾸준히, 파견 이후에 이번 달까지도 계속 수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 모양이 좀 이상하지요?

제다가요 그 밑에 보시면 ‘계약의 주요 내용, 경영지원 행정업무’. 그게 뭐냐, 내용을 보니까 인사, 총무, 회계, 자금.

이분이 1년에…… 우리 예산이 300억씩 축구협회로 가지 않습니까? 이 국비 사업을 포함해서 약 7000여 건에 달하는 축협 내부 문건을 모두 전결로 결재를 하고 있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상 축구협회의 최상위자처럼 활동하고 있으신 건데요. 이분이 협회 내에서 축구협회의 어떤 직원에 준하여 이런 수당까지 지금 다 받고 있다라는 소식을 본 의원실이 확인에 들어간 이후에 알게 된 축구협회 직원들이 지금 노조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국장님 보시기에는 이게 좀 적당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부당한 것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부적절합니다. 그래서 이게 감사 도중에 적발이 돼서 지금 저희가……

○배현진 위원 감사 내용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감사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배현진 위원 그리고 보시면요 제4조에 겸직 규정이 있는데 겸직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이분 여태까지 현대산업개발에서 월급받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배현진 위원 그리고 본 위원의 의원실에 오셔서 지금 축협 파견 후에 본인은 현대산업개발에서 한 번도 업무를 한 적이 없다라고 자백을 하고 가셨어요. 그러니까 되게 이상한 일이지요. 현대산업개발에서 한 번도 일을 한 적이 없으신데 월급은 현대산업개발에서 계속 수령해 가시고……

그리고 하나 보시면요 2014년부터 승진을 해서부장에서 지금 상무보까지 승진을 하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일도 안 했는데 상무가 됐느냐라고 하니까 ‘회장님의 챙겨 주신 거겠지요’라는 어처구니없는 답을 했습니다.

축구협회 입장에서도 겸직 규정을 위반하고 이해충돌방지법, 협행법에 정면 위반하는 위험한 소지가 다분해 보이지만 아마도 현대산업개발 입장에서도 주주들이 보시기에 배임의 소지가 굉장히 크다, 그리고 현대산업개발의 노조가 보기에도 일하지 않은 자가 특급승진을 하고 월급을 계속해서 수령해 갔다는 점은 굉장히 공분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24일에 출석할 이 김 모 팀장, 국장님 보시기에는 축협 직원 같습니까, 아니면 현대산업개발의 직원 같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본적은 현대산업 직원으로 되어 있지만 축구협회에서 지금 상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배현진 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질의드린 내용으로 판단을 하신다면 어렵겠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 배현진 위원 지금 이도 저도 아닌 이 상태에서 정몽규 회장께서는 분명 24일에 이득본 것 없다, 축구협회에 나는 그냥 현대산업개발의 인적 자원을 제공하고 다 공여를 했을 뿐 이득 본 것이 없다라고 증언을 하셨거든요. 이것 전체 다……

1분만 하겠습니다.

정면으로 위증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아마 정몽규 회장님께서 사실을 좀 정확히 파악을 못 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 배현진 위원 분간을 못 하신 걸까요? 공적 조직인 축협, 국가 예산이 매년 300억씩 들어가는 축협이 정몽규 회장이 실질적으로 소유한 현대산업개발의, 대기업이 운영하는 운영과 혼재돼 가지고 이것을 누가 운영하는지, 현대산업개발인지 축협인지도 분간이 안 되는 정도라면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지금 지적드린 가장 중요한 지점, 정몽규 회장이 대한축구협회 회장으로서 직접 계약 건, 강 모 씨와 김 모 씨의 그 계약 건을 수행하고 축구센터를 짓는 이 과정 중에 있었던 모든 계약 건에서 갑으로서 발주를 할 때 이해충돌방지법에 정면 위반을 했는지 반드시 국민권익위에 24일까지 확인을 해서 오시고요. 그리고 장관님께 제가 질의를 드릴 거기 때문에 위증 여부도 확실히 변별해서 장관께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오전에…… 문제위를 통해서 축구협회 대의원 명단 받았지요?

○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 배현진 위원 보니까 서른여섯 분 중의 40%가 건설사나 건설 관계사에 있는 분들이에요. 정몽규 회장이 지금 이렇게 현대산업개발 통해서 축구협회를 장악하고 있는데 하청 관계에 있는 회사로 의심할 수도 있는 많은 건설 관련 업종에 있는 분들이 대의원으로 장기간 그 안에 들어와 있다고 하면 우리가 축구협회 운영에 대해서 투명 공정하다라고 신뢰할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혹시 학연과 업체 간에 유착이 있는지 반드시 감사 항목에 넣기를 바랍니다.

○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 배현진 위원 24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마지막 순서로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수현 위원 이기홍 체육회장께 조언 겸 질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회장님, 지난 10월 17일 기자회견 하셨지요?

○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 박수현 위원 그때 문체부 감사 및 지적사항에 대해서 나름대로 반박하셨고 그 자리에서 IOC와 FIFA에 대한 언급도 하셨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때 회장님의 발언 원문을 보면 ‘IOC도 FIFA, 체육회 문제를 면밀히 모니터하고 있다. 요새 왜 그러냐는 문의는 있었다. 국내 정관 개정의 경우 장관이 승인해도 IOC로 다시 간다. IOC도 국내 상황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존경하는 이기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IOC 위원장과 직접 소통을 하셨다고 했고 그런 걱정의 말씀을 전해 들었다 이렇게 하셨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위원장이 아니고 위원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입니다.

○**박수현 위원** 후보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우려에 대해서 회장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는 지금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 정도 말씀하셨다는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수현 위원** 그래서 언뜻 보기에는 회장님, 지금 저는 문체부와 체육회 사이에 서로 감사를 하고 어떤 내용을 주고받는 것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체육회장님께서 문체부의 감사에 대해서 역울한 점이 있고 또 더 소명할 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그걸 주장하셔서 국민적 신의를 더 얻으려면 지금 이 시점에서 회장님의 행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래서 혹시, 아까도 말씀이 계셨지만 IOC의 우려를 전하면서 이것이 문체부의 부당함 또 내지는 과도한 제삼자 개입처럼 IOC도 FIFA도 그렇게 해서 우리가 불이익을 받을, 선수들이 국제대회 참가를 못 하는 그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겁박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게 사실 아니겠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전혀 그건 아니었습니다.

○**박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회장님이 그렇지 않으시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수들을 보호하는 그런 체육회 입장에서는 설사 IOC나 FIFA가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면 FIFA가 또 그런 공문을 보내 왔다면 적극적으로 회장님께서는 그런 사실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 상황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노력을 저는 차원 높게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뭐.....

○**박수현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지 마시고요. 그 문제는 저에게 서류로 내주시기 바라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수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정말 회장님께서 문체부와의 어떤 그런 감사를 둘러싼 감정싸움이나 이런 것 때문에 IOC나 FIFA의 개입을 그냥 방조 내지 묵인하는 이런 무책임한 회장이 아니라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 주셔야 회장님의 주장이, 반박이 또 신의를 갖고 신뢰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전혀 그럴 일은 없습니다.

○**박수현 위원** 지금 저 PPT 한번 보실까요?

지금 IOC가 제재를 가한 해외 사례를 한번 보면 엄청난 것들입니다.

남아공, 인종차별정책 아파르트헤이트로 인해서 1964년 도쿄올림픽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까지 참가를 제재했다거나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터키 헝가리 독일, 1차 세계대전 전범국 대상 제재. 독일, 1차 세계대전 전범국 제재. 독일 일본, 2차 세계대전 전범국 제재.

아프카니스탄, 탈레반 정권의 여성 억압 문제로 제재. 러시아 벨라루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제재. 이런 정도의 사안이 IOC가 제재한 사례입니다.

그런데 지금 국내의 어떤 내부 문제로 문체부의 감사를 둘러싼 이런 어떤 갈등 때문에 IOC가 제재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어떤 말씀은 정말 엄청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 점을 분명하게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주의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리고 이에 대한 노력을 하셨다고 하니 그런 노력에 대해서 반드시 내일이나 모래까지 저에게 설명 자료를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수현 위원** 회장님, 대한체육회에서 노인체육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노인체육만 전문으로 하는 직원은 없고요. 생활체육부서 안에서 함께……

○**박수현 위원** 그렇지요? 담당 직원은 생활체육부에서 일하는 1명인데 그나마 여러 업무를 겸하고 있어 전문적 관리를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초고령사회 잘 아실 거고요. 어르신들의 평소 건강 관리가 여러 가지에 미치는 영향들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대한체육회에 제가 물어보니까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데이터도 대한체육회가 갖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좀 굉장히 소홀했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회장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한체육회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 정말 엄청나게 중요해요. 노인체육에 관해서도 회장님 좀 더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전담 부서의 어떤 신설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도 좀 의견을 주시고요.

그다음에 대한장애인체육회장님, 여쭤볼게요.

지난 9월 5일 날 저희 문체위 전체회의에서 학생 선수 최저학력제의 완화를 검토해 달라는 의견서를 교육위원회에 전달한 바 있고요. 이 의견서에는 본 위원이 발달장애 학생 선수와 관련한 제안을 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핵심은 발달장애 학생 선수의 경우에 성적 도달률을 낮춰 주는 방식만으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인데 그 뒤로 이에 대해서 장애인체육회가 교육부와 소통한 사항이 있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현재 교육부에서 지난 10월 18일 날 학교체육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장애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최저학력제에 대한 부분들을 학교의 장이 결정할 수 있도록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또 학교마다 어떤 세부 지침이 없어서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부 기준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좀 자세히 내 주시고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박수현 위원** 본 의원실에서 발달장애 학생 선수들의 운동권과 학습권을 동시에 보장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는 발달장애 등을 지닌,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되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은 아예 예외조항을 두어서 참가를 허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마지막으로 이에 대한 장애인체육회장님 또 장애인체육회의 입장은 어떤 것입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장애 학생 체육대회와 각종 국내 대회에 우리 발달장애인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이 이런 대회나 최저학력제에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잠깐만, 시간이 저에게 50초 남아서 좀 더 할까요?

○**위원장 전재수** 예.

○**박수현 위원** 감사합니다.

오늘 나오셨는데 한 말씀도 못하시는 태권도진홍재단 이사장님께 제가 말씀드릴 기회를 한번 드릴까요.

매년 국정감사에서 역시 지적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그 의무를 지켜야 되지요?

○**태권도진홍재단이사장 김중현** 예.

○**박수현 위원** 그런데 지금 태권도진홍재단이 구매의무를 약 10년째 미준수하고 있어요. 2017년 한 해를 제외하고 전부 미준수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6년째 미준수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 위원의 이 두 가지 지적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시고 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본 의원실에 내일 제출할 게 있으면 해 주시고요. 이 자리에서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진홍재단이사장 김중현** 알겠습니다.

중증장애인에 관한 부분은 저희들이 확실하게 잘 검토해서 위원님께서 주신 고견 잘 정리해서 앞으로 조금씩이나마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박수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이지요?

임오경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앞서 위원장님께 문체부와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에게 24일 날 종감 때까지 오늘 킥복싱협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정확한 팩트 체크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그거 갖고는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반드시 대한체육회 그리고 문체부의 유권해석도 다시 한번 요청드리고.

오늘 참고인과 증인으로 나온 두 사람이 서로가 회장이라고, 전 회장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두 사람을 긴급 증인으로, 24일 날 종감 때 긴급 증인으로 요청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불출석한 공선택 증인을 다시 한번 긴급으로 요청드리고 또한 대한체육회 킥복싱 담당을 하고 있는 양우영 부장 이분까지 종감 때 증인으로 나올 수 있도록 긴급 요청을 드립니다.

여당이신 박정하 간사님에게는 제가 수락을 받았고요, 승인을 받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님께서 최종적으로 의결을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동안 양당 간사 위원님들 사이에 협의가 있었고 협의 결과 양당 간사 위원님 사이에 합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행정 절차상 준비를 조금 해야 돼서 한 일이 분만 좀 기다려 주시면 국정감사를 잠시 중단했다가 상임위원회를 열어서 증인 채택을 하고 국정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19시54분 감사중지)

(19시55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수 계속해서 국정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인 및 참고인 신문과 배현진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두 분 보충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출석해서 위원님들의 신문에 응해 주신 증인 및 참고인께 위원회를 대표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증인 및 참고인들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국정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였다가 21시 30분에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9시56분 감사중지)

(21시30분 감사계속)

○위원장 전재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겠습니다.

그리면 순서에 의해서 정연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욱 위원 이기홍 회장님 수고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진천선수촌 시설용역업체 선정 논란 관련해서 아마 검찰 수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사 중인 사안이니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만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아마 사유가 심사위원은 기본적으로 내부·외부위원이 구분되어야 하는데 아마 외부위원, 내부위원도 그렇지만 외부위원도 대개 체육회나 이쪽과 관련된 인사들이, 국가대표 감독 등을 비롯한 체육회 관련 인사들이 좀 많이 있으니까 과연 이게 인선이 적절한가 하는 문제가 먼저 시작이 된 것 같습니다.

PPT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2017년부터 24년 올해까지 진천국가대표선수촌 관리용역 계약현황입니다. 보이시겠지만 모두 한 업체지요? 8년간이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정연욱 위원 이게 지금 478억입니다. 아마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한 업체가 400억 넘게 8년간 이 시설용역을 한다, 이게 좀 아무래도 여러 의구심이 있겠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정연욱 위원 그렇게 했는데, 다음 화면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18년, 21년, 23년 시설용역, 관리용역을 하려면 여러 가지 제안서를 제출하겠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정연욱 위원 그러면 채점을 하실 것 아닙니까, 평가위원들이? 그런데 점수가 74.67, 21년에 74.50 그다음에 또 지나서 74.47 이렇게 배점을 받습니다. 계속 조금씩 이렇게 심사위원들이, 평가위원들이 바뀝니다, 할 때마다 바뀌고. 심지어 지난해는 배점 방식도 아예 바뀌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하고 21년 이게 다 74점 이 기준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리고 이게 다 합격 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 좀 개운치 못하다는 지적을 받지 않나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21년하고 지난해 심사위원들 평가의견서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21년과 23년도 보면 업무 수행에 대해서 미흡함을 지적하고 있고 체육회 직원, 업체와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내역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아주 심풀한 단문으로 끝납니다. 지적도 물론 있습니다, 선정된 업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 과연 업무 수행 문제도 있는데 용역을 이렇게 줬나…… 이건 모르겠습니다. 아직 검찰 수사가 되고 있으니까 제가 단언할 수는 없지만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고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다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건 회장님한테 여쭤봐야 되겠지만 이 시설업체 대표가 양 모 씨인 모양인데 회장님하고 잘 아는 관계라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선수촌에서 행사 때 처음으로 얼굴을 봤습니다.

○정연욱 위원 고등학교 후배입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학교는 후배인데 이 사람을 본 것은 이미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선수촌에서 큰 행사가 있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인사를 했습니다.

○정연욱 위원 그런데 이게 제삼자나 일반인들이 볼 때 과연 그걸 객관적으로 순수하게 처음 봤다라고 얼마나 볼 수 있을지 의문 아니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도 그런 부분에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제가 여기에 관여를 하지 않습니다.

○정연욱 위원 알겠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이 부분은 이제 조사가 끝나면 명명백백하게 밝혀질 걸로……

○정연욱 위원 어차피 검찰 수사,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신치용 한국체육산업개발주식회사 대표님 잠깐……

제가 시간이 없어서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7월에 부조리신고센터 신고 하나 접수된 게 있었고요. 개발 내의 2급 실장, 고위급 간부지요? 5년 동안 직책수행경비, 법인카드, 자가 주변에서 주말에 쓴 내용들 발견돼서 내부에서 감사가 있었지요?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신치용 예.

○이기현 위원 주의조치 내리셨나요?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신치용 예, 주의조치, 제도하고 절차를 거쳐서 감사실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주의조치를 내렸습니다.

○이기현 위원 부조리신고센터가 신고사항 조사결과 보고라는 걸 올렸는데 내용을 읽어 보면 정산 담당자 등 관련 직원들 조사결과 이러한 직책수행경비 집행 및 정산내역서 작성 방식이 기관 내에 만연해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도 그런 평가가 있었으니까요 안이하게 보지 마시고, 금액이 적다, 다년간의 기록이다 이렇게 판단하지 않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히 비용에 대한 정산 내용들은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신치용 예, 그 부분은 철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전임 대표님께서 김사엽 대표님이셨는데 재직 시절에 채용비리 의혹이 하나 있습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은 시설물의 유지관리, 대관, 주차, 매점 임대 이런 사업들을 주로 진행하시지요?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신치용 예, 그렇습니다.

○이기현 위원 체육학 박사 꼭 필요합니까?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신치용 그 부분은 전임 대표께서 필요하다고 느끼셔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직원들한테 절차상 문제는 없었느냐.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데……

○이기현 위원 대표님, 지금 시간이 부족해서……

절차상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절차를 틀을 짠 거예요. 보통 이런 게 채용비리에서 기본적으로 쓰는 틀인데 특정 조건에 있는 사람 딱 집습니다. 필요하지도 않은 자리인데 이분은 박사 학위로, 20년 5월에 김사엽 대표가 취임하자마자 21년 8월 신규 채용 때 이런 것을 기획해요. 체육학 전공 박사 학위, 경력직 일반 5급입니다. 고위직이지요. 이 해에 10명인가 응시했는데 다 탈락했어요. 그래서 채용이 안 됐는데 그다음 해 3월에 다시 박사급 전문경력 1명을 채용 공고하면서 또 조건을 달아요. 박사 학위자여야 하고 평생 교육사 2급 이상은 가점을 주겠다 이걸로 해 가지고 1명을 뽑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제도가 그다음부터 사라져요. 이런 것 기관에서 많이 하는 일이거든요.

대표님, 이 문제는 꼭 좀 확인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뽑히신 분하고 김사엽 대표님하고 예전에 학교에서 같이 논문심사도 하시고 지인이시더라고요.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신치용 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래서 지인에 대한 특혜 채용의 의혹이 있어 보이니 이 문제는 꼭 쟁겨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체육산업개발㈜대표이사 신치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기현 위원 태권도재단 이사장님 말씀 물겠습니다.

21년에 직장 내 갑질 의혹 관련돼서 전임 이사장 그리고 모 씨 그다음에 사무총장 등 다 조사받은 적 있지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 예.

○이기현 위원 감사결과 나왔습니까? 다 나와 있지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 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이사장님은 감사 도중에 퇴직하셨고요, 임기를 1년 잘라서. 관계되시는 한 분도 퇴사하셨고. 지금 사무총장님은 계속 계신 거지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 예.

○이기현 위원 지금 현 사무총장님에 대한 처분 내용은 뭐였습니까?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 당시 무혐의로……

○이기현 위원 무혐의 처분 받으셨어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일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기현 위원 국조실, 문체부 그리고 자체 감사 내용 저희 방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지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 예.

○이기현 위원 그리고 찾아보니까 무주에 있다 보니까 태권도진흥재단에 많은 태권도를 배우고 싶어 하는 또 태권도에서 일해 보고 싶은 많은 태권도의 좋은 자원들이 취업해서 갑니다. 그런데 1년, 2년 내에 조기 퇴사율이 너무 높습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 판단하고 계시지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 예.

○이기현 위원 물론 교통이 어렵고 젊은 청춘들이 오지 근무를 해야 된다는 부담도 있겠지만 직장 내 문화가 너무 경직돼 있고 그리고 견디기 힘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운동하셨던 분들이나 그것에 준하는 일을 하셨던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특히 젊은 친구들 상처받지 않고, 태권도진흥재단에서도 좋은 인재들이 오랫동안 근무하는 게, 장기근속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사장님의 역할 기대하겠습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 예, 알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정말 이런 일들이 다시 반복되면, 안 그래도 지금 국기원이라든지 태권도협회라든지 이런 건 수도권에 있는데 그 당시에 태권도진흥재단 만들 때 천문학적 돈을 썼습니다. 아시잖아요?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 예.

○이기현 위원 그 안에 월드태권도, 그러니까 WT, 태권도협회, 국기원 다 들어가는 공간 지금도 있어요. 가 보지는 않았지만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곳에, 어떻게 보면 태권도인들에게 상징적인 존재의 공간인데 그곳이 지금 잘못하면 방치된 공간으로, 태권도 주위와 멀어진 공간으로 방치되지 않도록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직원들 근태 관리라든지 직원들의 채용과 관리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권도진흥재단이사장 김중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장애인체육회장님, 앞서 오전 질의에서 연구용역과 취업비리에 대해서 서울시가 다 조사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그것 제가 언론에 난 자료를 조금 잘못 본 것 같습니다. 서울시 관계자가 감사원 결과 보고 조치를 하겠다고 한 말씀을 제가 서울시에서 하는 줄

알았습니다.

○**조계원 위원** 사무처장 관련 문제는 금일 질의에서 처음 접하신 거지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이에 대한 조사도 철저히 해 주시고요, 관련하여 조치하고 그 조치사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다음에 이기홍 회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당시 안세영 선수가 다리를 다쳤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조계원 위원** 그랬을 때 그 부상 치료를 위해서 장세인 대한스포츠한의학회 회장 그리고 현 선수촌 한의진료 봉사활동을 하시는 분께서 직접 가셔서 현지 치료를 하셨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조계원 위원** 당시 그래도 안세영 선수가 금메달을 따는 데 크게 기여를 했던 것으로 파악되는데요.

실제 지금 선수촌 현황을 보면 양의는 의사들이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이렇게 충분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젊은 선수들이 많이 이용하는 치과나 한의과 부분은 거의 의사가 없더라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없습니다.

○**조계원 위원** 자료 화면 좀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실제 이용 현황을 보면, 한번 보시지요. 진료 인원들을 보면 치과는 다른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보다도 훨씬 더 많이 일평균 진료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의과도 3.16명인데 일평균 진료 인원은 압도적으로 많아요. 일평균 진료 인원이 59명이나 됩니다. 이런 상황인데, 물론 치과도 7.59명이면 적은 숫자는 아니지요.

이와 관련해서 선수촌 선수들의 건강 관리와 특히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한의도 좀 배치했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희는 지금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오셔서 하시고 계시는데 저희로서는 한의를 모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젊은 선수들이니까 치과도 이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같이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다음에 선수촌 메디컬센터 운영 현황을 보면요, 이번에 2023년의 1종 의약품인 돔페리돔 이런 것들이 전문가 소견으로 볼 때는 부작용이 있고 그다음에 선수 금지약물에도 포함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주문이 됐고 구매한 600T 중, 그러니까 600정이겠지요, 600정 중에 500정을 사용하고 100정을 폐기했다고요.

그래서 관련해서 의약품 현황을 살펴봤더니—화면 좀 부탁합니다—방금 얘기했던 근화 돔페리돔 말고도 리노에바스텔 그다음에 티디백신주나 리나치올캡셀 이런 약물들이, 이것 뿐만 아니라 비타민C 1000mg짜리 이런 것들까지도 왜 이렇게 많이 폐기를 하는 겁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때 코로나 때 일부 필요해서 비축을 좀 했다가 코로나가 끝나면서 폐기된 부분이 있고, 나머지 약품들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약품 관리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크리켓 종목 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압니다.

○**조계원 위원** 지금 올림픽 종목으로 채택이 됐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LA올림픽에 이제……

○**조계원 위원** 그런데 비인기 종목이라서……

국내에는 지금 종목단체협회가 있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협회는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어떻게 돼 있습니까? 준회원단체입니까, 아니면……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준회원입니다.

○**조계원 위원** 준회원단체입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조계원 위원** 그러면 준회원단체에 대해서는 체육회에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거의 뭐……

○**조계원 위원** 지원이 안 되고 있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미진합니다.

○**조계원 위원** 이런 종목과 비인기 종목에서 종목단체가 되기 위한 조건에는 4개 이상의 시도 종목단체가 해당 회원 시도 체육회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이런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런 조건들을 좀 완화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래야 비인기 종목이라도 올림픽 종목에 선수들이 자원을 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검토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따 재추가질의 있는 거지요?

○**위원장 전재수** 예, 재추가질의 있습니다.

추가질의 때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가급적이면 추가질의에서 끝내는 방향으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의해서 강유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유정 위원** 이기홍 대한체육회장께 물어보겠습니다.

파리올림픽 100일 앞두고 체육회가 발표했던 공식 금메달 전망이 5개였지요. 그런데 실제로 13개 땠고 종합순위 8위를 기록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면)

그런데 올림픽 개최 두 달 전에 발표한 자료를 좀 봤더니, 경기력 분석 자료요, 파리하계올림픽대회 경기력 분석 세부 자료에서도 양궁에서만 5개 따서 원래 16개 전망을 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질문도 받았지요, 회장님?

그래서 5단계 거쳤고 영국 슈퍼컴퓨터도 5개로 전망했다라는 답을 해 주셨는데 물론 날씨 예보도 꼭 맞으라는 법은 없지만, 예측이라는 게 어긋날 수 있습니다만 좀 특이한 경우는 맞는 듯해요. 왜냐하면 2016년 리우올림픽 때만 하더라도 금메달 10개 전망했는데 9개 땠고요. 21년 도쿄올림픽에서도 금메달 7개 전망했지만 6개, 그러니까 오차가 하나 정도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5개 전망에 13개는 숫자로 따져도 2.6배고, 사실 개수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예요. 왜 그랬을까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때 저희가 발표할 때는 상황이 여러 가지로 정말로 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보신 그것은 저희가 가능성 있는 데 집중적으로 할 때를 잡은 겁니다, 최대치로 해서.

○**강유정 위원** 그런데 너무 많이 차이가 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 하면 사실상 소속사가 소속사 연예인들이 있는데 연예인들의 능력을 최저치로 잡아서 홍보를 했다…… 저는 대한체육회가 메달 전망을 낮게 잡는 바람에 다른 게 아니라 가능성 있는 선수들에게 올 수 있는 후원이 혹은 기회가 많이 박탈된 것은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드는 겁니다.

아까 배드민턴협회장 역시도 선수를 보호한다기보다 오히려 선수의 책을 잡는 걸 보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체육회가 선수들의 여러 가지 인권이라든가 혹은 실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기업 후원이나 마케팅 비용이 실질적으로 예년에 비해서 떨어졌어요. 선수들이 마땅한 후원금을 못 받았다고도 생각이 드는데, 물론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수치 하나 보여 드리겠습니다.

2018년 평창올림픽 때는 당연히 우리나라에서 개최한 올림픽이니까 많을 수밖에 없겠지요, 전 국민적인 관심사였고. 이때는 82개 후원사에 1조 502억 원의 후원금이었어요. 그런데 파리올림픽에서는 15개 후원사가 175억 정도밖에 후원을 안 했습니다. 저는 이 손해가 체육회보다는 선수들에게 가지 않았을까라는 가장 큰 우려가 듦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 기업들도 마케팅이 예년보다 대거 축소가 된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예상 밖의 선전을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기업에서 마케팅 효과를 미리 예측했으면 좀 더 나았을 걸이라고 후회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후에서야 신유빈 선수가 이런저런 광고도 찍고 그리고 오상욱 선수도 맥주 광고를 했지만 한편으로는 대한체육회가 마지막에 선수들이 입국했을 때 여러 논쟁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예측이 잘못됐다 정도가 아니라 저는 조금 어떤 점에서는 선수들의 상태를 별로, 혹은 선수들에게 해야 할 역할을 좀 해태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까지, 너무 큰 차이가 벌어진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좀 고의적으로 축소한 게 있지 않나라는 의심도 드는데 어떠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앞으로 좀 더 세심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제가 그렇게 의심했던 가장 큰 이유 중의 하나는 막상 2.6배에 달하는 13개나 성과를 거뒀을 때 그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체육회의 성과로 많이 자화자찬으로 가져가셨더라고요. 이를테면 해병대 캠프에 대해서도 과하게 평가를 하신다거나 그리고 한국 선수단 일냈다 하면서 이 부분에서 체육회의 역할을 너무 강조하는 것은 제가 가진 의심에도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데, 연임에 있어서 선수들의 성과가 꼭 회장님의 성과는 아니라고 저는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심을 깔끔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좀 제대로 된 해명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수 위원** 정몽규 축구협회장 소유의 원주 오크밸리 접대 골프 관련해서 추가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번 9월 24일 현안질의에서도 이기홍 회장도 좀 헛갈려 하셨고 앞서 강유정 위원도 조금 혼동한 것 같은데 사실은 오크밸리에서 골프 행사가 두 번입니다. 앞서 김병철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정몽규 회장 3선 승인 이후에 완전히 접대 골프 받은 것은 21년 초고, 또 다른 행사가 작년 4월 달에 있었지요? 오크밸리, 작년 4월 달에 똑같은 골프 행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23년 4월 달에?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날짜는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작년 4월 21일 날 원주 오크밸리에서 골프 행사가 있었고요. 이때 오크밸리에서 골프 행사하자는 것은 정몽규 회장이 먼저 제안한 겁니까? 누가 먼저 이야기를 했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골프는 저희가 워크숍을 하고 하니까.....

○**김승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오크밸리에서 워크숍 하는 것의 계기가 정몽규 회장이 골프 이야기를 하니까 여기에서 잡은 거예요, 아니면 대한체육회에서 먼저 날짜를 잡은 거예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희가 먼저 한 건 아니고요.

○**김승수 위원** 정몽규 회장이 먼저 했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정몽규 회장님의 먼저 하고.....

○**김승수 위원** 정몽규 회장이 먼저 골프 한번 하자고 이렇게 해서.....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초청을 하신 겁니다. 초청을 하셔서 우리가 그러면 경기단체장님들하고 시도 회장님들하고 같이 워크숍도 하고, 회장단 이렇게..... 그게 한 번에는 다 못 하니까, 물리적으로. 그래서 두 번인가 세 번 이렇게 나눠서 한 겁니다.

○**김승수 위원** 이때 그러면 회원단체 워크숍했다고 그랬는데 전체 회원단체들 다 참가 요청 공문을 보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밑의 실무들이 했는데, 저는 이렇게 초청을 하니까 의사를 물어서 그분들을 준비해라 이런 지시는 했습니다.

○**김승수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저번 10월 대한체육회 대의원 간담회 때 그렇게 대의원 중 한 분이 질문하니까 다 연락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가 실제 대한체육회 공문 이런 것들을 확인해 보니

까 29명이 참석한다고 행사표에는 돼 있는데 실제 공문 발송은 18건밖에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체육단체에다가는, 실제 회원단체 워크숍 있다고 해 놓고 연락조차 안 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추정을 해 보면 몇몇, 그러니까 이기홍 회장님 마음에 드는 체육회장들이 라든지 또 시도 회장들 이렇게 해 가지고 행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이목이라든지 여러 군데에 있어서 좀 보기에도 부담스러우니까 이 워크숍을 급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체육회 경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정확한 금액은 지금 모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니까 이것 이렇게 그냥…… 굉장히 큰 행사 아니에요, 사실 공식 워크숍 같았으면? 종목단체 회장들, 시도 체육회장들 다 참석한 행사인데 갑자기 급조된 행사다 보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건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게 지금 참석 대상 공문을 보냈는지도 모르고 예산을 썼는지도 모르고, 예산 썼습니다. 대한체육회 예산 계획서에 보면, 한 1300만 원 정도 쓴다고 당초 계획에는 돼 있는데 실제 집행액은 한 1100만 원 정도 소요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1박 2일로 한 거 아닙니까, 20일 날 가서 21일 날 운동하고?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말이 워크숍이지 20일 날 오후 5시에 모여 가지고 잠깐 현안 보고하고 나머지는 2시간 저녁 먹고 바로 그다음 날 아침에는 아침 먹고 그냥 골프 치는 게 워크숍입니까? 이게 무슨 워크숍입니까? 그냥 골프 치기 위해서 워크숍 행사를 급조한 거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1박을 했는데 방은 콘도에서 잤습니다. 콘도 비용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정상가로 하면 보통 50만~75만 원인데 지금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영수증 같은 걸 찾아보니까 인당 14만 원에 객실을 이용했습니다. 평일입니다만 그린피 얼마인지 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모릅니다.

○**김승수 위원** 주중에 정상 그린피는 25만 원인데, 이건 개인 부담이라고 회장들한테 했습니다만 19만 원 그린피 받았습니다. 회원들이 다 같이 동행했을 때 지원받을 수 있는 그런 가격입니다, 회원가가 아니면 맞지 않습니까? 이게 특혜받은 거지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회원 동반가를 적용받는다든지 이 그린피 할인 적용을 하면 명백히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앞서 강유정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것은 여러 판례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접대한 정몽규 회장이나 접대받은 대한체육회 임원이나 다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더 문제는 지금 정몽규 회장 4선 연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이기홍 회장님 지금 3선 연임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은 4선 연임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그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체육회장과 체육계 임원들을 접대한

거고 또 한편으로 이기홍 회장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3선 나왔을 경우에 자기 친위세력들하고 같이 한번 단합대회 하는 굉장히 좋은 명석을 정몽규 회장이 깔아 준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겠습니다만 실제 진행된 과정이라든지 행사의 내용을 보면 누구라도 그렇게 유추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잠깐 신치용 한국체육산업개발 대표님, 진천선수촌장 하셨지 않습니까?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신치용** 예.

○**김승수 위원** 얼마 전 2월 달에 기재부에서, 매년 2년마다 용역 계약하지요, 선수 유지관리 관련해 가지고?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신치용** 예.

○**김승수 위원** 특정 업체에 계속 몰아 주기식으로 불투명한 계약을 했다는 그런 지적이 있었고 그게 지금 기재부에서 문체부에 통보돼서 검찰 조사 중에 있습니다. 선수촌장으로 계실 때 선수촌 용역과 관련해서 외부 아니면 내부 외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신치용** 없습니다.

○**김승수 위원** 이 부분은 다시 또……

그러면 기재부에서 지적한 내용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보면 거기에 부정징후탐지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의 점검결과에 나타난 것인데, 진천선수촌 용역 계약은 매 2년 주기로 용역업체를 입찰하는데 특정 업체가 연 70억 규모의 시설관리 용역업체로 지속 선정되고 있다는 겁니다.

21년 선정 과정을 보면 평가위원 8명 중 6명이 내부위원으로 구성되었고 같이 경쟁했던 업체들은 대한체육회의 인력 계획대로 계획안을 제출한 반면에 선정된 업체는 오히려 대한체육회에 손해되는 그런 쪽의 인력 계획을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능력 평가에서 1등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기술표준원이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권리를 인정한 다른 업체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에서 입찰된 업체는 특정 업체에서 받은 인정만 인정해서 이렇게 경쟁업체에 하고 이 경쟁업체 인정은 불인정했다는 겁니다.

가격평가에서도 최하위 업체를 기술평가에서 역전시켜서, 기술평가는 대한체육회 정성 평가입니다. 그리고 입찰액이 공고액의 아주 근사치에 달해서 극히, 지극히 이례적이랍니다. 이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눈에 띄게 내부적으로 공모에 의한 용역 수주다 이렇게 지적이 돼서 지금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전혀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신치용** 예, 없습니다.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면 선수촌장만 하시고 이 용역 계약은 밑에 부촌장이나 아니면 다른 분들이 그렇게 다 하신 겁니까?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신치용** 저는 선수들 훈련하고 지도자하고 그쪽만 하겠다고 그리 해 가지고……

○**김승수 위원** 진천선수촌에 부촌장 직제가 생겼지요?

○**한국체육산업개발(주)대표이사 신치용**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여러 가지 주요 결재에 보면 부총장이 거의 다 전권을 행사하는 걸로 그렇게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여기 이런 아주 부당한 용역 계약 체결 과정에서도 아마 대표님은 선수총장 시절에 배제됐던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결과가 앞으로 나오겠습니다마는 명백하게, 지금 제가 이렇게 기재부의 문제점 지적한 걸 보기만 하더라도 누구라도 이건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앉아요. 됐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박지영 이사장님, 아까 제가 질의할 때 직권조사하겠다고 그러셨지요, 배드민턴?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민형배 위원** 제가 지난 2월 대의원총회 녹음파일을 입수했어요. 이걸 한번 들어 보시고 판단을 다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민형배 위원** 이정우 체육국장님, 함께 잘 들어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민형배 위원** (녹음자료 재생)

그러니까 김택규 협회장이 이사회에서 요넥스로부터 30%의 페이백을 받았다라고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은 뭐라고 뭐라고 해도 이미 내부적으로 다 알려진 내용이었어요. 직권조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 더 들어 보겠습니다.

(녹음자료 재생)

보조금으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페이백임에도 이게 공적 물품이라는 인식 자체가 아예 없는 걸 금방 아실 수가 있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맞습니다.

○**민형배 위원** 국장님, 이미 이런 내용들을 다 확인하셨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민형배 위원** 그래서 보조금법 위반이고 자체의, 협회의 기부 및 후원물품 관리 규정 6조, 7조도 위반한 것 다 보신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봤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이게 횡령·배임 가능성도 있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재물의 타인성이나 불법 영득 금지 이런 걸 보면 횡령이나 배임 가능성도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센터 이사장님, 국민체육진흥법 18조의3에 윤리센터의 조사 항목 뭐뭐 있는지 아십니까, 혹시? 라항 기억하십니까, 라항? 거기까지는 안 되시겠지요. 거기 보면 체육단체·경기단체 및 그 임직원의 횡령·배임 및 뇌물수수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보조금 및 지방재정법 제32조의4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 금지

위반에 관한 사항도 센터에서 조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김택규 협회장에 대한 직권 조사 잘 하셔야겠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직권조사 실시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리고 그 결과를…… 규정에 따라서 처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국장님, 국장님.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원래 9월 말까지 김택규 협회장에 대한 감사결과, 배드민턴협회의 감사결과를 저희들한테 보고를 한다고 그러셨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민형배 위원** 왜 아직까지 못 하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저희가 사실 김택규 회장에 대해서 문답을 실시하고, 원래 9월 26일 날 한 번 실시를 했습니다.

○**민형배 위원** 도대체 몇 번이나 그걸 거부하거나 안 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그런데 그 당시에 김택규 회장이 와서 문답을 공문으로 통보하지 않았다 그리고 자기는 피의자가 아닌데 왜 죄인 취급을 하느냐 하면서 문답을 거부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부한 다음에 전국체전 일정이나 오늘 국감 일정 때 문에 계속 문답을 미루고 있는데……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 이분이 이사회도 안 하고 이런 행정 절차에 응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이게 충만한 분이세요. 그러니까 이 협회를 사유화하고 자신이 공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체를 망각하고 계시는 건데……

제가 보기에는 문체부에서 그리고 센터에서 즉각적으로 이것 조사를 제대로 해서, 이걸 오래 끌면 끌수록 대한민국에 도움이 안 됩니다. 국민들도 지금 정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아마 오늘 이 국감을 보신 분들도 너무 어이없어 하실 겁니다. 하루빨리 종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공정하고 신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예.

대한체육회 이기홍 회장님, 이렇게 계속 배드민턴협회가 말썽이 나는 것을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배드민턴에도 프로가 필요한가, 프로로 전환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프로구단 같은 게 있고 그래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배드민턴의 프로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지금 그것은 환경이 여러 가지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저희가 체육회에서 앞서서 그것을 주도적으로 할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민형배 위원** 조건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현장에 다녀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배드민턴도 프로로 전환할 때가 왔다 이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기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정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인도네시아나 말레이시아 같은 경우는 지금 프로 리

그로 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그래서 실제 프로화가 되면 기존에 있는 실업팀들이 줄어들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 프로 리그가 되면 저희가 스포츠토토를 통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협회 측이나 아니면 연맹 측이랑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예, 그걸 하셔 가지고…… 이번 국감 때는 안 되겠지만 좀 중장기적으로 이것 연구용역이라도 해서, 그런 고민을 지금 해 줘야지 지금처럼 이렇게 놔두고 있으면 자꾸 이런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이 계속될 것 같고요. 이런 부조리도 계속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이걸 프로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할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조현재 이사장님, 아까 정액제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그러셨잖아요, 안세영 기념 체육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지금 출생지인 나주나 성장지인 광주에서는 요구가 꽤 있더라고요. 이번에 전용 구장을 하든지 아니면 종합체육관을 지어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좀 전문성도 있으면서 또 일반 동호인들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만약 나주나 광주 같은 곳에서 이런 걸 하겠다고 나서면 어떻게, 그 30억 정액은 지원하실 수 있는 거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은 저희가 자체 공모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은 경쟁률이 그렇게 아주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만약 하게 된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형배 위원 만약에 나주에서도 하겠다고 하고 광주에서도 하겠다고 하면 어느 쪽이 더 좋은 것 같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글쎄요, 그것은 저희들이 할 수가 없는 게요……

○민형배 위원 예, 말씀하시기 곤란하시겠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그 입지라든지 또 거리라든지 또 지자체의 어떤 능력이라든지 이걸 봐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이정우 국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어차피 이게 문체부 공모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어떻게 보세요, 서로 양쪽에서 하겠다고 그러면? 지금 이미 나주는 하겠다고 했고 광주도 그런 움직임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그것은 조금만 판단해 보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두 군데를 동시에 하기는 어렵겠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두 군데 동시에 하기에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민형배 위원 예, 그럴 필요도 없을 것 같고. 기왕에 안세영 체육관을 짓는다면 거기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미리 한번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어차피 이용대 체육관 있잖아요. 저것 아시지요? 화순에……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12년에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래서 아마 그런 지역민들의 열망이 꽤 있더라고요, 기왕이면 여기서 좀 그런 걸 해 보자. 그래서 생활체육 동호인들도 사용하고 가능하면 국제경기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좀 갖춰 보는 게 좋겠다 이런 의견들이 많아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정액 지원은 하시겠다고 하니까 문체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알겠습니다.

○민형배 위원 고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욱 위원 윤리, 박지영 이사장님이시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신동욱 위원 확인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올해 2월 29일에 배드민턴협회 김택규 회장 횡령·배임 신고가 최초로 됐는데 신고인의 명의가 도용됐다라는 이유로 각하됐다라는 사실이 하나가 있고.

작년 4월 7일에 이미 또 배드민턴협회와 요넥스와의 불공정 후원 계약 지적도 스포츠 윤리센터에 신고 접수됐는데 조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런 게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건 이유가 뭐였던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첫 번째 각하된 사건은요 제삼자가 신고를 했는데 그 삼자가 사건의 내용을 잘 모르고 신고를 취하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신동욱 위원 그런데 여기에 협회이사 4명의 서명이 담긴 사실확인서가 있고, 저 내용을 보니까 지금 저희가 논의하는 내용과 아주 유사합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맞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런데 사건 내용을 잘 몰라서 각하됐다는 건 무슨……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사건 내용을 잘 몰라…… 그러니까 신고인이, 사실은 체육계에서 내부고발이 어렵기 때문에 신고인이 제삼자를 통해서 신고를 시킨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사관은 그걸 모르고 전화를 계속해서 신고인한테 얘기를 하려 나오라고 했는데 계속 조사를 거부하다가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동욱 위원 그러니까 이 신고인이 협회이사 4명의 서명, 이 명의를 도용한 걸로 판단했다 이 말씀이신 거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아니요, 도용한 게 아니라 조사 원칙이 피해자나 신고인을 우선 조사를 하고 그다음에 참고인을 조사하게 돼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했는데 신고인이 조사에 미온적이어서 각하됐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취하 의사를 밝혔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그 과정은 잘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그때 좀 조사가 됐으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좀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아쉬움이 많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아쉬움이 있어서 사전검토 회의를 통해서 각하나 취하된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동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기홍 회장님, 조금 전에 올해 체육인대회 행사 규모를 문체부가 확대하라고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저희가 문체부 체육정책과에 확인을 했더니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문체부는 동 행사 규모를 확대하라고 한 바 없습니다’라고 왔고요. 그 경위를 쭉 받아 보니까 어쨌든 작년 12월에 대통령 참석 때문에 체육회가 행사 규모를 갑자기 좀 키운 정황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습니다.

사진 몇 장 한번 보여 주시겠어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 당시 행사 사진인데 오른쪽에 보면 굉장히 숫자가 많고, ‘문체부는 반성하라!’ 저런 구호가 등장을 하는데 제가 잘 납득하기 어려운 거는 대통령을 초대하는 행사에 저런 구호를 붙이고 써 놓고 하는 것은, 오른쪽 보면 행사 규모가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을 앞에 두고 어떤 정치적 압박을 좀 하려고 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1만 3000명이 모이셨다고 하니까. 이 자리에 문체부 관련자는 단 한 분도 오지 않은 것으로 그렇게 돼 있고.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이유는 지금 이런 행사를과 연결돼 있는 것이, 국가스포츠위원회 지금 추진하시잖아요. 그래서 국가스포츠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을 보면 위원장이 있고 위원이 기재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안부차관, 복지부차관, 이렇게 정부위원을 구성을 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좀 특이한 건 여기에 문체부차관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조금 궁금한 부분은 사실 거의 부총리급의 체육부를 지금 만들겠다는 생각을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말은 위원회인데 기재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안부차관까지 위원으로, 아래에 위원으로 두는 사실상의 공룡 조직을 만들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왜 걱정이 되냐 하면 지금 꾸리시는 대한체육회나 산하기관들의 규모나 이런 걸로 봐서도 도저히 이런 정도의 수준으로는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방만과 부패와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데 대체 이렇게 큰 규모의 스포츠위원회를 만들어서 또 심지어는 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까지 하는 이게 지금 추세와 맞다고 보시는지요? 이런 건 왜 구상을 하신 겁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희는 가장 기본적인 시작의 초점은 체육업무가 너무 여러 부처에 나눠져 있다, 그래서 이걸 한번 통합관리를 하는 그런 구조로 해야 협업도 되고.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고령사회로 들어가고 있고 또 인구감소라든지 여인, 청소년의 문제 이런 것들을 유아에서 어르신까지 통합관리를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건 조직이나 운영이 어떤 형태든 그것은 꼭 이렇게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뜻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신동욱 위원** 뜻은 알겠습니다만 이런 규모의 조직을 꾸린다고 해서 과연 지금 회장님이 생각하시는 어떤 효율적 체육행정이 되겠…… 지금도 문체부가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데 문체부의 관리가 쉽으시다고 독립을 계속 주장하고 계시면서 또 사실상 이런 규모의

국가기구를 만들겠다고 하시는 것이 저는 사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다고 느껴집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것은 저희가 꼭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쳐서 거기서 결정되는 방향으로 가는 거지 저희가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신동욱 위원**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이런 질문을 드리냐 하면 대한체육…… 아까 보여드린 체육회 행사도 그렇고 지난 총선 과정에서 모든 후보들에게 지방체육회를 통해서 동의서를 받으시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느껴져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뒤가 잘 맞지 않습니다. 지금 스포츠계의 독립성과 이런 것들을 주장은 하시면서 또 지금 회장님의 하시고 있는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부 문제 이런 부분에 좀 집중을 하셔 가지고 지금 잘못돼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 좀 바로잡으셔야 되는데 이런 것 하시느라고, 오늘 답변하시는 것도 보면 대부분 잘 모르겠다, 파악해 보겠다거든요. 그래서 저는 뭔가 앞뒤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런 부분에 당부를 드리고 싶어서 질의하였습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신동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수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이기홍 대한체육회장님을 비롯해서 오늘 출석한 증인 및 참고인 여러분 수고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어요.

이기홍 회장님께 한 가지 질문 겸 당부를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의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는 과정 중에서 어떤 선수 관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성적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옥에 티 같은 그런 문제점을 남겼고, 그래서 문제점으로 남겨졌다기보다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정말 잘 해결함으로써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진실로 또 진정으로 그런 어떤 우리가 체육 선진 강국이 되는 길로 나가는 좋은 기회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수현 위원** 그런 측면에서 그중에 하나 문제가 됐던 것이 국가대표 선수의 공적 의료체계를 잘 강구하는 것이 시급하다. 오늘 존경하는 김윤덕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 부분을 종합 정리를 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어쨌든 과학적이고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지요. 그런데 저도 오늘 사실 위원님들 질의를 들으면서 깜짝 놀란 것이 우리 진천국가대표선수촌 같은 경우에는 의과 부분만 상주 진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한의진료는 민간의료단체의 장비 및 의료 인력 협력을 통해서 의료 지원한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렇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현재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데 대개의 경우 선수들이라고 하는 게 의과뿐만 아니라 한의과의 어떤 필요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일 텐데요, 아까 조계원 위원님께서는 통계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만. 그런데 이것을民間의 어떤 의료 지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 이 문제는 국가대표 선수들의 의료 지원을民間 지원 형태로 의존한다는 것은 국가대표 선수 의료 지원에 대한 공익성, 의료 지원의 연속성과 책임성에 분명한 한계를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천장애인선수촌의 경우에는 2010년부터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촉탁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고 최소한의 의료진 인건비에 대해서만 공적 지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상주 의사가 없다는 것이지요. 아까 설명 보니까 12명 정도의 촉탁의료진이 오는 것으로 돼 있고, 아까 체육회장님은 한의의료의 경우에 촉탁의 형태로 주 1회 한의사가 방문 진료한다고 돼 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주 2회 정도는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이 문제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만족도가 높은 그런 의료 지원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또 한의진료는 상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에 한계를 보이는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 것이지요.

그다음에 세 번째 문제는 뭐가 있냐면 이렇게 부족하지만 그래도 평상시에 국제 경기를 준비하면서 필요한 건강 관리를 한의사에게 주치의를 맡기고 있다가 실제로 국제 경기가 시작되면 한의사는 팀닥터로 참여하는 것이 제한이 돼 있다고 그렇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수현 위원 그런데 사실 지속성의 측면에서 보면 선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주치의가 팀닥터로 활동하지 못하게 되면 경기력 향상에 또는 유지에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불문가지의 사실이겠고요. 이번 파리올림픽에서 안세영 선수가 바로 그러한 문제를 제기해서 논란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체육회장님께 결론적으로 여쭤봅니다.

진천국가대표선수촌에서 지원하는 한의진료에 대해 국가에서 공적으로 시설 및 장비, 인력을 제공해야 된다고 보는 데 대한 대한체육회의 입장. 두 번째, 이천장애인선수촌 의료 지원에 대해서도 선수들의 의료 접근성을 강화하고 의료 지원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만족도가 높은 의료에 대한 상설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 실행방안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대책. 세 번째, 지적한 대로 평소에 국가대표 개인에 대해 제일 잘 알고 선수가 원하는 의료진이 국제경기대회에 팀닥터로 참여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입장.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희는 인력만 확보를, 승인이 되면 즉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러니까 회장님 그런 문제를, 그건 누구나 그렇게 답변할 수 있는 문제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실행을 하는데 현재로서 어떤 문제가 있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책과 실행방안,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안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서 저에게 제출을 해 주시면……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또 그런 것들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국회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적극적으로 요청을 하셔야지 지금 현재 인력만 확충이 된다면 저희가 할 수 있겠다, 그것은 누구나 다 답변할 수 있는 이야기고 평소 열정이 넘치는 이기홍 대한체육회장님의 답변으로 저는 매우 소극적인 답변이다 이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하여튼 그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서……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현 위원** 방안을 마련해서 문제점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한계가 있으면 있는 대로 어떻게 하면 좋겠다 그리고 국회가 어떻게 좀 지원해 달라라고 하는 그런 방안을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원 위원**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질의하겠습니다.

조현재 이사장, 공단 직원은 복무규정이라는 게 있지요? 그래서 외부 출장 시 출장명령도 받아야 하고 출장 종료되면 지체 없이 출장 명령자에게 복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맞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그렇습니다.

○**김재원 위원** 출장복명서는 누가 언제부터 어디에 갔다는 기본적 내용 그다음에 출장지에서 누구를 만났고 누구와 논의를 했고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졌는지,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는지 등을 다 적어야 합니다. 공단 출장복명서 양식도 당연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공단은 올해 상반기에만 국내 출장 1362건 중 1163건, 즉 85%는 출장 결과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단 복무규정 해석에 문제가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공단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PPT 보시지요.

(영상자료를 보면)

규정에 따르면 출장자의 복명서 제출이 의무이지만 비밀에 속하는 사항 등이 있었을 때는 구두로 보고를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고 구두로 그동안 보고를 해 왔다는 것입니다. 비밀이라서 구두보고를 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다음 PPT 보겠습니다.

복명서 미제출 사례인데요. 일본 호텔과 유스호스텔 견학이 비밀인가요? 국내 청소년 수련시설 벤치마킹을 위한 견학이 비밀입니까? 어떻게든 변명을 해 보려고 뭐라도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본인들도 이게 비밀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말이겠습니까?

지난 10년 동안에 규정을 위반한 출장에 지급된 예산이 총 9153만 원인데 정말 심각한 것은 금액 문제가 아니라 10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직원들이 규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하는 조직문화 그다음에 규정을 지키라고 지시하는 그런 관리자가 실종된 조직문화 이런 것들이 정말 문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복명서 쓰고 안 쓰고, 국회에서 써라 마라, 국감 받아라, 지적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이게 문제가 아니라 규정 무시해도 누구도 신경 쓰지를 않는다는 그런 방만이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는지를 근본적으로 고민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지금 위원님 지적대로 출장에 대해서

복명 실적이 사실은 많이 떨어진 건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나온 자료는 좀 오래된 자료고요. 금년 상반기 중에는 국외 출장에 대해서는 100%, 34건인데 다 복명이 완료가 되었고요.

다만 국내 출장이 문제입니다. 국내 출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한 15% 가량만 복명이 되고 85%가 아직 복명이 되지 않았는데, 특히 세종시로 부처가 이전하면서 세종시로 출장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복무규정을 좀 개정을 해서 지금 복명 대상이라든지 방식 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개선해서 모든 직원들이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저희들이 철저하게 규정도 고치고 또 교육도 강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알겠습니다.

이사장이 2021년에 3년 임기 시작해서 지난 2월에 이미 종료된 것 알고 있습니다. 후임자 임명되면 곧 떠나실 텐데 그래도 마지막 소임이 후임자를 위한 개혁 발판을 마련한다라는 데 동의하시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김재원 위원 조직 전반의 방만을 진단하고 개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까지 문체부하고 협의해서 개선방안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계원 위원님과 박수현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건데요.

이기홍 회장, 경기력 향상과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수들의 다양한 니즈를 잘 아우르고 현실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지원을 하는 것이 체육회의 역할이다, 가장 큰일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선수의 니즈를 반영해서 선수촌 한의학 의료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국제대회 팀닥터도 파견을 하고, 이렇게 의료 서비스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위원 우선 선수하고 지도자 대상으로 수요조사부터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들고요. 여러 의견 들어서 검토해서 이달 말까지 개선방안 만들어서 본 위원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이기홍 회장님, 진천선수촌에 지금 한의치료서비스가 없다라는 점에 깜짝 놀랐습니다.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해주셨는데 이 부분 명심하셔서, 의원실에 이것에 대한 대안을 가져다 주실 게 아니라 당장 이행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임오경 위원 이정우 국장님에게 질의할게요.

최근 문체부가 대한체육회에 후원사 독점공급권 수의계약을 중단하라는 공문을 보내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보냈습니다.

○**임오경 위원** 불과 작년만 해도 문체부는 후원사 수의계약 전용이용권 설정 관련 저와 이채익 전 문체위원장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수용적인 입장이었고 당시 조용만 차관도 법안소위에서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이 내용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문체부가 승인해서 4년 동안 진행한 독점공급권 종료가 겨우 3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중단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최근 국감 과정에서 법령 위반사항을 뒤늦게 인지하였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기습적인 중단 통보로 인해서 지금 현장에서 엄청난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건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초창기에 좀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전국체전이 그저께 끝났나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지난주 목요일 날 끝났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지요? 당장에 KBS와 계약자인, 독점계약 중계를 취소할 경우 체육회의 손해배상은 수억 원 이상 발생하는 건 알고 계셨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제가 KBS한테 그 얘기 들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래서 이러한 피해는 국민체육기금으로 배상할 텐데 문체부는 무슨 생각으로 일방적 중단 통보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그런데 KBS 계약은 수의계약이 아니라 2년 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거라서 저희 수의계약 중단한 것이랑 사항이 다른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또 대한체육회는 문체부 통보를 어기면서 중계방송을 진행했습니다. 국장님, 이것 징계 줄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위원님,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것은 저희 수의계약이 아니고 2년 연속 계약을 한 거라서 저희가 법령상으로 하지 말라고 한 거랑 성격이 다른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러면 하나 더 또 말씀해 볼게요.

당장 내년에 1월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그리고 2월에 동계아시안게임 비행기 티켓과 선수단복 구입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항공권 구매는 입찰에 최소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임오경 위원** 대표팀 단복 경우 디자인부터 제조까지 보통 한 6개월이 걸리고. 그런데 이것을 독점 중지를 하라, 독점공급권 수의계약 중지를 하라고 하면 이것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유예기간을 좀 줘서 앞으로 대한체육회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정조치하게 해 주는 게 더 낫지 않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결국 문체부하고 대한체육회의 문제지만 이 모든 피해는 현장에 있는 사람이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저는 대한체육회가 잘했다 문체부가 잘했다 이 말을 드리는 것 절대 아니에요. 유예기간을 충분히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장에 독점공급 중단해라, 왜 이

렇게 하는지 좀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 있는 지도자, 선수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좀 더 유예를 주셔서 점차적으로 하나하나 문체부가 원하는 절차에 의해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세심히 챙겨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꼭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조현재 이사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비인기 종목 저변 확대를 위해서 노력하는 체육진흥공단의 운영 철학과도 맞지 않고 낮은 처우에도 불구하고 공단 소속이라는 자부심으로 버텨 온 지도자들과 선수들이 지금 고초를 겪고 있어요. 알고 계시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요즘 갈등이 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임오경 위원 제가 알고 있는 걸로는, 제가 체육진흥공단 비상임이사 겸직을 예전에 했었어요. 그런데 공단 같은 경우는 계약금이 없는 선수들, 실력이 좀 낮은 선수들을 영입해서 성적에 우선하지 않고 비인기 종목을 육성하는 차원에서 팀을 운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것하고 맞지 않게 지도자 평가기준을 70점 미만인 사람은 재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다,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그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지도자들에 대한 성과평가에 대해서는 2015년 9월 4일에 이미 전 코치·감독, 지도자들의 동의를 얻어서 매년 성과평가를 해 오고 있는 사항입니다.

○임오경 위원 아니, 그러면 좋은 선수를 영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야지요. 다른 팀들은 계약금까지 해서 역대 연봉을 받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많은 종목이 있지만 마라톤 선수 1명을 얘기한다면 2800만 원이에요, 최고 선수가, 제일 낮은 선수가. 그런데 이런 제일 낮은 선수들을 데려다가 지도자 평가시스템이 70점 미만일 경우 재계약을 안 한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의 구조를 바꿀 때는 평가시스템 구조와 함께 선수들을 영입할 수 있는, 최저 연봉 선수들, 낮은 선수들을 같이 균형이 맞게 변화를 좀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려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지금 5개년 계획을 해서, 우리 선수단의 연봉을 점차적으로 큰 폭으로 올리는 5개년 계획을 잡아 놓고 있고요. 계약금 부분도 지금 전혀 하지 않는 건 아니고, 저희 선수단 예산이 문체부의 승인을 받게 돼 있는데 좀 열악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그것도 조금 더 늘려서 좋은 선수가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공단에서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되어 있는 것 알고 계세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월급 자체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또 근로자 주말 및 휴일수당이 여지껏 지급된 적이 없어서 근로기준법상 광의의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노동청에서 그렇게 말을 했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지금까지 지도자들이 휴일수당에 대해서

청구한 적이 한 번도 없었고요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노동청에서 지금 양쪽 의견을 듣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이 잘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훈련수당을 지금 10년, 20년 넘게 지불하지 않았는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신청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임오경 위원 그런데 지금 주말에 이 수당을 줄 수 없으니 주말에는 그러면 대회 나 가지 마라 이렇게 표현한 적 있으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런 말은 나와서도 안 되는 겁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그런 적이 없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체육진흥공단은 그래도 비인기종목 육성해서 잘 운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접수가 됐다라는 그 자체가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성과평가의 개선 과정에서 이런 부분이 같이 터져 나왔기 때문에, 비인기 종목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우리 선수단이 자부심을 가지고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 부분 잘 참고해 주시고요.

이기홍 회장님,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한겨울 기온이 영하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이전 전까지는,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임오경 위원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대표팀 훈련시간이 끝나 버리면 완전히 영하로 떨어져서 초중고 선수들은 정당한 사용료를 지불하고도 추위에 떨면서 훈련한대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다시 점검을 좀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빙상 같은 경우는 실내 온도가 무릎 밑으로 0°C고 무릎 위로는 13°C가 유지돼야 돼요. 그런데 대표팀 훈련할 때는 이것을 유지시켜 주고 대표팀 훈련이 끝나면 초중고, 실업팀 훈련할 때는 추운 빙판에서 운동을 하게 한대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이것 다시 검토하셔서……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점검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여기서 부상이 오는 유소년들은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런 것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돈을 정당하게 지불하고 사용하는데 추위에 떨면서 훈련하고 있는 꿈나무들에게 이런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임오경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 마지막 순서로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이기홍 회장님 오랜 시간 고생 많이 하십니다.

저는 지난달부터 해서 지금까지 한 달여간 우연한 기회를 통해서 이기홍 회장님이 순간순간 많은 거짓말을 통해서 체육회장이 아니라 체육대통령으로서 권력을 늘려 가고 오

히려 정치를 하면서 조직을 사유화해 간다라는 것을 확인해 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어디까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내일모레 종감 때 마무리하면서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앞서 오주영 회장이 답변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대의원총회에서 국정농단을 언급하면서 ‘내 말을 듣지 않는 대통령이 탄핵을 당했다. 체육인의 말을 무시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런 발언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그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런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런 취지는 아니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시간 없으니까 거기……

그러면 어떤 취지였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때 2016년……

○**박정하 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빨리 해 주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2016년 국정농단 때와 유사하다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유사하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유사하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체육인의 말을 들어라 이 얘기예요? 그게 정치지 뭐.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제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 취지는 아니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됐어요,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신동욱 위원님, 강유정 위원님 얘기하신 올 초 체육인의 행사에 앞서서 문체부가 쾌嚓하다, 시도 체육회장님들한테 몇 분씩 할당하면서 많이 모여 가지고 강하게 보여 줘야 한다 이런 취지의 얘기가 있었다고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전혀 없었다 이거지요?

그다음에……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시도나 시군 회장님들이 좀 자세히 해 드려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박정하 위원** 그다음에 앞서 제가 오전 질의에서 여줬던 것처럼 김승수 위원님 질의에, 작년 국정감사에 테니스협회장 세 분 출마한 건이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고발됐다고 하면서 회장선거를 스톱시켰어요. 그때 당시에 세 분이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됐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나요, 아닌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제가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아까 위원님 말씀 후에.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주원홍 회장을 윤리센터에 신고한 게 아니고 그 후임인 정희균 회장님을 스포츠센터에 신고해서 조사 의뢰를 했던 겁니다.

○**박정하 위원** 왜 오전에는 다 아니라고 계속 말씀하시더니 이제 와서 답변이 바뀌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이게 너무, 그때 당시 김승수 위원님께서, 감사원에 여야 위원님들이 합의해서 또 고발조치도 있었고 그래 가지고 모든 게 혼재돼 가지고 제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회장님, 제가 그 건에 대해서 한 3분 정도 계속 몇 번에 걸쳐서 여쭤봤는데 계속 아니라고 하더니 이제 와서……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죄송합니다. 제가 혼동을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그것마저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 다시 기억을 분명히 두세요.

작년 10월 24일 국정감사 당시에, 지금 인지하고 계셨다고 말씀하세요, 혼동했다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 입후보했던 세 분은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되지 않은 상황을 이때 알고 있었다 그 말씀인 거지요, 잘못 얘기하셨다? 맞아요, 틀려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 그때 당시는 제가 좀 혼동이 있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회장님이 정리를 좀 해서 말씀해 주세요. 왜 그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 왜냐하면요 그때 서로 고소고발한다. 또 윤리센터에……

○**박정하 위원** 아니,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제가 좀 혼동을 한 겁니다.

○**박정하 위원** 자꾸 늘리는 것도 이제 위원장님께 죄송해요.

작년 10월 24일 당시 이기홍 회장님은 세 분이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이 됐기 때문에 이 선거 계속하면 안 된다고 답변하셨어요. 그때 당시에 세 분이 고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정확히 못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때는 못 했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좀 전에 답변하신 것과 또 다르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 그러니까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그것 언제 아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고 나서 기록을 갖다가 지금 다 살펴봤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1년 만에 기억이 갑자기 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박정하 위원** 좀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또 달라요.

그때 당시, 10월 24일 당시 고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계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때는 몰랐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때는 몰랐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언제 아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까 정확하게 자료를 다 확인하고……

○**박정하 위원** 자료가 어디 남아 있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어떤 자료 보셨어요? 그 자료 저한테 좀 제출해 주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회의록하고 저희 내부 자료.

○박정하 위원 어떤 회의록?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위원님 말씀하셨던 국회 회의록하고……

○박정하 위원 국회 회의록에 그런 얘기 없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어떤 부분이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회의록하고 저희 내부 자료.

○박정하 위원 그렇다면 그 자료 지금이라도 좀 주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이 이후에 테니스협회 정상화하자고 하면서 11월 그리고 금년 2월 협회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하시면서, 그때 또 역시 세 사람이 고발돼 있으니까 선거하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그건 맞아요, 녹취록도 있고 음성도 있으니까, 그건 인정하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인정합니다.

○박정하 위원 그때는 세 사람이 고발돼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인지하고 계셨던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때 저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착각했다는 것이……

○박정하 위원 아니……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러니까 고발도 고발이지만 우선적으로……

○박정하 위원 아니, 길게 말씀하시지 말고. 회장님의 그렇게 이것저것 섞여 가지고 혼동스러웠을 수도 있다고 저도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쭙는 것은 세 가지 시점이 있어요. 2023년 10월 24일 김승수 위원이 국감에서 질의했을 당시 그 사실을, 그러니까 입후보한 세 분이 고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 이후 11월 달에 테니스협회 관계자들하고 간담회 하면서 그 사실을 인지했느냐 안 했느냐, 그때는 왜 그렇게 얘기했느냐? 그것 어느 시점에 깨달았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오늘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박정하 위원 말씀해 보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세 가지 문제점을, 그 자료를 지금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지금 주세요, 지금 주시고. 그것 누가 좀 전해 주세요.

제가 재보충질의 안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은 조금 이따 저거 보고 난 다음에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저거 보고 나중에 마저 다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칠게요.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리고 재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들이 여러 분 계십니다.

질의시간은 답변시간을 포함해서 3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박지영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님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취임하시고 나서 두 달 뒤인 3월에 스포츠윤리센터가 수의계약을 하나 합니다, 2100만 원짜리. 직원 채용 일부 대행에서 인크루트라는 회사하고 6명을 뽑는 계약을 2170만 원에 하셨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이기현 위원** 왜 하셨어요, 그 이전에 안 하셨는데?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그 이전에 안 한 게 아니라 제가 1월에 취임했고요. 그 다음에 설립 초기 채용에 관해 불공정에 관한 그런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래서 외부기관에 맡기셨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그래서 국가계약법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라서 비교 견적을 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는 3000, 한 군데는 3500 그다음에 한 군데는 2000 이렇게……

○**이기현 위원** 시간이 없어서요, 그런 금액까지는 지금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인크루트 서미영 대표님하고 연세대학교 동문이시더라고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이기현 위원** 그럴 수 있지요. 우연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오해의 소지는 있지요, 왜냐하면 윤리센터이기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이기현 위원** 더 조심해야 하는 곳이 윤리센터입니다. 체육의 공정성 확보 및 체육인의 인권보호에 기여하는 것이 윤리센터의 기본 목표입니다.

홍보대행사하고 하나 계약을 하셨는데, 아스파린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라는 회사에 홍보대행을 맡깁니다. 이 계약 금액이 4600만 원인데, 24년도. 이 회사는 스튜디오 렌털이 주업무이고 그렇습니다. 렌털업무가 주업무인 업체하고, 홍보대행을 맡기셨는데, PPT 한번 띄워 보시겠습니까?

(영상자료를 보면)

1월부터 10월 20일까지 해서 열 달이 지났는데 유튜브 6건, 조회수 377회, 유튜브 쵸츠 5건, 인스타그램·페이스북 똑같이, 연동이 됐으니까 24건, 똑같지요. 이게 실적 다입니다. 저희 방의 직원 혼자가 이를 정도 하는 성과물일 겁니다. 저걸 위해서 윤리센터가 저정도 예산을 집행하셨다? 저는 경영적 측면에서 보면 예산을 굉장히 낭비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아픈 얘기 좀 드릴게요. 제가 이사장님에 대해서 아픈 얘기 좀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가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된 조직입니다. 더 잘해 주시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좀 드린다고 생각하시고요, 이해해 주십시오.

스포츠윤리센터를 제가 보니까 초대 이사장이지요, 초대 이사장 이숙진 전 여가부차관, 2대 이사장 이은정 전 치안감, 둘 다 여성분이었습니다. 이 두 분들은 다 기관장 경력들이 있으신데 제가 센터 이사장님 경력을 보니까 선수생활 하시고 심판 한 것 제외하고는 부위원장, 부본부장, 위원이 이사장님의 주요 경력이었어요.

제 얘기의 핵심은 뭐냐 하면 기관을 운영해 보신 경력이 그렇게 많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스포츠의 공정과 인권침해가 사회적 이슈인 지금 가장 큰 기관을

맡으셨어요. 그래서 이사장님께서 더욱더 조심하시고 더욱더 정진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 말씀 오해 없이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더 하나 아픈 얘기하면 19년도 광주에서 수영대회 있을 때 그때 징계받으신 적 있지요, 자격정지 3개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이기현 위원** 그리고 또 소송해서 무효 승소 받으셨어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맞습니다.

○**이기현 위원** 그것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수영연맹이 저렇게 대회를 앞두고 갑자기 업체를 무리하게 바꾸는 행정적 난맥상으로 인해서 추후에 들어온 업체의 이름도 쓰지 못하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 국제대회에 매직으로 저렇게 수영 모자에 ‘코리아’라고 쓰고 가는 춘극이 벌어졌고 국제적 망신으로 여러 번 언론에 회자된 적이 있습니다. 이것 관련돼서 수영협회의 많은 임원들이 징계를 받았고 근신하고 있습니다. 또 비록 소송을 통해서 징계 무효를 받아 내셨지만 수영협회 전 본부의 간부들은 이 문제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수영협회에서 이런 일이 있으셨을 때 간부로, 부회장으로 계셨더라고요. 그래서 이 수영협회가 있었던 19년 광주대회에서의 책임 그리고 아까 제가 지적한 두 가지의 경영적 미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감사와 조사업무를 평생 해 보신 적이 없는 분이 경찰 출신 그리고 부처 차관이 하셨던 조직의 이사장으로 지금 와 계신 겁니다. 체육회의 많은 분들이 이사장님을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의 많은 직원들이 이사장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사님께서 더욱더 정진하시고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인식하시고 업무를 추진해 주십시오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위원님, 한 말씀만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기현 위원** 예, 하십시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저는 선수 출신으로서 그다음에 심판 그다음에 행정 부문의 체육계에서 다양한 활동을 해 왔습니다. 꽤 오랫동안 활동을 해 왔고 또 국제심판으로도 활동을 해 왔습니다.

광주세계선수권 문제는 제가 무리하게 그걸 교체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바꿨다는 것은 이사회에서, 안세영 선수의 운동화 문제같이 선수들에게 꼭 필요한 용품을, 연맹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선수들의 경기복만큼은 선수들이 선호하는 경기복을 입을 수 있게 해 달라고 이사회에 그런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주장에 대해서 이사회에서 부결됐다고 해서…… 이사회에서 오히려 그 선수들을 위해서 주장하는 것은 저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스포츠윤리센터에서도 체육인으로서 선수와 체육인의 권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종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종오 위원** 윤리센터 이사장님, 이사장님 지난 현안질의 때 태백시체육회장 폭언 및 갑질 논란 기억하십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진종오 위원** 태백시체육회를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지도해야 되고 그리고 관리감독할 강원도체육회가 감사 진행했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진종오 위원** 했는데, 제보에 따르면 강원도체육회가 피해자들 진술을 수렴하지도 않고 심지어 류철호 회장하고 가까운 모습을 보이면서 조사 과정에 공정성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한체육회가 지시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체육회의 관리감독이 부실하게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저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24일 날 태백으로 조사를 갑니다. 저희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좀 더 신속하고 공정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현재 태백시체육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게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는 직장 내 괴롭힘이고요, 또 2차 피해 가능성이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가해자랑 피해자 분리 조치했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가해자가 매일 출근해서 피해자들 만나고 있을 상황에서, 가해자는 현재 신고자를 찾고 있고 매일같이 협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일모레 가신다고 하셨으니까 윤리센터에서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해 주시고 이사장님, 아까 존경하는 이기홍 위원님 말씀처럼 윤리센터가 이 정도 일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확실하게 보여 주시길 바랍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이기홍 회장님, 질문 좀 하겠습니다.

이기홍 회장님 24년 1월 1일 류철호 회장님하고 새벽 5시 동해 해돋이 참석하신 거 맞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진종오 위원** 그때 말씀하시기로는 비공식 행사라고 말씀하셨지요, 저에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닙니다. 제가 거기 가게 된 것은……

○**진종오 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비공식 행사라고 저한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현안질의 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 원래 가게 된 동기는 삼척시장님께서 새해에 인사말을 좀 해 주면 좋겠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가게 됐던 겁니다.

○**진종오 위원** 그게 결국은 공식이었습니까, 비공식이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건 공식이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래서 그건 삼척시가 공식인 거고, 해돋이 간 것은 삼척시장이랑 동행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닙니다.

○**진종오 위원** 아니지요? 그것은……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러니까 새벽에 그 행사를 마치고 제가 태백산 등산을 간 겁니다.

○**진종오 위원** 태백산 등산을 가셨는데 거기에 류철호 회장이……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거기에 왔었던 거예요.

○진종오 위원 함께 했지요, 자리를?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요, 왔더라고요.

○진종오 위원 거기를 왔더라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진종오 위원 회장님, 그러면 태백시체육회장은 공식 일정이라고 약간 거짓말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건 공식은 아니었습니다.

○진종오 위원 공식이 아니었다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태백산에 간 건 공식이 아닙니다.

○진종오 위원 그렇지요, 비공식인 거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진종오 위원 그런데 비공식에도 불구하고 태백시장이 공식이라고 일부러, 약간 과장된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회장님, 시도 체육회장들이 직권을 남용하고 있고 진실을 덮으려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회장님께서 약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철저히 관리감독해 주시길 바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알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그리고 또 추가로 잠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장님, 대한체육회 이름으로 법률자문하는 거 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진종오 위원 법률자문료는 누가 지불하는 겁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자문료는 체육회에서 내지요.

○진종오 위원 체육회에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진종오 위원 정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회장의 지시에 따라서 체육회의 비용으로 나가는 거 맞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정무적인 건 아니고 체육회에 반드시 필요한 것들을 자문할 때……

○진종오 위원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진종오 위원 그러면 법률자문 의뢰한 결과 보면, 회장님의 연임을 위한 법률자문이 여러 건 발견돼서 이것을 말씀드립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요청서, 자료 보이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진종오 위원 41대 회장으로 당선된 이후에 3월 21일 국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는 사람은 대한체육회장 피선거권 제한의 법률자문을 받았고요.

당시 총 4명의 후보가 등록했는데 이종걸, 유준상 2명의 후보가 국회의원직을 역임한 후보였습니다. 그리고 본인과 경쟁 후보자의 약점을 공격하고 피선거권을 제한하기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의심이 되고 있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이때는 선거가 끝났을 때 일 겁니다.

○**진종오 위원** 선거가 끝났는데요, 제가 또 다른 자료 하나 보여 드릴게요. 두 번째 자료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추가로 올해 3월 4일 3선 연임을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왜 이러냐면 공적 기관을 이용해서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했던 부분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국회의원직을 수행했다고 해서 대한체육회장선거의 피선거권을 원천적으로 막으려고 한 반헌법적 가치관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회장님, 공적 그리고 체육회를 위해서 법률자문을 받은 게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이?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진종오 위원** 자세히 모르신다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

○**진종오 위원** 법률 자문을 회장님이 직접 지시하신 부분인데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제가 일일이 그것 다 못 합니다.

○**진종오 위원** 일일이 못 하신다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진종오 위원** 그러면 확인한 다음에 말씀해 주시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진종오 위원**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스포츠, 체육계 변화와 혁신을 바라고 있는 상황이고.

회장님, 한번만 좀 뒤를 돌아봐 주시겠습니까? 무엇이 문제인지 그리고 국민들이, 체육인들이 정말 바라는 게 무엇인지 한 번 더 좀 듣고, 귀 기울여 들어 주시고 판단해서 행동으로 옮겨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이런 걸 말씀드렸고요.

오늘 좀 늦게까지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이기홍 회장님, 앞서 크리켓단체가 준회원단체라고 했는데 확인해 보니까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준회원단체였지만 지금은 탈락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플래그풋볼, 라크로스단체도 대한체육회 가입은 진행 중이지만 회원은 아니고.

처음에 가입하면 인정단체로……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인정단체입니다.

○**조계원 위원** 인정단체에 대해서는 지원이 안 되고 준회원단체부터……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준회원은 일부.

○**조계원 위원** 준회원단체 그때부터 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준회원단체가 되기 위해서는 시도에 4개 이상 등록단체가 되어야 되는데 아시안게임의 경우에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외입니다.

○**조계원 위원** 1개더라고요. 그 정도 조건으로 완화가 되면 그래도 올림픽 출전 종목에 대해서 연습을 좀, 자원자 이런 게 들어날 수 있겠고……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것은 이제 올림픽에 가기 때문에 예외규정을 적용한 겁니다.

○**조계원 위원** 이건 정관 개정 사항인데 알고 계십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회장님 임기가 얼마나 남으셨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4개월 남았습니다.

○**조계원 위원** 임기 전에 정관 개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하여튼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에 국민체육진흥공단 조현재 이사장님.

화면 좀 부탁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사업 올해 1000억 원을 넘으셨더라고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죽 살펴보니까 예산이 2021년부터 계속해서 대폭 증가해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 291억에서 출발했던 게 1058억 사업이 됐는데요. 그런데 실제 예산이 늘어난 만큼 지원 대상자들의 참여율은 신통치가 않더라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인원도 늘어나고 또 예산도 늘었다 보니까 가맹점을 확대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조계원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이걸 쓸 수 있는 카드가, 스포츠바우처카드 하나만 결제수단으로 지정되어 있는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전용 카드도……

○**조계원 위원** 이용자 불편이 커졌기 때문에 저조하지 않은가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꼭 그것 때문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그런 이유도 좀 있을 수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이용자 불편을 최소화해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반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도 확대해서 가맹점에서 현장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면, 결제 채널을 그렇게 다양화시키면 잘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검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리고 다음 PPT 부탁합니다.

스포츠강좌이용권의 사례들을 보면 2021년도, 2022년도에는 부정·불법 이용 사례, 불성실 사용 건수가 별로 없었는데 2023년도에 755건으로 대폭 늘어나더라고요, 확정 건수도 160건이 되고.

부정수급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이런 것 중복 수혜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요 2025년 1월부터 저희가 복지부하고, 사회보장정보시스템하고 우리 스포츠강좌이용시스템 간에

연계를 요청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 연동시스템도 강화할 필요가 있겠지만 일단 자체적으로 부정 수급 차단 모니터링 이걸 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와 관련된 예산을, 시스템 개선에 필요한 예산도 좀 별도로 세워서 대책을 수립해 주시고 사회보장정보원 등과도 협의를 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다음에 스포츠윤리센터 박지영 이사장님.

PPT 부탁합니다.

본 의원실에서 확인해 보니까 2022년 5월부터 지난 7월까지 1380건의 신고 건 중 조사 완료는 1069건이고 이 중 징계 요청은 240건 그리고 더 심각한 것은 징계 등 조치가 마무리된 건은 불과 71건입니다. 사실상 5% 정도밖에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인데 알고 계신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조계원 위원 그리고 특히……

다음 PPT 부탁합니다.

자료 보시면 성폭력·성추행 보이시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조계원 위원 특히 성폭력·성추행, 횡령·배임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사회적으로도 상당히 엄중하게 보는 문제들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조치나 조사가 상당히 부실한 것 같아요. 이 부분 좀 조사를 강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조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재수 위원장, 박정하 간사와 사회교대)

○조계원 위원 그런데 조사를 강화하려면 제대로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2020년 8월 설립 이후의 조사관별 채용 경력을 확인해 보니까요 조사관 22명 중에 전문계약직인 퇴직 경찰관 출신 전문조사관 8명을 제외한 14명 조사관은 조사·수사·감사 무경력자가 5명이나 되더라고요. 이 문제 알고 계십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알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알고 계세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조계원 위원 그러면 현재 센터 조사 인력은 2개 팀에 22명이 근무하고 있고 이 중 9명은 5곳의 지역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지요?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조사 나갈 때 1명이 나갑니까, 2명이 나갑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2명이 나갑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지역사무실의 경우 2명밖에 없는데 2명이 조사 나가면 사무실 운영에 공백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그래서 지금 신고 접수는 다 본원의 상담을 통해서 신고 접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일단 조사 인력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사업무와 무관한 무경력자들도

있고 그리고 조사 인력도 태부족이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사 자체가 아까 얘기했던 5%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문제의 대안을 좀 생각해보신 게 있습니까?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예전에 너무 수사했던 분들만, 수사했던 경찰들만 채용을 한다고 해서 이제 체육이나 또 법쪽 전공이 있는 분 그다음에 수사 경력이 있는 분으로 채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조사관들은 그렇게 채용하고 또 전문조사관들은 수사 경력이 있는 그런 조사관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사관과 전문, 그러니까 수사했던 분들과 일반인들을 일대일로 매칭해서 조사 를 나가도록 지금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일대일로 해서 처음에 들어오면 한 3개월간 조사를 배우도록 시킵니다. 그런데 조사관 1명한테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명에서, 부임한 다음부터 돌아가면서 배우게 하고, 또 조사 매뉴얼이 처음에 만들어진 이후에 개정된 것이 없기 때문에 지금 개정하고 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국감 전까지 어떻게 조사 인력을 보강하고 무경력자 문제에 대해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 문제하고 인원 문제, 지금 공백 상태를 해결하는 방안을 말씀은 주셨는데 같이 함께 해서 종합적으로 국감 전에 의원실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계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조계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유정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강유정 위원** 이기홍 회장님한테, 21년 도쿄올림픽 때 미국 체조선수 시몬 바일스라고 아시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강유정 위원** 불안 증세로 개인종합 결선 진출을 아예 포기하는 일이 있었는데 올림픽에 출전한 엘리트 선수들의 정신건강, 당연히 신체건강 문제야 운동선수니까 우리가 다 공감하지만 정신건강 문제가 이때부터 대두돼서 IOC에서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때부터는 심리상담 전문가를 올림픽에 파견하라는 방침이 생겼잖아요?

(영상자료를 보면)

그래서 파리올림픽 기간 동안 대한민국 선수단 심리검사 얼마나 받았나 한번 봤더니 20건이더라고요. 보니까 전체 선수가 144명이었던 걸 보면 13.8%가 심리적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아시겠지만 부담감, 경기 중의 불안, 코치와 선수단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 안세영 선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주를 이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번에 파리에 스포츠 심리전문가를 14명 파견했고 그리고 비올림픽 기간에도 심리전문가 15명이 배치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난해 봤더니 1200명 넘는 미국 대표선수가 5500회 이상의 심리상담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는 또 심리전문가가 온라인상의 협오 발언, 우리로 따지자면 악성댓글 같은 거겠지요. 이런 댓글과 괴롭힘으로부터도 선수를 보호하는 업무를 하고 또 파리까지 파견을

했다고 하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물론 최소 선수단으로 최다 금메달 기록을 세우기는 했습니다만 안세영 선수 얘기는 아주 대표적인 하나의 증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심리적인 이상 문제, 그러니까 물리적 문제에서 비롯되었지만 심리적 문제까지도 좀 봐 줘야 하고. 한편으로 우리가 돌봐 줘야 될 책임이 좀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체육회가 선수들의 정신건강 어떻게 관리할 건지 좀 구체적인 대안을, 단순히 다른 나라 정도를 따라가는 수준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8위라면 8위에 걸맞는 그런 정신건강 시스템 관리에 대한 대안 혹은 어떻게 할 것인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출해 주셨으면 합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정하** 강유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승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앞서 진천선수촌의 계약 관련 비리 의혹 이야기했습니다. 계속 대한체육회 비리 의혹 좀 짚어가 보겠습니다.

앞서 진천선수촌도 70억 정도 수주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대한체육회의 계약 목록을 전수조사해 보니까 특정 업체가 유독 눈에 많이 띕니다. 3개 특정 업체가 무려 70억 원의 계약을 맺었는데 그 업체가 보면 더브릿지컨설팅, 이움크리에이티브, 임팩트퍼스트입니다. 이기홍 회장님, 아는 업체가 있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없는데요.

○**김승수 위원** 더브릿지컨설팅은 5년간 32건에 39억, 이움크리에이티브는 16건에 13억 또 임팩트퍼스트는 18건에 16억입니다마는, 액수는 크지 않다면 크지 않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굉장히 건수가 많아요.

그런데 또 특이한 게 유독 재공고해서 유찰 이후에 수의계약으로 입찰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움크리에이티브는 총 16건 중 7건이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이었고 또 더브릿지컨설팅은 32건 중 12건이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이고 임팩트퍼스트는 18건 중 6건이 재공고 유찰에 따른 수의계약입니다.

(박정하 간사, 전재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와 관련해서 제보가 있었는데, 지난 4월 제보에 따르면 국가대표 지도자 성과평가 용역이 당초에 진행됐습니다마는 이 용역이 갑자기 취소되고 내부 결재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대신에 국제대회 성과평가 용역이 들어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뭔가 상황이 좀 정상적이지 않다 해서 확인해 보니까 역시 더브릿지컨설팅이라는 업체가 수의 계약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앞서 원래 진행하기로 했던 국가대표 지도자 성과평가는 연기돼서 23년 9월 달에 다시 공고가 됐어요. 그런데 이 당초 계약이 취소되고 재공고 유찰돼서 다른 계약이 들어가는 과정에서 체육회 직원과 용역업체 간에 긴밀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 발주 전에 공고 일정, 필요 서류 등을 알려준다 이런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 일감 몰아주기가 내부 직원의 공모하에 이루어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조현재 이사장님, 지금 경륜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김승수 위원** 오늘 업무보고를 보면 2023년 경륜 매출 실적이 1조 3075억 원입니다. 그런데 올해 계획, 목표는 2023년도보다 더 준 1조 2000억입니다. 경륜 수익이 줄어들고 있는 이유가 뭐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경륜 매출이 아마 가장 높았을 때는 90년대 말에 2조를 돌파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년 조금씩 내리막을 걷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경륜 매출이 이렇게 줄어드는 것은 아마 일단은, 저희들은 정확한 과학적인 데이터는 없겠습니다는 아직 불법 스포츠 도박이 만연됨에 따라서 그쪽으로 많이 빠져 나가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점차 매출도 줄어들고 있고, 지금 경륜 선수들이 노조에 가입돼 있지요. 노조가 지금 2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노조가 있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1노조, 2노조 해서 프로경륜 선수들의 노조가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김승수 위원** 노조 가운데 일단 규모가 큰 노조가 있고 작은 노조가 있고 그런데 노조 간의 갈등 이야기가 지금 제보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경주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반칙을 한다고 그럴까요, 이럴 때도 보면 규모가 큰 노조에 비해서 규모가 작은 노조가 징계나 처분에 있어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또 그리고 대체로 재작년인가 임금 협상을 하면서 성적 상금 시상체제가 하후상박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오히려 보면 선수 간의 경기력 향상이나 경주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봐 주시기를 일단 부탁을 드립니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조금만, 1분만 더 주시면……

○**위원장 전재수** 예.

○**김승수 위원** 정진완 장애인체육회장님, 지금 패럴림픽에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일반 엘리트 체육선수들에 비해서 장애 체육인들은 사실은 실업팀에 가기도 굉장히 어렵고 직장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많지 않지 않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러다 보니까 패럴림픽에 참여, 참석했던 그런 선수들조차도 보면 뚜렷한 직장이 없어서 개인 자격으로 참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보수는 말할 것도 없고 4 대 보험 같은 이런 혜택이 전혀 없어 가지고 굉장히 선수생활 이어 가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대책이나 해결방안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저희가 실업팀 창단 지원금을 통해서 실업팀을 창단할 수 있도록 매년 시도하고 시군구에 이렇게 협조 요청을 하고 있고요. 또 기업하고도 이렇게, 민간기업들에게 장애인 의무고용을 하는 기업들에게 실업팀을 창단하면 저희가 창단

지원금을 4년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그래도 실업팀 창단이 좀 많이 안 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김승수 위원** 특히 패럴림픽에 참석까지 해서 정말 메달까지 딸 수 있는 말 그대로 지금, 이번에 저도 패럴림픽 굉장히 놀랐습니다마는 그런 일반 엘리트 올림픽에 비교해서도 손색 없을 정도로 많은 외국의 관중들이라든지 또 선수들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습니다.

○**김승수 위원** 그런 측면에서 봤을 국위선양에도 굉장히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선수들이 그래도 보면 생계 걱정 없이 또는 운동에 최소한 걱정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실업팀 창설 이런 데까지는 힘들다 할 경우에라도 보면 개인적으로 그런 걱정 없이 운동할 수 있는 다각적인 노력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수 위원** 제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도 좀 청겨 보시고요.

○**대한장애인체육회장 정진완**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형배 위원** 띄워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이기홍 회장님, 아까 몇 분 위원님들께서 문제 제기를 하셨는데 저것 보면 그러니까 올해 1월에 하셨던 2024 체육인대회요,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로부터 VIP의 참석을 통보받아 인원 및 장소 등 규모를 대폭 확대해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문체부에 수신자를 장관으로 해서 공문을 보내셨더라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민형배 위원** 저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왜 무슨 이유로 이걸 참석하겠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게 2024 동계유스올림픽이 그때 개막이 다가왔습니다.

○**민형배 위원** 누구였습니까? 혹시 말씀하실 수 있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것은 지금……

○**민형배 위원** 그런데 참석하겠다는 대통령실에서 왔는데 불참은 왜 문체부로부터 받으셨지요? 참석하겠다는 대통령실에서 왔는데 참석하지 않겠다는 문체부에서 받으셨다고요. 아까 논쟁이 된 게, 지금 논란이 된 게 문체부의 요청으로 대회를 키웠다, 문체부에서는 우리는 그런 적 없다 그랬잖아요. 어느 쪽이 맞습니까?

여기 보면 대통령실에서 참석하겠다는 연락을 받으셨고 문체부로부터 참석하지 않겠다는 연락을 받으셨고.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게 지금 좀 불분명합니다. 두 군데 다 같이, 대통령실에서도 말씀 계셨었고 문화체육관광부도 있었는데……

○**민형배 위원** 그러면 문체부에서 대회를 키워라라고 요구한 게 아니네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체육회가 생긴 이래로 이런 행사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1만 5000명, 원래 1만 2000명 계획했는데 참석자가……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늘어난 겁니다.

○민형배 위원 늘어나 가지고 1만 5000명이 됐다면서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된 거냐고요, 이 대회가, 왜 무슨 이유로?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유는 2024년 동계올림픽 개막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전국적인 관심도도 올라간 상태고……

○민형배 위원 아니, 그전에는 그런 행사가 없었습니까? 있었지요. 그런데도 안 했잖아요, 이렇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닙니다. 그전에는 이런 식으로는……

○민형배 위원 회장님, 왜 이번에만 1만 5000명이나 되는 체육인대회를 했는데 그것을 어디서 요청해서 왜 하게 됐는지…… 자체적인 건 아니라면서요. 문체부 아니면 대통령 아니에요. 무슨 이유로 그랬냐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때 IOC 위원장님도 오시고……

○민형배 위원 그때 정치인들 누구누구 오셨습니까? VIP는 안 왔는데, 당시 대통령은 참석하지 않고 정치인들은 누구누구 왔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정치인들은 안 오셨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무도 안 왔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안 오셨습니다. IOC 위원장님만 오셨습니다.

○민형배 위원 그러면 완전히 체육인들끼리만 하신 거예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민형배 위원 그런데 왜 어디서 시작됐는지 오늘 지금 논란이 세계 됐는데, 존경하는 다른 위원님들도 다 확인해 보시니까 논란이 세계 됐고. 여기도 보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문체부로부터 불참을 통보받은 걸로 이 공문에는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느 게 진실입니까, 이런 행사를 하자고 한 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선후가 지금 불분명합니다.

○민형배 위원 왜 그러십니까, 이게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닙니다. 그건 없습니다. 단지 2024 동계올림픽 홍보……

○민형배 위원 총선 앞두고 총동원령 내린 것 아닙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총선…… 이것 1월 달인데요.

○민형배 위원 그러니까요. 딱 그때가 선거운동하기 좋은 때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동계올림픽 때문에 한 겁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모양은 그렇게 하셨는데……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 제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치하시는 분들은 아무도 안 오셨습니다. 초청도 안 했습니다. IOC 관계자들만 왔습니다.

○민형배 위원 아니, 대통령이 오면 그게 여당하고 연결이 바로 되는 건데 그걸 그렇게 아무 이유 없었다고 그러십니까?

1만 5000명이나 모였다니까요. 전에는 많이 모이면 3000명이었는데, 사상초유의 일이잖아요, 지금. 이제 오셔 가지고…… 아까는 분명히 문체부에서 그렇게 많이 모으라고 했다 그러셔 놓고 문체부에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지금은 또 헷갈린다 그러시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자꾸 회장님의 뭐지, 뭐지 하고…… 얼른 말씀해 보세요, 얼른.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실체가 그렇습니다.

○**민형배 위원** 허, 참……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1만 5000명이 모여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러니까 동계올림픽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원인이.

○**민형배 위원** 아까는 대통령 온다고 문체부에서 많이 모으라고 그러셨다고 했잖아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동계올림픽 홍보도 하고 IOC 위원장님이 오시니까 같이 동반해서 오시려고 했던 겁니다.

○**민형배 위원** 하여튼 뭔가 정치적인 의미를 담은 행사를 해 보려고 하셨는데 실패한 거네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닙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오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오경 위원** 이기홍 회장님, 이정우 국장님, 지금 우리 체육계에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최저학력제 시행으로 인해서 지금 학교, 학생, 학부모님들은 모두 혼란을 겪고 있는 거 알고 계시지요? 문체부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아이들 경기 출전시키려고 전국적으로 행정소송으로 학부모님들께서 이중고를 겪고 있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최근에 서울행정법원이 학생 선수 대상 경기대회 참가 불허 처분 효력정지 결정 내린 거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부모님들은 이것 행정소송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건 제도개선 필요하다라고 보는데 문체부 언제까지 대한체육회, 교육부에 끌려다닐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일단 교육부에는 저희 의견을 분명히 전달했고요. 지금 발의돼 있는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서 그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저는 반드시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개선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이기홍 회장님, 현장에서 다른 데를 추진할 게 아니라 지금 가장 우선적인 것은 최저학력제 폐지 부분입니다. 정신 좀 바짝 차려 주십시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임오경 위원** (영상자료를 보며)

올해가 인천아시안게임 10주년입니다.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개막식이 열린 아시아드주 경기장이 10년간 총 460억 원의 시설 유지 예산이 집행되었으나 고작 202일 사용해서 가동률이 5%에 불과합니다. 이거 왜 이런 상황이 생겼지요?

문체부 알고 있어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리고 인천아시안게임 당시 태권도 경기장으로 활용되었던 강화고인돌 체육관의 경우 623억 원을 들여서 공익형 경기장으로 건설되었는데 지금 이거 어떻게 사

용되고, 알고 계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그 것은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현재 일반인을 받지 않고 예능 프로로 지금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이것 철저한 검증이 좀 필요한 것 같고요.

서울시가 2030년 서울하계올림픽 유치를 추진 중입니다.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런데 유치도 중요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일단 현재 지금 적합한 경기장 시설이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체계적이고 현실적인 사후관리방안 수립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천시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202일밖에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생활체육 인구가 늘어나면서 보는 스포츠에서 참여하는 스포츠인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지역별로 시설이 없어서 그 만원 고충으로 단체장이며 공무원들, 정치인들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항상 문체부에도 이런 지적사항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인천 같은 경우는 10주년이 되었는데 이런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체부는 지자체들의 국제 스포츠 이벤트 유치 신청을 할 때 철저한 사후관리 계획이 없을 시 국비 지원 자체를 제한해 주고 주기적으로 사후관리 실태를 파악해서 투입된 건설비용도 환수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임오경 위원 또한 이제부터라도 스포츠시설 신축·증축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스포츠문화복합시설을 짓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 어떠세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저희도 그런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임오경 위원 반드시 정부는 철저한 사후관리계획 없이 유치하는, 국제 이벤트 유치는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국제 이벤트를 준비한다면 반드시 사후계획 관련된 부분부터 철저하게 평가조항 세분화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그렇게 시행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반드시 세분화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평가조항부터 좀 개선해 주시고요.

○문화체육관광부체육국장 이정우 예.

○임오경 위원 앉아 주셔도 됩니다.

공단 이사장님께 질의할게요.

최근에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2021년 10월 강원도 센추리21CC에서 한 고객이 일행의 타구에 눈을 맞고 실명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들어 보셨습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들어 봤습니다.

○임오경 위원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골프장 코스는 다른 데와는 달리 카트길도 타석 앞에 있고 안전구역 및 안전망도 없는 매우 위험한 코스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공단에서 갑자기

골프장 변경을 해서, 생활스포츠지도자 자격검정 및 연수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골프장으로 갑자기 바뀌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위원님, 지금 생활체육지도자 실기·구술 이 부분은 저희 공단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체육회와 골프협회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다만 저희 공단을 이야기하시는 부분은 생활체육지도자 실기 장소가 저희 체육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정선의 에콜리안 골프장에서 여러 해 동안 하다가 마침 이 사고가 난 센추리21로 바뀌어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체육회와 골프협회에 저희들이 한번 잘 문의해서 왜 그쪽에서 하는지, 다른 장소로 바꿀 수는 없는지 파악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최근 연간 3500명 이상의 응시자가 이 코스에서 실기검정을 보고 있고요. 대부분의 신청자들이 한두 차례의 연습 라운딩까지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연간 700~1만 번의 사고 위험에 노출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래 검정시험 골프장은 지금 이사장님이 말한 것처럼 정선 에콜리안CC였어요. 그런데 2021년부터 센추리21CC로 바뀝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위험도가 가장……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저희 공단에서 바꾼 것이 아니고요, 실기·구술 장소 이 부분은……

○임오경 위원 생활스포츠지도사 이것 관리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전체 관리는 저희가 합니다마는, 필기 시험은 저희 공단에서 하고요.

○임오경 위원 그러니까요. 관리는 하고 있잖아요?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철저하게 필요하다라고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그런데 여기서 심각한 건 뭐냐 하면 연평균 240명 수준이었던 합격자 수가 시험장이 바뀐 2021년부터 750명, 3배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아이러니하게 각종 부정비리, 인권침해 등으로 인해서 자격을 잃는 생활스포츠지도자 수가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 또한 철저하게 좀 검증해 주십시오.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조현재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오경 위원 검증하셔서 종감 때 저희 의원실로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재추가질의 마지막 질의 순서로 박정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하 위원 지금 한 11시 반 지나고 있는데 그래도 회장님께서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것 체육회 직원들이 다 보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래도 부끄럽지 않게, 직원들이 자괴감 갖지 않게 회장님 얘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좀 전에 저한테 주신 공문, 작년 10월 24일 발생한 대한체육회 공문 이것 말씀하시는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제가 하나씩 하나씩 따져 여쭐까요, 아니면 회장님 솔직하게 다 말씀 주실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여쭤보시면 제가……

○**박정하 위원** 제가 물을까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이 부분의 어느 부분에 회장님이 입후보한 그 세 후보의 문제가 고발되지 않았다고 지정된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박정하 위원** 그러면 그것부터 정리합시다.

작년 10월 24일 날, 국감 날 테니스협회장에 입후보한 세 후보가 고발됐다는 사실이…… 이때 당시 고발이 안 됐다고 인지를 하신 거예요, 고발됐다고 인지하신 거예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고발이 됐다고 생각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고발이 됐다고 그때는 인지를 하셨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그러면 좀 전의 답변하고 또 다르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요, 고발이 안 된 걸로 알았는데…… 아니, 고발이 된 걸로 알았는데……

○**박정하 위원** 고발이 됐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고발이 된 걸로 알았는데 오늘 와서 보니까……

○**박정하 위원** 이제 와서 보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오늘 와서 그걸 정확히 보니까……

○**박정하 위원** 아니, 그런데 여기 어느……

좋아요, 그러면 정리할게요.

아까 앞에 답변 주신 것은 왔다 갔다 하고 고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헷갈렸다 치자, 그리고 제가 억지스럽게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지만 순간 순간을 또 거짓으로 모면하려고 했다 치자, 그건 넘어갑시다.

그러면 이 공문의 어느 부분을 보고 회장님은 당시에 이 사람들이 고발되지 않았다고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어느 부분이?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때 당시에 테니스연맹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회자됐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그것 말고요. 그것 말고 국감에서 이렇게 답변하셨잖아요, 이 공문이 발생하던 날 국감에서 ‘지금 세 분의 회장님들이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회장 선거 하면 안 된다’라고 답변하셨으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이 공문 좀 띄워 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면)

제가 이미 이 공문은 다 갖고 있었어요. 다 보고 있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유를 들어서 했는데 첫째, 둘째는 제쳐 놓고 마지막 여기 어떻게 돼 있느냐면 스포츠윤리

센터에서는 귀 회 관련한 각종 조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선거하지 말아라, 중단해라…… 그날 국감에서는 ‘세 후보가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돼 있으니까 선거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어디에, 여기 이 공문 어느 부분에 회장님이 이 사람들이, 이분들이 고발되지 않았다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뭘 갖고 유추를 하라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요 제가 이 세 가지 사안이 혼동돼 가지고 착각을 하고……

○**박정하 위원** 아니, 그러면 다시 여쭐게요.

분명하게 10월 24일 당시에 세 후보가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된 걸로 알고 답변을 하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이때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이때는 고발된 걸로 알고?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고발이 된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면 고발되지 않았다는 걸 언제 인지하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오늘 알았습니다.

○**박정하 위원** 오늘?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정말로?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오늘 아까……

○**박정하 위원** 지금부터 중요해요.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내일모레 종합감사 거치고 위증 여부 판단할 때 정리되는 거예요. 오늘 알았기 때문에 이 이후에 있었던 2023년 11월, 금년 2월 테니스 관계자들하고 간담회에서 여전히…… ‘세 사람 다 그러면 스포츠윤리센터에서 조사가 끝나면 바로 경찰이나 검찰로 이첩될 것입니다’ 이건 11월 발언이에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2월 발언에 ‘이건 어쨌든 거기서 조사 결과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어떤 분이 ‘이미 12월에 조사 안 되고 있다고 통보해 줬다’ 그러니까 어쨌든 조사가 되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몰랐다는 거예요.

자, 확인합니다.

2023년 10월 24일 날부터 2023년 11월 첫 발언 있을 때까지 이 세 후보가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이 안 됐다라는 보고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못 받았습니다.

○**박정하 위원** 정말로? 진짜로?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확실히 안 받으셨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받았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는 안 받은 것으로 지금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위원 잘 기억해 보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 그러니까요 위원님……

○박정하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 사이에 이 세 분이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되지 않아서 회장선거를 직권으로 중단시킨 건 잘못될 수 있습니라는 보고를 받으셨나요, 안 받으셨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런 논란은 있었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논란 말고. 이것 논란 괜찮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위원님, 잠깐만요.

○박정하 위원 회장님의 그런 부분을 보고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이게요, 제가 잠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쉽게 해 보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때 당시 테니스연맹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어요, 그전부터.

○박정하 위원 그것은……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잠깐만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혼란이 있었는데 회장선거를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대의원으로 들어가서 투표에 참여해야 될……

○박정하 위원 됐어요, 그만, 그만, 그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종목단체를 선거인단에서 배제했던 겁니다.

○박정하 위원 회장님, 그러지 말고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 문제하고 윤리센터에 또 우리가 신고한 것하고 국회의 고발에 의해서 감사원에 고발조치가 된 것하고 이 세 가지가 혼선이 돼 가지고 그래서 착각이 일어난 겁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자꾸 돌아가지 말고.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잖아요. 다 필요 없고 세 분의 후보가 윤리센터에 고발됐는지 안 됐는지 했는데, 고발 안 된 걸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고 여쭙는데 왜 자꾸 그렇게 뻥뻥 돌아가고 오늘……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오늘 알았습니다. 오늘 정확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마지막에 제가 여쭙잖아요. 작년 10월 24일부터 11월 간담회 할 때 사이에 직원으로부터 아니면 어디서부터 그것 아니다, 고발되지 않았다라는 보고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는……

○박정하 위원 전혀 안 받았다?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 정확히…… 왜냐하면 이 단체에 대해서……

○박정하 위원 확실히 안 받았다? 분명히 해 주세요. 중요한 부분이에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러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말들이 너무 많아 가지고……

○박정하 위원 아니, 회장님의 보고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그것만 확인해 보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것은 지금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맞다 틀리다, 여러 번호인…… 많은 얘기들이 오고 갔기 때문에……

○**박정하 위원** 제가 질의 마무리하겠습니다만 정리하는 동안이라도 직원들 배석해 계신 분들 있으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정확하게 한번 보고해 달라고 해 주세요.

회장님은 그 중간 지점에 보고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고, 나중에 한번 봅시다.

더 하실 것 없고요. 저도 뭐 더 주장하지 않을게요, 그것은 객관적인 조사 사실로 나올 테니까. 그때 만약에 보고받았으면, 그런 사실이 있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보고를, 지금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세 가지 사안이 혼재돼 가지고……

○**박정하 위원** 아니, 그렇게 말고 말씀……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걸 지금 단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없다고 하잖아요.

○**박정하 위원**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잖아요. 딱 하나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세 후보가 스포츠윤리센터에 고발이 돼서 조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인지를 언제 보고를, 그런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말씀 주시면 돼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보고가 아니라 오늘 정확하게 과학을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그 사이에, 오늘은 그렇게 제가 받아들일게요. 그런데 그 사이에 보고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만……

안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 정확하게 기억이 없습니다.

○**박정하 위원** 왜 또 기억이…… 좀 전에는 아니라면서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닙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박정하 위원** 회장님 끝까지 거짓말하네, 끝까지.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거짓말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회장님 이것에 대해서 보고받았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 제가 지금 다시 한번 말씀……

○**박정하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보고받은 게 객관적인 사실로 인정이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는 지금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해 주세요. 기억을……

○**박정하 위원** 객관적인 사실로 밝혀지면 회장님이 거짓말했다고 24일 날 확인하시거나 다음 업무보고 때 얘기하시고.

저 같으면 부끄러워서라도 체육회장직 못 하겠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아니, 하여튼 뭐……

○**박정하 위원** 그리고 얼마 전에 직원들하고 타운홀 미팅했지요? 체육회 직원들하고 타운홀 미팅하셨지요? 이것은 10월 달에 있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그것도 기억 안 나세요?

이것은 다음에 여쭐 테니까 사실관계만 확인해 주세요. 최근에 있었던 일이에요, 10월 달인가. 연임에 대해서 물어보면서 ‘정부와 힘 겨루기를 왜 계속 하십니까’라는 노조 직

원들의 얘기에 ‘재임하는 동안 두 사람을 후임으로 하려고 준비했었다. 지금은 연임, 뭐라고 얘기할 단계 아니다’ 이런 말씀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 얘기 했습니다.

○**박정하 위원** 했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그다음에 인건비, 특보, 지금 저희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유화하면서 여러 사람들 갖다가 방패로 쓴다라는 얘기에 ‘직원들을 위해 지금 구조를 바꾸려 하고 있다. 직원 인건비 자부담 10%에 상응하는 10억 원을 받은바 있지만 문체부에서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답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운영비를 얘기한 겁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건비를 받기로 했는데 문체부에서 주지 않고 있다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운영비를 얘기한 겁니다, 운영비 10억 원.

○**박정하 위원** 직원 인건비 자부담 10%에 상응하는 10억 원…… 그래요, 거기까지는 인정할게요. 이런 말씀을 하셨다 이거지요, 문체부에서 안 주고 있다고?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이 간담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회장님을 그동안 너무나 존경해 왔던 직원이 이런 글을 올려요. 첫 번째 질의였던 예산 감축 문제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오늘 타운홀 미팅 조졌다네. 첫 번째 질의부터 잡설만 늘어놓을 뿐 어떠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지도 못했다. 문체부와의 갈등으로 직원이 힘들다 했더니 뭐? 넘어야 할 산이라고? 일개 공공기관인 체육회가 정부부처를 왜 넘어서야 하고 그것을 직원들한테 앞세워서 시키냐’ 등등등, ‘특별보좌관 관련 질문이 이해가 안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회피하는 건지 싶었다’, 결과적으로 ‘선거 나오지 마라. 진짜 안 보고 싶다. 그렇게 국가스포츠위원회 만들고 체육대통령 하고 싶으면 정부 가서 문체부장관이나 하지 왜 대한체육회장 하고 계실까? 우리가 8년 동안 당신 보필했으면 많이 했다. 더 이상 애먼 직원들 고생 그만 시키고 이제 저 멀리 가시라’, 이런 글 봤어요, 안 봤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못 봤습니다.

○**박정하 위원** 느낀 점이 어때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생각은 다 다양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요?

9월 23일부터 24일까지 데일리안이 의뢰해서 이기홍 회장님 3선 연임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물어봤더니 부적절하다라는 응답이 70%에 달합니다, 지역별 연령별 모두 다 통틀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순간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냥 넘어가려고 거짓 말하면서, 앞서 죽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조직을 사유화하고 체육회 수장인지 체육대통령인지, 정치 이렇게 저렇게 영향을 미치려고 하시면서 지금까지 오셨는데 체육회장 자격 있다고 생각하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하 위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지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자격 있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지만 없다라고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박정하 위원** 아니,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자, 3선 해 보시렵니까, 안 하시렵니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것은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조만간에 제가 결정을 할 겁니다.

○**박정하 위원** 조만간 언제쯤이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뭐 곧하게 될 겁니다.

○**박정하 위원** 그래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하여튼 내일모레 종감에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볼 때는 부끄러워요. 그러지 마시고, 직원들한테……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그것은 여러 판단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박정하 위원** 직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수장이 되기를……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지금 대한체육회는 체육회 직원만 움직이는 조직이 아닙니다.

○**박정하 위원** 하여튼 직원들한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수장이 되시기를 좀 부탁드리고……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하 위원** 오늘 하셨던 발언을 잘 복기해 보시고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보시고, 내일모레 혹여 최종 결론 내기 전이라도 잘못 말씀하신 부분이 있으면 그때 사실대로 말씀 주세요.

○**대한체육회장 이기홍** 예.

○**박정하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재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재추가질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한체육회,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6개 공공기관, 유관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지적 및 고견을 주셨습니다.

먼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대한 후원 관련 문제의 개선 필요성 및 대한축구협회의 감독 선임 관련 규정 개정 필요성 등 지난 9월 현안질의에서 지적된 부분들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조속한 후속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대한체육회 관련 족구협회의 기부금 대납 의혹 및 임원의 겸직 미신고 등 산하 종목단체에 대한 정기감사가 부실하다는 지적 및 인건비 과다 편성, 평창동계훈련센터 조성을 위한 대출 등 방만한 예산집행에 대한 질의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장애인체육회의 용역 계약상 이해충돌 소지, 대한체육회의 대한테尼斯협회 관리단체 지정의 정당성 문제, 대한체육회장선거 시 범죄경력 및 세금체납 여부 등 검증제도 미비, 파리올림픽 코리아하우스 운영을 위한 과도한 임차료 집행, 대기업의 대한축구협회 사유화 의혹 등에 대한 질의가 있었으며.

장애인 국가대표 코치 대우 미흡 및 선수촌 의료 지원 미흡 등 비장애인 전문체육과의

차별 시정 필요성, 스포츠윤리센터 기능의 실효성 강화방안 마련, 스포츠토토 1인당 구입 한도 위반에 대한 감시체계 개선 필요성 등에 대한 다양한 정책질의도 있었습니다.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님을 비롯한 오늘 피감기관 기관장들께서는 위원님들이 감사 과정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해 주시고, 대안 등을 제시한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정책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김윤덕 위원님, 박정하 위원님, 김승수 위원님, 민형배 위원님, 조계원 위원님, 박수현 위원님, 이기현 위원님, 임오경 위원님으로부터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해당 기관은 답변서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일주일 이내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오늘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감사에서 임오경 위원님께서 정책자료집을 배포하셨습니다. 자료집을 내주신 위원님께 감사와 박수를 보냅니다.

해당 기관들은 자료집 내용을 잘 살펴 주시고 향후 정책 수립 과정에서 적극 활용해 주십시오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대한체육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등 6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0월 24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가유산청 등 감사 대상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기홍 대한체육회 회장님을 비롯한 피감기관의 기관장 등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보좌진 여러분, 수석전문위원과 위원회 직원 여러분, 속기·경위 및 국회방송 직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23시44분 감사종료)

○출석 감사위원(16인)

강유정 김승수 김윤덕 김재원 민형배 박수현 박정하 배현진 신통욱 양문석
이기현 임오경 전재수 정연옥 조계원 진종오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김원모

전문위원 전완희

입법심의관 김충섭

○피감사기관 참석자

대한체육회

회장 이기홍

사무총장 윤성욱

사무부총장 김종수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조현재
전무이사 박용철

대한장애인체육회

회장 정진완

사무총장 양충연

태권도진홍재단

이사장 김중현

사무총장 이종갑

한국체육산업개발(주)

대표이사 신치용

스포츠윤리센터

이사장 박지영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 이정우

체육협력관 송윤석

○출석 증인

김민수(충청북도체육회 사무국장)

김병철(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위원장)

김종민(대한킥복싱협회 회장)

이민규(대한사격연맹 차장)

장재근(진천선수촌 촌장)

홍기용(대한민국체육회 회장)

김택규(대한배드민턴협회 회장)

민경국(스포츠에이전시 대표)

정창훈(대한수영연맹 회장)

○출석 참고인

강신준(전)대한킥복싱협회 회장)

손중철(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

오주영(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주원홍(아시아테니스연맹 부회장)

최문철(학원 강사)